



캐나다 가을 추천여행코스 80개의 추천 일정 따라, 캐나다 더 깊은 곳으로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PAID CONTENT FOR DESTINATION CANADA

CANADA

80개의 추천 일정 따라, 캐나다 더 깊은 곳으로

# 캐나다 가을 추천여행코스





# 친절한 캐나다 여행법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자 대한민국 면적의 약 100배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캐나다이지만 여행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되어 보다 쉽게 여정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도처럼, 캐나다에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있는데 그중 9개 주와 2개 준주의 여행을 소개합니다. 주별로 오른쪽의 다양한 테마에 맞춰 여행할 수 있는 추천여행코스가 펼쳐집니다.

각 주의 지도가 등장하는 페이지에서 추천여행코스의 목록과 루트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도 내 아이콘으로 테마를 알 수 있으며, 추천여행코스를 안내하는 페이지마다 제목 상단에 테마와 여행 소요 기간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테마만 골라 보거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필요한 정보 수집도 가능합니다. 테마는 다르나 지도상에서 인접한 추천여행코스를 결합해 나만의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취향과 방식으로 이 책을 맘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여행 중에 현지에서 만나는 캐나다인들이 친절하게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더불어 그들과의 진실한 교감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 **가을 단풍:** 동부에서는 붉은 단풍을, 서부에서는 노란 단풍을 마주하며 가을의 낭만에 빠져들니다.
- **기차 여행:** 캐나다의 드넓은 대지를 가로지르며 시시각각 다채롭게 변화하는 풍경은 기차 여행의 로망을 실현합니다.
- **추천 드라이브 코스:** 자동차를 타고 있는 내내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됩니다.

- **아웃도어 액티비티:** 골프, 러닝, 카누와 카약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야생동물 만나기:** 태고의 대자연 속에서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 **하이킹/자연 속 산책:** 가벼운 산책부터 고난도 하이킹 코스까지,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 **미식:**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는 요리에도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에 이채로운 풍미가 가득합니다.
- **오로라 감상:** 인생에서 꼭 한 번 경험해보아야 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 **웰니스 체험:** 심신의 균형을 찾아가며 건강한 삶의 여정을 도모합니다.

**+ 이색 숙소:** 단순히 머무르는 것 이상으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숙소를 인접한 추천여행코스에 소개합니다.

## 여행 기본 정보

###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비자

한국 국적의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에 입국 혹은 경유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서(eTA)를 받아야 한다. 신청 비용은 C\$7. eTA는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유효하다. [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tps://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

### 시차

캐나다는 전 세계 24개의 표준 시간대 중 6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다. 동부와 서부의 가장자리 지역 간 시차는 4시간 30분이다.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DST)은 대부분 지역에서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시행된다.

### 언어

영어와 불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 전압

캐나다의 전압은 우리나라와 다른 110V이므로 변압 기능이 있는 트래블 어댑터가 필요하다.

### 전화

캐나다의 국가번호는 '1'로 미국과 동일하다.

### 유용한 웹사이트

- 캐나다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keepexploring.kr](https://keepexploring.kr)
- 캐나다관광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canadawow](https://blog.naver.com/canadawow)
- 캐나다관광청 인스타그램 [instagram.com/explorecanada\\_kr](https://instagram.com/explorecanada_kr)

**발행일** 2025년 3월 25일

**발행처** 캐나다관광청 [keepexploring.kr](https://keepexploring.kr)

(주)에이저커뮤니케이션즈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natgeokorea.com/traveler](https://natgeokorea.com/traveler)

**기획** 캐나다관광청

**제작** (주)에이저커뮤니케이션즈

이 책의 모든 저작권은 캐나다관광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에 있습니다. 사진 서면 등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캐나다관광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은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정보 혹은 사용 중 발생한 불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PAID CONTENT

**이 책은 유료 콘텐츠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한국판 또는 해당 편집부의 견해가 반드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 캐나다의 가을은 다채롭고 이채롭다!

캐나다의 서부는 침엽수임에도 황금빛으로 물드는 라치larch가, 동부는 무엇보다 붉은 단풍이 눈에 띄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대서양 연안까지 펼쳐지는 단풍 숲은 여행의 즐거움에 시각적 만족까지 더해준다. 북부의 툰드라 지대에서 자라는 이끼류와 키 작은 나무들이 붉게 물드는 모습 역시 이국적이며 가을만의 매력을 선사한다. 그 아름다움은 도시에서도 느낄 수 있다.



### 도심 속 산책, 2일 코스

## 활기찬 밴쿠버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의 대표 도시이다. 자연과 도시의 매력에 공존하는 밴쿠버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숲과 해변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며 비 오는 날에도 운치 있다.

#### DAY 1 대자연 속 건강한 활력의 도시

✕ 인천-밴쿠버  
그레이 라인 웨스트코스트 사이트시잉 Gray Line Westcoast Sightseeing의 흡은흡오프 Hop-on-hop-off 투어로 하루를 시작한다. 파크 루트 Park Route를 선택하면 밴쿠버의 명소 20곳에서 자유롭게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으며, 현지 가이드의 전문 해설도 들을 수 있다.

밴쿠버 미식의 중심지로 300개 이상의 가게가 모여 있는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는 연중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현지 장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므로 갤러리, 스튜디오, 공방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좋다. 이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 있는 인류학 박물관 Museum of Anthropology에서 캐나다 북서 해안을 터전으로 삼은 선주민들의 다채로운 예술품을 감상하며 그 문화를 경험해본다. 저녁에는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인 개스타운 Gastown을 둘러본다. 이곳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포비든 밴쿠버 Forbidden Vancouver의 투어에 참여해 도시의 흥미로운 초창기 역사를 알아보길 권한다. 투어가 끝난 후에는 세련된 라바투아 레스토랑 L'Abattoir Restaurant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며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한다.

#### DAY 2 현지인처럼 보내는 하루

아침에는 도심 속 오아시스인 스탠리 파크 Stanley Park로 향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 사이클 시티 투어스 Cycle City Tours의 스탠리 파크 투어에 참여하면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공원을 깊이 있게 탐방할 수 있다. 투어가 끝난 뒤에도 공원에 더 머물며 시간을 보내도 좋다. 이후 스팀웍스 브루잉 컴퍼니 Steamworks Brewing Company에서 에너지를 보충한다. 증기 동력을 이용해 직접 양조한 다양한 수제 맥주와 푸짐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까운 캐나다 플레이스 Canada

Place로 걸어가 플라이오버 캐나다 FlyOver Canada를 경험해본다. 움직이는 좌석과 바람과 안개, 향기 효과가 결합된 4D 체험을 통해 마치 캐나다 전역을 하늘에서 나는 듯이 몰입하게 된다. 또는 인근의 롭슨 스트리트 Robson Street와 버라드 스트리트 Burrard Street 교차로까지 산책하며 쇼핑을 즐기는 것도 좋다. 저녁에는 과거 참고가 있었으나 지금은 세련된 부티크와 바,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예일타운 Yaletown을 구경한다. 저녁 식사는 훌륭한 메뉴와 함께 도시에서 손꼽히는 루프톱 전망을 가진 더 케그 스테이크하우스 플러스 바 The Keg Steakhouse + Bar에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More Info. 단풍은 여기서**  
👤 스탠리 파크의 10km에 달하는 해안 산책로에서 화려한 단풍을 경험할 수 있다. 🗓 매년 9월 말 밴쿠버 국제 영화제가 열리며, 다양한 캐나다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 DAY 1 올드 몬트리올 탐험

✕ 인천-몬트리올  
옆서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올드 몬트리올 Old Montréal의 아름다운 자갈길을 거닐고 세인트로렌스 강 St. Lawrence River를 산책한다. 토미 카페 Tommy Café나 크루 컬렉티브 앤 카페 Crew Collective & Café에서 커피 한잔과 갓 구운 크루아상을 즐기고 인근 노트르담 대성당의 건축미도 감상하길 권한다.

이후 감각적인 디자이너 스킵과 근사한 아트 갤러리 등이 가득한 생폴 스트리트 Saint-Paul Street로 향한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관람차인 그랑 루 드 몬트리올 Grande Roue de Montréal을 타고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한다. 아틀리에 앤 사베르 요리학교 Ateliers & Saveurs cooking school의 쿠킹 클래스를 예약하면 가을 제철 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Stay. 올드 몬트리올의 추천 호텔**  
🏨 호텔 윌리엄 그레이 Hotel William Gray hotelwilliamgray.com  
🏨 호텔 고티 Hotel Gault hotelgault.com  
🏨 호텔 플라스 다름 Hotel Place d'Armes hotelplacedarmes.com

#### DAY 2 감각적인 도시

몬트리올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도시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총 32km에 달하는 통로를 통해 센터 이튼 Centre Eaton, 플라스 몬트리올 트러스트 Place Montréal Trust, 쿠르 몽로열 Cours Mont-Royal, 플라스 빌 마리 Place Ville Marie, 콤플렉스 데자르댕 Complexe Desjardins 같은 주요 쇼핑몰로 연결되므로 맘껏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비 오는 날에는 몬트리올 미술관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맥코드 스튜어트 박물관 McCord Stewart Museum, 현대미술관 Musée d'art contemporain 에서 전시를 감상한다.

오후에는 몬트리올의 남서부 베르딩 Verdun 지역의 근사한 거리로 알려져 있는 프롬나드 웰링턴 Promenade Wellington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된다. 베르딩 비치 Verdun Beach에서 내추럴 와인 한잔과 함께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기거나 팔코 Palco에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클래식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제는 라신 운하 Lachine Canal로 이동해 자전거 또는 보트를 타거나 산책을 한다. 저녁 식사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이 몰려 있는 노트르담 스트리트 웨스트 Notre-Dame Street West에서 즐기는 것이 좋다.

#### DAY 3 자연과 문화의 창조

몽로열 공원의 올스테드 트레일 Olmsted Trail은 단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근사한 길이다. 산 정상에 위치한 콩디아롱 벨베데레 Kondiaronk Belvedere까지 올라가면 몬트리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붉게 타오르는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이후 마일 엔드 Mile End 지역으로 향한다. 과거 도시 북쪽 경계로부터 '1마일 끝'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이곳은 현재 몬트리올의 문화적 중심지로 여겨진다. 마일 엔드의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다면 도보 투어가 제격이다. 몇 블록 북쪽에 위치한 리틀 이태리 Little Italy 지역의 장달롱 마켓 Jean-Talon Market에도 방문한다.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상점이 조화를 이루는 플라자 생 위베르 Plaza St-Hubert에 들러 색다른 쇼핑도 즐길 수 있다. 특별한 경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토후 TOHU에서 펼쳐지는 시적인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면 된다.

**More Info. 추천 레스토랑**  
🍴 뱅 파피옹 Vin Papillon, 조 비프 Joe Beef, 레스토랑 미농 Restaurant Mignon, 노라 그레이 Nora Gray, 칸디드 Candide, 임파스토 Impasto, 하하 Jaja, 카사방 Casavant, 메손 Mesón, 타페오 Tapeo.  
📍 몬트리올 가을 3일 여행  
mtl.org/en/experience/autumn-3-days

### 도심 속 산책, 3일 코스

## 몬트리올의 감성

몬트리올은 캐나다 동부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가을이 되면 그 매력이 절정에 이르는데,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와 주황빛과 진홍빛으로 물든 단풍 그리고 수확철의 풍성한 제철 먹거리까지, 우리의 감각을 생동하게 해준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British Columbia



### 기본 정보

대한민국 면적의 약 9배  
주도는 빅토리아, 가장 큰 도시는 밴쿠버

### 항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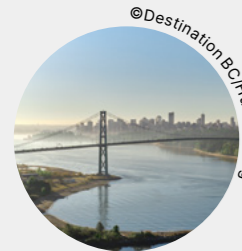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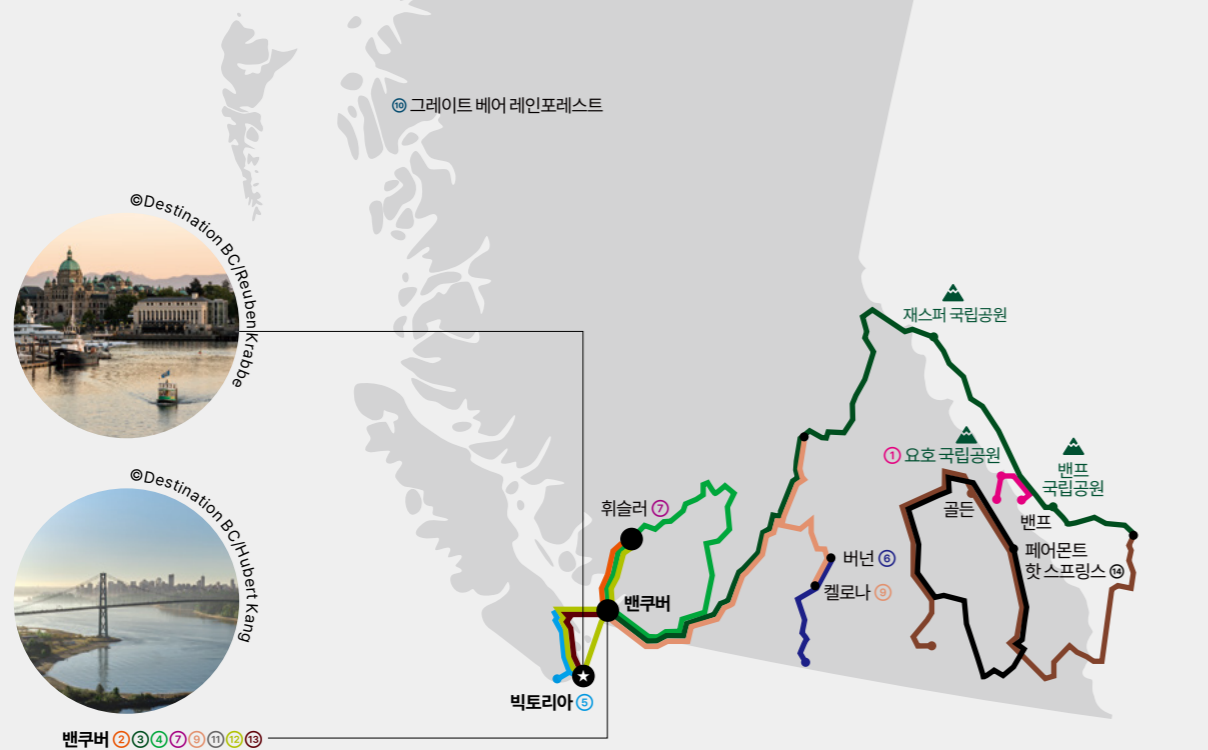
인천-밴쿠버 약 9시간 30분 소요

### 여행 정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hellobc.com  
밴쿠버 destinationvancouver.com  
빅토리아 tourismvictoria.com

### 시차

한국보다 17시간 느리다.  
(서머타임 적용 시 16시간)



### 추천여행코스

- ① 내내 대자연 속을 누비며
- ②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즐기는 하이킹
- ③ 열차 타고 로키산맥
- ④ 광활한 코스트 마운틴 서클 루트
- ⑤ 맛있는 여행, 밴쿠버 아일랜드
- ⑥ 오키나와와이너리 로드 트립
- ⑦ 밴쿠버와 휘슬러의 품미
- ⑧ 쿠틀니 로키 가을 로드 트립
- ⑨ 톰슨 오키나와의 찬란한 가을
- ⑩ 야생속 롯지
- ⑪ 밴쿠버 달리기
- ⑫ 골프 워크
- ⑬ 캐나다식 라이프스타일
- ⑭ 천연 온천 여행



쿠틀니 국립공원  
©Destination BC/Kari Medig

## 하이킹/자연 속 산책, 5일 코스

### ① 내내 대자연 속을 누비며

캐나다인 로키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알버타 주 경계를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캐나다인 로키의 서쪽으로 요호 국립공원과 쿠틀니 국립공원이 위치하며 알버타 주의 밴프 국립공원과 재스퍼 국립공원을 함께 여행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산악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로키 산맥을 돌아보는 쿠틀니 로키 골든 트라이앵글 Kootenay Rockies Golden Triangle 이 좋은 선택지가 된다.

#### DAY 1-3 캐나다스러운 모험

##### 요호 국립공원 Yoho National Park

웨스트젯 인천-캘거리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캘거리  
요호 국립공원은 1,313km<sup>2</sup> 면적에 28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광활한 국립공원에서는 하이킹, 캠핑 등 각종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9월 초까지 가을 하이킹, 오히라 호수에서 낙엽송 관찰, 낮은 고도에서의 가벼운 하이킹, 흑곰, 회색곰, 엘크, 코요테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야생동물 관찰 투어까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 Stay.

- 골든의 키링홀스리조트 [kickinghorseresort.com](http://kickinghorseresort.com)
- 필드의 추천 숙소 [field.ca/accommodations](http://field.ca/accommodations)

##### 압타 폭포 Wapta Falls

**4.8km** **1시간 15분** **▲ 난이도 하**  
압타 폭포의 왼쪽으로 이어지는 정비된 트레일 코스는 폭포를 마주보면서 걷는 자연 산책로이다. 대부분 평평하지만 중간에 내리막길이 있고 젖은 상태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스의 가장 아래 지점에 도착하면 산을 따라 좌측 길을 따라 걸어 폭포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폭포 바닥까지 내려가는 방법은 완만한 경사를

이용하거나 가파른 지형을 손으로 짚어나가는 두 가지가 있다.

##### 타카카우 폭포 트레일 Takakkaw Falls Trail

**1.6km** **33분** **▲ 난이도 중**  
트레일 러닝, 조류 관찰을 즐길 수 있는 인기 높은 트레일 코스다. 타카카우 폭포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포로 유명하다. 트레일 코스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웅장한 소리와 함께 물안개가 보이기 시작한다.

##### 에메랄드 호수 Emerald Lake

**10.8km** **3시간 15분** **▲ 난이도 중**  
에메랄드 호수는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다. 로키 산맥의 빙하 호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녹색 호수의 물빛이 아름답다. 산으로 둘러싸인 에메랄드 호수의 순환 코스와 에메랄드 분지를 돌아 호수의 수원지나 다름없는 빙하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메랄드 분지로 올라가는 구간이 가파른 편이며, 에메랄드 호수 주변을 따라 서킷 코스만 걷는 쉬운 코스도 있다.

#### DAY 4-5 경이로운 빙하와 협곡

##### 쿠틀니 국립공원 Kootenay National Park

로키 산맥에 위치한 쿠틀니 국립공원은 1,406km<sup>2</sup>로 놀라운 경치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다. 길고 좁은 지형은 빙하, 협곡, 숲이 우거진 계곡, 초원 등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93번 국도는 뾰얀 에메랄드빛 강줄기를 따라 달린다.

##### 마블 캐년 Marble Canyon

**1.4km** **30분** **▲ 난이도 하**  
로키 산맥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중 한 곳이다. 마블 캐년을 따라 걷는 트레일 코스는 짧지만, 주변 트레일 코스로 연결성이 좋아 다양한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접근성이 좋은 협곡이라 인기가 높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 플로 호수 Floe Lake

**20.3km** **7시간** **▲ 난이도 상**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미리 트레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6월에서 9월까지만 탐방이 가능하다. 코스 초반에는 강 건널목, 숲, 열린 초원을 지나가고, 플로 호수로 향하는 마지막 오르막이 가파르다. 이 가파른 코스를 통과하면 화강암 절벽에 맞닿은 빙하 호수가 나타난다. 캠핑장을 예약한다면 캠핑도 할 수 있다.

##### 스탠리 글래시어 트레일 Stanley Glacier Trail

**10.9km** **4시간** **▲ 난이도 상**  
트레일 초입부터 오르막길이 시작한다. 경사가 급한 편이라 준비가 필요하다. 개울을 건너고 새로 자라기 시작하는 숲을 지나는데 꾸준하고 고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로어 폭포와 가까운 구간은 진흙 길이라 방수가 되고 접지력이 좋은 하이킹화를 신는 것이 좋다. 바위가 많고 루프를 오르내리는 구간이 가파르기 때문에 등산 스틱도 챙겨야 한다.

## 하이킹/자연 속 산책, 5일 코스

# ②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즐기는 하이킹

우거진 온대 우림을 거닐거나 산 정상에 올라 도시와 숲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대도시에서도 언제든지 자연에 가깝게 다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이다. 이것이 브리티시컬럼비아 효과다.

### DAY 1 도시 숲 하이킹

**밴쿠버 Vancouver**  
 ✕ 인천-밴쿠버  
 산으로 둘러싸여 어디서나 쉽게 해안가에서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도시 숲 중 하나인 스탠리 파크가 자리한다. 밴쿠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하이킹이 가능한데 스탠리 파크의 바깥쪽을 따라 렌트한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 안을 다니며 호수와 숲을 살펴볼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이어져 온 선주민 문화를 담은 토템 기둥도 곳곳에 있으니 산책이 자 탐험이 될 수 있다.

### DAY 2 로컬이 사랑하는 하이킹 코스

**노스 밴쿠버 North Vancouver**  
 밴쿠버 다운타운의 북쪽에는 장엄한 노스쇼어 Northshore 산맥이 있다. 캐필라노 현수교, 그라우스 마운틴 등 밴쿠버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다.

**그라우스 그라운드 트레일 Grouse Grind Trail**  
 ⚡ 1.9km ⏱ 2시간 🏔 난이도 상  
 밴쿠버의 상징적인 트레일 코스 중 하나이다. 대자연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라우스 마운틴의 정상을 오르는 길이며, 도전적인 트레일로 난도가 높은 편이다.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있는데 트레일 헤드에서 약 30분 정도 걸어가면 첫 번째 분기점이 나온다. 만약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힘들었다면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후 세 번째 구간이 가장 가파르며 네 번째 구간 역시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주한다면 그라우스 마운틴 샬레를 향해 걸어서 갈 수 있어 하이커들은 이 난도 높은 코스에 도전한다. 그라우스 마운틴을 둘러볼 수 있는 밴쿠버만의 하이킹이다.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와야 한다.

#### More Info.

안전한 하이킹을 즐기 위한 완벽한 가이드  
[youtu.be/xkfqEhcj8KM](https://youtu.be/xkfqEhcj8KM)

#### 캐필라노 현수교 공원

**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그라우스 그라운드 트레일을 마치고 캐필라노 현수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자. 캐필라노 현수교 공원은 가을날 협곡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캐필라노 현수교, 트리톱스 어드벤처, 클리프워크다. 협곡 사이를 건너는 캐필라노 현수교는



휘슬러의 피크 투 피크 곤돌라 Peak to Peak Gondola. ©Destination BC/Blake Jorgenson

길이 137m, 높이 70m로 흔들리는 다리다. 1889년 처음 만들어진 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에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트리톱스 어드벤처는 높은 나무 위에서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어트랙션이다. 클리프워크는 캐필라노 강을 따라 절벽에 미로처럼 이어진 산책로다.

### DAY 3 더 큰 모험

**밴쿠버 Vancouver → 휘슬러 Whistler**  
 99번 고속도로, 일명 씨 투 스카이 하이웨이를 따라 휘슬러로 이동한다. 만년설이 덮인 산봉우리, 깊은 피오르가 펼쳐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이다.

#### More Info.

렌터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yvrskylynx.com](https://yvrskylynx.com)



밴쿠버의 그라우스 산. ©Destination Vancouver/Kindred & Scout



휘슬러 산 정상. ©Destination BC/Blake Jorgenson



캐필라노 현수교 공원. ©Destination Vancouver/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

### DAY 4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

**휘슬러 Whistler**  
 휘슬러는 세계적 내내 즐길 수 있는 휴양지이다. 블랙콤 Blackcomb 산과 가까워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ATV 투어,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도 만끽할 수 있다.

#### Side Trip.

휘슬러의 밤, 신비로운 계곡을 걷는 야간 산책 투어, 발레아 루미나 [vallealumina.com](https://vallealumina.com)

#### 웨지마운트 호수 Wedgemount Lake

⚡ 11.9km ⏱ 6시간 🏔 난이도 중  
 연중 내내 개방되어 언제든지 하이킹을 할 수 있다. 웨지마운트 호수는 만년설로 덮인 산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호수까지 오르는 트레일 코스는 대부분 평평한데 일부 가파른 구간도 섞여 있다. 길의 대부분이 숲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에 이르는 마지막 45분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지형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1km 구간이 난도가 가장 높으니 스틱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평평한 트레일 코스와 경사로가 적절히 구성되어 산악 스크램블을 즐기는 하이커들에게도 도전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정상에 도착하면 먼저 만년설로 덮인 산이 보이고, 이윽고 웨지마운트 호수가 펼쳐진다. 이 아름다운 호수는 수많은 하이커 모두를 품는다.

#### 치카무스 호수 Cheakamus Lake

⚡ 7.7km ⏱ 5시간 🏔 난이도 중  
 캠핑, 하이킹, 산악자전거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가리발디 주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일 코스 중 하나이다. 세계적 내내 열려 있는 트레일 코스로 고도 변화가 적당한 편이다. 게다가 표지판 안내가 상세하고 관리가 잘되어 있다. 이 코스를 따라 걸다 보면 다양한 호수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카무스 강을 따라 걷다 보면 1.5km 지점에서 헬름 크릭 트레일 Helm Creek Trail이 우측에 나타난다. 이 길에서 우회하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이어지는데 전망이 좋다. 치카무스 호수의 공터에 도착하면 해안으로 향하는 여러 출입구가 있다. 피크닉을 즐기거나 치카무스 호수와 산등성이, 빙하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다.

#### Side Trip.

헬름 크릭 트레일을 따라가면 가리발디 호수까지 이어진다.

#### 하모니 호수 Harmony Lake 트레일 & 뮤지컬 범프 트레일 Musical Bumps 트레일 & 하이 노트 High Note 트레일

⚡ 10.1km ⏱ 4시간 🏔 난이도 상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된 트레일 코스다. 휘슬러 빌리지 기슭에서 시계 방향으로 곤돌라 정상까지 이어진다. 이 트레일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부터 9월까지이다. 하이킹을 하는 내내 치카무스 호수, 블랙 터스크 The Black Tusk 절벽의 놀라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주변에서는 마멋도 자주 목격된다. 능선을 따라 로프와 체인을 사용해야 하는 구간도 재미있다. 휘슬러 피크 곤돌라 방향으로 갈라지는 지점에서는 블랙콤과 데커 Decker 산의 뒷면을 바라볼 수 있다. 경사도의

변화가 다양하며, 고산 초원의 가을 풍경과 하모니 호수의 자갈길도 통과해 자연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

#### More Info.

피크 익스프레스 곤돌라를 타고 하이 노트 트레일 정상에 올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난이도 낮은 코스도 있다.

### DAY 5 짧은 모험

**휘슬러 Whistler → 밴쿠버 Vancouver**  
 휘슬러에서 흥미로운 모험을 즐기고 밴쿠버로 돌아갈 때에는 99번 고속도로를 따라 멋진 풍광이 펼쳐지는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수도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짧은 하이킹 모험을 중간에 추가해도 좋다.

#### 짧은 하이킹 모험

새년 폭포 Shannon Falls는 단단식 폭포로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내려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이 폭포를 감상하러 가는 길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하브리치 산 Mount Habrich과 하우 사운드 Howe Sound 주변 산봉우리를 둘러볼 수 있는 씨 투 스카이 곤돌라에 탑승할 수 있다. 곤돌라의 정상에서 스타와머스 치즈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데크로 이뤄진 산책로도 있다. 스카이 파일럿 현수교, 피오르처럼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 More Info.

밴쿠버 공항 및 다운타운으로 가는 셔틀버스 [whistlershuttle.com](https://whistlershuttle.com)



치카무스 호수기 보이는 휘슬러의 하이 노트 트레일. ©Destination BC/Andrew Strain



캐나다 로키 산맥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비아레일. ©VIA Rail

## 기차 여행, 8일 코스

### ③ 열차 타고 로키 산맥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비옥한 대지를 지나 내륙 고원의 독특한 사막 지형을 거쳐 캐나다인 로키를 향해 달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선사한다. 밴쿠버에서 출발해 다음 날 재스퍼에 도착하는 비아레일을 타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재스퍼에서 레이크 루이스, 밴프, 캐나다 로키의 상징 같은 도시 여행과 함께 하이킹까지 즐길 수 있다.



비아레일 열차의 식당 밖으로 근사한 풍경이 스친다. ©VIA Rail



비아레일의 식사. ©VIA Rail

#### DAY 1 밴쿠버 도착 인천Incheon → 밴쿠버Vancouver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의 인천-밴쿠버 항공편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

**Stay.**  
 ☎ 페어몬트 워터프런트 fairmont.com/  
 waterfront-vancouver  
 ☎ 팬 퍼시픽 밴쿠버 panpacific.com

**Tour.**  
 ☎ 홀스슈 베이에서 바다 사파리 투어  
 sewellsmarina.com

#### DAY 2 기차 여행 출발 밴쿠버Vancouver → 재스퍼Jasper

비아레일은 캐나다에서 승객들에게 최초로 일등석 서비스를 제공한 열차로 고급스러운 열차 투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98년부터는 자연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비아레일에 탑승하는 것이 친환경 여행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오후 3시 탑승**  
 밴쿠버 퍼시픽 스테이션에서 비아레일에 오른다. 기차는 동북쪽 캄벨스 방향으로 이동한다. 석양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평야와 숲을 달린다.

**기차안의 식사**  
 비아레일 안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체크인 시 순서를 배정받은 대로 첫째 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야간 열차 여행의 로망을 실현하는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는 따로 순서 없이 선착순으로 식사를 한다. 만약 열차가 연착된다면 점심을 제공한다.

#### DAY 3 로키 산맥의 입구 재스퍼Jasper

재스퍼에 도착하면 숙소에 체크인한 뒤 재스퍼 타운을 둘러보며 가을로 물든 로키 산맥을 둘러본다. 캐나다는 지역별로 로컬 브루어리가 많은데 그중 재스퍼 브루잉 컴퍼니에 들러 재스퍼 로컬 맥주를 음미해볼 것.

#### DAY 4 로키 산맥의 호수 탐험 스피릿 아일랜드Spirit Island

재스퍼에서 첫 투어는 멀린 호수Maligne lake와 스피릿 아일랜드다. 멀린 호수에서 크루즈를 타고 스피릿 아일랜드에 방문할 수 있다. 멀린 캐년Maligne Canyon, 애써베스카Athabasca 폭포, 피라미드 호수, 메디슨 호수 등 절경을 둘러볼 수 있다.

**프리미엄 크루즈**  
 클래식 크루즈 외에 프리미엄 크루즈는 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스피릿 아일랜드에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핀쿠션 베이 Pincushion Bay에서 아름다운 해안가를 바라보며 느긋한 휴식을 취한 뒤, 스피릿 아일랜드 인근에서 30분간 자유 시간을 보낸다. 이 외에도 야생동물을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More Info.**  
 ☎ 재스퍼의 야생 환경을 즐기는 피크닉Peak-nic 투어는 재스퍼의 멋진 뷰와 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jasperfoodtours.com/wildfire-peak-nic  
 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를 보호구역인 재스퍼 국립공원에서 천체를 감상하며 우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알버타 주의 추천여행코스 '⑩ 신비로운 낮과 밤'(40p)을 참고하면 된다.

#### DAY 5 로키 산맥의 척추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

로키 산맥을 즐기기 위해서는 재스퍼, 레이크 루이스, 밴프 세 곳을 묶어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 로키 산맥의 척추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재스퍼에서 레이크 루이스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선독 투어 버스로 이동한다.

**선독 투어버스Sun Dog Tour Bus**  
 캐나다 로키 산맥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232km 거리에 달하는 편도 여행이다. 이 투어에서는 빙하, 거대한 폭포, 반짝이는 산악 호수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알려진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여행을 하면서 지역의 지리적 특징,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이드가 들려준다. 가이드는 모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스퍼, 레이크 루이스, 밴프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레이크 루이스까지 가는 길에 애써베스카 폭포, 위핑 월 Weeping Wall, 보우 호수Bow Lake, 크로우풋 빙하 Crowfoot Glacier 등을 관광할 수 있다.

**More Info.**  
 밴프-레이크 루이스로 향하는 선독 투어 버스는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한다. sundogtours.com/package/jasper-lake-louise-banff-tour

#### DAY 6 단풍과 만년설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

레이크 루이스는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로키 산맥의 만년설, 상록수와 단풍이 섞여 캐나다 가을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여행객을 기다린다.

**Hiking.**  
**페어뷰Fairview 전망대** 비교적 쉬운 왕복 2km 의 짧은 하이킹 코스를 따라가면 레이크 루이스를 내려다볼 수 있다.  
**페어뷰 마운틴** 어려운 난도로 낙엽송 숲과 고산 경사면을 통과한다. 고도가 1,013m 상승하며 더 높은 곳에서 레이크 루이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왕복 10.2km.  
**아그네스 호수Lake Agnes & 빅 하이브Big Hive 트레일** 아그네스 호수만 다녀오는 코스는 왕복 6.8km, 빅 하이브까지 다녀오는 코스는 10km이다. 두 개의 하이킹 코스가 하나로 묶여 있어 쉽게 하이킹을 할 수 있다. 숲이 우거져 있고, 고산지대의 바윗길을 따라 오르면 레이크 루이스 전역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도중에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다.

#### DAY 7 다양한 난이도의 하이킹 코스 밴프Banff

요호 국립공원과 에메랄드 호수를 관광하고 밴프로 이동한다. 밴프에 머물면서 다양한 하이킹 코스를 정복할 수 있다.

**Hiking.**  
**터널 마운틴** 보통 난이도로 왕복 4.8km이다. 접근성이 좋아 밴프 사람들도 좋아하는 코스다. 천천히 산을 오르며 보우 밸리, 스프레이Spray 밸리의 다양한 풍경을 여러 각도로 즐길 수 있다. 정상에 내리면 런들 Rundle 산, 설퍼Sulfur 산의 장엄한 경치를 마주하게 된다.

**미네완카 호수Lake Minnewanka의 에일머 Aylmer 전망대** 이 하이킹 코스는 난도가 높다. 왕복 23.6km로 거리가 긴 편이다. 처음에는 타원형에 가까운 미네완카 호수 둘레를 따라 걷는다. 그리고 해발고도 560m인 만큼 점차로 높아지는 전망대로 향한다. 에일머 전망대에서는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다.

**록 아일랜드Rock Isle 로드-선사인 빌리지Sunshine Village** 난이도가 쉬우면서도 고산 초원을 둘러볼 수 있는 하이킹 코스다. 왕복 3.6km로 거리도 적당하다. 선사인 빌리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알버타 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를 걸어서 건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트레일 헤드까지 이동하는 무료 셔틀버스와 곤돌라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Side Trip.**  
 ☎ 밴프에서 즐기는 사파리 투어 banfftours.com/activities/wildlife-safari

#### DAY 8 도시로 돌아가는 길 밴프Banff → 캘거리Calgary → 밴쿠버Vancouver

밴프에서 캘거리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한다. 그리고 캘거리에서 밴쿠버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오전에 캘거리를 여유롭게 둘러본 뒤 오후에 캘거리 공항으로 가 밴쿠버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DAY 1

하늘로 출발

밴쿠버Vancouver → 스퀴미시Squamish

🚗 65km

✂ 인천-밴쿠버 로드trip의 시작은 밴쿠버다. 밴쿠버에서 차를 렌트한 뒤 99번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을 시작한다. 99번 고속도로는 씨 투 스카이Sea-to-Sky 하이웨이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자연의 파노라마 감상

밴쿠버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새넨Shannon 폭포를 감상하고 8인승 케이블카인 씨 투 스카이 곤돌라를 타면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북미 최대의 화강암 기둥인 스타와머스 치프Stawamus Chief 절벽 위로 뻗은 데크인 치프 오버룩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길부터 오지 트레킹까지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도 준비되어 있다.

아웃도어의 천국 스퀴미시

스퀘미시는 아웃도어 휴양의 수도다. 가을에는 암벽등반, 트레킹, 산악자전거, 현지 강에서 급류를 타며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가이드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빌려서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헬리콥터를 타고 스퀴미시를 둘러싼 산과 빙하, 피오르를 감상하는 투어 역시 인기다.

DAY 2-3

숲과 폭포를 지나

스퀘미시Squamish → 휘슬러Whistler

🚗 59km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우뚝 솟은 산과 울창한 숲이 나타난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을색으로 물든 숲을 지나 아름다운 폭포들을 감상할 수 있다.

폭포 감상

브랜드와인Brandywine 폭포는 70m 높이의 협곡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의 웅장함이 느껴진다. 휘슬러 올림픽 공원으로 향하는 코스에는 43m 높이에서 계단식으로 물이 흐르는 알렉산더Alexander 폭포도 있다. 이곳은 겨울이 되면 폐쇄되므로 가을이아말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적기다.

선주민 문화

스퀘미시 릴와트 문화센터Squamish Lil'wat Cultural Centre에서 수천년간 이어져 온 선주민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고 있다. 스퀴미시는 릴와트 선주민의 고향이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 미술관 Audian Art Museum은 노스웨스트 선주민 예술품을 모아둔 세계 최고의 컬렉션이다.

미식 여행지, 휘슬러

휘슬러에 도착했다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차례다. 휘슬러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기 좋은 휘슬러 테이스팅 투어가 있다. 여러 레스토랑의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투어다. whistlertastingtours.com

DAY 4

중요로운 길

휘슬러Whistler → 펨버턴Pemberton →

릴루엣Lillooet 🚗 131km

선주민의 신성한 폭포

휘슬러에서 북쪽으로 20분 거리에 나이언 폭포Nairn Falls가 있다. 옥색 강물이 흐르는 60m 높이의 폭포다. 폭포까지 왕복 3km의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 한때 릴와트족이 교역로로 사용했던 곳이다.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만 방문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다.

농업 관광의 허브, 펨버턴

펨버턴에 도착하면 다양한 농장으로 구성된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펨버턴 밸리 팜 투어를 통해 8개의 친숙한 농장을 둘러보고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다. 노스 셰프 팜North Sheep Farm의 주방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먹은 뒤, 4대에 걸쳐 유기농 감자를 재배하는 헬머 유기농 농장Helmer's Organic Farm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pembertonfarmtour.com/meet-the-farms

펨버턴의 승마 투어

펨버턴 밸리를 모험적으로 즐기는 방법도 있다. 코퍼 카유즈 아웃피터스Copper Cayuse Outfitters와 함께 말을 타는 투어에 참가한다. 트레일 라이딩, 버켄헤드 오지Birkenhead backcountry, 텐퀸 호수Tenquille Lake, 리락헬 광광Li-lik-hel Gold Mine까지 야생 지대로 승마 투어를 떠날 수 있다. coppercayuseoutfitters.ca/tours

지역와이너리 투어

릴루엣의 와이너리에서는 와인 시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트 베렌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클리프 앤 고어 빈야드 같은 와이너리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다.

DAY 5-6

협곡과 온천

릴루엣Lillooet → 캐시 크릭Cache Creek →

해리스 리버 밸리Harrison River Valley 🚗 318km

마지막 날 고속도로 코스에서는 협곡 풍경이 펼쳐진다. 캐시 크릭, 스펜스 브릿지, 라이트, 보스턴 바, 해리스 리버 밸리로 이루어지는 코스는 318km로 운전하는 동안 아름다운 풍경은 기본이다.

시닉 드라이브의 절경

릴루엣에서 캐시 크릭까지 이동하는 중간에는 절경이 연달아 나타난다. 파빌리온 호수Pavillion Lake는 시간이 멈춘 듯 1만1000년에 걸쳐 형성된 희귀한 담수 산호 지층이 남아 있는 고요한 호수다. 또한 마블 캐년 국립공원Marble Canyon Provincial Park 안에 크라운 호수Crown Lake와 터콰이즈 호수Turquoise Lake 역시 편안한 적막감을 선사한다.

농장 투어

호스팅스 팜마켓Horstings Farm Market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34만m²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농장으로 과수원, 가든 센터, 팜마켓, 베이커리, 카페로 이루어져 있다. 농장에서 직접 만든 별미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프레이저 캐년

1번 고속도로로 돌아가면 이 프레이저 캐년을 통과하는 시닉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프레이저 캐년은 톨슨 강과 프레이저 강이 합류하는 위치에 있는데, 선주민은 이 지역을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 캄친Camchin 혹은 쿨신Kumsheen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에서는 협곡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프레이저 캐년의 숨은 절경

헬스 게이트Hell's Gate는 이름처럼 급류가 맹렬하게 휘몰아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에어트램이 있다. 북미에서 유일하게 하강하는 곤돌라로 협곡 가장자리에서 강변까지 약 152m를 이동한다. 또한 알렉산드라 브릿지 국립공원에서는 프레이저 캐년의 경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DAY 7

목가적인 풍경

해리스 리버 밸리Harrison River Valley →

밴쿠버Vancouver 🚗 135km

밴쿠버로 돌아가는 길에는 프레이저 밸리의 목가적인 풍경이 반긴다. 과수원, 와이너리, 꿀 농장이 이어지는 풍경은 활달한 선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숨겨진 7번 고속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7번 고속도로 역시 장관이 펼쳐진다. 이 루트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살아있는 농장 박물관, 로컬 식재료를 만든 페이스트리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부터 다양한 하이킹 코스까지 준비되어 있다. 밴쿠버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느껴진다.

추천 드라이브 코스, 7일 코스

④ 광활한 코스트 마운틴 서클 루트

온대 우림에서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코스트 마운틴 서클 루트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풍경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여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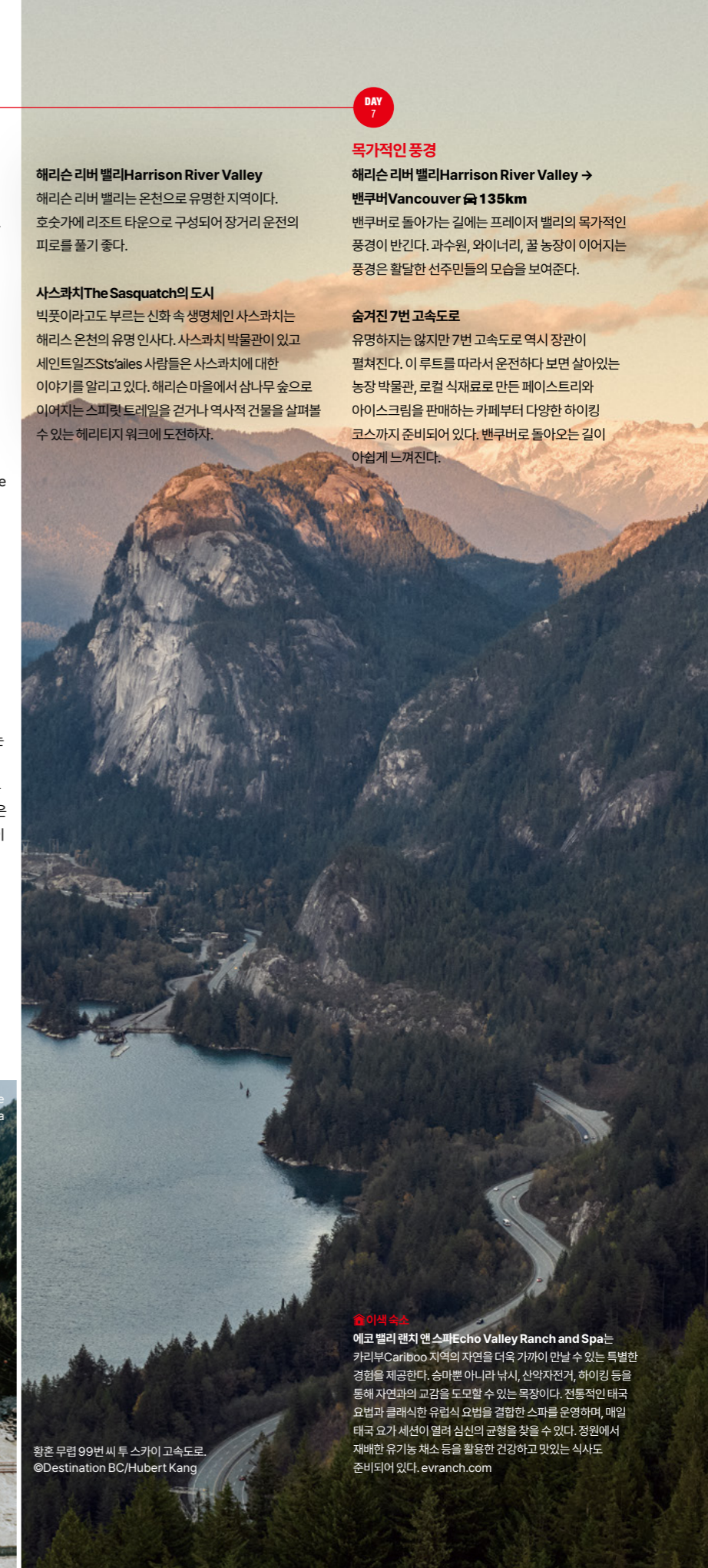
휘슬러의 스퀴미시 릴와트 문화센터. ©Squamish Lil'wat Cultural Centre/Blake Jorgensen



릴루엣 남쪽의 세턴 호수Seton Lake를 따라 99번 고속도로를 달린다. ©Destination BC/Hubert Kang



프레이저 협곡의 헬스 게이트 에어트램. ©Tourism Hope Cascades & Canyons/Connect Media



황혼 무렵 99번 씨 투 스카이 고속도로. ©Destination BC/Hubert Kang

숨이색 숙소

에코 밸리 랜치 앤 스파Echo Valley Ranch and Spa는 카리부Cariboo 지역의 자연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승마뿐 아니라 낚시, 산악자전거, 하이킹 등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도모할 수 있는 목장이다. 전통적인 태국 요법과 클래식한 유럽식 요법을 결합한 스파를 운영하며, 매일 태국 요가 세션이 열려 심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정원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 등을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 evranch.com





수크에 있는 와일드 마운틴 푸드 앤 드링크 WILD MOUNTAIN Food & Drink 레스토랑의 해산물 요리. ©Tourism Vancouver Island/Ben Giesbrecht

## 미식, 5일 코스

# ⑤ 맛있는 여행, 밴쿠버 아일랜드

유기농 농장, 와이너리, 마이크로 브루어리 등 미식가를 위한 장소로 가득한 밴쿠버 아일랜드에 방문한다면 캐나다 특유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 DAY 1 밴쿠버 아일랜드까지 가는 방법

**밴쿠버 Vancouver → 빅토리아 Victoria**  
 ✕ 인천-밴쿠버  
 밴쿠버에서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도인 빅토리아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밴쿠버 남쪽 트와센 Tsawwassen에서 빅토리아 북쪽의 스위츠 베이 Swartz Bay까지 BC 페리를 타고 가는 바닷길이다. 코치 버스, 차랑, 도보 여행객 모두 탈 수 있다. 또 하나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허버 에어 수상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빅토리아의 이너허버까지 가는 하늘길이다.

### 수제 맥주의 수도, 빅토리아

이너허버와 올드타운을 거닐다가 해피아워 시간이 되면 빅토리아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맥주를 즐겨본다. 특히 1984년 오픈한 캐나다 최초로 자체 양조 맥주를 판매해온 펍에서 맥주 한 잔을 들여다보자. 스피너커스 게스트로 브루펍 Spinnakers Gastro Brewpub은 방대한 맥주 리스트와 빅토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들로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빅토리아 올드 타운의 감성과 맥주를 함께 맛보고 싶다면 100년 된 은행 건물에 자리한 아이리시 타임스 펍 Irish Times Pub을 찾아가면 된다. 30가지 이상의 크래프트 맥주를 맛볼 수 있다.

### DAY 2 캐나다의 문화가 담긴 맛을 즐기자

**빅토리아 Victoria**  
 빅토리아 퍼블릭 마켓에 둘러 현지에서 판매하는 지속 가능한 요리를 다양하게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엘리자베스 2세가 묵었던 것으로 유명한 페어몬트

엔프레스 호텔에서 전통적인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120년간 차를 수입해온 로컬 브랜드 멀치스 Murch's의 티룸에서 차와 케이크를 즐기며 한가한 오후를 보낼 수 있다.

### 빅토리아에서 즐기는 브런치

영국식 문화가 남아 있는 빅토리아에서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혹은 빅토리아 최고의 해산물 식당으로 꼽히는 블루크랩 씨푸드 하우스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아침 식사를 한다. 비건 옵션이 필요하다면 OEB 브레이크퍼스트 컴퍼니를 찾자. 아침 식사 메뉴에 집중하면서 비건을 위한 메뉴도 내놓는다.

### DAY 3 트렌디한 미식 명소, 랭포드

**빅토리아 Victoria → 수크Sooke**  
 최근 미식가들에게 유명한 빅토리아 외곽의 랭포드 Langford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겨본다. 화려한 수상 경력의 가스토로 보아텡 Castor Boateng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하우스 오브 보아텡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브런치와 특별한 음식을 선보인다. 캐주얼한 간식을 즐기기에 홈메이드 도넛과 스낵을 판매하는 라이노스 커피 하우스 랭포드가 좋다. 맥주보다는 증류주를 즐기는 미식가라면 숨겨진 명소 셔링엄 증류소 Sheringham Distillery가 적절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수제 증류주를 생산하는데, 밴쿠버 아일랜드의 해초와 식물을 사용한 증류주를 구할 수 있다. 랭포드에서 나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매력적인 해안 마을 수크에 도착한다.

### DAY 4 와인으로 가득한 코워찬 밸리

**수크Sooke → 코워찬 밸리 Cowichan Valley**  
 코워찬 밸리의 와이너리는 레드, 화이트뿐만 아니라 디저트 와인까지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테이스팅에만 집중하도록 드라이버가 동행하는 프라이빗 투어도 선택할 수 있다. 애버릴 크릭 Averill Creek 와이너리에서는 파티오에 앉아 스파클링 와인을 즐긴다. 언스워스 빈야드 Unsworth Vineyards 와이너리는 햇간을 복원한 곳으로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와인을 시음할 수 있다. 12가지 이상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체리 포인트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도 지나치기 어렵다. 블루 그라운드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는 포도밭을 유기농으로 바꾸고 있는데, 우아한 화이트 와인을 맛볼 수 있다.

### 로컬 음식 문화를 즐겨보자

와인 외에도 사이더와 증류주를 즐길 수 있는 메리데일 사이더리&증류소도 있다. 술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로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디어홀름 Deerholme 팜의 로컬 푸드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 수확 워크숍, 요리 교실을 예약해 방문하는 것도 좋다.

### Stay.

① 코워찬 여행 정보 tourismcowichan.com

### DAY 5 밴쿠버에서 미식 여행을 이어간다

**밴쿠버 Vancouver**  
 레이디스미스를 지나 나나이모의 BC 페리 터미널로 이동해 밴쿠버로 돌아올 수 있다. 밴쿠버에 도착한 뒤에는 밴쿠버 푸디 투어를 통해 밴쿠버의 미식 명소를 찾아다녀도 좋다. 그랜빌 아일랜드의 시장 투어, 게스트로닉 가스 타운 투어, 아시아 정통 음식 투어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미식, 6일 코스

# ⑥ 오키나간 와이너리 로드 트립

오키나간 밸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와인의 약 86%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버논, 켈로나, 오소요스는 오키나간 밸리 와인의 중심부이다. 주요 와이너리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한 손에 와인 잔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 DAY 2 캐나다 와인의 시작

**버논 Vernon → 켈로나 Kelowna**  
 오키나간 밸리와 시밀카민 Similkameen 밸리 사이에는 2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존재한다. 너무나 많은 와이너리에 놀랐다면 엄선된 와이너리만 둘러보는 와인 전문 투어도 있다.

### 와인 전문 투어

와인 전문 투어에 참가하면 운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투어 가이드가 와이너리마다 와인과 와인 제조자, 와이너리가 위치한 지역의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준다. 이야기가 담긴 와인은 더욱 특별해진다.

### 셀프 투어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지정 드라이버가 있다면 셀프 와인 투어도 가능하다. 97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버논에서 남쪽에 있는 켈로나로 이동한다. 경치가 아름다워 시닉 드라이브 코스로도 훌륭하다. 칼라말카 Kalamalka 호수, 우드 Wood 호수, 엘리슨 Ellison 호수, 오키나간 Okanagan 호수 등 아름다운 호수들을 따라 와이너리가 자리한다.

### 켈로나 여정의 와이너리 리스트

- 그레이 몽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 레스토랑 graymonk.com/our-restaurant
- 50th 패러렐 & 블록 원 레스토랑 50thparallel.com
- 엑스 니힐로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 카오스 · 비스트로 exnihilo vineyards.com
- 애로우리프 셀러 arrowleafcellars.com

### DAY 3 풍경과 즐기는 와인

**켈로나 Kelowna**  
 과수원과 와이너리로 유명한 켈로나에는 수제 맥주와 수제 사이더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오키나간 와인 및 과수원 박물관은 오키나간 지역의 와인과 과수원에 대한 역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켈로나의 전망 좋은 와이너리 리스트

- 미션 힐 패밀리 에스테이트 missionhillwinery.com
- 인디저너스 월드 와이너리 indigenousworldwinery.com
- 퀘일스 게이트 와이너리 quailsgate.com
- 마운트 부셰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mtboucherie.com
- 에이션스 힐 와이너리 ancienthillwinery.com

### More Info. 와인 투어

치어스 오키나간 투어 cheersokanagatours.com/accessible-tour  
 오고포고 투어 ogopogotours.com

### DAY 1 미식의 천국

**버논 Vernon** ✕ 인천-밴쿠버-켈로나  
 버논은 미식의 천국이다. 버논 테이스팅 트레일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마을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낼 수 있다. 가을에는 데이비스 오차즈 컨트리 빌리지에서 하는 팜투테이블 체험이 필수다. 꿀과 꿀로 만든 술인 미드를 먹어볼 수 있는 플래닛 비 허니 팜도 유명하다.

### DAY 4 미식과 와인

**켈로나 Kelowna → 서머랜드 Summerland → 오소요스 Osoyos**  
 서머랜드와 오소요스로 이동하는 길에는 더 많은 와이너리가 있다. 북미 최초로 선주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카립 셀러 Nk'Mip Celler는 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와이너리다. 인카립 셀러에서 만든 와인은 여러 곳에서 상을 받고 찬사를 받았다. 이 외에도 버로우링 아올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Burrowing Owls Estate Winery에서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다. 12월 중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가을에 방문해야 한다.

### 서머랜드의 와이너리 리스트

- 피츠패트릭 패밀리 빈야드 fitzwine.com
- 서머게이트 와이너리 summergeate.ca
- 헤븐스 게이트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heavensgatewinery.com
- 쏘헤븐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thornhaven.com
- 더티 런드리 빈야드 dirtylaundry.ca

### DAY 5 호수와 와인

**오소요스 Osoyos → 올리버 Oliver → 펜틱턴 Penticton**  
 오키나간 밸리의 남쪽 끄트머리에 도착하면 아름다운 호수, 과수원, 포도밭, 구불구불한 언덕 등 독특한 장소들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와이너리는 봄부터 11월까지 운영하므로 와인을 마시며 오키나간 밸리의 풍경을 즐기기에 가을이 제격이다.

### 오키나간 남부의 와이너리 리스트

- 틴혼 크릭 빈야드 tinhorn.com
- 헤스터 크릭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hestercreek.com
- 잭슨 트릭스 오키나간 에스테이트 jacksontriggswinery.com
- 블랙 힐스 에스테이트 blackhillswinery.com
- 마이어 패밀리 빈야드 mfvwines.com
- 노블릿 빈야드 & 와이너리 nobleridge.com
- 블래스트 처치 빈야드 blastedchurch.com
- 와일드 구스 빈야드 wildgoosewinery.ca
- 리퀴디티 와인 & 비스트로 liquiditywines.com

### DAY 6 포도밭 속으로

**펜틱턴 Penticton**  
 오키나간 호수 건너편에 있는 나라마타 벤치의 와인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30개의 와이너리가 있어 구불구불한 포도밭이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와이너리를 잇는 길은 14km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독특한 와이너리는 레드 루스터 와이너리 Red Rooster Winery다. 이곳 잔디밭에서는 현지의 유명 인사인 '짐콘 프랭크'를 만나볼 수 있다.

### More Info.

나라마타 벤치 와이너리 협회에서 30개의 와이너리를 검색할 수 있다. naramatabench.com/our-wineries



오키나간 밸리의 인디저너스 월드 와이너리. ©Indigenous Tourism BC/Brendin Kelly / Indigenous World Winery

## 미식, 3일 이상 코스

# ⑦ 밴쿠버와 휘슬러의 품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미식이다.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 채식을 비롯한 건강식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미쉐린 가이드까지 미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활발한 식문화로 가득한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미각을 충족시켜본다.

### 밴쿠버 ✕ 인천-밴쿠버

밴쿠버는 문화와 미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도시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덕분이다. 국제적인 문화를 이루어 여러 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밴쿠버에서 잠들어 있던 미각을 깨워본다.

#### Stay.

📍 로즈우드 호텔 조지아 rosewoodhotels.com/en/hotel-georgia-vancouver

### DAY 1 밴쿠버 로컬처럼 즐기는 식문화 그랜빌 아일랜드

그랜빌 아일랜드 퍼블릭 마켓 투어는 현지의 다양한 음식을 빠르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이다. 유기농 빵, 로컬 사퀴트리, 브리티시컬럼비아 치즈, 도넛 등을 맛볼 수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의 음식 장인이 만드는 20가지 이상의 시그니처 푸드를 먹어보며 캐나다의 식문화를 빠르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투어다.

foodietours.ca/granville-island-market-tour

#### 수제 맥주

밴쿠버 사람들은 수제 맥주를 무척 사랑한다. 이 도시만의 수제 맥주를 제대로 맛보려면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에 참가하면 된다. 웨스트 코르도바 스트리트 901번지에서 전용 버스를 타고 도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브루어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예일, 사우어, 세종Saion 맥주를 시음할 수 있다. vancouverbrewerytours.com

#### 세련된 저녁

혹스워스 레스토랑Hawsworth Restaurant은 셰프 데이비드 혹스워스David Hawsworth가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 기법과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을 결합하여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최고의 빈티지 와인도 구비하여 독창적인 식사와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다.

### DAY 2 독특한 미식 문화 체험 여유로운 아침 식사

카페 메디나Café Medina에서 중동 스타일의 아침을 먹을 수 있다. 타진Tagine같이 든든하면서 독창적인 요리를 맛보거나 리에주Liège 와플도 놓칠 수 없는 맛이다.

#### 테이스팅 투어

가스트로노믹 개스타운 투어Gastronomic Gastown Tour는 3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인 개스타운의 역사를 탐방하며 네 곳의 레스토랑에 방문한다. 칵테일, 크래프트 맥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와인과 함께 캐나다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핫한 레스토랑

페어몬트 퍼시픽 림Fairmont Pacific Rim 호텔의 보타니스트Botanist는 최근 밴쿠버에서 떠오르는 레스토랑이다. 헥터 라구나Hector Laguna 셰프가 이끄는 식당으로 태평양 북서부에 뿌리를 두고 지속 가능한 해산물, 지역 농산물, 최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인다.

### DAY 3 다양한 미식 경험 차이나타운

밴쿠버에는 아시아 음식 문화가 그 자체로 남아 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밴쿠버의 다채로운 식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놀라운 맛집들이 숨어 있는 워커라운드 차이나타운 투어A Wok Around Chinatown에 참가하면 차이나타운에서 전통 딤섬을 즐길 수 있다. awokaround.com

#### 그라운드 마운틴에서의 저녁 식사

그라운드 마운틴 정상에는 더 옵저버토리The Observatory가 있다. 반짝이는 밴쿠버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태평양 북서부 특유의 맛을 담은 프랑스풍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

#### More Info.

식재료를 내 손으로 직접 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바다 채집 체험Sea Foraging Experience 투어를 추천한다. swallowtail.ca

#### 밴쿠버의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리스트 10

- 안나레나AnnaLena(컨템포러리)
- 아이든&관주더 베이징덕 하우스Den & QuanJuDe Beijing Duck House(중식)
- 오케야 키요키Okeya Kyujiro(일식)
- 버독 앤 코Burdock & Co(컨템포러리)
- 퍼블리시드 온 메인Published on Main(컨템포러리)
- 스시 마사다Sushi Masuda(일식)
- 키사 탄토Kissa Tanto(퓨전)
- 바바라Barbara(컨템포러리)
-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프렌치)
- 마사요시Masayoshi(일식)



휘슬러의 알타 비스트로Alta Bistro. @Destination BC/@viranly



페어몬트 퍼시픽 림 호텔의 레스토랑 보타니스트. ©Destination Vancouver/Fairmont Pacific Rim



밴쿠버 미쉐린 가이드 1스타 안나레나의 요리. ©Allison\_Kuhl

#### 휘슬러

휘슬러에는 저렴한 식당부터 럭셔리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식당이 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수석 셰프, 파이 마스터, 베이커, 믹솔로지스트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명성을 지닌 전문가들의 음식을 서빙받을 수 있다. 모험을 부르는 것은 블랙콤 산만이 아니다. 미식 경험도 모험을 기다린다.

#### 휘슬러 레스토랑 팁 6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여행지인 만큼 레스토랑 이용도 치열하다. 휘슬러에서 현명하게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팁을 소개한다.

- 1. 다양한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전화 및 이메일 예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리조트에 머물고 있다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 예약이 제일 좋은 방법.
- 2. 웨이팅 전략:**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두면 평균 45~60분 정도 기다리게 된다. 웨이팅 등록 후 인근 산책을 하는 등 미리 여행 계획을 세운다.
- 3. 테이크아웃&피크닉:**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한 뒤 휘슬러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며 식사를 즐겨도 좋다. 단, 자연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 4. 유연한 식사 시간:**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식당에 방문하면 웨이팅이나 예약을 피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5. 배달 서비스:** 휘슬러 패드Whistler Pad를 이용하면 다양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 받을 수 있다.
- 6. 다이닝 투어:** 워킹 런치 또는 디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휘슬러 테이스팅 투어를 통하면 예약 없이 미식 문화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다. whistlertastingtours.com

#### 휘슬러의 럭셔리 레스토랑

##### 베어풋 비스트로Bearfoot Bistro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경험을 선사한다. 마치 요리로 떠나는 여행과 같은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와규 소고기, 버크셔 돼지고기, 페리고르 트러플 등 최고급 재료를 사용한다. 와인 디렉터는 각 요리에 어울리는 완벽한 와인을 페어링하여 식욕을 돋운다. 식사의 마지막으로는 오리지널 디저트와 시그니처 니트로 아이스크림 등이 준비되어 있다.

##### 하이 스테이크 하우스 앤 칵테일 바

##### Hy's Steakhouse&Cocktail Bar

1955년 설립된 캐나다 최고의 스테이크 하우스다. 산 중턱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캐나다산 프라임 소고기를 사용한다. 와인 리스트 역시 와인 스펙테이터 수상 목록을 갖추고 있다. 가을에 방문하면 라운지, 파티오 등에서 잊을 수 없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매일 해피아워 스페셜을 제공한다.

##### 파이어록 라운지Firerock Lounge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다. 칵테일 외에도 치즈보드와 와인이 잘 준비되어 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살레 스타일 바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연인에게는 완벽한 데이트 장소가 되어준다.



## 가을 단풍, 12일 코스

# ⑧ 쿠트니 로키 가을 로드 트립

알버타 주 캘거리에서 여행을 시작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쿠트니 로키 Kootenay Rockies 지역을 돌아본다. 쿠트니 로키 지역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유명하며, 노란 단풍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김벌리의 선플라워 힐 Sunflower Hill에서 바라본 풍경. ©Destination BC/Kari Medig



김벌리의 가을. ©Destination BC/Kari Medig



### DAY 1 캘거리 도착

**캘거리국제공항**  
웨스트렛이 인천-캘거리 직항편을 운항한다. 또는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의 인천-밴쿠버 직항을 이용한 후 국내선 또는 직접 운전하여 캘거리까지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 DAY 2-3 단풍과 하이킹

**페니Ferne**  
₩306km ≡ Highway 3  
하이라이프는 페니골프 앤 컨트리 클럽Ferne Golf & Country Club과 이곳의 레스토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이외에도 아일랜드 호수Island Lake와 하틀리 호수Hartley Lake, 근처의 리버 로드River Road와 코카토 로드Cokato Road를 탐험하며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Hiking.**  
★ **가벼운 코스:** 페어리 크릭 폭포 [tourismfernie.com/activities/hiking-trails/Fairy-Creek-Falls](http://tourismfernie.com/activities/hiking-trails/Fairy-Creek-Falls)  
★ **다소 어려운 코스:** 도시의 북서쪽에 자리한 페니산 [tourismfernie.com/activities/hiking-trails/mt-fernie](http://tourismfernie.com/activities/hiking-trails/mt-fernie)

☺ 하이킹 이후 루프톱 커피 로스터스Rooftop Coffee Roasters에서 신선하게 볶은 원두커피를 마시거나 빈포드 초콜릿, 커피 앤 젤라토Beanpod Chocolate, Coffee & Gelato에서 장인의 수제 초콜릿을 음미하는 것을 추천한다.

### DAY 4-5 황금빛 장관

**크랜브룩Cranbrook & 김벌리Kimberly**  
₩102km ≡ Highway 3, 93, 95, 95A  
크랜브룩의 매튜 크릭Matthew Creek에는 도로 옆에 황금빛 라치(Larch, 단풍이 드는 침엽수의 일종)가 늘어서 운전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초저녁 즈음에는 호스반 밸리Horsebarn Valley를 따라가며 라치가 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포착해본다. 김벌리와 메리즈빌Marysville 사이에서도 라치의 황금빛 장관이 펼쳐진다.

**Side Trip.**  
☞ 황금빛 가을 풍경과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2박 일정 [rockiesexploring.ca/itinerary/larch-trees-craft-beer](http://rockiesexploring.ca/itinerary/larch-trees-craft-beer)

**숲이색 숙소**  
쓰리 바즈 캐틀 앤 게스트 랜치Three Bars Cattle & Guest Ranch는 로키 산맥과 퍼셀 산맥의 주 능선으로 둘러싸인 목장형 숙소이다. 랜치 패키지에는 숙박과 식사, 송마 그리고 크랜브룩 지역 공항Cranbrook Regional Airport 간 교통편이 포함되며 4박에서 7박까지 선택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이드 하이킹, 래프팅, 플라잉 낚시, 트랩이나 스키트 사격 등 원하는 투어를 고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랜치 키즈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threebarsranch.com](http://threebarsranch.com)

### DAY 6-7 온화한 지역

**인버머어Invermere & 레디움 핫 스프링스Radium Hot Springs**  
₩140km ≡ Highway 95  
컬럼비아 밸리Columbia Valley와 인버머어, 레디움 핫 스프링스는 이웃한 동부 지역에 비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해 가을에도 야외 활동을 하기 좋다. 특히 인버머어의 여러 호수와 파노라마 마운틴 리조트Panorama Mountain Resort는 완벽한 목적지. 하이킹을 통해 높은 곳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면 최고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진다. 플레이웨스트 마운틴 익스피리언스Playwest Mountain Experience는 점심 식사뿐 아니라 하이킹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가이드 투어를 운영한다. 윌머 습지Wilmer Wetlands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하이킹도 할 수 있다. 이곳은 조류 관찰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추천한다.

**More Info.**  
₩ 인버머어와 파노라마 마운틴 리조트 로드 트립 [invermerepanorama.com/news/your-ultimate-fall-road-trip-planning-guide](http://invermerepanorama.com/news/your-ultimate-fall-road-trip-planning-guide)



페니의 가을 풍경. ©Destination BC/@anatoletuzlak

### DAY 8-9 다채로운 가을 색조

**골든Golden**  
₩100km ≡ Highway 95  
골든의 도심과 95번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길 양쪽에 늘어난 단풍나무와 다양한 낙엽수가 그 주변을 둘러싼 웅장한 산들과 함께 보랏빛, 빨간색, 주황색, 밝은 노란색 등등 경이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0월 말에는 마운틴애시나무mountain ash tree의 빨간 열매가 눈 덮인 산봉우리와 대조되어 근사한 풍경을 만든다. 때때로 차에서 내려 다리를 풀어주고 싶은 순간이 있다. 이럴 때 짧은 산책이나 7km의 긴 루프 코스로 이용할 수 있는 로터리 트레일Rotary Trail로 향하면 된다. 이 트레일에서 친근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vent.**  
☞ 9월 말, 전 세계의 러너들이 골든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에 도전한다.

**View Point.**  
✓ **키킹 홀스 마운틴 리지 Kicking Horse Mountain Ridge**  
골든 이글 익스프레스Golden Eagle Express 곤돌라를 타면 키킹 홀스 마운틴 리조트Kicking Horse Mountain Resort에서 360도로 펼쳐지는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의 이글스 아이 레스토랑Eagles Eye Restaurant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다.  
✓ **골든 스카이브릿지Golden Skybridge**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로 컬럼비아 밸리에 둘러싸인 광활한 협곡 위 약 130m 높이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면 로키 산맥과 퍼셀 산맥의 장엄한 전망이 펼쳐진다.

### DAY 10 특별한 추억

**레벨스톡Revelstoke**  
₩150km ≡ Highway 1  
레벨스톡 시내에서 맥켄지 애비뉴Mackenzie Avenue를 따라 그린벨트 리버 트레일을 걸으며 단풍의 선명한 붉은색이 멀리 있는 산, 파란 하늘 등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독특한 숙소를 찾는다면 편안한 시설을 갖춘 글램핑 텐트에서 자연을 경험하는 볼더 마운틴 리조트Boulder Mountain Resort나 선주민이 운영하는 곳으로 배럴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알파 마운틴 로지Alpha Mountain Lodging을 추천한다. 레벨스톡 호수와 컬럼비아 강에서 코카니 연어와 무지개송어 등을 낚시하는 것도 가을만의 추억이다.

**More Info.**  
☞ 추천 액티비티 [seerevelstoke.com/guides/revelstokes-guide-to-fall-activities](http://seerevelstoke.com/guides/revelstokes-guide-to-fall-activities)



골든 스카이 브릿지. ©Kootenay Rockies Tourism/ Mitch Winton / Golden Skybridge

### DAY 11 마을마다 멋진 풍경

**나쿠슈Nakusp**  
₩110km ≡ Highway 6&23  
나쿠슈 마을에는 근사한 단풍나무가 늘어진 아름다운 거리가 많다. 워터프런트 워크웨이와 인근의 포키어Fauquier 마을 대로를 건너가 멋진 풍경을 만드는데, 고속도로에서도 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 DAY 12 마지막까지 울창한 단풍

**넬슨Nelson**  
₩140km ≡ Highway 3A  
넬슨은 쿠트니 호수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아름답게 자리한다. 카슬로Kaslo의 31번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카슬로 리버 트레일Kaslo River Trail을 따라가면 울창한 숲과 생동감 넘치는 단풍을 경험할 수 있다. 카슬로에서 북쪽으로 쿠트니 호수를 따라 메도우 크릭Meadow Creek까지 차를 타고 가면, 단풍으로 뒤덮인 숲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More Info.**  
☞ 넬슨과 쿠트니 호수 여행하기 [nelsonkootenaylake.com](http://nelsonkootenaylake.com)

## 가을 단풍, 9일 코스

# ⑨ 톰슨 오카나간의 찬란한 가을

톰슨 오카나간Thompson Okanagan은 강과 호수, 산의 풍광이 펼쳐지는 지역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등을 이용해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추천 방문 시기는 9월과 10월.

### DAY 1 단풍 감상 후와인 한잔

#### 켈로나Kelowna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켈로나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케틀 벨리 레일 트레일Kettle Valley Rail Trail의 마이라 캐년 트레슬Myra Canyon Trestles로 향하자. 이 트레일은 철로를 개조해 가파른 협곡을 따라 두 개의 터널과 18개가 넘는 멋진 다리를 지나며 수많은 야생동물과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트레일 입구의 마이라 캐년 자전거 렌탈스 앤 투어스Myra Canyon Bicycle Rentals and Tours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하다. 켈로나에서 가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와이너리 투어다. 개별 여행인은 가이드 투어든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는 와인과 비스트로 메뉴 모두 유기능인 서머힐 피라미드 와이너리Summerhill Pyramid Winery와 캐나다 최고의 팜투테이블 레스토랑 100' 중 하나로 선정된 올드 바인스 레스토랑Old Vines Restaurant을 보유한 퀘일스 게이트 와이너리Quails' Gate Winery가 있다. 그라즐리 와이너리Grizzli Winery는 아이스와인 애호가에게 좋은 선택지가 된다.

#### More Info.

📄와인 트레일 tourismkelowna.com/things-to-do/wineries/guide

📄켈로나관광청 추천 숙소 tourismkelowna.com/places-to-stay

### DAY 2 풍미 가득한 하루

#### 켈로나Kelowna → 버논Vernon

#### 🚗 53km

북쪽의 버논으로 향한다. 버논 테이스팅 트레일Vernon Tasting Trail을 따라 미식을 즐기거나 버논 다운타운 디스커버리 투어Vernon Downtown Discovery Tour에 참여해 3시간 동안 가이드와 함께 역사적인 벽화와 유적지, 부티크를 둘러보며 맛있는 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 플래닛 비 허니 팜과 허니문 미더리Planet Bee Honey Farm and Honeymoon Meadery를 방문해 꿀과 허니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모조 투어스Mojo Tours와 치어스 오카나간Cheers Okanagan은 다양한 와이너리 투어를 제공한다

#### More Info.

📄버논관광청 추천 숙소 tourismvernon.com/places-to-stay

### DAY 3 회귀하는 흥연어 만끽하기

#### 버논Vernon → 슈스왑Shuswap

#### 🚗 86km

오카나간 북부에 위치한 슈스왑은 호수와 농지가 펼쳐지며 세계적인 규모의 내륙 온대 우림과 접하는 지역이다. 츄스웨크 주립공원Tsútswe'cw Provincial Park을 가로지르는 아담스 강은 수천 마리의 흥연어가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곳이다. 현지인들은 10월 첫 3주 동안 '흥연어에게 경의를 Salute to the Sockeye' 축제를 열어 이를 축하한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강을 따라가는 평탄한 트레일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트레일 입구의 해설 센터에서 흥연어 회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후 살몬 암Salmon Arm 또는 체이스Chase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 More Info.

📄슈스왑 여행 정보 shuswaptourism.ca/plan

🏠이색 숙소 슈스왑 호수Shuswap Lake 위를 떠다니는 숙소에 머물러보자. 트윈 앵커스Twin Anchors는 다양한 크기와 적절한 예산에 맞는 12가지 스타일의 하우스보트를 운영한다. 최대 24명 수용 가능하며 침실과 욕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다.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거나 인근에서 골프나 자전거 등을 즐겨도 좋다. twinanchors.com

🏠웰스 그레이 게스트 랜치Wells Gray Guest Ranch는 한 가족이 운영하는 목장형 숙소이다.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 내에 자리해 이곳에서 승마뿐 아니라 카누잉과 하이킹 등 다양한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분위기를 경험하기 좋은 곳이다. wellsgrayranch.com

캠룹스의 다운타운. ©Destination BC/Tanya Goehring

### DAY 4 호숫가 마을에서 유유자적

#### 슈스왑Shuswap → 선픽스Sun Peaks

#### 🚗 107km

슈스왑 지역에는 약 20개의 주립공원이 있으며 카약과 패들보드를 즐기기에 좋다. 슈스왑 호수에 자리한 살몬암 마을을 방문한다. 살몬암에는 북미에서 가장 긴 곡선형 데크 부두가 있으며, 여러 와이너리와 유기농 농산물 시장도 자리한다. R. J. 헤니 헤리티지 빌리지 앤 뮤지엄 R. J. Haney Heritage Village and Museum(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개관)은 다양한 전시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후에는 살몬암을 떠나 선픽스로 이동하자. 이곳은 캠룹스Kamloops 북쪽에 위치한 산악 리조트로 특히 여름과 가을에 인기가 많다. 가을에는 선명한 단풍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탁 트인 산악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 DAY 5 리조트에서의 활기찬 하루

#### 선픽스Sun Peaks

선픽스 리조트에서는 눈이 내리기 전까지 등산, 산악자전거, 승마, 요가, 카누, 카약,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기념품이나 현지 장인의 작품, 아웃도어 용품 등을 판매하는 약 20개의 상점과 22개의 레스토랑도 자리한다.

#### More Info.

📄선픽스 리조트 sunpeaksresort.com

### DAY 6 중간중간 짧은 여행

#### 선픽스Sun Peaks →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

#### Wells Gray Provincial Park 🚗 132km

노스톰슨 강을 따라 5번 고속도로를 달려 클리어워터 Clearwater와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으로 향한다. 노스톰슨 벨리에 자리한 이곳은 40개가 넘는 폭포가

있어 폭포의 공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경로는 목장과 농지가 어우러진 목가적인 풍경을 지나며, 그 평화로움에 자꾸 멈추게 된다. 맥루어 마을에서는 무료인 맥루어 리액션 페리 McLure Reaction Ferry를 타볼 것을 추천한다. 노스톰슨 강을 건너 마을을 구경하고 다시 돌아오는 짧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선주민 심프크Simp'cw의 터전인 바리에르Barrière는 낚시나 하이킹을 위해 찾는 마을이다. 샘스 피자 앤 립 하우스Sam's Pizza & Rib House에서 맛있는 식사도 즐길 수 있다.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으로 가는 관문인 클리어워터 바로 남쪽에는 노스톰슨 강과 클리어워터 강이 합류하는 노스톰슨 강 주립공원이 자리하는데, 가을철 연어 회귀를 관찰하기 좋은 곳이다. 클리어워터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는 페인트드 터틀 레스토랑Painted Turtle Restaurant, 홉 앤 호그 탭 앤 스모크하우스Hop n' Hog Tap & Smokehouse, 올드 카부스 레스토랑 앤 펌Old Caboose Restaurant & Pub, 헬름켄 폴스 롯지Helmcken Falls Lodge 및 웰스 그레이 인 Wells Gray Inn 내 레스토랑이 있다. 와일드 플라워 카페 베이커리Wild Flour Café Bakery 제빵사들은 직접 밀가루를 제분해 빵을 만든다.

### DAY 7 주립공원 탐험하기

####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

#### Wells Gray Provincial Park

하루 동안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에서 낚시, 카누, 하이킹을 즐기고 공원의 유명한 폭포를 방문해보자. 접근성이 좋은 폭포로는 스파하트 폭포Spahats Falls, 몰 폭포Moul Falls, 도슨 폭포Dawson Falls 그리고 헬름켄 폭포Helmcken Falls가 있다. 몰 폭포는

가파른 구간이 일부 있지만, 폭포 아래까지 걸어갈 수 있다. 다양한 업체가 가이드 하이킹, 보트, 승마뿐 아니라 경비행기 투어를 제공한다. 웰스 그레이 공원과 로키산맥을 이어주는 5번 고속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아블라 로그 인 펍Avola Log Inn Pub에 들러 버거를 맛보자. 이후 블루 리버Blue River와 벨마운트Valemount로 향해 또 다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 More Info.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 wellsgray.ca

### DAY 8 자연과 도시를 한번에

#### 웰스 그레이 주립공원Wells Gray

#### Provincial Park → 캠룹스Kamloops 🚗 125km

캠룹스 지역 와이너리를 방문해 와인을 시음하거나 희귀한 커모드곰Kermode bear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BC 와일드라이프 공원BC Wildlife Park에 방문해도 좋다. 캠룹스 헤리티지 철도Kamloops Heritage Railway에서는 약 1.6km 길이의 철로를 따라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현장에 전시된 1912년 증기 기관차와 캐나다 전역을 운행하며 학교처럼 활용된 교실 객차Schoolroom Car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캠룹스의 저녁 식사 선택지는 펍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하다.

#### More Info.

📄캠룹스 여행 정보 tourismkamloops.com

### DAY 9 밴쿠버로 돌아가기

#### 캠룹스Kamloops → 밴쿠버Vancouver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이 캠룹스-밴쿠버 항공편을 운항하며 약 1시간 소요된다.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약 4시간 30분 거리.



퀘일스 게이트 와이너리. ©Destination BC/@vancouverfoodie



가을에는 야생 곰이 연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Destination BC/Yuri Choufour

## 야생동물 만나기, 5일 이상 코스

### ⑩ 야생 속 롯지

대자연 속에 자리한 롯지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야생동물을 마주하는 여정. 롯지는 보통 밴쿠버에서 경비행기나 자동차, 페리 등을 통해 닿을 수 있다. 인천-밴쿠버 항공편을 이용한 후 밴쿠버에서의 1박을 포함하여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롯지마다 최소한의 숙박 일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계획을 짜야 한다.

#### 클라후스 윌더니스 리조트

##### Klahoose Wilderness Resort

홈프레이 해협Homfray Channel의 고요한 해안가에 자리 잡은 클라후스 윌더니스 리조트는 거대한 코스트 산맥Coast Mountains에 둘러싸여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비행기와 페리, 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리조트에서는 '그리즐리 베어 오브 토바 인렛 Grizzly Bears of Toba Inlet' 패키지를 운영한다. 이 패키지는 두 차례 이상의 그리즐리 베어 관찰 투어를 제공한다. 매년 8월 중순부터 토바 인렛Toba Inlet 으로 연어가 회귀하면 이를 사냥하는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하는 것이다. 클라후스 윌더니스 리조트에서 출발해 약 1시간 동안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장엄한 폭포를 지난다. 이후 토바 인렛의 부두에 도착해 잠시 버스로 이동한 후 울창한 온대 우림 내 강을 따라 배치된 6개의 높은 전용 전망대로 향한다. 이곳은 빙하에서 시작된 푸른 강물이 흐르는 토바밸리Toba Valley의

외딴 야생 지역에 자리한다. 그렇게 전용 전망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최대한 가까이서 안전하게 야생 그리즐리 베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켜본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급류 소리와 함께 섞이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전문 곰 가이드가 안내 할까한다.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로 모든 식사 및 투어, 이동 서비스가 포함되며 3박 또는 4박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klahooseresort.com

#### 그레이트 베어 롯지Great Bear Lodge

태평양 연안의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Great Bear Rainforest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안 온대 우림 지대다. 이곳에 자리한 그레이트 베어 롯지는 BBC 다큐멘터리 <Secrets of our Living Planet> 시리즈의 'Magical Forest' 편 촬영지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는 그리즐리 베어와 그들을 지행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깊이 있는 시각에서 전개한다. 포트

하디Port Hardy에서 출발하는 수상비행기를 타고 롯지에 닿을 수 있다. 롯지에서 운영하는 그레이트 베어 네이처 투어스Great Bear Nature Tours에서는 하루 두 차례 가이드 동반 곰 관찰 투어를 진행하고 이후 자연 속에서 다이닝을 즐긴다. 9개의 객실 모두 개별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목재 데크에서 와인 한잔 즐기며 장엄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롯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투어는 4박 일정이다. 포트 하디와 그레이트 베어 롯지를 오가는 항공편 등이 포함된다. greatbeartrips.com

#### 나이트 인렛 롯지Knight Inlet Lodge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중심부에 위치한 나이트 인렛 롯지는 1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야생동물 관찰뿐 아니라 카약과 하이킹 등 다양한 투어를 제공한다. 4월부터 흑곰과 그리즐리 베어가 동면에서 깨어나 만과 강어귀로 이동하고 봄철의 연한 새싹을 먹으며 영양을 보충하기 시작한다. 봄은 또한 갓 태어난 새끼 곰들이 자연 속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봄철에는 보트를 이용한 곰 관찰 투어를 운영한다. 한여름이 되면 일부 곰은 근처 숲으로 이동해 베리류를 먹지만, 여전히 강어귀 주변에서 매일 여러 마리의 곰을 볼 수 있다. 여름에도 보트 기반의 관찰 투어를 운영한다.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가을 시즌에는 전용 전망대로 이동해 곰을

관찰할 수 있다. 수십 마리의 그리즐리 베어가 산란하는 연어를 섭취하며 겨울을 대비해 지방을 축적한다. 나이트 인렛 롯지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운영한다. 요일에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패키지를 시작할 수 있다. grizzlytours.com

#### 쿠츠에마틴 윌더니스 롯지

##### Khutzeymateen Wilderness Lodge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의 최북단에 위치한 쿠츠에마틴으로 떠나보자.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에서 수상비행기에 탑승하고 산과 만을 가로지르는 20분간의 비행을 마치면 쿠츠에마틴에 도착한다. 이곳은 침산Tsimshian 선주민의 전통 영토이며, 캐나다 유일의 그리즐리 베어 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쿠츠에마틴에는 도로도 마을도 없다. 오직 자연과 야생동물뿐이다. 쿠츠에마틴 윌더니스 롯지에 머물며 쿠츠에마틴 만과 강어귀를 따라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야생동물과 또 다른 절경을 마주할 수 있다. 롯지에는 퀸 사이즈 침대를 갖춘 8개의 객실이 있으며 사우나도 가능하다.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를 만든 특별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grizzlylytour.com

#### 스피릿 베어 롯지Spirit Bear Lodge

태평양 연안의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Great Bear Rainforest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안 온대 우림 지대다.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 스피릿 베어 롯지가 자리한다. 선주민 키타수/하이하이 퍼스트 네이션 Kitasoo/Xaixais First Nation이 운영하는 이 롯지에서 그들의 영토 내 야생동물 관찰 지역과 문화 유적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커모드 베어라고도 불리는 스피릿 베어는 흑곰의 아종으로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하얀색 또는 크림색 털을 지닌다. 키타수/하이하이 선주민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한다. 선주민 가이드가 이 신성한 꿈을 관찰할 수 있는 키타수 스피릿 베어

보호구역Kitasoo Spirit Bear Conservancy으로 안내하며,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들려준다. 이곳에서의 여정은 대자연과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벨라벨라 마을에서 약 60km 거리에 위치. 밴쿠버-벨라벨라Bella Bella 왕복 항공편과 이동 서비스, 바다 전망 객실, 식사와 가이드 투어 등이 포함된 4박 또는 6박 올인클루시브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다.

#### 쉬어워터 리조트Shearwater Resort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의 벨라벨라 마을 근처에 자리한 쉬어워터 리조트는 때 묻지 않은 대자연 속에서 범고래, 쇠고래, 흑등고래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투어를 제공한다. 또한 흑곰과 그리즐리 베어 등이 연어를 사냥하는 관찰 투어도 가능하다. 리조트를 둘러싼 잔잔한 수로부터 광활하고 한적한 만까지 아름다운 물결이 펼쳐진다. 또한 최고 수준의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다. 밴쿠버-벨라벨라 왕복 항공편과 숙박, 식사, 투어 등이 포함된 4박 또는 5박 올인클루시브 예코 투어 패키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shearwater.ca

#### 페어웰 하버 롯지Farewell Harbour Lodge

페어웰 하버 롯지에서는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와 브라우튼 군도Broughton Archipelago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푸른 태평양 위로 야생 범고래가 유유히 헤엄치고, 강어귀에서는 그리즐리 베어가 연어를 찾는다. 해안가의 롯지에서 풍성한 식사를 즐기고 열정적인 가이드와 함께 야생동물을 관찰하며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등 매일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다. farewellharbour.com



소노라 리조트. ©Destination Canada



희귀한 커모드 베어. ©Spirit Bear Lodge

#### The Ultimate Luxury

##### 소노라 리조트Sonora Resort

고요한 야생과 화려한 럭셔리를 조화롭게 결합한 소노라 리조트는 세계 최고의 호텔리어와 레스토랑 운영자, 셰프로 구성된 릴레 앤 샤토Relais & Châteaux의 회원으로 5성급 럭셔리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높이 솟은 나무 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독수리나 거친 조류를 따라 헤엄치고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바다사자는 이곳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야생에서 그리즐리 베어와 범고래를 관찰하는 투어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낚시 등 매일 모험이 펼쳐진다. 조용한 시간을 원한다면 아일랜드 커런트 스파Island Currents Spa에서 휴식을 취해도 좋다. 저녁 식사는 타이이 다이닝룸Tye Dining Room에서 즐길 수 있다.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요리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와인인 곁들여진다. 갓 잡아 올린 해산물, 유기농 농산물 그리고 까다로운 미식가조차 유혹할 만한 디저트까지 미식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바니아 공원Vanier Park을 달린다. ©Jon Ross Films

**밴쿠버에서 열리는 달리기대회**  
 밴쿠버에서는 10km부터 42.195km 풀 코스 마라톤까지 다양한 대회가 개최된다. 밴쿠버 선런Sun Run(10km)에 참가해 완주하면 완주자 리스트에 이름이 실린 신문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대회**  
 ✓BMO 밴쿠버 마라톤BMO Vancouver Marathon  
 ✓밴쿠버 터키 트로트Vancouver Turkey Trot  
 ✓테리 폭스런Terry Fox Run  
 ✓스코샤뱅크 하프 마라톤 Scotiabank Half Marathon  
**Side Trip. 하프 코르크 마라톤 Half Corked Marathon**  
 일반적인 마라톤과 다른 독특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와인 생산 지역인 블랙 세이지 로드, 골든 마일의 포도밭과 계곡을 따라 달리는데 코스 곳곳에서 와인을 따라준다.  
 oliverosoyos.com/half-corked-marathon/  
**More Info. 러닝 후 들를 만한 레스토랑과 카페 추천 리스트**  
 미쿠 레스토랑Miku Restaurant, 트랙터Tractor, 안 앤 치Ahn and Chi, 더 주스트럭The Juice Truck, 카데로 레스토랑Cardero's Restaurant, 더 에이콘 레스토랑The Acorn Restaurant(베지테리언), 살몬 앤 배녹Salmon N Bannock, 포리지Forage, 팔레트 커피 로스터 Pallet Coffee Roasters

## 아웃도어 액티비티, 4일 이상 코스

### 11 밴쿠버 달리기

밴쿠버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덕분에 러닝하기 알맞다. 게다가 다운타운, 스탠리 파크 등 달리기 좋은 러닝 코스가 즐비하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만큼 러너들도 많고 러너에게 친절하다. 또한 하이킹 코스에서 트레일 러닝을 하는 러너들도 마주칠 수 있다.

**밴쿠버 도착 ✕ 인천-밴쿠버**  
 밴쿠버에 도착하면 숙소에서 체크인 후 하고 다운타운을 돌아보자. 롤루레온, 아르테릭스, 허벌처럼 밴쿠버에서 시작한 스포츠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롬스 스트리트에 모여 있다. 새로운 러닝 기어를 구매하고 뛰기 좋은 코스를 답사한다.

**Stay.**  
**달리기 좋은 스탠리 파크와 가까운 호텔**  
 1. 로든 호텔 theloden.com  
 2. 상그릴라 호텔 밴쿠버 shangri-la.com/vancouver

#### ROAD RUNNING 밴쿠버 다운타운

**스탠리 파크 밴쿠버 방조제**  
 아침에 달리기 나왔다면 스탠리 파크로 가자. 스탠리 파크의 밴쿠버 방조제는 9km 코스이다. 잉글리시 베이에서 출발하면 우측으로는 태평양, 좌측으로는 스탠리 파크의 울창한 숲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 다운타운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밴쿠버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 밴쿠버의 상징적인 러닝 코스다.

#### 폴스 크릭 False Creek

사이언스 월드, 피시픽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출발할 수 있는 폴스 크릭을 따라 뛰는 코스도 밴쿠버를 탐험하기 좋다. 남쪽 해안가를 따라서 뛰면 활기찬 해안가, 운동하고 있는 밴쿠버 사람들을 보면서 경쾌한 러닝을 할 수 있다. 그대로 달려서 그랜빌 아일랜드에 도착할 수도 있다.

#### Side Trip.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는 산업 지대였지만 현재는 창의적인 소품숍, 퍼블릭 마켓 등이 들어서 예술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 제리코 비치 일몰 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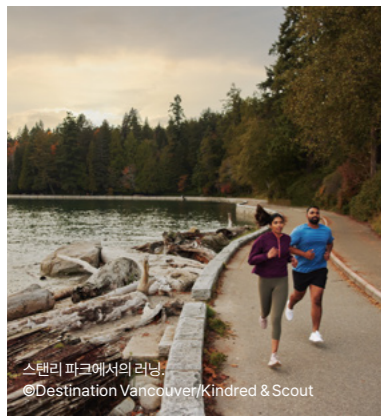
키질라노 해변의 서쪽 산책로를 따라 뛰는 코스다. 해안가와 노스쇼어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면서 달릴 수 있다. 키질라노 비치에서 출발해 키질라노 풀을 지나 서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뛰면 제리코 비치까지 이어진다. 해가 지는 시간대에 일몰과 함께 달리는 것을 추천한다.

#### TRAIL RUNNING 노스 밴쿠버

**그라우스 그라인드 트레일 Grouse Grind Trail**  
 난이도가 높은 트레일 러닝에 도전할 수 있다. 2,83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업힐 코스로 약 3km 구간의 업힐 트레이닝 구간이다. 해당 코스는 걸어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다운힐은 완만한 다른 네트워크 트레일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 라이언스 게이트 브릿지 Lions Gate Bridge

골든 게이트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멋진 브릿지 런 코스이다. 다리를 건너면 약 2.5km 코스로 사방으로 펼쳐진 태평양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 다리를 건너 뒤 노스 밴쿠버의 캐필라노 피시픽 트레일 코스에서 편도 5.5km 트레일 러닝을 이어갈 수 있다.



스탠리 파크에서의 러닝. ©Destination Vancouver/Kindred & Scout

## 아웃도어 액티비티, 8일 코스

### 12 골프 위크

밴쿠버, 휘슬러, 빅토리아를 돌면서 골프로 가득한 일주일일 보낼 수 있다. 씨 투 스카이스ea To Sky 골프 루프 코스는 골퍼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 DAY 1 티샷 전, 설레는 드라이브 밴쿠버Vancouver → 휘슬러Whistler

✕ 인천-밴쿠버  
 밴쿠버에서 휘슬러로 렌터카나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하는 99번 고속도로 역시 별명이 씨 투 스카이스ea To Sky 하이웨이로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이다. 도착한 뒤 휘슬러 빌리지를 산책하며 골프 시작 전의 설렘을 즐기자.

#### DAY 2-3 세계적인 코스에서 티샷 휘슬러에서 골프

휘슬러 빌리지 근처에는 세 곳의 골프장이 있고, 근교에 다른 골프장이 하나 있다. 그래서 골프를 즐기기에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특히 휘슬러에는 잭 니클라우스,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 아놀드 파머, 로버트 쿠프 등 세계적인 골퍼와 건축가가 설계한 골프 코스가 많아서 골퍼들의 자부심을 더한다.

#### 빅스카이 골프 클럽 Big Sky Golf club

로버트 쿠프가 설계한 18홀 코스로 멋진 산의 전망을 보면서 골프를 칠 수 있다.

#### 페어몬트 샤토 휘슬러 골프 클럽

**Fairmont Chateau Whistler Golf Club**  
 블랙콤 산의 약 122m 위쪽에 위치한 18홀 코스로 산 능선에서 골프를 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휘슬러 벨리의 멋진 전망도 펼쳐진다.

#### 니클라우스 노스 골프 코스

**Nicklaus North Golf Course**  
 만년설이 덮인 봉우리와 전나무가 가득한 경치를 감상하면서 골프를 칠 수 있다. 특히 도전적인 파3홀과 독특한 벵커링이 있어 골퍼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18홀.

#### 휘슬러 골프 클럽

**Whistler Golf Club**  
 아놀드 파머가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설계한 18홀 코스이다. 라운딩을 마무리하면서 휘슬러와 블랙콤 산의 드라마틱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구불구불한 그린에 있는 것도 특징이다.

#### Side Trip.

스칸디나비아 스파에서 골프로 쌓인 피로 풀기 scandinav.com/whistler

#### DAY 4-6 골퍼의 파라다이스 밴쿠버 아일랜드

페리를 타고 조지아 해협을 건너 휘슬러에서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로 이동할 수 있다. 밴쿠버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40개 이상의 골프 코스가 있다. 그중에서도 12개의 챔피언십 코스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빅토리아와 캠벨 강 사이의 250km 구간에 걸쳐 다양한 골프 코스가 배치되어 있다. 골퍼들에게 이곳은 골프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린다.

#### 하이랜드 퍼시픽 골프 코스

**Highland pacific Golf Course**  
 캐나다의 일간지 <글로벌 앤 메일 The Globe and Mail>의 골프 작가 브라이언 켄달이 꼽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최고 골프장 중 하나이다. 고지대 황야를 깎아서 만든 인상적인 9홀 코스로, 2007년 개장한 후 북미 100대 골프 연습장으로 선정되었다.

#### 올림픽 뷰 골프 클럽 Olympic View Golf Club

12개의 호수, 2개의 폭포, 아름다운 산의 경치,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 등 자연과 하나가 된 경험을 할 수 있는 18홀 골프 코스이다. 17번 홀은 코스 전체를 압축해둔 풍경으로 티에서 455야드 떨어진 그린을 폭포가 둘러싸고 있다.

#### 베어 마운틴 골프 앤 CC

**Bear Mountain Golf & CC**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36홀 골프장이다. 도전적인 지형과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함께 녹아있는 걸작. 18홀, 7,212야드, 파 72 코스로 골퍼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 DAY 7-8 도시와 자연이 교차하는 그린 밴쿠버Vancouver

빅토리아 이너하버에서 수상비행기를 타거나 페리를 이용하여 밴쿠버로 다시 이동할 수 있다. 밴쿠버의

골프 코스는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큰 장점이다.

#### 메이페어레이크 골프 앤 CC

**Mayfair Lakes Golf & CC**  
 연못과 개울이 곳곳에 있는 코스로 캐나다의 레 퍼버가 설계했다. 18홀 중에서 13홀 코스에 호수와 수로가 있어 아름다우면서도 도전적인 코스이다. 밴쿠버국제공항에서 몇 분 거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밴쿠버에 도착한 뒤 1시간 이내에 티샷을 칠 수 있다.

#### 모건 크릭 골프 코스

**Morgan Creek Golf Course**  
 토마스 맥브룸이 설계한 18홀 코스로 완만하게 구르는 지형이 특징이다. 라운드 내내 베이커 산과 골든이어서 Golden Ears 산맥의 숨막히는 절경을 보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PGA 챔피언십 길이의 골프 코스이다.

#### 유니버시티 골프 클럽

**University Golf Club**  
 길고 좁은 페어웨이, 웅장하게 우뚝 솟은 오래된 나무는 골퍼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여러 번 밴쿠버 최고의 퍼블릭 골프 코스로 선정되었다. 도시에서 가까운데 코스에 들어서면 자연 속에 있는 듯하다. 18홀 코스.

#### More Info.

각 클럽에서 소정의 비용으로 장비 대여가 가능하다.  
**Stay.**  
 1. 밴쿠버에서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다운타운 호텔 destinationvancouver.com/inspirations/city/vancouver-hotels-with-stunning-views



빅스카이 골프 클럽에서 티샷을 날린다. ©Destination BC/Grant Harder

## 웰니스 체험, 7일 코스

# 13 캐나다식 라이프스타일

밴쿠버 사람들에게는 웰니스와 건강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삶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밴쿠버와 빅토리아에서 요가와 스파, 건강한 식단을 즐기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 밴쿠버 ✕ 인천-밴쿠버

밴쿠버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밴쿠버 북쪽의 노스쇼어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에서 다양한 웰니스를 즐길 수 있는 도시다.

### DAY 1 자연을 받아들이기

#### 아침 식사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식품으로 만든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팜투데이블 레스토랑 포리지Forage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즐기자.

#### 삼림욕 투어

록우드 어드벤처와 함께 캐나다 북부의 온대 우림 숲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숲속 명상 투어Forest Bathing Tour는 천 년 이상 된 거대한 숲에서 삼림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라이트하우스 파크의 울창한 원시림 속에서 바다와 숲이 어우러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걱정이 씻겨져나간다. 캐나다의 숲에서 삼림욕의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rockwoodadventures.com

### DAY 2 리추얼 데이

#### 아침 요가

키질라노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일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한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요가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진다. 이 상쾌한 에너지를 안고 밴쿠버에서 활력이 넘치는 그랜빌 아일랜드로 이동한다. 그랜빌 아일랜드 퍼블릭 마켓에서 신선한 채소와 음식을 즐길 수 있다.

#### Side Trip.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패들보드, 카약 투어를 경험할 수 있다. vancouverwateradventures.com

#### 베지테리언 레스토랑

밴쿠버에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항상 중요하다.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베지테리언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밴쿠버다.

#### 다운타운 스파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훌륭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주요 호텔 내에 있는 스파에서는 럭셔리한 스파를 경험할 수 있다.

- 상그릴라 호텔Shangri-La Hotel 내의 치CHI 스파
- JW 메리어트 파크 밴쿠버JW Marriott Park Vancouver의 스파 바이 JW
- 서튼 플레이스 호텔Sutton Place Hotel의 비다 스파Vida Spa



밴쿠버 해변에서의 요가. ©Destination Vancouver/Hubert Kang

### DAY 3-5 명상의 천국

#### 보웬 아일랜드Bowen Island

밴쿠버 북서쪽에 있는 보웬 섬은 요가와 명상의 천국이다. 홀스슈 베이Horseshoe Bay 페리 터미널에서 페리를 타고 20분만 가면 도착하는 보웬 섬에는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넥타 보웬 아일랜드Nectar Bowen Island가 있다. 캐나다의 요가 휴양지에서 3일간 머물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 자연으로 다이빙, 넥타 익스피리언스 패키지

넥타 익스피리언스 패키지는 보웬 아일랜드에서 요가에 심취할 수 있는 3일간의 프로그램이다. 이 패키지는 내연의 자아와 자연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띤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일간의 프로그램은 첫째 날 게스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저녁 요가를 한다. 둘째 날 오전 8시부터 아침 명상과 요가가 이어지며 채식 식단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마지막 날 역시 동일하게 명상과 함께 1시간 동안 아침 요가 레슨이 이어진다. nectaryoga.ca

#### 빅토리아

빅토리아에서도 요가와 럭셔리 스파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접근하거나 수상비행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

### DAY 6-7 바다와 요가

#### 아침 요가

오크 베이 비치 호텔Oak Bay Beach Hotel에서는 오전 8시에 선라이즈 요가 클래스를 진행한다. 1시간 동안의 요가 수업은 연령과 숙련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주로 하타, 빈야사 요가를 실시한다. 특별한 점은 후안 데 푸카Juan de Fuca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씨사이드 가든 테라스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운이 좋으면 요가를 하며 범고래를 볼 수도 있다. oakbaybeachhotel.com

#### 리추얼 노르딕 스파Ritual Nordic Spa

핀란드 전통에 따라 뜨거운 요소에서 차가운 요소로 이동하는 스파를 받을 수 있다. 리추얼 노르딕 스파Ritual Nordic Spa는 스칸디나비아 스파 스타일을 재구성해 건강을 복돋운다. 삼나무를 활용한 전통적인 스파, 유칼립투스 잎을 활용한 스팀 룸, 차가운 플런지 풀로 이루어진 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 ritualnordicspa.com

## 웰니스 체험, 6일 코스

# 14 천연 온천 여행

산과 바위 틈에 자리한 천연 온천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숨겨진 보물이다. 멋진 리조트, 산악 환경에서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걱정이 녹아내린다. 800km에 달하는 서클 루트를 따라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 ✕ 인천-캘거리

#### ✕ 인천-밴쿠버-캘거리

#### 페어몬트 핫스프링스 리조트

#### Fairmont Hot Springs Resort

온천과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다. 페어몬트 핫스프링스 리조트에는 온천수로 채운 수영장이 있다. 온천 수영장의 수온은 39°C로 유지되며, 대형 수영장은 32°C이다. 따뜻하게 수영을 즐기기에 좋은 온도로 유지된다. 온천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까지이다. 룿지에서 투숙하면 온천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이외에도 냉수 플런지 풀, 한증막, 사우나, 45홀의 골프장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 Side Trip.

온천 외에도 골프, 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을 즐길 수 있어 2박 이상 추천.

#### 레이디덤 핫스프링스Radium Hot Springs

쿠트니 국립공원의 싱클레어 캐년Sinclair Canyon의 붉은 암벽 사이에 자리한 온천이다. 자연적으로 뜨거워진 미네랄 온천으로 보통 39°C가 유지된다. 선주민이 발견한 이 온천수는 몸살과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 캐년 핫스프링스 리조트

#### Canyon Hot Springs Resort

이 리조트는 2개의 천연 미네랄 온천 풀이 유명하다. 5월에서 9월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다. 다른 리조트와는 달리 캠핑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 Side Trip.

캐년 온천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레벨스톡은 오지 모험의 성지이다.

#### 할시온 핫스프링스 리조트

#### Halcyon Hot Springs Resort

어퍼 애로우 호수 옆에 있는 할시온 핫스프링스 리조트에는 4개의 온천이 있다. 온천장은 각각 다른 온도로 37°C, 40°C를 유지하며, 냉수풀도 갖추었다. 또한 온수 수영장, 키즈 스플래시 파크가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즐기기도 좋다. 온천 주변에는 고산 봉우리와 푸른 호수로 둘러싸여 휴양과 함께 웰니스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인근에 하이킹 코스도 잘 갖추어져 2박 이상 머물며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온천욕을 한 번에 즐기 좋다. 휴양지로 완벽한 조건.



나쿠습 핫스프링스. ©Destination BC/Kari Medig

# 알버타 주

## Alberta

### 기본 정보

대한민국 면적의 약 7배  
주도는 에드먼튼, 가장 큰 도시는 캘거리

### 항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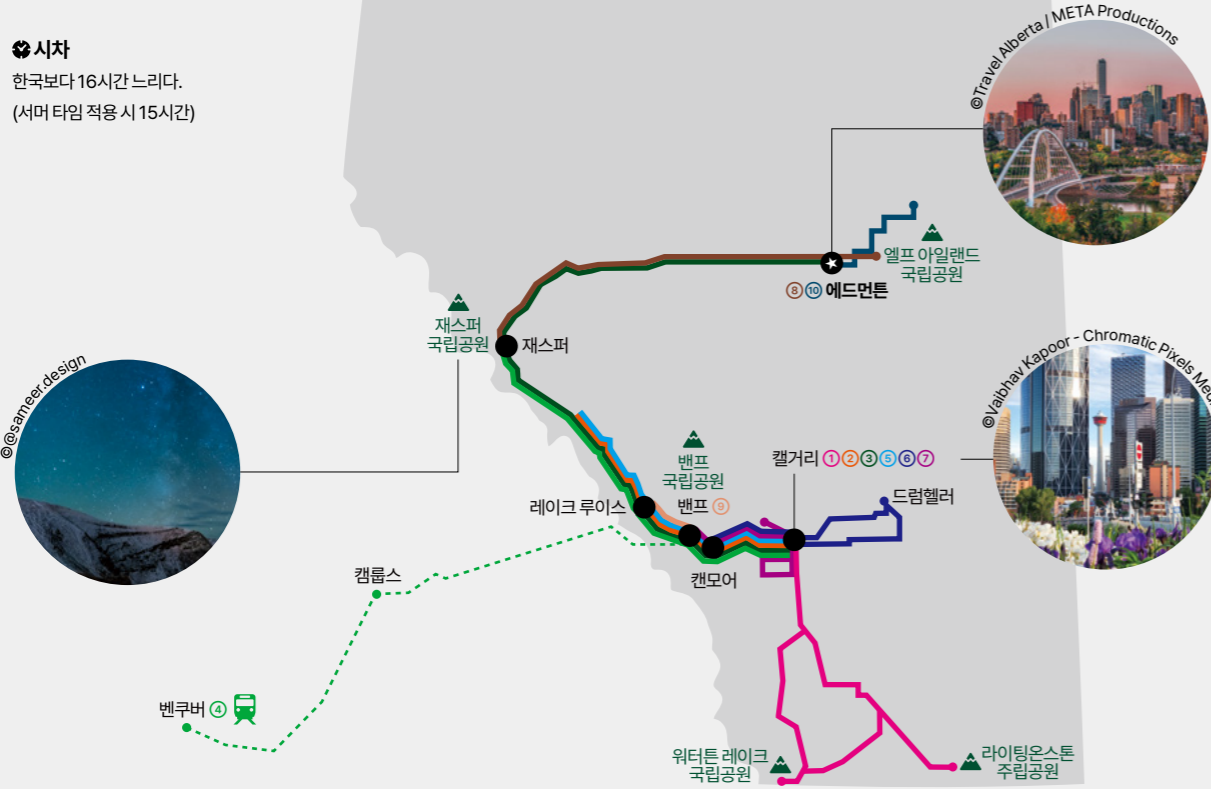
인천-캘거리 약 10시간 30분 소요  
밴쿠버-에드먼튼 약 1시간 30분 소요  
밴쿠버-캘거리 약 1시간 30분 소요

### 여행 정보

알버타 주 travelalberta.com  
밴프 & 레이크 루이스 banfflakelouise.com  
캠모어 & 카나나스키스 explorecanmore.ca  
에드먼튼 exploreedmonton.com  
캘거리 visitcalgary.com  
재스퍼 jasper.travel

###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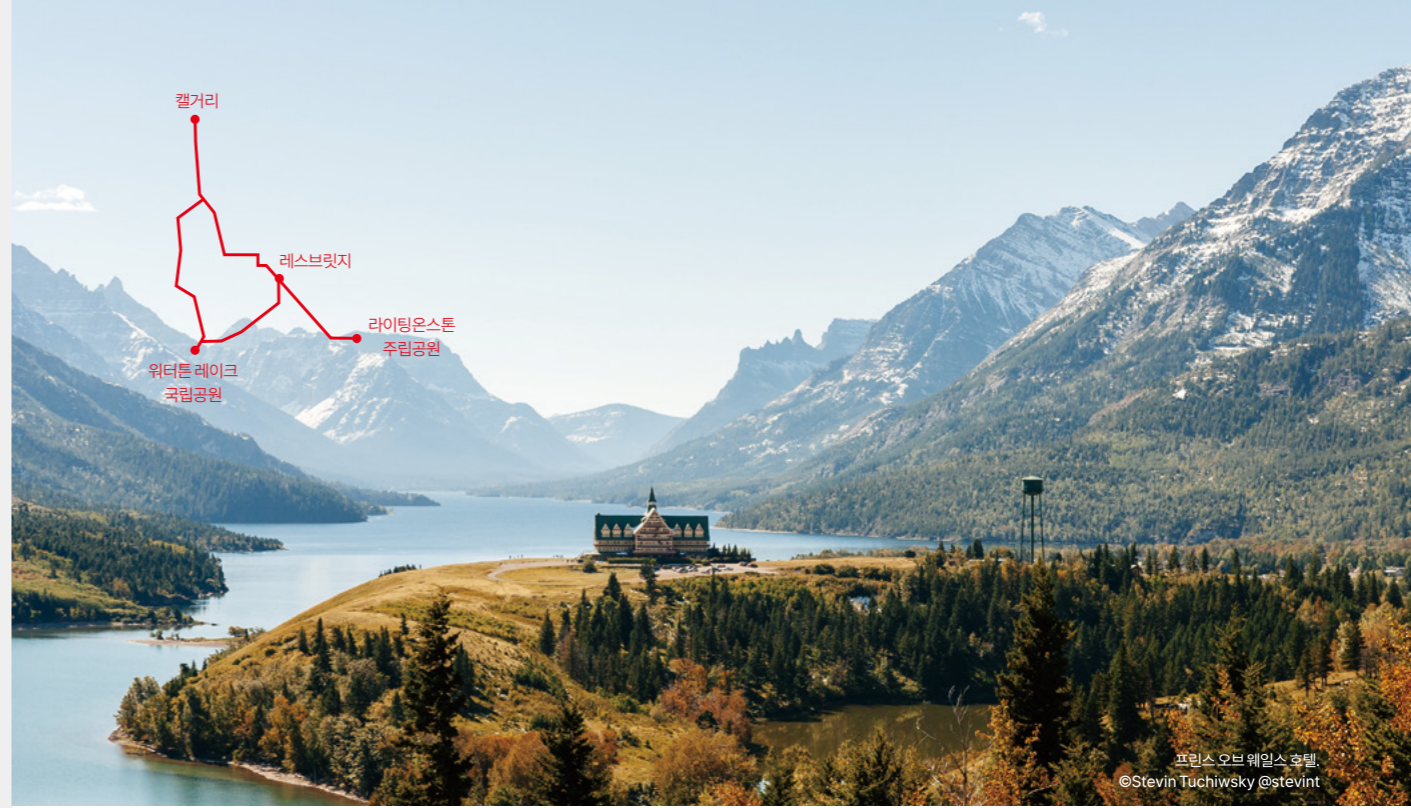
한국보다 16시간 느리다.  
(서머타임 적용 시 15시간)



### 추천여행코스

- ① 알버타 남부 횡단하기
- ②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정수
- ③ 알버타 주 미식 여행
- ④ 럭셔리 열차와 로키 산맥
- 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로키 하이킹

- ⑥ 와일드골프
- ⑦ 자연과 도시를 오가는 골프 여행
- ⑧ 신비로운 낮과 밤
- ⑨ 야생의 측면에서
- ⑩ 선주민처럼 오로라 바라보기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텔  
©Stevin Tuchiwsky @stevint

### 추천 드라이드 코스, 4일 코스

## ① 알버타 남부 횡단하기

과거 탐험가들이 '배드랜즈'라 칭할 만큼 움푹 파인 길과 황량한 바람이 두드러졌던 남부 알버타의 지형을 탐험하고자 차에 오른다. 이 여정은 주립공원과 국립공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경유한다.

### DAY 1 여행 출발

#### 캘거리 Calgary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캘거리  
알버타 주의 주도인 캘거리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도착 시각에 따라 캘거리 다운타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된다.

### DAY 2 선주민의 흔적

#### 라이팅온스톤 주립공원 Writing-on-Stone Provincial Park → 레스브릿지 Lethbridge

✂ 100km  
선주민 블랙풋이 신성하게 여기는 라이팅온스톤 주립공원에서 선주민의 암각화를 감상한다. 보다 깊이 있는 여정을 원한다면 가이드가 동행하는 도보 투어(1시간 30분~3시간 소요)를 예약해도 좋겠다. 여행자들은 이곳이 선주민에게 지니는 의미와 초기 정착민과의 관계를 알아가며 주립공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혹은 밀크 강 Milk River 인근에 자리한 캠핑장에서 과거의 일상을 체험해볼 수도 있다.

### DAY 3

#### 역사적인 가족 거래 현장 레스브릿지 Lethbridge →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 Waterton Lakes National Park

✂ 120km  
1860년대 중반부터 1880년대 초반까지 레스브릿지에 만연했던 버펄로 가족 거래의 실상이 포트 울업 Fort Whoop-up에 남아 있다. 가이드가 선주민, 메티스(선주민과 유럽 정착민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 캐나다인, 미국인, 영국인이 얽힌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시연한다.

#### Hiking.

✂ 짧지만 매우 가파른 베어스 험프 Bear's Hump는 다소 어려운 코스에 속한다. 편도 1.4km 거리로 대부분의 여행자는 정상까지 30~45분쯤 소요된다. 워터튼 밸리 Waterton Valley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훌륭하다.

#### Cruise. 워터튼 레이크 크루즈

✂ 인터프리티브 사이트 시잉 크루즈 Interpretive Sightseeing Cruise는 미국의 고트 헌트 레인저 스테이션 Goat Haunt Ranger Station에 머무르는 30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15분 소요된다. 30분 이상 머무른다면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캐나다-미국 국경 크루즈 Canada-USA Border Cruise는 호수 중간에 다다르며 1시간 25분 소요되는 경로로 여권은 필요하지 않다.

✂ watertoncruise.com

#### Stay.

✂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의 출발지로 적절한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텔 Prince of Wales Hotel은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문을 연다. 내부 곳곳에 세련된 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호텔을 거니는 것만으로 미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창문 밖으로 일렁이는 어퍼 워터튼 호수 Upper Waterton Lake의 물결.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glacierparkcollection.com/  
lodging/prince-of-wales-hotel  
✂ 트윈 뷰트 사일로스 Twin Butte Silos는 곡물 저장고를 개조한 감각적인 숙소이다.  
twinbuttesilos.com

### DAY 4 지형의 다양성

#### 워터튼 Waterton → 크로우즈네스트 패스 Crowsnest Pass → 캘거리 Calgary

✂ 260~300k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헤드-스매시드-인 버펄로 점프 Head-Smashed-In Buffalo Jump는 6000년이 넘는 블랙풋 선주민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절벽 위와 아래로 이어지는 트레일을 따라 블랙풋이 어떤 방식으로 버펄로를 사냥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7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암석 절벽은 가까이 서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느낌을 준다. 또 다른 유산을 찾아 프랭크 슬라이드 안내 센터 Frank Slide Interpretive Centre로 이동해본다. 1903년, 터틀 산 Turtle Mountain에서 1억1,000만 톤의 암석이 떨어지나면서 9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자료관에서는 암석이 떨어지나온 이유와 파괴적인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직접 그 잔해를 걸어보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 Local Flavor.

✂ 캘거리로 돌아오게 되면 알버타 주 최초의 크래프트 증류소인 오클레어 증류소 Eau Claire Distillery를 놓치지 말자.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인 터너 밸리 Turner Valley에 자리한다. 알버타의 풍요로운 자연과 캐나다 최고의 증류주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일념으로 탄생한 위스키와 보드카 등이 일품. 팰러 진 Parlour Gin이 이 증류소를 대표하는 술이다.



## ②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정수

밴프에서 출발해 레이크 루이스와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캘거리를 아우르는 여정. 약 465km를 주행하며 캐나다 로키 산맥의 면면을 마주한다. 이 일정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여행자에게 적합하다.



아이스필드파크웨이의 가을. ©Dave Lieske @davey\_gravy

### DAY 1

#### 캐나다 국립공원의 발상지, 밴프

밴프Banff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캘거리

#### 케이브 앤 베이슨 국립 사적지

Cave and Basin National Historic Site

케이브 앤 베이슨 국립 사적지는 캐나다 공원관리청의 감독하에 땅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소로 밴프의 문화와 자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트레일을 걷다가 동굴을 하이킹하며 로키 산맥의 운치를 감상할 수 있다.

#### 설퍼산 Sulphur Mountain

단시간에 산 정상에 오르는 묘미를 만끽하고 싶다면 밴프 곤돌라Banff Gondola를 추천한다. 단 8분 만에 698m 높이에 위치한 설퍼 산의 전망대에 이르러 로키 산맥과 밴프 타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또한 전망대부터 샌슨스 피크Sanson's Peak까지 간단한 해설을 제공한다.

####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 Banff Upper Hot Springs

장시간 운전을 앞두고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에서 심신을 풀어도 좋겠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온천인 만큼 설퍼 산Sulphur Mountain, 런들 산Rundle Mountain과 맥을 같이한다. 두 산의 갈라진 틈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열과 미네랄을 잔뜩 머금어 치유 효과를 낸다고.

#### 미네완카 호수 Minnewanka Lake

밴프 타운에서 15km를 달려 미네완카 호수에 닿는다. 이 호수는 드라이브에 알맞은 고즈넉한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장엄한 로키 산맥이 이루는 조화가 감탄을 자아낸다. 게다가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다양한 크루즈를 띄워 선상으로부터 밴프의 지질과 역사에 관해 배워볼 수 있다.

#### Local Flavor.

① 현지인이 즐겨 찾는 파크 디스틸러리Park Distillery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파크 버거를 주문하고 로키 산맥의 빙하수로 만든다는 수제 위스키를 한잔 곁들여도 좋겠다.

#### Side Trip.

② 디스커버 밴프 투어Discover Banff Tours에서 로키 산맥과 밴프 국립공원의 여름과 겨울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존스턴 캐년 아이스위크뿐 아니라 스노슈잉, 야생동물 관찰 등 다양한 일일 투어가 마련되어 있다.



### DAY 2

####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레이크 루이스&모레인 호수

밴프Banff

####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밴프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고산 호수. 로키 산맥과 빅토리아 빙하가 배경을 이루어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한다. 빙하가 녹아 만든 에메랄드 빛깔의 물결 속에서 카누를 타거나 주변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 이지하이킹 & 티하우스

페어몬트 사토 레이크 루이스에서 포장된 길을 따라 운전한 뒤 해발 2,135m에 오를 채비를 한다. 1901년 로키 산맥 하이커의 피난처로 지어진 레이크 아그네스 티하우스Lake Agnes Tea House는 여전히 100년 전 식탁과 의자, 창문으로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00가지가 넘는 차와 수제 수프, 갓 구운 빵을 내놓는다.

#### 모레인 호수 Moraine Lake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파가 붐빈다는 모레인 호수에 가려면 잠시 차에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호수를 보존하기 위해 개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로 갈아탄 뒤에는 로키 산맥의 빙하가 녹아든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카누와 카약 등의 액티비티가 기다린다.

#### More Info.

##### 모레인 호수 가는 법

🚌 파크 캐나다 셔틀 Parks Canada Shuttle.

레이크 루이스-모레인 호수(5~10월 운행)  
parks.canada.ca/pn-np/ab/banff/visit/  
parkbus/louise#parks canadashuttles

🚗 룸 퍼블릭 트랜짓 Roam Public Transit.

밴프-레이크 루이스-캠모어(연중 운행)

roomtransit.com



모레인 호수. ©Travel Alberta / Roth and Ramberg

### DAY 3

####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밴프Banff → 아이스필드 파크웨이Icefield Parkway → 캘거리Calgary 462km

#### 빙하 탐험

로키 산맥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국립공원인 재스퍼 국립공원Jasper National Park의 지질학적 중심지인 컬럼비아 아이스필드Columbia Icefield를 탐험해볼 기회! 먼저 특수 차량인 아이스 익스플로러를 타고 애써베스카 빙하Athabasca Glacier 위로 이동한다. 숙련된 가이드가 이곳의 신비로운 자연을 설명해주며 신선한 빙하수가 흐르는 곳을 안내해 직접 마셔볼 수 있다.

#### 아찔한 전망대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Columbia Icefield Skywalk는 선원타 밸리Sunwapta Valley에 있는 280m 높이의 유리 바닥 전망대다. 로키 산맥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약 1km 이어지며 빙하, 화석, 야생동물 등을 관찰할 수 있다.

#### More Info.

📍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어드벤처Columbia Icefield Adventure 티켓에는 가이드, 애써베스카 빙하와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 등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3시간 소요된다.

banffjaspercollection.com/attractions/  
columbia-icefield

#### Side Trip.

🌲 캘거리로 돌아가기 전 밴프 국립공원에 자리한 페이토 호수Peyto Lake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 늑대 모양에 투명한 정도로 푸른빛을 띠어 단연 이목을 끈다.

### DAY 4

#### 알버타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캘거리

캘거리Calgary

#### 캘거리 타워 Calgary Tower

캘거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91m 높이의 전망대에서 도심과 보우강, 로키 산맥 등의 풍경이 360도로 펼쳐진다. 일부 구간은 유리로 되어 발아래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스릴도 느낄 수 있다. 꼭대기에 위치한 스카이가 360 레스토랑 앤 라운지는 천천히 회전하므로 식사를 하면서 캘거리의 전경을 두루 바라보게 된다.

#### 헤리티지 파크 Heritage Park

로키 산맥과 대초원 일대에 형성되었던 옛 마을이 공금하다면 헤리티지 파크 Historical Village가 호기심을 풀어줄 테다. 증기 기관차를 타고 농장에서 블랙풋 문화(북아메리카 선주민인 블랙풋이 알버타 주에 거주하면서 발전한 문화)를 익히거나 가솔린 앨리 박물관Gasoline Alley Museum에서 골동품 차량을 구경할 수 있다.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Travel Alberta / Mike Seehagel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 ©Pursuit Collection / Mike Seehagel



텐 풋 헨리의 요리. ©Travel Alberta / ROAM Creative

## 미식, 4일 코스

### ③ 알버타 주 미식 여행

알버타 주는 너른 들판에서 자란 소, 엘크, 카리부와 청정 농지에서 길러낸 콩, 밀, 보리 등 풍부한 식재료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셰프들이 창의적인 현지 미식을 선보인다.

#### DAY 1 캘거리의 맛

##### 캘거리Calgary

웨스트젯 인천-캘거리 캐나다 목적업의 약 30%를 차지하는 알버타 주. 알버타 주 내에서도 캘거리는 목우의 중심지로 일컬어진다. 이곳에서 소고기 요리를 시작으로 입맛을 한껏 돋워보자.

##### 사퀴트CHARCUT

미국의 리얼리티 요리 경쟁 프로그램인 <톱 셰프>의 결승 진출자인 코니 드수사Connie DeSousa와 존 잭슨John Jackson이 운영 중인 사퀴트에서 사퀴트리의 정수를 맛본다. 캘거리 목장에서 공수한 소고기와 자체 정원에서 수확한 허브로 식재료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했다. 매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큰 장점.

##### 디.오.피.D.O.P

이탈리언 푸드를 기꺼이 수용한 디오피에서 타자린tjarin에 도전해보자. 이탈리아식 열장 항정살인 구안찰레guanciale, 이탈리아 남부의 고추인 칼라브리아 페퍼calabrian peppers에 포도도로 소스를 올린 파스타로 독특한 향을 낸다. 대부분의 식재료를 현지에서 공급받는다.

##### 텐 풋 헨리Ten Foot Henry

소고기 요리가 주된 캘거리에서 텐 풋 헨리의 채식 메뉴는 더욱 귀하게 다가온다.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감자 등을 적절하게 사용한 각종 샐러드가 인기 메뉴. 현지인들은 비건이 아니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선보이는 브런치 메뉴를 자주 찾곤 한다고.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허브가 들어간 오믈렛, 아보카도 토스트, 메이플 시럽을 뿌린 팬케이크 등을 내놓는다.

##### 리버카페River Cafe

보우 강Bow River 한가운데 떠 있는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Prince's Island Park로 향하여 캐나다산 디저트를 음미해본다. 공원 안의 유일한 카페 겸 레스토랑인 리버 카페에서는 커피와 초콜릿을 제외하고 전부 현지 식재료를 취급한다. 맑은 날엔 피크닉 바구니를 빌려주기도 한다.

##### Side Trip.

① 베이커리 버스나 파머스 마켓 등 취향에 맞게 참여하는 캘거리 푸드 투어

albertafoodtours.ca/food-tours-calgary

##### 이색 숙소

캘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University District 중심부에 들어선 **알트 호텔Alt Hotel**은 다양한 스포츠의 묘미를 선사한다. 가까운 거리에 프로 아이스하키 팀인 캘거리 플레임스의 홈구장인 스코샤뱅크 새들돔Scotiabank Saddledome, 스피드스케이팅을 만끽할 수 있는 경기장인 올림픽 오벌Olympic Oval 등이 있을 뿐 아니라 호텔 내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germainhotels.com/en/alt-hotel

프리디스Priddis 마을은 캘거리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했음에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띤다.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들어선 **아주리지 호텔Azuridge Hotel**에 묵으며 따스하고도 목직한 환대를 받아본다. 공작석, 청금석, 자수정, 진주 등의 보석을 테마로 한 13개의 객실이 내세운 각각의 효험이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공작석은 신경계를 이완시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준다는 식. 정성을 맑게 하고 창의력을 높이고 싶다면 청금석으로 이루어진 디렉스 스위트룸을 추천한다. azuridgehotel.com



재스퍼의 피라미드 레이크 롯지Pyramid Lake Lodge. ©Travel Alberta / Cakewalk



밴프 타운. ©Rocky Mountaineer



에드먼튼의 알지이 알디. ©FOODBOOM GmbH

#### DAY 2 밴프의 풍요로움

##### 밴프Banff

밴프 타운을 중심으로 양질의 레스토랑과 펍이 모여 있다.

##### 주니퍼 비스트로Juniper Bistro

채식주의자나 글루텐 프리 음식을 추구하는 여행자가 방문하기에 알맞은 주니퍼 비스트로는 현지에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조달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공급 업체로 고스포드 메이플 농장Gosford Maple Farm, 딥워터 농장Deepwater Farms 등이 있으며 방목 달걀, 구운 버섯, 신선한 방울토마토와 토스트로 구성된 조식이 인기다. 비스트로답게 라테알에도 일가견이 있는데 허브 향이 감도는 피치 바질 위스키, 알버타 주의 야생성을 표현했다는 석류 진 피즈가 이색적이다.

##### 척스 스테이크하우스Chuck's Steakhouse

알버타 주의 품질 좋은 소고기 맛이 궁금하다면 척스 스테이크하우스가 알맞겠다. 소고기를 단단한 나무 위에서 구워내는 목장식 만찬을 대접하며 전담 서버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소고기의 각 부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취향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후추를 가볍게 뿌린 알버타 프리미엄 안심에 전담 소믈리에가 추천해주는 와인이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 Side Trip.

① 초가을까지 카우보이 요리를 대접하는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푸드 투어 banfflakelouise.com/trip-ideas/summer-foodie-getaway

① 잇 더 캐슬 옛 더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 Eat the Castle at The Fairmont Banff Springs Hotel은 호텔 내 레스토랑 네 곳에서 알버타 주의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감각하는 3시간의 투어를 진행한다. 각 레스토랑의 셰프가 음식에 관해 소개하고, 알버타 푸드 투어서Alberta Food Tours의 가이드가 호텔의 탄생 비화를 들려준다.

#### DAY 3 재스퍼의 숲속 만찬

##### 재스퍼Jasper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끼고 재스퍼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 숲속에서 청정한 맛이 펼쳐진다.

##### 하비스트 푸드 앤 드링크Harvest Food & Drink

친절한 서비스, 훌륭한 고기, 공정무역 커피, 세 가지 키워드가 하비스트 푸드 앤 드링크를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점심과 저녁 외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애프터눈 소셜 메뉴를 개시한다. 이 시간에는 셰어링이 가능한 간단한 메뉴를 준비하는데, 셰프가 엄선한 세 가지 수제 치즈와 절인 올리브, 견과류, 바게트를 담아낸 아르티자 치즈나 여기에 세 가지 절인 고기를 추가한 하비스트 시그니처를 추천한다. 푸짐한 양에 속이 금방 든든해질 것이다.

##### 알토Aalto

피라미드 호수Pyramid Lake에 자리 잡은 알토에서 그들이 '호수 음식'이라 칭하는 싱그러운 해산물 요리를 주문해본다. 셰프가 무즈로 삼은 호수가 어떤 요리로 재탄생할지 추측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체 요리로 생선알을 얹은 노르딕 브로스Nordic Broth와 메인 요리로 부추, 샬롯, 감귤류를 첨가한 호박 리소토인 아틱 차르Arctic Char를 먹거나 디저트를 포함한 코스 요리를 시켜봐도 좋겠다. 참고로 6인 이상의 단체 손님은 20% 팀이 적용된다.

##### Cruise.

① 경치 좋은 말린 호수Maligne Lake에서 크루즈에 탑승할 수 있다. 이 호수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가장 큰 빙하로 인해 생성되었다.

#### DAY 4 에드먼튼의 싱그러움

##### 에드먼튼Edmonton

알버타 주의 주도인 에드먼튼에서 풍성한 미식 여행을 마무리해본다.

##### 카페 모자이크Café Mosaics

1990년대 중반 오픈한 카페 모자이크는 채식주의자가 환호할 만한 요리로 메뉴판이 가득 차 있다. 가까운 농장에서 실어온 허브가 온갖 메뉴에 들어가는데 상싱한 아침 메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더 라이트 브렉퍼스트는 말 그대로 두부, 아보카도, 양파에 모자이크식 머스터드를 곁들여주는 가벼운 요리다. 라벤더 레모네이드나 카카오 바나나 같은 유기농 음료와 조합이 좋다.

##### 알지이 알디RGE RD

유기농 음식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알지이 알디의 요리는 야생에 가깝다. 신선한 도축 방식과 불타오르는 장작으로 평야의 맛을 낸다. 직접 가축을 기르고 도축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사전 예약 시 손님들도 이 과정에 참여해볼 수 있다고. 덕분에 일반적인 소고기가 아니라 소의 심장, 꼬리, 배꼽, 간, 혀 등 특수 부위도 흔히 다뤄지곤 한다. 연중 특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레이크사이드 팜스테드Lakeside Farmstead산 소고기도 놓칠 수 없다.

##### Side Trip.

① 에드먼튼 주청사로 가서 HBO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의 촬영지를 구경해보는 건 어떨까.

①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에드먼튼 푸드 투어 albertafoodtours.ca

기차 여행, 7일 코스

④ 럭셔리 열차와 로키 산맥

브리티컬럼비아 주와 알버타 주를 가로지르는 로키 마운티니어는 시시각각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천천히 달리는 열차 안에서 장엄한 로키 산맥과 다양한 야생동물을 마주할 수 있다. 호스트인 승무원뿐 아니라 다른 여행자와 교류하며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된다. 밴쿠버에서 출발해 밴프 또는 레이크 루이스, 재스퍼에서 하차하는 코스가 있으며 반대 여정도 가능하다. 보통 캠프스에서의 숙박을 포함한 최소 1박 2일 일정이며, 로키 마운티니어의 패키지 투어도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 [rockymountaineer.com](http://rockymountaineer.com)



로키 마운티니어. ©Rocky Mountaineer

DAY 1 기차여행 준비  
밴쿠버 Vancouver

✕ 인천-밴쿠버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페어몬트 호텔 Fairmont Hotel이나 샌드맨 호텔 Sandman Hotel에 투숙하며 내일의 여정을 준비한다. 호텔 로비에서 로키마운티니어 에이전트를 만나 사전 체크인도 진행한다.

DAY 2 기차여행 출발  
밴쿠버 Vancouver → 캠프스 Kamloops

본격적인 여정은 밴쿠버의 로키 마운티니어 역 Rocky Mountaineer Station에서 울리는 웅장한 백파이프 연주로 시작된다. 조식이 준비되는 동안 프레이지 밸리 Fraser Valley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비옥한 대지와 푸르른 들판의 목가적인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점심시간 즈음에는 프레이지 강 Fraser River과 헬스

게이트 Hell's Gate의 거센 급류가 시선을 끈다. 세프가 준비한 세 가지 코스 요리를 즐기며 호스트가 들려주는 지역 이야기에 심취한다. 그렇게 열차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강변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소도시 캠프스에 다다른다.

DAY 3 점점 고도가 높아진다  
캠프스 Kamloops → 밴프 Banff

열차 안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하며 동쪽으로 이동한다. 술술 고도가 높아지면 슈스왓 Shuswap에 이르렀다는 것. 이때 와인을 한 잔 주문해 하늘로 뻗어가는 기분을 만끽해보도 좋겠다. 열차가 3일 차 여정의 종착지인 밴프에 닿으면 우뚝 솟은 봉우리와 그 사이의 협곡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감탄을 자아낸다. 곧이어 역 바로 앞에 준비된 셔틀버스가 사전에 예약한 호텔로 데려다준다. 이후의 일정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로키 마운티니어. ©Rocky Mountaineer



레이크 루이스. ©Travel Alberta / Roth and Ramberg

\*4일 차부터는 기차 여행이 아니라 인근을 돌아보는 추천 여정이다.

DAY 4 밴프 여행  
밴프 국립공원 Banff National Park

**우아한 호텔**  
1888년 문을 연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Fairmont Banff Springs는 '로키 산맥의 성'이라 불리는 럭셔리 호텔이다. 우뚝 솟은 지붕과 돌담이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오후에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저녁에는 세련된 런치 바 Rundle Bar에서 수제 칵테일을 음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 밴프 최고의 스파뿐 아니라 수상 경력을 보유한 골프 코스 등을 즐길 수 있다.  
[fairmont.com/banff-springs](http://fairmont.com/banff-springs)

**전망 좋은 레스토랑**  
밴프 곤돌라를 타고 설퍼 산 Sulphur Mountain 정상에 올라 스카이 비스트로 Sky Bistro를 찾아간다. 이 비스트로는 밴프 타운이 한눈에 내려다보일 뿐만 아니라 로키 산맥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전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캐나다 전통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현지 식재료를 만든 음식 또한 훌륭하다.

**모레인 호수**  
청록빛 물결이 반짝이는 모레인 호수는 텐 피크 계곡에 자리한다. 봄비는 인파를 제한하고 서식하는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차량의 출입은 통제된다. 대중교통이나 투어 버스만 드나들 수 있으며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만 통행이 이루어진다. 하이킹을 즐긴다면 약 4.3km의 라치 밸리 트레일을 추천한다. 모레인 호수는 오전과 오후, 해의 방향에 따라 수면의 색감이 달라지는 까닭에 아침 일찍 호수를 보고 하이킹한 뒤 늦은 저녁에 다시 호수로 내려오는 것이 좋다.

- Hiking.**
- 👣 모레인 호수 - 콘솔레이션 호수 Consolation Lakes (6km)
  - 👣 모레인 호수 - 라치 밸리/센티넬 패스 Larch Valley/Sentinel Pass (12km)
  - 👣 모레인 호수 - 에펠 호수 Eiffel Lake (12km)

DAY 5 레이크 루이스 여행  
밴프 Banff →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호숫가 호텔**  
밴프 국립공원 중심부에 들어선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Fairmont Chateau Lake Louise에서 우아한 객실과 세계적 수준의 다이닝뿐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만끽한다. 호숫가의 보트 하우스에서 카누를 대여하거나 산악자전거나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다. 시간이 된다면, 레이크 루이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요호 국립공원 Yoho National Park의 에메랄드 호수 Emerald Lake도 방문한다.

**카누**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에서 보아저 카누스 Voyager Canoes 프로그램을 운영해 9~14인승 카누를 타고 반짝이는 빙하 호수를 탐험할 수 있다. 노를 저으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동안 가이드가 레이크 루이스의 별칭인 '황야의 다이아몬드 Diamond in the Wilderness'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 하이킹**  
레이크 루이스의 가을은 날씨가 선선해 하이킹하기 좋다.
- 반나절 코스: 3~4시간**
- 👣 아그네스 호수 티하우스 Lake Agnes Teahouse (7km)
  - 👣 새들백 패스 Saddleback Pass (7.4 km)
- 종일 코스: 5~7시간**
- 👣 빅 비하이브 Big Beehive (10.2km)
  - 👣 세인트 피란 산 St Piran Mountain (12km)
  - 👣 플레인 오브 식스 글레이셔스 Plain of Six Glaciers (14.5km)
- Side Trip.**
- 👣 레이크 루이스의 9월을 만끽하는 3일 일정 [chateau-lake-louise.com/blog/september-in-lake-louise-a-3-day-itinerary](http://chateau-lake-louise.com/blog/september-in-lake-louise-a-3-day-itinerary)



로키 마운티니어의 창밖으로 사진을 찍는다. ©Rocky Mountaineer



로키 마운티니어의 식사. ©Rocky Mountaineer

DAY 6 재스퍼 국립공원 여행  
밴프 Banff → 재스퍼 국립공원 Jasper National Park

**광활한 빙원**  
캐나다인 로키에서 가장 큰 빙원을 볼 수 있는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길이는 약 28km, 면적은 230km²에 달한다. 매년 7m 두께의 눈이 내려 현재 빙원의 두께는 365m에 이른다. 애써베스카 빙하 맞은편에 자리한 아이스필드 센터 Icefield Centre에서는 빙하의 형성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수 차량인 아이스 익스플로러가 애써베스카 빙하 위로 데려다주므로 내려서 주변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이후에는 바닥이 유리로 이뤄진 280m 높이의 전망대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에서 로키 산맥을 감상한다.

**산과 호수 그리고 밤**  
곤돌라인 재스퍼 스카이트램을 타고 해발 2,263m에 오르면 로키 산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멀린 호수에서 크루즈를 타는 것도 좋다. 밤하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스퍼 국립공원에서 천체를 관측하고 무수한 별빛을 품으며 영롱한 추억을 쌓는다.

DAY 7 여행의 마침표  
재스퍼 Jasper → 캘거리 Calgary

웨스트젯의 캘거리-인천 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귀국한다. 밴쿠버를 경유하는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 하이킹/자연 속 산책, 8일 코스

# 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로키 하이킹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통 수준의 하이킹 코스를 포함해 다양한 로키의 트레일을 소개한다. 켈거리에서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캔모어 그리고 카나스키스를 거쳐 다시 켈거리로 돌아오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품에 안는다.

### DAY 1 켈거리 도심 여행

✂ 웨스트젯 인천-켈거리  
도심 속 하이킹은 높다란 건물을 오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알버타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켈거리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켈거리 타워로 향하자. 약 157.6m 높이에 설치된 유리 바닥 위에서 도시의 랜드마크를 찾아보거나 1시간마다 회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심장이 약한 여행자에게는 알버타 주를 영상으로 탐험할 수 있는 타워 내 극장을 추천한다.

#### Side Trip.

**박물관**  
캐나다 서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 미술 컬렉션을 보유한 글렌보우 박물관Glenbow Museum은 25만여 점 이상의 유물과 3만여 점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켈거리 타워에서 단 몇 걸음만 떼면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한곳에서 향유할 수 있다.

#### 동물원

5개 대륙에서 온 100여 종, 4,0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는 켈거리 동물원Calgary Zoo에 방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캐나다, 아프리카, 인도 등의 지명이나 펠귄과 나비 등의 종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으며 가족 단위 여행자에게는 마차를 빌려준다.

### DAY 2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과 온천의 상관관계

자연과 문화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케이브 앤 베이스 국립 사적지Cave and Basin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하이킹의 첫발을 댈다. 1883년, 세 명의 철도 노동자가 이곳에서 우연히 온천을 발견하면서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인 밴프 국립공원이 조성되었다. 온천이 흐르는 동굴을 탐방할 수 있으며 관련 전시뿐 아니라 단편영화도 감상할 수 있다. 트레일을 포함해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기려면 2~3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국립 사적지에서 약 5km 떨어진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 Banff Upper Hot Springs에서 하이킹으로 지친 다리 근육을 풀어보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며, 마지막 입장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다. 해 질 녘에 특히 아름답다.

### DAY 3 밴프 국립공원의 산

아주 쉬운 등반을 원한다면 밴프 곤돌라를 타고 단 8분 만에 설퍼 산에 도달할 수 있다. 정상에서 캐나다 로키 산맥과 밴프 타운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밴프 국립공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과 극장, 탁 트인 전망대뿐 아니라 레스토랑 등이 자리한다. 설퍼 산 트레일을 통해 하이킹도 가능하다. 터널 산 Tunnel Mountain은 밴프 중심부에 위치해 있을뿐더러 경사가 완만해 보편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하이킹 코스다. 1900년에 아시니보인 산Assiniboine Mountain을 등정한 최초의 인물인 제임스 아웃램James Outram이 찬사를 남겼을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코스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 중에는 무려 40년 동안 8,000번 이상 터널 산을 오른 사람도 있다고. 정상에서 펼쳐지는 보우 강의 물결과 주변을 둘러싼 황야가 매우 인상적이다.

#### Side Trip.

**캐나다인 로키와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호수인 미네완카. 미네완카 호수 크루즈Lake Minnewanka Cruise는 에메랄드빛 호수에서 폭포를 감상하거나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1시간 소요되는 클래식 크루즈, 현지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보이지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숙련된 선장이 지역의 지질과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한다. 미네완카 호수는 밴프 타운에서 약 10km 거리에 있으며,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크루즈와 대중교통이 운행된다. banffjaspercollection.com/attractions/lake-minnewanka-cruise**

### DAY 4 빙하가 보이는 하이킹

밴프 국립공원과 재스퍼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차를 타고 달리다가 멈춰서 하이킹에 나선다. 파커 릿지 트레일Parker Ridge Trail은 해발 250m까지 비교적 짧고 완만한 경사로 밴프 국립공원에서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다. 정상에 오르면 사스카추안 빙하Saskatchewan Glacier와 주변 산악지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6월 말까지는 눈이 남았을 수 있으므로 방수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Side Trip.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어드벤처와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 즐기기 travelalberta.com/listings/columbia-icefield-adventure-1086**

### DAY 5 가을 황금빛 하이킹

로키 산맥의 특정 고도에 서식하는 낙엽송인 라치는 가을마다 황금빛으로 물든다. 편도 약 4.3km의 라치 밸리 트레일Larch Valley Trail을 4시간 30분 정도 하이킹한 끝에 마주하는 라치 숲은 큰 성취감을 들게 한다. 이후 센티넬 패스까지 다소 난도 있는 2.5km의 하이킹을 이어갈 수 있다. 종종 파라다이스 밸리Paradise Valley로 깊숙이 들어가는 하이커나 템플 산 Temple Mountain에서 내려오는 등반가가 인사를 건넨다.

#### More Info.

**라치 밸리 트레일 출발점인 모레인 호수 셔틀 시간표 banfflakelouise.com/explore-the-park/moraine-lake-shuttle**



캐나스키스의 포카테라 릿지Pocatererra Ridge 트레일 ©Travel Alberta / AV Wakefield

### DAY 6 레이크 루이스의 호수 하이킹

레이크 루이스의 보트 하우스에서 출발하는 페어뷰 전망대 트레일Fairview Lookout Trail은 고도 상승이 100m 정도인 쉬운 코스이다. 전망대에서 페어몬트 샷도 레이크 루이스와 에메랄드빛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Side Trip.

**스탠디시 체어리프트Standish Chairlift를 타고 해발 2,400m의 선사인 메도우즈Sunshine Meadows에 올라간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리프트 접근이 허용되는 가장 높은 곳이다. 캐나다인 로키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채 360도로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세 개의 고산 호수(라릭스 호수Laryx Lake, 록 아일랜드 호수Rock Isle Lake, 그리즐리 호수Grizzly Lake)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여름에만 운영. banffsunshinemeadows.com**

#### More Info.

아그네스 호수 트레일Agnes Lake Trail과 빅 비하이브 트레일Bag Beehive Trail은 보다 체력을 요구하는 하이킹 코스다.

### DAY 7 캔모어의 호수 하이킹

캔모어의 그래스 호수 트레일Grassi Lakes Trail은 하이커에게 두 갈래 선택지를 제안한다. 트레일 입구의 표지판에서 쉬운 코스와 다소 어려운 코스를 구분할 수 있다. 오른쪽 트레일(쉬운 코스)은 그래스레이크 어퍼Grassi Lakes Upper라고 불리며 울창한 숲 사이의 오래된 도로를 거쳐 호수까지 연결된다. 왼쪽 트레일(다소 어려운 코스)은 폭포를 지나며 보우 밸리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약 4km 거리. 도중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두 트레일을 만든 로런스 그래스Lawrence Grassi의 안내문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후 캔모어 다운타운에서 그림 같은 산책로를 거닐고 미술관과 부티크 등에 방문해보자.

### DAY 8 하이킹 이상의 즐거움

마지막 일정을 카나스키스 컨트리Kananaskis Country에서 보내며 모험의 범위를 캠핑과 클라이밍, 승마, 낚시 등으로 확장한다. 밴프 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어 산악과 야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지명은 1858년 탐험가 존 팰리서 John Palliser가 크리 선주민과의 인연을 기리며 카나스키스 강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했다. 카나스키스를 탐험한 후 다시 켈거리로 돌아간다.

#### Side Trip.

**켈거리의 역사를 되새겨주는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 visitcalgary.com/things-to-do/attractions/heritage-park-historical-village**

#### More Info.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하이킹 코스 8 travelalberta.com/articles/best-alberta-hikes**

## 아웃도어 액티비티, 4일 코스

### ⑥ 와일드골프

약 1억 년 전 공룡이 살았다는 배드랜즈에서 즐기는 골프란!

#### DAY 1 캘거리 도착

웨스트젯이 인천-캘거리 직항편을 운항하며 약 10시간 소요된다. 여유가 된다면 글렌보우 박물관과 캘거리 타워 등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 DAY 2 공룡이 나올 것 같은 골프장

캘거리 Calgary → 드럼헬러 Drumheller  
 143km  
 황량하나 신비로운 배드랜즈의 한가운데 위치한 드럼헬러는 공룡이 번성했던 지역이다. 1965년에 개장한 다이노스어 트레일 골프 앤 컨트리 클럽 Dinosaur Trail Golf & Country Club은 드럼헬러 지형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18홀의 코스를 자랑한다. 레드 디어 강 Red Deer River과 나란히 조성된 프런트 나인 Front 9은 편안하고 즐거운 라운딩 시작을 알린다. 그러나 백 나인 Back 9부터 본격적인 도전에 직면한다. 후두스 Hoodoos(퐁화된 바위기둥 지형) 위에 조성된 이 코스에서는 탁 트인 절경이 펼쳐진다. 라운드가 끝난 후에는 '계곡에서 가장 멋진

테라스'라고 불리는 파티오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후 인근 여행을 즐긴 다음 다시 캘거리로 돌아간다. dinosaurtrailgolf.com

#### Side Trip.

**티라**  
 드럼헬러 밸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 조형물인 티라 Tyra를 만날 수 있다. 티라는 25m 높이로 106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벽화가 이어진다. 티라의 입속에 다다르면 캐나다 배드랜즈의 절경이 펼쳐진다.

#### 후두스 & 후두스 트레일

배드랜즈 곳곳에서 후두스를 볼 수 있지만, 드럼헬러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10번 고속도로 근처의 후두스가 가장 근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 DAY 3 난도 높은 코스 도전

캘거리 Calgary → 캔모어 Canmore  
 캔모어에 있는 실버팁 리조트 Silvertip Resort로 향한다. 이곳의 18홀 챔피언십 코스(파 72)는 장엄한 로키 산맥과 보우 밸리의 경이로운 전망을 선사한다. 약 183m 고도 변화를 포함하며 슬로프 등급이 15.3인 난도 높은 코스다. 5,100야드에서 7,200야드까지 다섯 개의 티 박스를 갖추어 숙련된 골퍼부터 레저 골퍼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라운딩을 마친 후에는 스톤스 그릴 Stony's Grill 또는 루스티카 Rustica에서 식사를 하면 된다. 실버팁

리조트의 남향으로 세워져 여름철에는 골프 코스에서 햇살이 가득한 낮을 즐길 수 있으며, 저녁에는 클럽하우스 파티오에서 딸을 식하면 된다.

#### Side Trip.

**웅장한 로키 산맥의 사이에 자리한 캔모어**  
 다운타운에서 근사한 미술관과 부티크를 방문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DAY 4 캘거리에도 공룡이 있구나!

캘거리 Calgary  
 배드랜즈에서 빠져나온 뒤에다 여운이 남았다면 캘거리 동물원에서 특수 기술을 복원된 애니메트로닉스 공룡과 인사를 나눠보자. 동물원 내 선사시대 공원 Prehistoric Park에서 체험할 수 있다. 알버타 주는 주세가 없어 같은 제품이라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필요한 골프용품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 More Info.

풍광이 아름다운 알버타 주의 골프장  
[travelalberta.com/articles/the-top-golf-courses-and-most-scenic-golf-holes-in-alberta](http://travelalberta.com/articles/the-top-golf-courses-and-most-scenic-golf-holes-in-alberta)



다이노스어 트레일 골프 & 컨트리 클럽.  
 ©Travel Alberta/Anthony Redpath



실버팁 리조트. ©Travel Alberta / C&B Advertising

## 아웃도어 액티비티, 6일 코스

### ⑦ 자연과 도시를 오가는 골프 여행

캘거리를 중심으로 카나나스키스, 밴프, 레드우드 메도우즈, 코크런을 돌아보며 즐기는 골프 라운딩.

#### DAY 1 캘거리에서의 하룻밤

**웨스트젯 인천-캘거리**  
 캘거리의 비즈니스 및 금융 지구 근처에 위치한 페어몬트 팰리스어 Fairmont Palliser에 투숙한다. 호텔 부근에 갤러리와 레스토랑, 쇼핑몰 등이 빼곡해 즐길 거리가 많다. 전 세계의 미술을 탐닉하고 싶다면 글렌보우 박물관을, 캐나다의 음악을 향유하고 싶다면 스튜디오 벨 Studio Bell 방문을 추천한다.

#### DAY 2 환상적인 마운틴뷰

캘거리 Calgary → 카나나스키스 Kananaskis  
 캘거리 서쪽에 자리한 카나나스키스 컨트리 골프 코스 Kananaskis Country Golf Course로 출발한다. 이곳의 36홀 코스는 Kidd Mountain, 로레트 산 Lorette Mountain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한다. 과거에는 가장 짧은 티의 길이가 5,500야드였으나 3,800야드와 4,800야드의 티 세트가 생겨나면서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서밋 레스토랑 Summit Restaurant 역시 골프 시즌마다 인파로 붐빈다. 해당 시즌에는 비나 눈이 내려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Side Trip.

근처의 캔모어에서 출발하는 알파인 헬리콥터 Alpine Helicopters 투어를 통해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비행하며 다각도로 감상해본다. 밴프 국립공원의 경이로운 전망을 바라보면서 알버타 주에 있는 로키 산맥의 지형과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 DAY 3 '악마의 가마솥'에서 날리는 샷

캘거리 Calgary → 밴프 Banff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Fairmont Banff Springs에는 '악마의 가마솥 Devil's Cauldron'

이라 불리는 극적인 파 3홀이 존재한다. 높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여행을 계획하며 상상했던 바로 그 샷이기 때문이다. 공이 빙하가 만든 연못 위로 날아가며 런들 산 기슭의 그린에 안착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때때로 엘크 무리가 찾아온다. 스탠리 톨슨 18홀 코스를 모두 즐길 시간이 없다면, 터널 나인 Tunnel Nine의 9홀 코스를 선택해도 된다. 이곳에서도 똑같이 눈부신 경관 속에서 잊지 못할 라운딩을 경험할 수 있다.

**Stay.**  
 로키 산맥의 성이라 부르는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는 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명소이자 세계적 내내 밴프를 탐험하기에 완벽한 베이스캠프가 되어준다. 프라이빗 다이닝과 애프터눈 티, 칵테일 등 모두 최고 수준이다.

#### DAY 4 업그레이드된 코스에서

밴프 Banff → 레드우드 메도우즈 Redwood Meadows  
 캘거리 서쪽의 구릉지대에 자리한 레드우드 메도우즈 골프 클럽 Redwood Meadows Golf Club은 수피나 네이션 Suut'ina Nation 선주민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 코스는 콘 페리 투어 Korn Ferry Tour(PGA 투어 등용문 역할을 하는 미국 프로 골프 2부 리그)의 개최지로 두 차례 선정되며 떠오르는 신예 선수들이 실력을 겨뤘던 곳이다. 18홀로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그린과 주변 환경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코스를 따라 늘어난 나무 덕분에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알버타 주 내에서 손꼽히는 파 3홀이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 DAY 5 도심배경으로 라운딩

캘거리 Calgary  
 현지 골퍼들은 캘거리 도심과 가까운 뿔더러

대중교통인 씨트레인 CTrain 노선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가나피 포인트 Shaganappi Point의 18홀을 자주 찾는다. 메인 코스는 파 68로 버디 기회를 많이 노릴 수 있으며 재미 요소가 가득하고 가성비까지 뛰어나다. 보우 강 계곡 Bow River Valley 위 언덕에 조성된 백 나인 Back Nine 구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3번 홀 그린에서는 캘거리 타워와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가볍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밸리 나인 Valley Nine 코스도 마련되어, 빠르게 한 라운드를 돌거나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골퍼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된다. 이후 캘거리에서 투숙한다.

#### DAY 6 16번 홀 정복!

캘거리 Calgary → 코크런 Cochrane  
 코크런에 위치한 링크스 오브 글렌이글스 Links of Gleneagles는 과거 콘 페리 투어와 PGA 투어 아메리카스 PGA Tour Americas를 개최했던 명문 코스다. 이곳을 찾은 프로 선수들도 아마 18개의 홀 중 16번 홀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보우 강 계곡과 대평원 Prairies 그리고 멀리 펼쳐진 로키 산맥까지 담을 수 있다. 이 멋진 내리막 홀에서 그린을 정확히 공략했다면, 꼭 'I Hit the Green On 16'이 새겨진 포토 프레임에서 사진을 촬영하자.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기 딱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 More Info.

캘거리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도심과 캐나다의 로키의 탁 트인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긴다. 점심과 저녁 식사 그리고 일요일에는 브런치를 즐길 수 있으며, 캐나다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알버타 주는 주세가 없어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주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캘거리의 CF 치누크 센터 CF Chinook Centre는 캐나다 서부의 최대 쇼핑몰로 스포츠 의류나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 야생동물 만나기 & 아웃도어 액티비티, 5일 코스

### ⑧ 신비로운 낮과 밤

낮에는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밤에는 밤하늘 보호구역에서 별을 감상한다. 광활한 우주와 야생의 생명체는 모두 신비롭다.

DAY 1

#### 반짝이는 에드먼튼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에드먼튼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에드먼튼

도심 속 반짝임을 찾아 에드먼튼의 네온사인 박물관 Neon Sign Museum으로 향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야외에서 운영하며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다. 캐나다 최초의 네온사인 박물관으로 에드먼튼 시가 수집하고 복원한 20개의 간판이 텔러스 빌딩 TELUS Building 동쪽 벽과 머서 창고 빌딩 Mercer Warehouse Building 서쪽 벽에 설치되어 있다.

#### Side Trip.

🏛️ 예술지구 한복판에 자리한 알버타 미술관 Art Gallery of Alberta에서 독창적인 현대미술을 감상한다. 주요 전시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온 더 스폿 On the Spot 투어를 제공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연다.

🏠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인 웨스트 에드먼튼 몰 West Edmonton Mall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800여 개의 매장과 미니 골프장,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 있다. 쇼핑몰 내 판타지랜드 호텔 Fantasyland Hotel의 테마 객실에 머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DAY 2

#### 두 국립공원을 탐험하다

에드먼튼 Edmonton → 재스퍼 Jasper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 Elk Island National Park

에드먼튼에서 동쪽으로 48km 거리에 위치한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에는 250종 이상의 새와 42종의 포유류, 사슴과 엘크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또한 약 400마리의 플레인스 바이슨과 300마리의 바이슨이 서식하고 있다. 가을에는 하이킹과 패들링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스노슈잉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밤이 되어도 즐길 거리는 끝나지 않는다. 이 국립공원은 비버 힐스 다크 스카이 보호구역 Beaver Hills Dark Sky Preserve의 일부이므로 별을 관찰하거나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완벽한 장소다. 공원 중심부에는 캠핑장이 있어 숙박도 가능하다.

#### 재스퍼 국립공원

로키 산맥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재스퍼 국립공원은 여름 및 가을에는 패들링과 하이킹 등을, 겨울에는 다운힐 스키와 스노슈잉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밤하늘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재스퍼 파크 롯지 Jasper Park Lodge에 있는 재스퍼 플라네타리움에도 방문하면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 플라네타리움은 38석 규모의 동형 극장으로 성능 좋은 망원경과 전문 가이드의 안내 덕분에 밤하늘이 더욱 선연하게 느껴진다. 가이드가 별자리와 오로라 이야기, 우주비행사의 시점에서 본 재스퍼 타운의 모습 등을 소개한다. 바깥으로 나가 밤하늘 보호구역에서 레이저 가이드로 별자리를 감상하거나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측하는 투어도 가능하다.

#### Local Tip.

현지인들이 별 감상을 위해 선호하는 또 다른 장소는 재스퍼 타운 외곽의 피라미드 호수 Pyramid Lake이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에 꼭 방문해야 한다. 우주와 천문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특별 행사가 열린다. jasperdarksky.travel

DAY 3-4

#### 짜릿한 낮과 잔잔한 밤

재스퍼 Jasper

낮에는 재스퍼 스카이트램 Jasper SkyTram을 타고 7분 30초간 휘슬러 산의 해발 2,263m까지 이동한다. 하늘 위에서 재스퍼 국립공원의 절경을 감상하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롭슨 산 Mount Robson의 피라미드 같은 하얀 봉우리까지 볼 수 있다. 트램에서 내려 1.4km 길이의 트레일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도 좋다.

재스퍼 국립공원의 멀리 캐년 Maligne Canyon은 멀리 강의 급류가 수천 년에 걸쳐 깎아낸 장엄한 석회암 협곡으로 야생동물을 관찰하거나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자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정비를 하기도 한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 재스퍼 국립공원 웹사이트에서 오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Side Trip.

🌊 애써베스카 폭포 Athabasca Falls는 재스퍼 타운에서 남쪽으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따라 30km 정도 달리면 닿을 수 있다. 엄청난 수량과 굉음으로 폭포의 위력이 더욱 실감 난다. 여러 개의 전망대와 산책로가 마련되어 안전하게 폭포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컬럼비아 아이스필드에 방문해 캐나다 로키 산맥의 가장 큰 빙원을 모험한다. 아이스필드 센터에서 빙하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anffjaspercollection.com/attractions/columbia-icefield

🌐 프리미엄 야생동물 서치 투어 Premium Wildlife Search Tour에 참여하여 쌍안경을 쓰고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해본다. 가이드가 장엄한 자연을 배경으로 야생동물에 관한 짧은 강연도 진행한다.

#### 투어에 참여하고 싶다면

##### 야생동물 관찰

선독 트랜스포테이션 앤 투어스 SunDog Transportation and Tours는 10월부터 4월까지 재스퍼 겨울 야생동물 투어를 운영한다. 오전 9시에 출발하여 3시간 정도 진행되며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재스퍼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엘크와 무스, 코요테, 늑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sundogtours.com/package/winter-wildlife-discovery-tour

##### 미식

재스퍼 푸드 투어스 Jasper Food Tours는 매일 오후 2시 30분, 방문자 안내 센터 Visitor Information Centre 잔디밭에서 시작된다. 3시간 동안 재스퍼의 역사와 함께 네 곳의 현지 레스토랑을 돌며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다. jasperfoodtours.com

##### 출사

재스퍼 포토 투어스 Jasper Photo Tours에서는 매일 맞춤형 출사 투어를 운영한다. 초보자를 위한 입문 투어뿐 아니라 일출과 일몰 촬영, 야생동물 촬영 그리고 야간 출사 투어까지 선택 가능하다. 현지에서 25년 이상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장소와 완벽한 촬영 타이밍을 안내해주므로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절경 속에서 더욱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다. jasperphototours.com

#### More Info.

🗣️ 선독 트랜스포테이션 앤 투어스는 1년 내내 매일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드먼튼 국제공항과 재스퍼를 연결하며 중간에 에드슨 Edson과 힌튼 Hinton에 정거한다. 겨울에는 재스퍼, 레이크 루이스, 밴프, 캘거리 시내 호텔, 캘거리 국제공항을 오가는 일일 셔틀버스 서비스도 운영한다. sundogtours.com

DAY 5

#### 마무리 여행

에드먼튼 Edmonton

대규모의 실내 식물 컬렉션을 보유한 뮤타트 식물원 Muttart Conservatory에서 700종 이상의 식물을 관찰한다. 멕시코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다양한 국가의 생소한 식물종이 가득하다. 이후 에드먼튼의 올드 스트래스코나 Old Strathcona로 향해 세련된 부티크를 구경하고 공연이나 축제 등을 즐겨본다.

#### More Info.

📍 알버타 주에서 별과 오로라를 감상하는 방법. travelalberta.com/things-to-do/outdoor-activities/northern-lights-stargazing

#### Side Trip.

🏰 포트 에드먼튼 공원 Fort Edmonton Park은 인터랙티브 전시를 통하여 선주민의 전통과 지식을 공유하는 곳으로 선주민의 글, 음악,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마차를 타고 농장을 탐방하는 1885년 거리, 빈티지한 전차와 의상을 체험해볼 수 있는 1905년 거리, 메트로폴리탄 시대를 아우르는 1920년 거리 등이 생동감을 더해준다. fortedmontonpark.ca

#### 🏖️ 이색 숙소

산속의 오두막에서 지내는 일을 꿈꿔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재스퍼 국립공원 동쪽 입구 인근 미엥 마운틴 캐빈스 Miette Mountain Cabins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캐빈은 마치 어린이용 장난감 광고에 나올 법한 모습이지만, 야외 바비큐 시설 등이 완벽되어 있다. 가까운 미엥 핫 스프링스 Miette Hot Springs는 캐나다인 로키에서 가장 따뜻한 온천이므로 꼭 방문해야 한다. 재스퍼 타운에서 차로 30분 거리. banffjaspercollection.com/hotels/miette-mountain-cabins  
엘리베이트드 이스케이프 Elevated Escapes에서 글램핑을 즐겨볼 차례. 자연과 어우러진 동 형태의 숙소에 태양광 조명, 피크닉 테이블, 화로대 등이 구비되어 아늑한 캠핑에 운치를 더한다. 엘보우 강 Elbow River의 물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밤하늘을 수놓은 찬란한 별에 집중하기도 좋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 브래그 크릭 Bragg Creek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 elevatedescapes.ca



가을에 만난 사슴. ©Indigenous Tourism Alberta / Roam Creative

## 야생동물 만나기, 5일 코스

# 야생의 측면에서

밴프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 야생동물을 무조건 만날 수 있다고 보장하진 어렵지만 탐험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다. 이상적인 시기는 5월 10월까지.

### DAY 1 밴프 스프링스 달팽이 발견하기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  
 디스커버 밴프 투어스 Discover Banff Tours 에서 야생동물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 가이드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일부 지역을 안내하며 안전하게 관찰하는 법을 설명해준다. 옥수수 알갱이만큼 작디작은 밴프 스프링스 달팽이 Banff Springs Snail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껍데기의 길이가 최대 1cm에 불과한 데다가 발견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 개체수가 대략 1,500마리에서 1만5,000마리로 추정되나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아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투어 중에 이 달팽이를 발견했다면 이후의 일정은 매우 수월하게 느껴질 테다. 투어는 1~3시간 소요된다. 점심 식사는 캐나다의 유명한 음식 탐방 프로그램인 <You Gotta Eat Here>에 등장한 베어 스트리트 타번 Bear Street Tavern에서 밴프 최고의 피자 를 먹는다. 이후엔 도로보 이동해 5,000여 점의 야생동물 표본을 전시 중인 밴프 공원 박물관 국립 역사 유적지 Banff Park Museum National Historic Site에 방문한다. 여력이 된다면 케이브 앤 베이신 국립 역사 유적지에 둘러봐도 좋다.

**More Info.**  
 디스커버 밴프 투어스 banfftours.com

### DAY 2 도로에서 마주하는 야생동물

아침 일찍부터 운전대를 잡고 미네완카 루프 Minnewanka Loop를 달려본다. 현지인들은 “여긴 두 발 달린 여행자보다 네 발 달린 야생동물이 흔하다”라고 말한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로키 산맥에 서식하는 큰뿔양 등이 보인다. 북미 토종 포유류에 속하는 큰뿔양은 야생 양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데 수컷은 어깨 높이가 1m를 넘고 몸무게도 140kg에 육박한다. 투잭 호수 Two Jack Lake와 케스케이드 연못 Cascade Ponds, 미네완카 호수에서 사진을 찍으며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이후 노웨이 산 Mt. Norquay으로 향해 체어리프트(6월부터 9월까지 운행)를 타고 올라가며 야생동물을 찾아본다. 정상의 클리프하우스 비스트로 Cliffhouse Bistro에서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식사를 즐겨보자.

### DAY 3 강에서 비버 만나기

자전거를 렌트해 다양한 산 풍경을 가로지르는 5km 길이의 골프 코스 루프 Golf Course Loop를 달린다. 그늘에 있는 골퍼에게 손을 흔들고 햇살이 비치는 숲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며 야생동물을 관찰한다. 로즈 앤 크라운 Rose & Crown의 옥상 파티오에서 점심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 보우 강 빅 카누 투어 Big Canoe Tour에 나선다. 패들링이 처음이어서

가능하며 야생동물을 관찰할 기회가 충분하고 운이 좋다면 비버도 만날 수 있다.

**More Info.**  
 밴프 카누 클럽 banffcanoecub.com

### DAY 4 곤돌라 아래로 곰이 나타나다

밴프 Banff →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경치 좋은 보우 밸리 파크웨이 Bow Valley Parkway를 따라가면서 야생동물을 주의 깊게 찾아본다.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를 타고 화이트혼 산 Mount Whitehorn을 오를 때는 곰이 자주 출몰하는 아래 경사지를 주목해야 한다. 화이트혼 비스트로에서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기고, 레스토랑 인근의 야생동물안내센터를 둘러본다. 마치 저 멀리 레이크 루이스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레이크 루이스 호숫가를 따라 승마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다.

**More Info.**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 skilouise.com/explore-summer

### DAY 5 가이드와 함께하는 드라이브

밴프 Banff →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캐나다에서 가장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에서 온종일 가이드 투어를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가 이곳에서 꼭 봐야 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More Info.**  
 야생동물 관찰 여행에 유용한 숙소를 포함한 이 여정의 상세 정보 banfflakelouise.com/ trip-ideas/walk-on-the-wild-side

## 오로라 감상, 3일 코스

# 10 선주민처럼 오로라 바라보기

메티스 크로싱

선주민의 관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기에 앞서 메티스 Métis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메티스는 선주민과 유럽 정착민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를 이어 독자적인 문화와 풍습을 발전시켜 나갔다. metiscrossing.com

### DAY 1 에드먼튼 도착

인천Incheon → 에드먼튼Edmonton  
 인천공항에서 밴쿠버 혹은 캘거리를 경유하여 에드먼튼에 도착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이 항공편을 운항한다. 에드먼튼은 연중 내내 물입감 넘치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Stay.**  
 라이브 스포츠 및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리버 크리조트 River Cree Resort에서의 하룻밤. rivercreeresort.com

에드먼튼



메티스 @Destination Canada

### DAY 3 메티스 문화 체험

메티스 크로싱 Métis Crossing  
**10:30 야생동물 관찰하기**  
 비전스, 홉스 앤 드림스 와일드라이프 투어 Visions, Hopes and Dreams Wildlife Tour에 참여해본다. 8명에서 10명의 여행자가 모여 박식한 메티스 가이드와 함께 SUV를 타고 메티스 크로싱 야생 공원 Métis Crossing Wildlife Park으로 이동한다. 이 공원에 서식하는 화이트 바이슨 White Bison, 우드 바이슨 Wood Bison, 플레인스 바이슨 Plains Bison, 페르세롱 말 Percheron Horses 등은 희귀종에 속한다. 가이드가 야생동물의 특징과 메티스식 사냥법에 대해 알려준다.

### 14:30 선주민처럼 활쏘기

아이 오브 헌터 The Eye of the Hunter에서는 메티스 가이드와 함께 강가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숲에서 다양한 식물을 발견하고 전통적인 활용법과 계절에 따른 변화를 배운다. 후반부에는 자연에 조성된 양궁장에서 메티스가 대대로 전수해온 활쏘기 기술을 연습할 기회도 주어진다. 오전의 와일드라이프 투어와 연결되는 이 체험은 메티스가 이 땅에서 생존해온 방식과 동식물과 교감해온 지혜를 일깨워준다.

**More Info.**  
 오로라감상  
 8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12월부터 4월 초까지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 DAY 2 곳곳에 펼쳐진 선주민의 문화

에드먼튼Edmonton → 메티스 크로싱 Métis Crossing  
**09:00 지질 그리고 지혜**  
 에드먼튼 리버 밸리 디스커버리 투어 Edmonton River Valley Discovery Tour에서는 △△° (N1W) 리버 롯 11∞ 선주민 예술 공원 △△° (N1W) River Lot 11∞ Indigenous Art Park을 안내할 것이다. 알버타 주의 지질학적 경이로움 속으로 뛰어들며 선주민의 지혜, 환경보호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토킹 록 투어 Talking Rock Tours의 경우 조상을 존경하는 의미로 65세 이상 여행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11:00 과거로의 여행

1885년, 1905년, 1920년의 에드먼튼의 거리를 재현한 건축, 요새, 전차가 자리한 포트 에드먼튼 공원 Fort Edmonton Park이 과거로 이끈다. 이후 공원 내 인디저너스 피플스 익스피리언스 Indigenous Peoples Experience에서 이 지역 선주민의 예술과 음악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50명이 넘는 선주민 원로, 역사자, 교육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이다.

**14:30 선주민이 운영하는 롯지에 체크인**  
 메티스 크로싱 Métis Crossing에는 두 가지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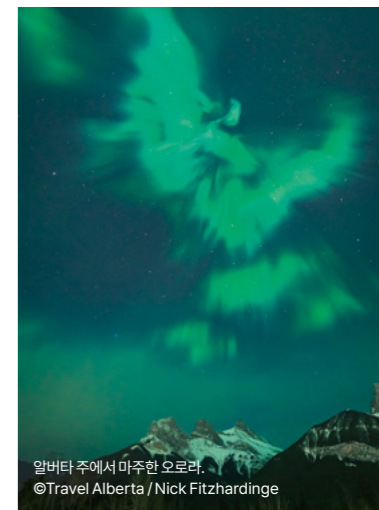
옵션이 있다. 문화교류센터 Cultural Gathering Centre 바로 옆에 자리한 더 롯지 및 메티스 크로싱 The Lodge at Métis Crossing은 4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스 사스카추안 강 North Saskatchewan River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이 강은 과거 메티스의 선조가 바로 이곳으로 모일 때 활용했던 경로이기도 하다. 밤하늘과 별자리는 메티스 조상들을 인도해주는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하늘이 시계와 달력의 역할을 어떻게 도맡았는지, 별로 사냥 시기를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 메티스식 관측법이 궁금하다면 스카이 워칭 돔 Sky Watching Domes에 머무르길 권한다. 투명한 천장 너머로 무수한 별이 반짝거리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 18:00 현대적인 선주민 요리

더 비스트로 The Bistro는 메티스의 전통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독창적인 다이닝을 선보인다. 메티스 셰프인 론 라두서 Ron Ladouceur는 메티스 유산에 헌사를 바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요리에 임한다. 덕 콩피 duck confit를 넣은 클럽샌드위치나 홈메이드 타르타르소스를 곁들인 생선튀김을 추천한다.

### 19:30 모닥불에서 피어나는 이야기

무르익어가는 밤에 모닥불 곁에서 메티스의 설화 등을 듣는다.



알버타 주에서 마주한 오로라. ©Travel Alberta / Nick Fitzhardinge

# 마니토바 주 Manitoba

## 기본 정보

대한민국 면적의 약 6배  
주도는 위니펙

## 항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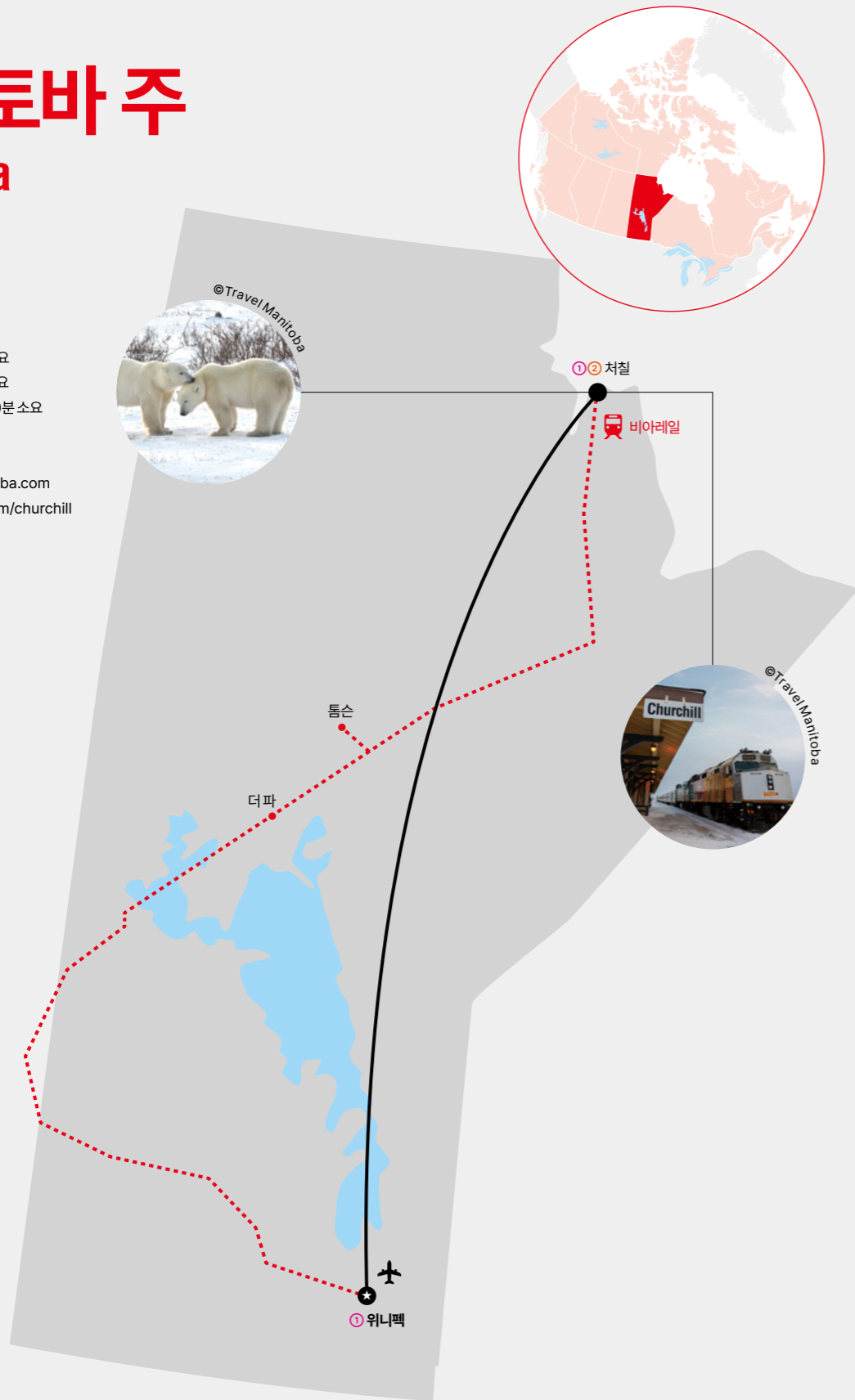
밴쿠버-위니펙 약 3시간 소요  
캘거리-위니펙 약 2시간 소요  
토론토-위니펙 약 2시간 30분 소요

## 여행 정보

마니토바 주 [travelmanitoba.com](http://travelmanitoba.com)  
처칠 [travelmanitoba.com/churchill](http://travelmanitoba.com/churchill)

##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느리다.  
(서머타임 적용 시 14시간)



## 추천여행코스

- ① 세계 북극곰의 수도, 처칠
- ② 오로라 판타지

위니펙-처칠 교통 정보  
[travelmanitoba.com/churchill/plan/getting-there](http://travelmanitoba.com/churchill/plan/getting-there)

## 야생동물 만나기, 5일 이상 코스

### ① 세계 북극곰의 수도, 처칠

처칠이 모험가를 위한 곳이라는 첫 번째 단서는 이곳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없다는 사실이다. 허드슨 만 기슭에 있는 이 외딴 마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위니펙에서 비행기나 기차로 이동하는 것. 세계 북극곰의 수도이자 벨루가 고래가 모여드는 이 신비로운 동토로 떠나본다.



마니토바 주에서 만난 북극곰.  
©Destination Canada

#### Tour. 추천 여행 상품

세계 북극곰 수도인 처칠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프론티어스 노스 어드벤처스의 클래식 처칠 폴라 베어 어드벤처 Classic Churchill Polar Bear Adventure 투어가 정답이다. 툰드라 버기를 타고 이틀 동안 처칠 야생동물 관리지역을 탐험하는 이 투어는 북극곰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 광활한 동토의 끝없는 매력을 선사한다. 또한 박물관과 이색 상점, 맛있는 현지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방문해 처칠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frontiersnorth.com/adventures](http://frontiersnorth.com/adventures)

레이지베어 익스페디션 Lazybear Expedition의 얼티밋 폴라 베어 어드벤처 Ultimate Polar Bear Adventure는 10~11월에 5박 7일 일정으로 한정 운영한다. 투어는 위니펙-처칠 항공편과 위니펙 2박, 처칠 레이지베어 로지 3박, 현지 교통편, 북극 크롤러 탐험, 개썰매 체험, 식사가 모두 포함된다. [lazybearlodge.com](http://lazybearlodge.com)

#### DAY 1 처칠까지 이동하기

에어캐나다나 웨스트젯 항공편을 이용해 마니토바주 위니펙으로 여행한다. 위니펙에서 처칠까지는 기차 혹은 국내선 항공편으로 이동 가능하다. 도로가 없어 두 도시 간 자동차 이동은 불가능하다. 여러 여행사가 위니펙-처칠 항공편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기차나 항공 모두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10월과 11월이 북극곰 관찰의 최적기이다.

#### More Info.

비아레일 2박 기차 여행 [viarail.ca](http://viarail.ca)

#### DAY 2 처칠 시내 여행

처칠은 작은 마을이기에 도보로 주요 명소를 둘러보기 수월하다. 단, 북극곰의 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표지판과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 없이 마을 외곽을 도보로 탐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개별 여행자를 위해 시내 및 지역 투어를 제공하는 여행사도 있으며, 대부분의 투어 프로그램에는 교통편이 포함된다. 타마락 렌탈스 Tamarack Rentals는 개별 여행자를 위한 처칠 유일의 렌터카 업체다.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 처칠 시내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북극곰 국제 하우스 Polar Bears International House와 캐나다 공원 방문자 센터 Parks Canada Visitor Centre 등은 처칠의 역사를 파악하기 좋은 곳이다.

#### DAY 3 북극곰 만나기

처칠 야생동물 관리지역 Churchill Wildlife Management Area(이하 CWMA, 툰드라 생태계와 허드슨 만을 보호)에서 툰드라 버기 모험을 떠나본다. 북극곰과 북극권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툰드라 버기를 타면 CWMA의 울퉁불퉁한 트레일을 따라가며 가이드가 지역의 지질과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툰드라 버기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즐기며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북극곰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 DAY 4 개썰매 타기 & 오로라 투어

와푸스크 어드벤처스 Wapusk Adventures의 데이브 데일리 Dave Daley가 이끄는 개썰매 투어에 나설 시간이다. 북극 숲을 관통하는 개썰매를 타는 내내 마니토바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가을에는 눈이 뒤덮이지 않은 땅을 달려 더욱 속도가 빠르다. 북극의 이색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신비로운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 오로라 투어에 참여하거나 잇사니타크 박물관 The Itsanitaq Museum에서 이누이트족이 남긴 문화유산을 훑어봐도 좋다.

#### DAY 5 여행 마무리

투어 프로그램에 따라 여행을 마치는 시점이 달라질 것이다. 처칠에서 위니펙까지 국내선 항공편 혹은 기차를 타고 마니토바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며 지나온 모험을 되새긴다.



북극곰의 발자국과 사람의 손을 비교하는 여행자.  
©Destination Canada



## 오로라 감상, 3일 코스

# ② 오로라 판타지

마니토바 주의 처칠은 연중 300일 가까이 오로라가 출현한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곳으로 오로라 여행을 떠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안내한다.

### 항공편

-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위니펙
-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위니펙

### 언제 떠나면 좋을까?

처칠에서는 연중 평균 300일 이상 오로라가 나타난다. 계절에 상관없이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오로라 시즌은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1~3월이 성수기이므로 좀 더 느긋하게 오로라를 누리고 싶다면 가을이 적기다. 가을은 하늘이 맑고 덜 춥기 때문에 오로라를 감상하기 좋은 계절이다. 오로라 오벌Auroral Oval에 위치한 이곳에서 오로라를 보려면 KP 지수(지구의 자기장 교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1이상 이어야 한다.

#### More Info.

**KP 지수 확인하기** auroraeach.com/places/ca/churchill

### 어떻게 오로라를 즐기면 좋을까?

처칠에서 오로라를 관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여행사의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투어는 항공편, 숙박,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오로라 투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 툰드라 버기

프론티어스 노스 어드벤처스Frontiers North Adventures는 위니펙에서 출발하는 노던 라이트 앤 윈터 나이트Northern Lights and Winter Nights 투어를 운영한다. 얼어붙은 처칠강 너머 외딴곳에 위치한 ثنا델투르 라운지Thanadelthur Lounge에서 오로라를 관측하는 여정이다. 오로라를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전문 사진가의 안내를 받는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 투어 일정 중에는 오로라가 펼쳐지는 곳이자 황야에 숨겨진 툰드라 버기Tundra Buggy에서 운영하는 팝업 레스토랑 댄스 다이너Dan's Diner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인 셰프 자레드 포센Jared Fossen이 현지 식재료를 마법 같은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또한 가이드가 안내하는 스노슈잉과 박물관 및 해설 투어 등 흥미로운 여행이 이어진다.

#### More Info.

- 🌐 노던라이트 앤 윈터 나이트 투어 frontiersnorth.com/adventures/winter/northern-lights-and-winter-nights
- 🌐 포토 어드벤처 투어 frontiersnorth.com/adventures/winter/photo-adventure-northern-lights-in-churchill
- 📍 댄스 다이너 frontiersnorth.com/content/dans-diner

### 오로라 포드와 오로라 돔스

내추럴 해비타트 어드벤처스Natural Habitat Adventures의 투어는 한층 특별한 방식으로 오로라를 관측한다. 쿠션에 몸을 기대 채 하늘에 360도로 펼쳐지는 오로라를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설계한 오로라 포드Aurora Pod를 오롯이 점유하게 되니까. 가이드가 동행하는 투어에서는 오로라 돔스Aurora Domes 방문 일정도 포함된다.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특수 유리로 덮인 전망 돔으로 올라가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내추럴 해비타트 어드벤처는 스노 코치를 타고 깊은 숲속 오두막으로 떠나는 모험으로 여행자를 이끌 것이다.

#### More Info.

- 🌐 내추럴 해비타트 어드벤처스 오로라 투어 nathab.com
- 📍 오로라 돔스 auroradomes.ca

### 유르트

나누크 오퍼레이션Nanuk Operations는 북극 숲 깊숙이 자리 잡은 유르트(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이 쓰는 전통 천막집)와 함께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나이트 언더 라이트Nights Under Lights 가이드 투어를 운영한다. 모든 참여자는 유르트의 넓은 데크에서 마법 같은 오로라의 출사위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가을에는 조류 관찰, 북극곰 투어, 지역 유적지 방문, 박물관 및 문화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 More Info.

- 🌐 나누크 오퍼레이션 오로라 투어 nanukoperations.com

### 어디서 머물면 좋을까?

처칠은 숙소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지만 북극에서의 극적인 하룻밤을 선사하는 경험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 다음의 숙소 목록 중 자신의 성향과 예산에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일부 숙소는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

- 🏠 툰드라 인 tundrainn.com
- 🏠 처칠 호텔 hotelchurchill.ca
- 🏠 아이스버그 인 iceberginn.ca
- 🏠 폴라인 앤 스위트 polarinn.com
- 🏠 시포트 호텔 seaporthotel.ca
- 🏠 베어 컨트리 인 bearcountryinn.com
- 🏠 파라다이스 오로라 베드 앤 브렉퍼스트 paradiseaurora.com
- 🏠 플라베어 베드 앤 브렉퍼스트 polarbearbandb.com
- 🏠 오로라인 aurorainnchurchill.com

# 온타리오 주

## Ontario

### 기본 정보

대한민국 면적의 약 11배  
주도는 토론토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가 위치

### 항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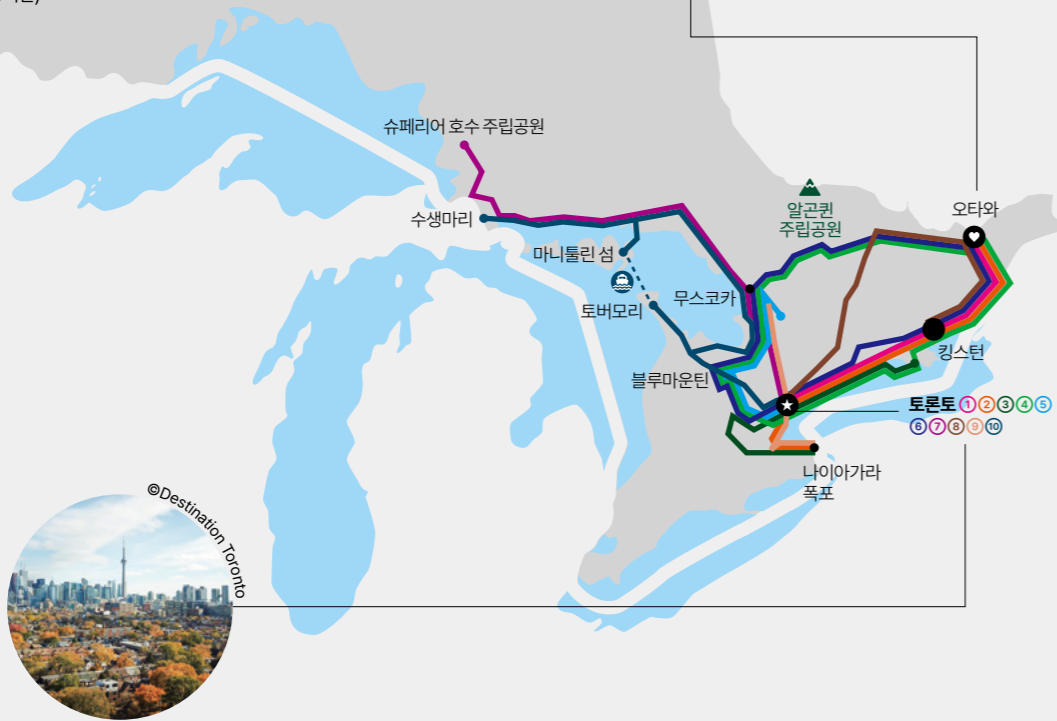
인천-토론토 약 13시간 소요  
토론토-오타와 약 1시간 소요

### 여행 정보

온타리오 주 destinationontario.com/ko-kr  
오타와 ottawatourism.ca/ko  
토론토 destinationtoronto.com  
나이아가라 niagarafallstourism.com  
킹스턴 visitkingston.ca

###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다.  
(서머타임 적용 시 13시간)



### 추천여행코스

- 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열차
- ② 온타리오의 가을과 사랑에 빠지다
- ③ 세계의 수도를 잇다
- ④ 온타리오 북부 단풍 여행
- ⑤ 와인 한 모금과 테루아
- ⑥ 카누의 낭만
- ⑦ 다양한 풍미
- ⑧ 무스코카 대자연 속 골프 라운딩
- ⑨ 호수와 해안을 따라서
- ⑩ 가을 색조에 흠뻑 빠지다

## 기차 여행, 7일 코스

### 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열차

비아레일 기차를 타고 토론토에서 킹스턴을 거쳐 오타와까지, 옛 수도와 현 수도를 지나며 캐나다 동부의 자연과 역사를 여유롭게 감상한다.

#### DAY 1-3 여행 출발, 토론토

##### 토론토 Toronto

✕ 대한항공, 에어캐나다가 인천-토론토 직항편을 운항한다. 약 13시간 소요  
토론토의 데이 패스를 구입하여 도시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다. 토론토 박물관 패스는(1일권, 3일권) 토론토 브루 패스는(1일권, 3일권, 7일권) 톱 어트랙션 5곳이 포함된 토론토 시티 패스가 있다. CN 타워, 리플리아쿠아리움Ripley's Aquarium을 기본으로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Royal Ontario Museum, 카사 로마Casa Loma, 시티 크루즈 토론토City Cruise Toronto, 토론토 동물원 Toronto Zoo 중에 3곳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 리틀 캐나다Little Canada, 하키 명예의 전당 Hockey Hall of Fame, 켄싱턴 마켓Kensington

Market, 디스틸러리 디스트릭Distillery District, 토론토 아일랜드Toronto Island, 웨스트엔드West-end 등 토론토의 즐길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 Side Tr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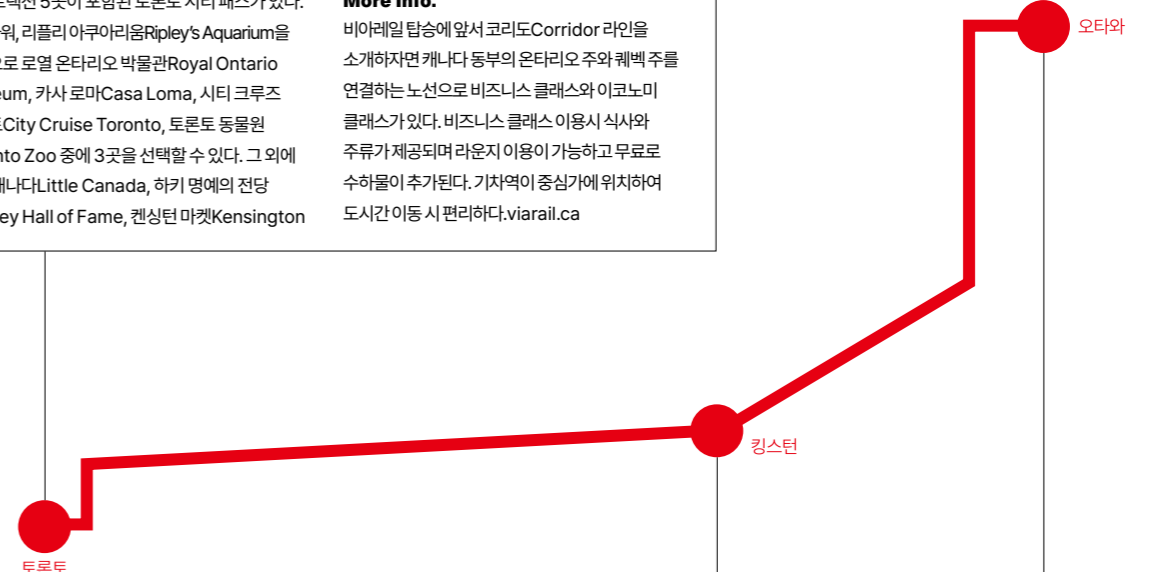
토론토에서 시차 적응을 거치며 캐나다 제1의 도시를 둘러보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데이 투어를 다녀온다.

##### More Info.

비아레일 탑승에 앞서 코리도 Corridor 라인을 소개하자면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 시 식사와 주류가 제공되며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고 무료로 수하물이 추가된다. 기차역이 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간 이동 시 편리하다. viarail.ca



온타리오 주의 단풍 숲을 누비는 열차. ©Destination Ontario



#### DAY 4-5 미식의 도시, 킹스턴

##### 토론토 Toronto → 킹스턴 Kingston

✕ 비아레일로 약 2시간 20분 소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매시간 또는 2시간 간격 운행

킹스턴은 보통 역사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 이 도시는 캐나다에서 1인당 레스토랑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이다. 킹스턴 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다이앤스 피시 쉼 앤 스모크하우스 Dianne's Fish Shack and Smokehouse를 시작으로 폭식에 가까운 일정을 세워본다. 다음 날 아침에는 노스사이드 에스프레소 앤 키친 Northside Espresso and Kitchen에서 촉촉한 에그베네딕트를, 점심에는 커리 오리지널 Curry Original에서 매콤한 봄베이 알루 bombay aloo를, 저녁에는 카사 도메니코 Casa Domenico에서 양고기 볼로네즈 리가토니 lamb bolognaise rigatoni를 먹는다.

##### Side Trip.

🌐 킹스턴 트롤리 투어 kingstonrolley.ca

킹스턴 교도소 투어 kingstonpentour.com/to-do/tours/  
포트 헨리 국립 사적지 forthenry.com

##### Local Flavor.

- 🕒 아침: 토스트 앤 잼 캠페 Toast & Jam Cafe
  - 🕒 점심: 판찬초 베이커리 앤 카페 Pan Chancho Bakery & Cafe, 하퍼스 Harper's
  - 🕒 저녁: 세 피기 레스토랑 앤 바 Chez Piggy Restaurant & Bar, 탱고 누에보 Tango Nuevo
- Stay.**
- 🏠 모던한 호텔: 델타 워터프런트 호텔 Delta Waterfront Hotel, 홀리데이 인 킹스턴 워터프런트 Holiday Inn Kingston Waterfront
  - 🏠 개성 있는 숙소: 올 스위트 휘트니 매너 All Suites Whitney Manor, 로즈마운트 인 Rosemount Inn

##### More Info.

🕒 9월 킹스턴에서 즐길 수 있는 25가지 visitkingston.ca/25-things-to-do-in-september-in-kingston/

#### DAY 6-7 자전거의 도시, 오타와

##### 킹스턴 Kingston → 오타와 Ott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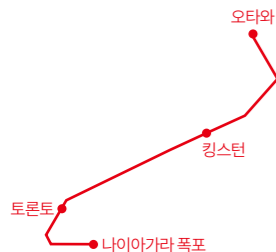
✕ 비아레일로 약 2시간 20분 소요.  
킹스턴에서 09:02, 11:05, 12:52, 15:02, 15:47, 16:37, 17:58, 20:12, 21:09 출발  
비아레일이 정차하는 오타와 역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오-트레인 O-Train을 타고 10분만 이동하면 금세 오타와 중심부에 닿는다. 또는 현지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렌트 어 바이크(rentabike.ca)나 이스케이프 자전거 투어(escapebicycletours.ca)를 예약하여 더 루프(gobiking.ca/local-rides/the-big-loop/)를 따라 오타와에서의 여정을 시작해볼 수도 있다. 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자전거로 15분 거리이다.

##### More Info.

🕒 세봉 오타와 푸드 투어 cestbonottawa.ca  
🏠 오타와 뮤지엄 패스 visitottawapasses.ca/museums  
🏠 캐나다 국립미술관 gallery.ca

예술의 온상지, 토론토

✕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토론토의 풍부한 문화를 섭렵하려면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Ontario와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Royal Ontario Museum에 전시 중인 작품들을 감상한 뒤 그래피티 앨리Graffiti Alley와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의 아티스틱한 거리를 거닐어본다. 저녁에는 생생한 라이브 음악, 역동적인 공연,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추천 드라이브 코스, 7일 코스

② 세 개의 수도를 잇다

캐나다의 19세기 수도였던 토론토부터 최초의 수도 킹스턴을 거쳐 21세기 수도인 오타와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타임리스 루트를 주행해본다.

폭포수의 이면,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Toronto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약 130km** 1903년 온타리오 주의 정식 도시로 자리 잡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다양하게 만끽해본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Niagara City Cruises에 올라 20분간 안개같이 피어오르는 폭포수를 맞으며 나이아가라 협곡, 아메리칸 폭포American Falls, 브라이덜 베일 폭포Bridal Veil Falls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는 것이다.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m 아래 저니 비하인드 더 폴스Journey Behind the Falls로 내려가 기반암 사이에 뚫린 130년 전 터널을 따라 걷는다. 호스슈 폭포Horseshoe Falls 바로 뒤에서 강력한 진동을 느낄 수 있다.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밤 퀸 빅토리아 공원Queen Victoria Park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놀이가 열린다.

**Stay.** **▣**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셰라톤 온 더 폴스 호텔Sheraton on the Falls Hotel과 엠버시 스위트 바이 힐튼Embassy Suites by Hilton

**More Info.** **📍** 나이아가라 폭포의 더 많은 여행 장소 destinationontario.com/en-ca/travel-resources/fun-family-vacation-niagara-falls

**Side Trip.**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Niagara-on-the-Lake의 퀸 스트리트Queen Street에 유서 깊은 건물, 부티크 상점, 고풍스러운 카페가 가득하다. 쿨 애즈 어 무스 Cool as a Moose에서 의미 있는 기념품을 수집하고 현지인이 즐겨 찾는 스테이지코치 패밀리 레스토랑 Stagecoach Family Restaurant에 방문한다.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토론토Toronto **약 130km** 토론토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카사 로마Casa Loma는 도시 내 유일한 성 형태의 건축물로 1914년 금융가인 헨리 펠라트Henry Pellatt가 건축을 주도했다. 당시 30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3년 동안 약 1만8,580㎡에 달하는 성을 완공했다고. 카사 로마 안에 자리 잡은 블루블러드 레스토랑Blueblood Restaurant 또한 다양한 미술 작품과 골동품을 전시해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품질 좋은 소고기 및 해산물 요리와 와인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토론토 중심부에서 캐나다를 미니어처로 살펴볼 수 있는 리틀 캐나다Little Canada를 구경한 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만끽할 수 있는 CN 타워와 가까운 리플리 아쿠아리움Ripley's Aquarium, 하키 명예의 전당Hockey Hall of Fame을 둘러본다. 토론토의 다양한 문화가 공명한다면 낮에는 켄싱턴 마켓Kensington Market을, 밤에는 웨스트엔드West-end를 추천한다. 켄싱턴 마켓의 경우 거리 예술, 빈티지 의류점, 세계의 식재료를 다루는 식료품점 등이 즐비하며 웨스트엔드는 바, 클럽, 극장, 공연장 등이 가득하다.

**More Info.** **📍** 토론토 시티 패스 citypass.com/toronto **📍** 토론토 박물관 패스 및 토론토 블루 패스 destinationtoronto.com/things-to-do/special-offers

역사적인 보급로, 킹스턴

토론토Toronto → 킹스턴Kingston **약 264km** 토론토와 오타와의 중간 지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던 킹스턴. 주요 보급로로 잘 알려졌던 포트 헨리Fort Henry가 이를 입증한다. 킹스턴 북쪽쪽으로 계속해서 운전하면 자그마치 1,8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 섬Thousand Islands에 다다른다. 킹스턴 시내에 있는 탑승 부두에서 티켓을 구매한 다음 천 섬 크루즈Thousand Islands Cruises에 몸을 싣는다. 3시간짜리 하트 오브 더 아일랜드 크루즈Heart of the Islands Cruise가 가장 인기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운항한다. 점점이 흩어진 천 섬을 고공에서 내려다보고 싶다면 천 섬 전망대Thousand Islands Lookout Tower나 천 섬 헬리콥터 투어Thousand Islands Helicopter Tour가 제격이다. 가나노크Gananoque, 락포트 Rockport에서도 천 섬 크루즈 투어를 할 수 있다.

**More Info.** 천 섬에서 가장 유명한 볼트 성Boldt Castle에 잠시 내릴 경우 여권 및 ESTA가 필요하다.

**Stay.** **▣** 20세기 초 상류층이 당구를 치고 스카치를 마시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프롱트낙 클럽Frontenac Club. 대리석으로 꾸며진 객실과 호화로운 바가 인상적이다. 킹스턴의 역사에 찬사를 보내는 시크릿 가든인Secret Garden Inn에는 킹스턴 교도소를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을 딴 커버데일 룸Coverdale Room이 있다.

Side Trip.

킹스턴 교도소Kingston Penitentiary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킹스턴 교도소. 1867년부터 2013년까지 악명 높은 수감자들이 갇혀 있었다고 한다. 교도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이드 투어가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미드 <Alias Grace>는 캐나다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마거릿 애트woods의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다. 악명 높은 여성 범죄자 그레이스 막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복역지이자 드라마 촬영지다.



킹스턴 교도소의 중앙 계단. ©Destination Ontario

캐나다 정치의 중심지, 오타와

킹스턴Kingston → 오타와Ottawa **약 200km** 오타와에서 진행되는 근위병 교대식이 여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준다. 오타와 강Ottawa River이 내려다보이는 국회의사당Parliament Buildings을 한 차례 돌아보고 현대의 캐나다를 누린다. 먼저 바이워드 마켓Byward Market에서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고 오타와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남긴다. 리도 운하Rideau Canal을 따라 자전거도 타본다.

**Local Flavor.** **📍** 채식 요리: 그린 도어Green Door, 세인트 엘스웨어St. Elsewhere, 퓨어 키친Pure Kitchen **☕** 커피: 브리지헤드 로스터리 앤 커피하우스 Bridgehead Roastery and Coffeehouse **🍷** 맥주: 도미니언 시티 브루잉 컴퍼니Dominion City Brewing Co.

**Stay.** **▣** 모던한 호텔: 르저맹 호텔Le Germain Hotel, 로드 엘진 호텔Lord Elgin Hotel **▣** 개성 있는 숙소: 오타와 백패커스 인Ottawa Backpackers Inn, 세인트로 오타와 감옥 호스텔 Saintlo Ottawa Jail Hostel

**More Info.** **📍** 차 없이 보내는 오타와 3일 일정 viarail.ca/en/blog/fun-things-do-ottawa-without-car **📍** 오타와에서 꼭 해봐야 할 10가지 ottawatourism.ca/en/ottawa-insider/top-10-things-to-ottawa



토론토의 CN 타워. ©유운상



나이아가라 폭포. ©유운상



오타와의 가을 풍경 속 노트르담 대성당. ©유운상



나이아가라 온 더레이크에 있는 펠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Destination Ontario

펠러 에스테이트 레스토랑의 와인 페어링.  
©Destination Ontario

## 미식, 7일 코스

# ③ 와인 한 모금과 테루아

온타리오 주의 포도밭을 향유하며 와이너리 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특히 가을에는 포도밭에서 숲으로, 와인에서 단풍으로 눈길을 돌려보며 캐나다만의 운치를 감상할 수 있다.

**DAY 1-2** **지속 가능한 와이너리**  
토론토Toronto →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Prince Edward County  
✕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Prince Edward County**  
소도시의 매력에 물씬 풍기는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에서 지속 가능한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40여 곳의 와이너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2곳 이상의 와이너리가 집결한 서쪽 동네는 웰링턴 Wellington과 힐리어 Hillier 마을 사이의 벨빌 스트리트 Belleville Street(2번 시골 도로)와 로열리스트 파크웨이 Loyalist Parkway(33번 시골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와이너리마다 고유한 가치관이 깃들어 어느 하나 겹치는 곳이 없다. 동쪽 동네는 픽톤 Picton의 해안선을 따라 와이너리 투어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빌려서 와인 시음과 단풍 놀이 모두를 경험해보길 권한다.

### Winery.

**와우푸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앤 레스토랑 Waupoos Estates Winery & Restaurant**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초창기 와이너리 가운데 하나인 와우푸스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앤 레스토랑은 프린스 에드워드 베이에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으로 유명하다. 카운티에 처음 등장한 아이스와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와인을 구비해놓은 시음실, 팜투테이블을 추구하는 레스토랑, 팜하우스라 불리는 침실 4개짜리 숙소를 갖추고 있다.

**윌프리드 부티크 팜하우스 Wilfrid Boutique Farmhouse**  
와인 애호가뿐만 아니라 미식가의 발길을 끄는 윌프리드 부티크 팜하우스. 175년 된 농가를 개조한 이곳은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중심부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와이너리를 살펴보기나 숲길을 하이킹하거나 스칸디나비아식 사우나를 즐긴다. 매일 오전 풍성한 와인과 브런치를 제공한다.

**엑셀테트 에스테이트 Exultet Estates**  
엑셀테트 에스테이트는 카운티 남동쪽 끝자락에 자리를 잡아 숨겨진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와이너리 뒤편 시음 창고에서 한정 수량으로 생산되는 수제 피노 누아 pinot noir와 샤르도네 chardonnay가 일품이라고. 거품의 질감을 좋아한다면 스파클링 애플 와인이 취향에 맞을 테다. 포도밭 뷰를 자랑하는 소박한 침실 2개짜리 B&B에서 며칠을 머물러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Local Flavor.**  
① 와인과 페어링하기 좋은 음식들  
·빵: 아그리리안 시장 Agrarian Market에서 갓 구워낸 페이스트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치즈: 현지에서 갓 짜낸 염소, 버펄로, 젓소의 우유로 만든 신선한 수제 치즈를 피프스 타운 아티자 장 치즈 Fifth Town Artisan Cheese에서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초콜릿: 카운티 쇼콜라티에 County Chocolatier는 현지에서 '초콜릿 폭탄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수제 초콜릿 전문점이다.

**Stay.**  
와이너리 이외의 숙소를 구하고 싶다면  
▣ 시골 스테이: 허프 에스테이트 Huff Estates, 워링 하우스 Waring House  
▣ 부티크 모텔: 레이크사이드 모텔 Lakeside Motel, 준 모텔 June Motel  
▣ 모던 호텔: 메릴 하우스 Merrill House, 윈더더 리조트 Wander The Resort

**DAY 3-4** **변화무쌍한 브루어리**  
토론토 Toronto

온타리오 주의 와이너리 투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와인 이외의 주류에도 일가견이 있어야 할터. 토론토에서 캐나다를 취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술을 머금어본다.

**디스틸러리 지구 Distillery District**  
빅토리아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디스틸러리 지구에 역사적인 밀 스트리트 브루어리 Mill Street Brewery가 들어서 있다. 브루어리 중앙에 전시된 거대한 양조 통을 구경한 다음 20가지가 넘는 수제 맥주 중에서 몇 가지를 주문해본다.

**엔터테인먼트 지구 Entertainment District**  
엔터테인먼트 지구의 페어몬트 로열 요크 Fairmont Royal York 내 라이브러리 바 Library Bar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마티니를 맛볼 수 있다.

**퀸 웨스트 Queen West와 킹 웨스트 King West**  
사쿠 Saku에서 리치 상그리아 ychee sangria를 맛보거나 파리 파리 Paris Paris에서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무엇보다 파리 파리의 자동차 차고를 리모델링한 인테리어가 수준급 미감을 뽐낸다.  
**More Info.**  
·토론토 미쉐린 가이드 & 빙 구르망 destinationontario.com/en-ca/articles/michelin-starred-restaurants-toronto

**DAY 5** **가을로 향하는 시골길**  
엘라라 Elora → 세인트 제이콥스 St. Jacobs → 캠브리지 Cambridge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동안 시골길을 빙 둘러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어본다. 19세기에 방앗간이었던 엘라라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세인트 제이콥스의 파머스 마켓에서 소박한 사과 튀김을 먹는다. 그리고는 캠브리지의 잘 가꿔진 정원에서 잠시 쉬어 가도 좋겠다.

**DAY 6-7** **비옥한 포도 재배지**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 나이아가라 온 더레이크 Niagara-on-the-Lake

온타리오 호수와 나이아가라 절벽의 습기 덕분에 포도 재배를 위한 완벽한 기후와 토양을 갖춘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포도 산지이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사이로 포도밭, 과수원, 농장이 두드러지는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 역시 와이너리 투어의 성지나 다름없다.

**Winery.**  
**레빈 비야드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Ravine Vineyard Estates Winery**  
레빈 비야드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는 데일리하게 개최하는 시음회로 잘 알려져 있다. 샌드 앤 그래블 Sand & Gravel, 레빈 에스테이트 Ravine estate, 리저브 Reserve 와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직원이 해당 와인에 관한 배경 지식을 들려준다.

**샤토 데 샴 Château des Charmes**  
'와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5대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빛은 game noir(가메 누아 Gamay Noir)는 체리 풍미의 와인으로 오크 숙성을 거치지 않았으나 미묘하게 스모키하고 스파이시한 향이 감돈다.

**펠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앤 레스토랑 Peller Estates Winery & Restaurant**  
아이스와인의 선구자를 만나고 이글루 모양의 시음실에서 황금색 액체를 목으로 넘겨볼 기회. 1만 3,607kg의 거대한 얼음으로 지어진 이글루는 영하 10°C가 꾸준히 유지되는데 이 수치가 바로 아이스와인에 최적화된 온도라고. 참고로 펠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앤 레스토랑에서는 토요일 저녁마다 제이슨 파슨스 Jason Parsons 셰프가 엄선한 요리와 와인을 페어링해준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포도밭. ©Ryan Lee



펠러 에스테이트의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  
©Destination Ontario

**Stay.**  
▣ 아이비 엡 베리티 The Ivy at Verity  
유서 깊은 토론토 가든 디스트릭트에 세워진 더 아이비 엡 베리티는 장인의 손길을 거친 젤라토로 잘 알려져 있다. 호텔 건물은 1800년대 초 로버트슨 브라더스 Robertson Brothers라는 과자 회사의 초콜릿 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각 객실마다 한때 공장의 배달 장소로 쓰였던 발코니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 엘라라 밀 호텔 앤 스파 Elora Mill Hotel & Spa  
1851년 방앗간으로 지어졌던 엘라라 밀의 건물은 두 차례 화재를 겪고 난 후 제분소, 제재소, 양모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호텔의 쓰임새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1975년으로 오늘날에는 솔트 캐러멜로 빛은 술과 엄선한 치즈를 대접해줄 뿐만 아니라 은수 육조, 루프톱 수영장 등의 고급 스파를 보유하고 있다.

▣ 더 배럭스 인 The Barrackd Inn  
앤캐스터 Ancaster 마을에 자리한 더 배럭스 인의 경우 본래의 건축 목적과 연도는 불분명하다. 1812년에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의견이 유력하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약국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1868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재건을 마치고 자동차 수리점을 거쳐 숙박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18개의 객실에서 옛모이는 당대의 초석과 석조 벽 등이 시간의 흐름을 가늠케 한다.  
**More Info.**  
아이스와인이란 상태에서 딱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며 당도가 높은 편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그레인저 와이너리.  
©Rami Accoumeah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크로스로드의 요리  
©Barb Simkova



크랜베리 수확 체험을 하는 여행객.  
©Muskoka Lakes Farms & Winery

## 미식, 7일 이상 코스

### ④ 다양한 품미

온타리오 주의 활기찬 미식 문화는 근면한 농부, 현지에서 재배한 식재료, 창의적인 셰프, 대대로 전해진 다문화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어왔다. 이 여정은 끊임없이 맛을 탐구하는 미식가에게 적합하다.

#### DAY 1-2 다문화 요리의 선구자, 토론토

인천-토론토 직항을 이용한다.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다문화 요리의 선구자이다. 그도 그럴 것이 250개가 넘는 민족과 180개 이상의 언어가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 덕분에 원할한 소통 기술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었고 요리를 비롯하여 축제에 있어서도 다문화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 Side Trip.

- 계획적으로: 미쉐린이 인정한 100여 개의 레스토랑과 30여 개의 요리를 살펴보고 문화별 루트를 짜본다.
- 즉흥적으로: 일단 컨싱턴 마켓 Kensington Market이나 세인트 로렌스 마켓 St Lawrence Market에서 피말 베이컨 샌드위치Peameal Bacon Sandwich 등의 유명 메뉴에 도전해본다.

#### DAY 3 풍요로운 땅, 블루 마운틴

토론토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블루 마운틴은 풍요로운 땅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로 각지의 셰프들을 매료시켰다. 이곳으로 이주까지 결심한 몇몇 셰프들은 프리미엄 레스토랑부터 팝업 레스토랑까지 다채로운 시도를 거듭했고 그렇게 두 레스토랑 다운 홈Down Home과 더 파인The Pine이 미쉐린 가이드 셀렉션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미쉐린의 인정이 아니더라도 블루 마운틴에는 훌륭한 먹거리가 가득하다. 애플파이 트레일을 따라 싱그러운 사과로 만든 간식류와 수제 사이더(사과 발효주 혹은 사과 주스를 일컫는다)를 음미하고 여유가 있다면 사이더 양조장에 방문해도 좋다.

#### DAY 4 싱그러운 크랜베리 루트, 무스코카

블루 마운틴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무스코카에서 크랜베리 루트를 탐사해본다. 가을에는 무스코카 호수 농장 및 와이너리에서 크랜베리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 스모어 smores를 만들어보는 낭만적인 경험도 가능하다.

#### Local Flavor.

① 로소Rosseau의 크로스로드Crossroads는 이 일대에 별장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자주 들르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온타리오 주에는 25만여 개의 호수가 있다 보니 생선 요리가 발달했는데 크로스로드의 생선 메뉴가 현지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제대로 충족시켜준다고.

#### Side Trip.

오타와로 가는 도중 알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이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준다.

#### DAY 5 미식가들의 성지, 오타와

무스코카Muskoka → 오타와Ottawa  
③ 342km  
오타와에서의 일정은 농산물 직거래 시장과 미식가들의 스폿이 즐비한 바이워드 마켓Byward Market에서 출발한다. 세 봉 오타와C'est Bon Ottawa에서도 미식가 투어를 제공하니 개인적으로 루트를 짜기 어렵다면 투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년 내내 오타와에서 양질의 메이플 시럽을 맛볼 수 있지만 수액이 흐르는 이른 봄에 맛이 극대화되며 특별한 액티비티에도 참여할 수 있다.



#### DAY 6 농부와 셰프의 공존, 픽턴

오타와Ottawa → 픽턴Picton  
③ 228km  
농부와 셰프가 일컫는 현지식 만찬을 픽턴에서 마주할 수 있다. 테이스트 트레일이라고 이름 붙은 루트가 시장과 농장을 가로지르며 와이너리, 수제 맥주 양조장, 사이더 양조장, 증류주 양조장 등을 거쳐 간다.

#### Local Flavor.

① 레모네이드  
무려 30가지가 넘는 수많은 맛 가운데 단연 갓 짜낸 레모네이드의 베이식한 맛이 인기가.  
레몬스PECLemons PEC에는 프루티한 이탈리아인 소다와 차, 커피도 준비되어 있다.

#### ① 아이스크림

- 현지인이 선호하는: 슬리커스 카운티 아이스크림 Slickers County Ice Cream
- 여행자가 선호하는: 카운티 스위트 스폿 County Sweet Spot

#### Stay.

- ☞ 잭슨스 폴스 컨트리 inn jacksonsfallscountryinn.com
- ☞ 드레이크 모터 인 thedrake.ca/drakemotorinn/

#### DAY 7 여행 마무리, 토론토

픽턴Picton → 토론토Toronto  
③ 222km  
토론토로 이동하여 여정을 확장하거나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 추천 드라이브 코스, 5일 코스

### ⑤ 호수와 해안을 따라서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에서 무스코카Muskoka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그러나 사이사이 마주하는 풍경이 무척 아름다워 정차를 반복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현지인들이 이 일대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유일 테다.

#### DAY 1 역동적인 자연

토론토Toronto →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 ③ 173km  
✕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토론토에서 북서쪽으로 2시간 즈음 달렸을 때 조지안 베이Georgian Bay의 남쪽 끝 나이아가라 절벽에 걸쳐 있는 블루 마운틴 리조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곧이어 블루 마운틴 마을로 나와 자연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일정을 계획한다. 미리 온라인으로 패스를 구매해두면 해발고도 1,085m의 산에서 최대 시속 42km로 숲을 통과하는 릿지 러너 마운틴 코스터Ridge Runner Mountain Coaster 등의 액티비티에 빠르게 탑승할 수 있다.

#### Local Flavor.

① 캐나다인의 입맛을 반영한 케이투 레스토랑 앤 바Kaytoo Restaurant & Bar 또는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스윈즈 브루어리Northwinds Brewery  
☞ 마을 안에 다양한 호텔, 로지, 캐빈이 있으며 아늑한 느낌을 원한다면 블루 마운틴 인을 추천한다.

#### DAY 2 영혼의 마을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  
리조트에서 쉼 쉬었다면 이제 어트랙션이 아닌 몸소 자연을 체득할 차례. 시닉 케이브스 네이처 어드벤처스Scenic Caves Nature Adventures를 통하여 나이아가라 절벽Niagara Escarpment의 좁은 틈으로 이루어진 동굴을 탐사한다. 이 동굴은 과거 원주민이 식량을 보관했던 저장고이자 영혼의 마을로 향하는 통로로 쓰였다. 편도 15km의 길에 방향이 꼼꼼하게 표시되어 보기와는 달리 손조로운 탐사가 가능하다.

#### Local Flavor.

① 애플파이 트레일Apple Pie Trail을 따라가며 과수원과 베이커리를 방문하거나 헤븐리 카페 Heavenly Café와 던컨스 카페Duncan's Café에서 각각 유기농 커피와 홈메이드 푸드를 맛볼 수 있다.

#### Side Trip.

다시 차에 오르기 전 스칸디나비아 스파 블루 마운틴 Scandinave Spa Blue Mountain에 들러 휴식을 즐겨보자. 하이드로 테라피의 일환으로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먹에 누워 듣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힐링 그 자체이다.

#### DAY 3 여덟 가지 해변

와사가 해변Wasaga Beach ③ 43km  
블루 마운틴에 머무르는 동안 데이 투어로 다녀오기 적절한 명소.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른 다음 와사가 해변의 8개 구역 가운데 취향에 맞는 곳으로 이동한다. 크게 일광욕, 피크닉, 수영을 중심으로 구역이 나뉜다. 스카이다이빙 와사가 해변Skydive Wasaga Beach의 스카이다이빙, 와사가 어드벤처파크Wasaga Adventure Park의 활소기에 도전할 수 있다.

#### Local Flavor.

① 파티오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콘 레스토랑Beacon Restaurant. 달콤한 디저트가 필요하다면 그랜마스 비치 트리트즈 Grandma's Beach Treats로.

#### DAY 4 별장 마을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 → 무스코카Muskoka ③ 165km  
북미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증기선인 알엘레스

세컨 크루즈RMS Segwun Cruise가 출항을 알린다. 이 크루즈는 무려 130년 이상 그레이븐허스트Gravenhurst의 관문을 지켜왔다. 보다 프라이빗한 선박에 승선하고 싶다면 웨노나 Wenonah II 혹은 완다Wanda III가 알맞겠다.

#### Local Flavor.

① 크로스로드 레스토랑Crossroads Restaurant은 '순수'를 모티브로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이클립스Eclipse는 오로지 현지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구상한다.

#### Stay.

☞ 별장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무스코카에는 훌륭한 호텔이 즐비하다. 캐나다 가수 사니아 트웨인이 데뷔한 디어허스트 리조트Deerhurst Resort, 럭셔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인스 코티지Jayne's Cottages 등.

#### DAY 5 다채로운 마을들

무스코카Muskoka  
무스코카에는 폭포의 수도라 불리는 브레이크스브릿지 Bracebridge나 현지 공예품을 구경하기 좋은 헌츠빌 Huntsville같이 흥미로운 마을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곳은 발라Bala이다. 크랜베리 숲지로 유명한 이 마을은 정기적으로 크랜베리 순례자를 불러모으는 만큼 재미난 투어를 운영한다.

#### Local Flavor.

① 헌츠빌에 위치한 워프스 다이너Wimpy's Diner  
① 발라 지역에서 크랜베리 와인을 담그는 무스코카 레이크스 농장 앤 와이너리Muskoka Lakes Farm & Winery



## ⑥ 온타리오의 가을과 사랑에 빠지다

차츰 단풍이 물들어가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토론토에서 블루 마운틴, 무스코카, 오타와, 킹스턴을 거쳐 갔다가 다시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로 돌아오는 서클 투어에 나선다. 세부 일정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천성. ©George Fischer

나이아가라 폭포. ©유윤상



**DAY 1 재생하는 도시, 토론토**  
 인천-토론토 직항을 이용한다. 과거 채석장과 공장이 있던 자리에도 도시 공원과 연못을 조성한 에버그린 브릭 워크 Evergreen Brick Works 에서 자연의 신비를 목도한다. 당시 공장 서쪽으로 흐르던 물을 파이프로 조정하여 연못으로 공급하고 연못가에는 토종 나무들을 심었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에 조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가 서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가을마다 새로 심었던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가며 화려한 전망을 자랑한다.  
**Side Trip.**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토론토 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자연에 집중할 수 있다. 단풍나무 사이로 페달을 밟으며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이한다. 건너편의 단풍과 함께 보이는 토론토 스카이라인도 매력적이다.

**DAY 2 아찔한 자연 전망대, 블루 마운틴**  
 토론토 Toronto → 블루 마운틴 Blue Mountains 173km  
 다소 아담한 크기의 원통형 곤돌라에 올라 블루 마운틴의 단풍을 한눈에 내려다본다. 여타 곤돌라와 달리 창문이 없어 360도로 깨끗한 뷰를 감상할 수 있다.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바닥도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 아찔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저 멀리 블루 마운틴 빌리지 Blue Mountain Village와 조지안 베이 Georgian Bay 까지 시야가 넓어지는데 단풍과 대조되는 푸른 바다 같은 호수가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Side Trip.**  
 단풍나무 한가운데서 삼삼육육을 하고 싶다면 스칸디나비아 스파 블루 마운틴 Scandinave Spa Blue Mountain을 추천한다.  
**Local Flavor.**  
 풍성한 가을 먹거리는 수확 시즌에 더욱 활기를 띠는 애플파이 트레일을 통하여 맛볼 수 있다.

**DAY 3 온타리오 주의 별장, 무스코카**  
 블루 마운틴 Blue Mountains → 무스코카 Muskoka 175km  
 무스코카는 화려한 단풍으로 유명한 알곤퀸 주립공원 Algonquin Provincial Park으로 가는 관문이자 온타리오 주의 별장으로 일컬어진다. 먼저 알곤퀸 주립공원의 숲속을 하이킹하며 전망대에 올라본 다음 호숫가에 자리한 무스코카식 롯지에서 휴식을 취한다. 특히 가을은 북방수림의 색채가 시시각각 변하여 가만히 숲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여정이 된다.  
**Side Trip.**  
 무스코카의 작고 조용한 마을로 향하여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나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다.  
 무스코카 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헌츠빌 Huntsville는 마리 호수 Mary Lake, 버논 호수 Vernon Lake, 페어리 호수 Fairy Lake에 둘러싸여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Local Flavor.**  
 가을은 무스코카 호수 농장과 와이너리에서 크랜베리를 맛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이다.

**DAY 4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오타와**  
 알곤퀸 Algonquin → 오타와 Ottawa 276km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도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의 경계에 있는 가티노 공원 Gatineau Park이 짙은 가을색을 띤다. 여러 랜드마크를 연결해주는 800km 길이의 레크리에이션 도로가 인접하니 자전거를 타고 더 많은 도시의 단풍을 조망해봐도 좋겠다. 혹은 리도 운하의 보트 크루즈나 카약을 빌려서 물가로 내려앉은 낙엽을 잡아본다.  
**Side Trip.**  
 할로윈이 다가오는 이 계절엔 바로 고스트 투어가 제격이다. 더 헌티드 워크 The Haunted Walk 가 제공하는 투어를 통해 오타와의 어두운 과거를 마주한다.  
**Local Flavor.**  
 오전에는 상심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바이워드마켓이, 오후에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 붐비곤 한다.

**DAY 5 자연과 역사가 만든 루트, 킹스턴**  
 오타와 Ottawa → 킹스턴 Kingston 195km  
 고풍스러운 마을이 들어선 리도 헤리티지 루트 Rideau Heritage Route를 따라 킹스턴 남쪽으로 이동한다. 세인트 로렌스 강을 가로지르는 천 섬 보트 크루즈에 오르거나 천 섬 헬리콥터에 타면 천 섬과 킹스턴의 단풍을 구석구석 만끽할 수 있다.  
**Side Trip.**  
 19세기에 석회암으로 지어진 포트 헨리 국립 사적지 Fort Henry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킹스턴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DAY 6 선주민과 개척자가 공존하는 마을, 킨**  
 킨 Keene → 토론토 Toronto 160km  
 전체 인구가 55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인 킨 Keene을 경유하여 다시 토론토에 다다른다. 여유가 있다면 킨에 잠시 머무르며 몇몇 장소에 들른다. 약 200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선주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9개의 고분과 19세기 개척자의 모습을 한 마을 사람들이 안내해주는 랭 파이오니어 빌리지 Lang Pioneer Village, 무엇보다 단풍에 둘러싸인 옛 노동자들의 주택 등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명소가 많다.  
**Stay.**  
 엘름허스트스 리조트 Elmhirst's Resort에서 아늑한 코티지와 더불어 승마, 낚시, 카약 등 가을 액티비티와 함께 즐기는 식사와 와인도 훌륭하다.

**DAY 7 대자연이 빛내는 가을,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Toronto →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130km  
 토론토에서 귀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여행을 이어간다. 나이아가라 헬리콥터와 월풀 에어로 카 Whirlpool Aero Car에 올라 나이아가라 강 협곡의 숨은 단풍을 발견하거나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를 타고 폭포수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대자연이 빛낸 가을 풍광을 감상해본다.  
**Local Flavor.**  
 100군데가 넘는 와이너리를 거닐며 가을을 모티브로 한 요리와 와인을 페어링한다.



오타와 운하. ©OttawaTourism



킹스턴 트롤리. ©Visit Kingston



알곤퀸 주립공원. ©Destination Ontario

## 가을 단풍, 5일 코스

# ⑦ 온타리오 북부 단풍 여행

20세기 초 독특한 스타일의 풍경화와 도시화를 그림으로써 캐나다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전한 그룹 오브 세븐 Group of Seven. 그들은 특히 온타리오 주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 자연을 가까이하며 작품을 완성해왔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온타리오 북부로의 여정을 그려보며 새로운 여행에 영감을 얻는다. 이 여정은 온타리오 주 북서쪽에 자리한 수생마리 Sault Ste. Marie에서 출발하는 아가와 캐년 Agawa Canyon행 열차에 오르면서 시작된다.

그룹 오브 세븐의 작품에 묘사된 수많은 장소는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열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표지판으로 경로를 탐색하고 해석 패널을 보며 그림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DAY 1 여행 출발 토론토 Toronto → 수생마리 Sault Ste. Marie

에어캐나다, 포터항공, 에어트랜짓 등에서 토론토-수생마리 항공편을 운항하며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수생마리 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는 차량으로 20km 거리(약 20분 내외)이며, 델타 호텔 수생마리 워터프런트 앞에 설치된 보드워크를 활용하여 기차역까지 편히 걸어갈 수 있다.

### DAY 2 오직 열차로 갈 수 있는 곳 수생마리 Sault Ste. Marie →

아가와 캐년 Agawa Canyon 왕복 184km 길이를 자랑하는 아가와 캐년 데이 투어는 수생마리에서 출발하여 총 10시간이 소요된다. 열차로만 갈 수 있는 아가와 캐년 공원 정차 시간을 포함하는데 승객들은 1시간 30분간 자유롭게 하이킹할 수 있다. 캐나다인 월드의 숲을 충분히 만끽했을 즈음 다시 수생마리로 돌아간다. 8월 1일부터 투어는 운영하며 8월에는 금, 토, 일, 월요일에만,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매일 승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More Info.**  
투어 중 1920년경 J. E. H. 맥드널드가 그린 알고마 언덕과 1919년경 로렌 S. 해리스가 연구한 알고마 캐년 등 그룹 오브 세븐이 포착한 여러 장소를 지나게 된다. 역으로 돌아와 과거 화가들이 철로를 오르내릴 때 쓰던 벨로시페드의 모형과 알고마에 관한 안내문을 찾아보자.

### DAY 3 그림 같은 해안가 드라이브 수생마리 Sault Ste. Marie → 슈퍼리어 호수 Superior Lake ㉠ 248km

레이크 슈퍼리어 코스탈 드라이브 Lakes Superior Coastal Drive의 다채로운 숲이 숨 막히는 절경을 선사한다. 단풍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간혹 상록수가 섞여 있다. 호수 가장자리에 위치한 내추럴리 슈퍼리어 어드벤처에서는 그룹 오브 세븐을 비롯한 다수의 아티스트들이 작품으로 남긴 풍경을 소개하는 패들링, 하이킹, 사진 워크숍을 제공한다.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접 차를 몰아 치페와 폭포 Chippewa Falls를 감상하고 슈퍼리어 호수 국립공원을 방문한다. 17번 고속도로가 공원을 관통하여 북쪽 해안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며 아와우시 트레일 Awassee Trail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More Info.**  
아와우시 트레일에 오르기 전 방문자 센터에 들러 페인팅 박스를 챙겨 그룹 오브 세븐처럼 그림을 그려본다.  
치페와 폭포의 급류는 A.Y. 잭슨의 <Stream Bed, Lake Superior Country>(1955)에 영감을 주었다. 토론토에 위치한 맥마이크 미술관 McMichael Canadian Art Collection에서 로렌 S. 해리스의 <Northern Lake>(1926)를 직관할 수 있다.  
**Local Flavor.**  
보야저스 로지 앤 카우하우스에서 신선한 델리 샌드위치와 달콤한 사과 튀김 먹어보기.

### DAY 4 화가들의 영감의 원천지 수생마리 Sault Ste. Marie

그룹 오브 세븐의 그림을 둘러보는 동안 이들의 작품에 반하게 되었다면 알고마아트 갤러리 Art Gallery of Algoma에 방문하길 추천한다. 그룹 오브 세븐의 스케치와 연구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이 갤러리에서 화가들을 모티브로 삼은 대자연의 풍경이 담긴 서적, 달력과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 혹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알고마의 야생 지대를 두 눈으로 감각해봐도 좋겠다. 캐나다 부시플레인 헤리티지 센터 Canadian Bushplane Heritage Centre에서 비행 어드벤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마치 영화를 보듯 거친 자연을 느껴볼 수 있다.

**운하**  
1895년에 건설된 수생마리 운하는 대서양에서 슈퍼리어 호수까지 캐나다 전역을 이어준다. 캐나다 공원 해설사가 들려주는 운하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보고 부지런히 호가는 보트를 관찰한다.

**카누**  
선주인이 운영하는 스라이브 투어스 Thrive Tours가

진정한 생태 문화에 대해 알려준다. 카누와 카약 투어를 비롯하여 선주민 예술을 포함한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으며 항상 선주민 가이드가 동행한다.

**하이킹**  
바트체와나 퍼스트 네이션의 일부인 아티카멕 트레일과 화이트피시 아일랜드 트레일을 통과하며 도시의 경계를 탐방한다. 수생마리 운하 국립 사적지에서 쉽게 트레일 헤드에 닿을 수 있다. 수생마리 트레일 12. saulttourism.com/travelogues/12-hikes-in-and-around-sault-ste-marie/

**자전거**  
산악자전거 라이딩에 적합한 수생마리의 히아와타 하이랜드 Hiawatha Highlands. 수 사이클링 클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레드 파인 투어에서는 가이드가 대기하고 있다. 자전거 대여나 수리는 알고마 바이클 컴퍼니, 듀크 오브 윈저 스포츠, 벨로루션을 이용하면 된다.

**Local Flavor.**  
아침은 브렉퍼스트 피그, 점심은 블록하우스 펍, 저녁은 지오바니스 레스토랑이나 보일러 룸으로.

**Stay.**  
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기재하자면 퀄리티 인 앤 스위트 베이 프런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데이즈 인 앤 스위트, 콰트로 호텔 앤 컨버런스 센터.

### DAY 5 여행 마무리, 토론토 수생마리-토론토 항공편 이용 시 오전 5시대 에어캐나다에 탑승하면 토론토-인천 항공편에 당일 연결된다.

**More Info.**  
여타 온타리오 주 일정에 해당 여정을 최소 2박 3일 추가하면 아가와 캐년 기차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아가와 캐년 투어 트레인. ©Destination Ontario



알곤퀸 국립공원에서 카누 타기. ©Destination Ontario

## 아웃도어 액티비티, 8일 코스

# ⑧ 카누의 낭만

온타리오 주는 전체 면적 가운데 5분의 1이 물로 덮여 있다. 25만 개가 넘는 호수와 끝없이 이어지는 강, 유서 깊은 수로와 운하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온타리오라는 단어로 이로쿼이 Iroquois족 언어로 '아름다운 호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수 세기 동안 선주민에게 패들링은 이동과 사냥을 위한 행위였다. 오늘날 여행자에게 카누란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호수와 강을 감상하고 선주민의 옛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여행으로 여겨진다.

### DAY 1 평화로운 호수가 토론토 Toronto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1시간 40분 거리에 위치한 엘름허스트 리조트 Elmhirst Resort에 체크인한다. 호수가의 평화로운 풍경을 만끽하며 로컬 다이닝 체험이 가능하다.

### DAY 2 패들링의 기원 피터보로 Peterborough

카누를 타고 라이스 호수 Rice Lake로 나가 일출을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만약 카누를 타본 적이 없다면 먼저 캐나다 카누 박물관 Canadian Canoe Museum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리틀 호수 Little Lake 기슭으로 이전해온 이 박물관은 물, 육지, 선주민에 관한 역사를 알려주고 패들링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 최대 규모로 카누, 카약, 패들링 선박을 소장하고 있어 전시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트렌트세븐 수로 Trent-Severn Waterway에 지어진 피터버러 리프트 록 Peterborough's Lift Lock은 무려 20m 높이까지 보트를 들어올리는 유압식 리프트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 DAY 3 카누와 카약의 배움터 배리스 베이 Barry's Bay

마다와스카 카누 센터 Madawaska Kanu Centre는 화이트워터 카누와 카약을 가르치는 국제 패들링 센터로 잘 알려져 있다. 하루 동안 기초를 배우는 제로 투 히어로 Zero to Hero 프로그램이나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화이트워터 래프팅 트립 Whitewater Rafting Trips을 신청해도 좋다. 해가 지면 마다와스카 카누 센터의 프라이빗 카바나 또는 스펙터클 레이크 롯지 Spectacle Lake Lodge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다.

### DAY 4 화이트워터의 수도 오타와 밸리 Ottawa Valley

캐나다에서 화이트워터의 수도라 불리는 오타와 밸리로 이동하여 OWL 래프팅 리조트에 다다른다. 카누, 카약,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바비큐 만찬을 즐기고 캥스파이어로 낭만을 더한 다음에는 화이트워터 인 Whitewater Inn, 베스트 웨스턴 펌브르크 인 Best Western Pembroke Inn에서 아늑한 투숙이 가능하다.

### DAY 5 급류를 타는 방법 오타와 강 Ottawa River

로세 펜드 급류 Rocher Fendu Rapids에서 고강도 또는 저강도의 리버 익스커션 River Excursion에 참가해본다. OWL 래프팅에 속한 가이드가 패들링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주니 걱정할 필요 없다. 4~6시간의 리버 익스커션이 끝나면 포톤 보트 크루즈 Pontoon Boat Cruise를 타고 편안하게 리조트로 돌아올 수 있다. 체력이 부족하다면 이곳에서 투숙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타와로 부지런히 이동한다.

### DAY 6 선주민의 교역로 오타와 Ottawa

선주민의 교역로이자 초기 탐험가들의 여행지이자 1800년대 목재 무역로로 풍부한 역사를 지닌 오타와 강을 따라 여정을 이어간다. 리도 운하 Rideau Canal와 캐나다 역사박물관 Canadian Museum of History을 둘러본 뒤 오타와 시티 래프팅 Ottawa City Rafting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요동치는 급류를 타본다.

### DAY 7-8 난파선이 있는 마을 가나노크 Gananoque

리도 헤리티지 루트 Rideau Heritage Route를 따라 세인트 로렌스 강에 닿으면 가나노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마을은 성과 별장, 모래가 가득한 해변, 난파선, 시골 목초지 등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 섬 보트 크루즈에 올라 차분히 경치를 감상하거나 천 섬 카약 투어로 물의 움직임을 만끽한다. 카약 투어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하며 안전 장비와 허가증을 챙겨 준다.

**More Info.**  
가이드 없이 혼자 카약을 탄 채 천 섬을 누리고 싶다면 렌털 패키지를 추천한다. 상세 지도, 권장 경로, 비상 연락처, 안전 장비 등을 모두 준비해 준다. 100islandskayaking.com/rentals-and-self-guided-tours  
다양한 천 섬 보트 크루즈 cityexperiences.com/gananoque

**숲이색 숙소**  
온타리오 주의 물과 서둘러 친해지고 싶다면 하우스보트 Houseboat가 제격이다. 여행자에게는 주로 리도 운하와 트렌트 세븐 수로를 소개해주는 데 그중 리도 운하의 하우스보트를 소개한다. 유럽 전역에서 럭셔리한 세일링 보트를 다뤘은 르보트 Le Boat는 리도 운하에서도 프리미엄 하우스보트 현지인들의 휴가와 여행자들의 여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 업체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우스보트 내에 대형 창문, 일광욕 공간, 수로 탐험에 적합한 편 데크를 마련해 놓았다. leboat.com



마다와스카 카누 센터 Madawaska Kanu Centre. ©Destination Ontario



무스코카 베이 리조트. ©Barb Simkova

## 아웃도어 액티비티, 10일 코스

# ⑨ 무스코카 대자연 속 골프 라운딩

이 여정은 무스코카를 중심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와 토론토에서 라운딩을 도는 10일간의 골프 여행이다. 어떤 레벨의 골퍼든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DAY 1 여행 출발, 토론토

인천에서 대한항공에 탑승했다면 토론토에 오전에 도착해서 무스코카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반면 에어캐나다를 탑승했다면 공항에서 1박을 한 후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 DAY 2-4 화강암으로 골곡진 지형, 무스코카

토론토 Toronto → 무스코카 Muskoka  
₩ 200km

**무스코카 베이 리조트 Muskoka Bay Resort**  
2002년 개장 이래 온타리오 주에서 최고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꾸준히 선정되어온 무스코카 베이 리조트의 18홀 코스의 골프장은 저명한 골프 코스 디자이너인 더그 캐릭 Doug Carrick이 설계했다. 라운딩을 마치고 테라스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스테이 앤 플레이 패키지를 예약하여 골프와 여행을 두루 만끽할 수도 있다. muskokabayresort.com

### 타부 무스코카 리조트 & 골프

**Taboo Muskoka Resort & Golf**  
캐나다 100대 골프 코스에 속하는 타부 무스코카 리조트 앤 골프는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다. 18홀 코스가 약 6,712m 길이를 자랑하며 75.1점에 달하는 USGA 평점을 과시한다. 또한 캐주얼 음료, 스낵,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바 19를 포함하여 세 곳의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 taboomuskoka.com

### 무스코카 하이랜드 골프 링크스

**Muskoka Highlands Golf Links**  
브레이스브릿지 Bracebridge의 그레이븐허스트 Gravenhurst에서 북쪽으로 15분 거리에는 무스코카 하이랜드 골프 링크스의 18홀 코스가 들어서 있다. 약 5,486m의 챔피언십 코스 내에 2,743m 정도의 코스를 함께 갖추어 초보 골퍼들도 부담 없이 연습하기 좋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점도 애견인들에게 장점으로 손꼽힌다. muskokahighlands.com

### 디어허스트 리조트 Deerhurst Resort

디어허스트 하이랜드 드라이브의 18홀 파 72 코스는 캐나다의 100대 퍼블릭 코스 가운데 하나로 캐나다인 월드 Canadian Shield의 전망이 훌륭하다. 5개의 레스토랑과 고급 숙박시설 또한 현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deerhurstresort.com

### 빅윈 아일랜드 Bigwin Island Golf Club

험준한 무스코카의 지형을 고스란히 반영한 드넓은 페어웨이가 라운딩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빅윈 아일랜드 골프 클럽은 회원 수가 260명으로 제한되어 회원들은 18홀 코스에서 보다 프라이빗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bigwinisland.com



무스코카 베이 리조트. ©Barb Simkova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의 골프장. ©Destination Ontario

### DAY 5-7 역사적인 골프의 터전, 나이아가라 폭포

무스코카 Muskoka →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 280km

**비치우드 골프 클럽 Beechwood Golf Club**  
1812년 전쟁이 벌어졌던 자리에 지어진 비치우드 골프 클럽 곳곳에 지난했던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클럽하우스의 올드 반 Old Barn(오래된 헛간)을 구경한 뒤 약 6,084m의 파 72 코스를 섭렵하고 폼에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피자를 맛본다. beechwoodgolf.com

### 나이아가라 온 더레이크 골프 클럽

**Niagara-on-the-Lake Golf Club**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인 나이아가라 온 더레이크 골프 클럽은 1875년부터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나이아가라 강변에 위치하여 빅토리아 스트리트와 접근성이 좋아 라운딩 후에 쇼핑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 More Info.

📍 나이아가라 파크의 더 많은 챔피언십 코스  
niagaraparks.com/visit-niagara-parks/golf/the-courses

### Stay.

🏠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의 숙소  
visitniagaracanada.com/stay  
🏠 고품격 환경이 조성된 나이아가라 온 더레이크의 숙소  
niagaraonthelake.com/accommodations

### DAY 8 프로 골프 대회 본고장, 오크빌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 오크빌 Oakville ₩ 93km

**글렌 애비 골프 클럽 Glen Abbey Golf Club**  
나이아가라 폭포와 토론토 사이에 자리한 글렌 애비 골프 클럽은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전설적인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 Jack Nicklaus가 설계한 18홀의 골프 코스에서 PGA 투어 이벤트인 RBC 캐나다 오픈 RBC Canadian Open과 캐나다 내셔널 오픈 챔피언십 Canada's National Open Championship을 28회나 개최한 곳. 호화로운 클럽하우스나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만찬을 즐겨도 좋겠다. glenabbey.clublink.ca



패리 사운드 골프 앤 컨트리 클럽 Parry Sound Golf & Country Club. ©Destination Ontario

### DAY 9-10 도심 속 골프 커뮤니티, 토론토

오크빌 Oakville ₩ 57km

**이글스 네스트 골프 클럽 Eagles Nest Golf Club**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18홀의 골프 코스에서 거침없이 샷을 날릴 수 있는 이글스 네스트 골프 클럽. 약 6,836m, 파 72의 코스가 꾸준히 골퍼들을 불러모은다. 짐 앤 게리스 펌 Jim & Garry's Pub과 라고스 고메익스프레스 케이터링 Lago's Gourmet Express Catering에서 라운딩 전후 배를 채울 수 있다. eaglesnestgolf.com

### 코퍼 크릭 골프 클럽 Copper Creek Golf Club

토론토 시내에서 북쪽으로 35분 거리에 위치한 코퍼 크릭 골프 클럽은 약 6,468m 길이의 18홀 파 72 코스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골퍼가 '평생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해주는 스포츠라는 슬로건 아래 커뮤니티케이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클라인버그 룸 앤 비스트로 Kleinburg Room and Bistro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며 운치 있는 식사가 가능하다. coppercreek.ca

### 라이언헤드 골프 클럽 Lionhead Golf Club

대략 210만m² 땅에 조성된 라이언헤드 골프 클럽의 36홀 골프 코스가 초보 골퍼부터 프로 골퍼까지 누구에게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코스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정비했다. kaneffgolf.com/golf/courses/lionhead

### More Info.

📍 온타리오 주의 더욱 도전적인 골프 코스  
destinationontario.com/en-ca/articles/challenging-and-scenic-public-golf-courses-ontario

### Stay.

🏠 칼레돈 Caledon에 들어선 리버티 인 Liberty Inn은 토론토 일대의 골프장과 가까이 이동이 편리하다.

### Event.

🏆 캐나다에 열리는 PGA 정규 대회인 RBC 캐나다 오픈을 관람하고 싶다면 미리 티켓을 예매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대회에는 PGA 캐나다 투어의 상위 골퍼 3명이 출전한다. 골프 코스는 매년 변동된다.



## 하이킹/자연 속 산책, 9일 코스

# 가을 색조에 흠뻑 빠지다

온타리오 주를 보다 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하이킹과 탁 트인 전망대까지. 이 단풍 트레일은 모험심 강한 여행자에게 제격이다.

이글스 네스트 룩아웃 ©Peter Luszyk



### More info.

온타리오 주를 한눈에 담은 전망대 리스트  
[destinationontario.com/en-ca/articles/ultimate-ontario-fall-colour-lookouts](https://destinationontario.com/en-ca/articles/ultimate-ontario-fall-colour-lookouts)

알곤퀸 주립공원 ©Destination Ontario

### DAY 1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곳, 토론토

1년 내내 변화한 토론토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CN타워 꼭대기로 올라가 옛위워크에 도전해봐도 좋다. 토론토의 무르익은 단풍은 토론토 섬에서 절정을 이룬다. 페리를 타고 섬에 다다르는 순간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사례로 언급되는 에버그린 브릭 워크스Evergreen Brick Works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하게 한다. 저녁에는 가을 스포츠인 야구, 농구, 하키를 관람할 수 있다.

#### View Point.

#### 스카버러 블러프스Scarborough Bluffs

토론토 동쪽 끝 이스턴 비치와 이스트 포인트 공원 사이에 위치한 스카버러 블러프스는 1만2000년 전 바람과 물의 침식 작용과 커커이 쌓인 퇴적물로 인해 형성되었다. 절벽을 따라 11개의 공원이 있으며 단풍이 가득한 산책로를 거닐 수 있다.  
 · 위치: 브림리 로드Brimley Road를 거쳐 블러퍼스 공원으로 이동(주말엔 케네디 역에서 버스 운행)  
 卍 토론토 돈 밸리 호텔Toronto Don Valley Hotel, 호텔 엑스Hotel X

### DAY 2 가을 하이킹의 정수, 블루 마운틴

#### 토론토Toronto → 블루 마운틴Blue

#### Mountain ㄹ158km

역동적인 휴양지인 블루 마운틴 리조트에서 동굴 탐험, 집라인, 골프, 사이클링, 세그웨이 투어 등의 모험에 뛰어들다. 혹은 곤돌라에 올라 조지안 베이 Georgian Bay의 파노라마 전망을 살펴본 후 단풍으로 물든 하이킹 코스를 걷는다. 과수원이나 호박밭에 방문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려볼 수도 있다.

### DAY 3 가장 오래된 산책로를 지닌, 토버모리

####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 →

#### 토버모리Tobermory ㄹ163km

북서쪽으로 가면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호구역의 일부인 브루스 페닌슐라가 등장한다. 이곳의 핵심은 험준한 해안선과 아찔한 절벽을 보유한 브루스 페닌슐라 국립공원Bruce Peninsula National Park.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산책로인 브루스 트레일이 이 절벽을 아우른다. 또는 바다 동굴인 그로토Grotto에서 수영을 하거나 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를 타고 수백 년 된 난파선과 드라마틱한 플라워팟 섬Flowerpot Island를 탐험한다.

### DAY 4 선주민의 단풍 로드, 리틀 커런트

#### 토버모리Tobermory →

#### 리틀 커런트Little Current ㄹ70km

토버모리에서 엠스치 치치몬 페리MS Chi-Cheemaun Ferry에 승선하여 매니톨린 섬 Manitoulin Island에 다다른다. 약 2시간 동안 반짝이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 섬은 위키키콩 관광청Wikwemikong Tourism의 주도하에 자연과 문화에 관한 선주민 투어를 제공한다. 오브지브웨 문화 센터Objibwe Cultural Centre에서 선주민의 예술 작품을 목도하거나 컵

앤 소서 트레일Cup and Saucer Trail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 참고로 섬에서 대접하는 흰살 생선 요리가 일품이라고.

### DAY 5 단풍나무 숲속으로, 수생마리

#### 리틀 커런트Little Current →

#### 수생마리Sault Ste. Marie ㄹ290km

다시 북서쪽으로 차를 달려 수생마리Sault Ste. Marie의 두 가지 모험에 참여한다. 하루는 아가와 캐년 투어 열차Agawa Canyon Tour Train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단풍의 향연에 감탄하고(하이킹이 가능한 90분간의 정차 포함) 또 다른 하루는 레이크 슈페리어 해안 드라이브Lake Superior Coastal Drive를 통과하며 단풍나무, 자작나무, 상록수가 무성한 숲을 조망한다. 더불어 보야저스 롯지 앤 캠프하우스Voyageur's Lodge & Cookhouse를 경유하여 바차와나 베이 Batchawana Bay의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유명한 사과 튀김을 먹어봐도 좋겠다.

#### View Point.

#### 로버트슨 절벽

일라 루프Ila's Loop 하이킹은 로버트슨 레이크 로드Robertson Lake Road에서 출발하여 약 5km의 길로 연결된다. 파란색 트레일을 따라 로버트슨 폭포에 도달한 후 다시 메인 트레일로 돌아와 150m 높이의 로버트슨 절벽 꼭대기로 올라간다. 아래로 보이는 북방수림과 슈페리어 호수Superior Lake의 경관이 가히 환상적이다. 노란색 트레일은 경사가 가파르지 않으므로 하산 시 좋은 선택이 되어준다.

· 위치: 수생마리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굴레 강Goulais River 외곽  
 卍 워터 타워 인Water Tower Inn

### DAY 6 노을빛 화강암 절벽, 킬라니 주립공원

#### 수생마리Sault Ste. Marie →

#### 킬라니 주립공원Killarney Provincial Park

#### ㄹ408km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킬라니 주립공원의 분홍색 화강암 절벽과 바람에 휘쓸린 소나무가 이루는 조화를 감상한다. 6km에 달하는 크랙Crack 하이킹이 버겁다면 그레이트 릿지 트레일Granite Ridge Trail을 추천한다. 해가 지기 전 주립공원 안에 있는 호수에서 요트, 카누나 카약, 크루즈를 타고 킬라니 마운틴 롯지에서 현지 가정식을 맛봐도 좋다.

### DAY 7 가을의 색채를 담은 호수, 무스코카

#### 킬라니 주립공원Killarney Provincial

#### Park → 무스코카Muskoka ㄹ260km

무스코카의 단단한 화강암 지형이 모험심을 부추긴다. 가을의 화려한 색채를 조금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선을 타고 무스코카 호수를 빙 둘러본다. 무스코카 호수 팜 앤 와이너리에서 보그 투 보틀 디스커버리 투어Bog to Bottle Discovery Tour를 진행한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무스코카는 별 관측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 Side Trip.

卍 알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에서 궁극의 단풍놀이가 가능하다. 부스즈 록Booth's Rock, 룩아웃 트레일, 알곤퀸 방문자 센터 일대와 알곤퀸 아웃피터스Algonquin Outfitters의 카누 투어가 가을의 다채로운 색을 과시한다. 무스, 흰꼬리사슴, 비버, 샬 등의 야생동물과 270여종의 새를 맞닥뜨릴 수 있으니 카메라를 챙기자.

#### View Point.

#### 돌셋 시닉 타워Dorset Scenic Tower

1922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지어진 돌셋 시닉 타워는 오늘날 헬리버튼 하이랜드Haliburton Highlands의 레이크 오브 베이스Lake of Bays 위 142m 상공에 자리한 전망대로 유명하다. 5월에서 10월,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돌셋 룩아웃 타워 트레일이 인기이다. 돌셋 헤리티지 박물관 뒤편에서 시작하여 30m 높이의 타워 기슭까지 2km가 넘는 오르막길을 등반한다.  
 · 위치: 돌셋 마을 북쪽 35번 고속도로에 위치한 1191 돌셋 시닉 타워 로드  
 卍 파이어하우스 로지Firehouse Lodge, 헬리버튼 포레스트Haliburton Forest

#### 라이온스 전망대

포브스 힐 드라이브Forbes Hill Drive와 캠프 키친 로드Camp Kitchen Road를 가로질러 무스코카 강과 페어리 호수Fairy Lake 위쪽으로 주행한다. 도착한 전망대에서는 굴곡진 언덕들이 장관을 이룬다. 정상에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 DAY 8 높다란 전망대를 향하여, 토론토

#### 무스코카Muskoka → 토론토Toronto

#### ㄹ225km

#### View Point.

#### 이글스 네스트 전망대Eagle's Nest Lookout

칼라보기 피크스 리조트Calabogie Peaks Resort에서 경사가 가팔라지는 1.5km의 길을 올라 120m 높이의 절벽에 도달한다. 혹은 9km 길이의 마니투 마운틴 트레일Manitou Mountain Trail을 선택하여 이글스네스트 전망대에 이르러 또 하나의 전망대를 접수한다.  
 · 위치: 508번 서쪽 고속도로를 타고 칼라보기 피크스 리조트를 지나 2.2km 지점  
 卍 섬웨어 인 칼라보기Somewhere Inn Calabogie

### DAY 9 고공에서 만끽하는 단풍, 나이아가라 폭포

#### 토론토Toronto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 ㄹ130km

헬리콥터나 집라인을 활용하여 고공에서 나이아가라의 단풍을 감상한다. 월풀 제트 보트 투어를 예약하여 나이아가라 강의 5급 급류를 훑어보고 나이아가라 파크 발전소Niagara Parks Power Station에서 재생 관광의 면면을 마주해본다.

# 퀘벡 주

## Québec

### ① 기본 정보

대한민국 면적의 약 15배  
주도는 퀘벡 시티, 가장 큰 도시는 몬트리올

### ✈ 항공편

인천-몬트리올 약 13시간 소요  
밴쿠버-몬트리올 약 5시간 소요  
토론토-몬트리올 약 1시간 20분 소요

### 📍 여행 정보

퀘벡 주 [bonjourquebec.com](http://bonjourquebec.com)  
퀘벡 시티 [quebec-cite.com](http://quebec-cite.com)  
몬트리올 [mtl.org](http://mtl.org)

### 🕒 시차

퀘벡 주가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다.  
(서머타임 적용 시 13시간)



페어몬트 르 샤토 프롱트낙의 아름다운 풍경.  
©Mélanie Jean, Destination Québec cite

## 도심 속 산책, 2일 코스

### ① 퀘벡 시티를 걷다

퀘벡 시티의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험하는 여정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퀘벡**을 중심으로 여행한다. 올드 퀘벡은 어퍼 타운과 로어 타운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각각 하루씩 둘러본다.

#### DAY 1 어퍼 타운 Upper Town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퀘벡 시티  
퀘벡 시티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오브세르바투아르 드 라 카피탈Observatoire de la Capitale에 방문한다. 해발 221m의 높이에서 올드 퀘벡을 둘러싼 성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퀘벡 주 국회의사당 Parliament Building 건물 정면에는 퀘벡의 역사를 형성한 인물들을 기리는 26개의 청동 조각상이 장식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의사당 앞의 투르니 분수Tourny Fountain도 아름다운 풍경을 이룬다. 길 건너편에는 국립 사적지인 아브라함 평원Plains of Abraham이 자리한다. 아브라함 평원 전투(프랑스와 영국이 북미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가 벌어졌던 장소이자 퀘벡 시티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이다. 아브라함 평원 박물관Plains of Abraham Museum을 관람한 다음 천천히 평원을 거닐며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몸소 체득해본다. 올드 퀘벡으로 들어가는 성곽 문인 생루이문Saint-Louis gate을 향해 걸으면 북미에서 가장 큰 영국식 요새인 퀘벡 시타델Citadelle de Québec에 닿는다. 별 모양의 성벽을 따라 요새를 감상하거나 가이드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생루이 거리Rue Saint-Louis를 따라가면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인 페어몬트 르 샤토 프롱트낙

Fairmont Le Château Frontenac에 다다른다. 이 호텔은 퀘벡 시티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호텔이라고 한다. 호텔 앞에 있는 뒤프랭 테라스Terrasse Dufferin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마주하는 산책로로 <도깨비>에서 도깨비의 무덤이 있던 언덕인 바스티옹드라렌 공원Parc du Bastion-de-la-Reine으로 이어진다.

#### Stay. 샤토 프롱트낙이 보이는 호텔

- ▣ 힐튼 퀘벡Hilton Quebec
- ▣ 르 카피탈 호텔Le Capitole Hôtel

#### DAY 2 로어 타운 Lower Town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인 펄피 샹플랭 Petit-Champlain 지구에서 주요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상점을 구경한다. 올드 퀘벡의 성곽 아래 위치한 올드 타운은 1608년 사뮈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이 퀘벡 시티를 발견하고 북미 최초의 프랑스 정착지를 건설한 곳이다. 이후 문명 박물관Musée de la civilisation에서 인류 문명, 퀘벡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해본다. 그런 다음 올드 포트로 이동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올드 포트 근처에서 페리를 타고 건너편인 레비Levis로 향해 퀘벡 시티의 전경을 감상해도 좋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상 사진을 찍고 싶다면

리버 크루즈가 제격이다. AML이 운영하는 유람선은 몽모랑시 폭포Montmorency Falls와 오를레앙 섬Île d'Orléans 앞까지 항해하므로 자연도 만끽할 수 있다.

#### More Info.

- ▣ 퀘벡 시티 가이드 워킹 투어 [quebec-cite.com/en/what-to-do-quebec-city/walking-tours](http://quebec-cite.com/en/what-to-do-quebec-city/walking-tours)
- ▣ 퀘벡 시티 추천 호텔 [quebec-cite.com/en/where-to-stay-quebec-city/hotels-old-quebec](http://quebec-cite.com/en/where-to-stay-quebec-city/hotels-old-quebec)
- ▣ 추천 레스토랑 [quebec-cite.com/en/restaurants-quebec-city/unforgettable-foodie-experience](http://quebec-cite.com/en/restaurants-quebec-city/unforgettable-foodie-experience)

#### ① 퀘벡 시티의 친환경 숙소

▣ 올드 퀘벡에서 건축미로 유명한 페어몬트 르 샤토 프롱트낙은 2020년 캐나다 호텔 최초로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 2박 이상 숙박하는 고객이 객실 정리를 원치 않는 경우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샤토 보레알Château Boréal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호텔 옥상의 별통에는 약 7만 마리의 벌이 서식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꿀은 내부 레스토랑에서 사용된다. [fairmont.com/frontenac-quebec](http://fairmont.com/frontenac-quebec)

▣ 오베르주 생탕투안Auberge Saint-Antoine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물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호텔 내 레스토랑 셰퍼피Chez Muffy는 직접 수확한 채소를 포함한 지역 특산물로 맛있는 요리를 선보인다. [saint-antoine.com](http://saint-antoine.com)

▣ 호텔 뒤위의 퀘벡Hôtel du Vieux-Québec은 친환경 숙박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옥상에서 유기농 채소를 손수 재배하고 꿀을 직접 생산하며 이를 호텔 레스토랑인 비스트로 오르투스Bistro Hortus에서 활용한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자 유일하게 재생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호텔로, 이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노력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았으며 탄소 중립 인증도 획득했다. [hvq.com](http://hvq.com)



### 추천여행코스

- 🚶 ① 퀘벡 시티를 걷다
- 🚗 ② 퀘벡 시티 근교 미식 기행
- 🏰 ③ 몬트리올과 근교 미식 기행
- 🌳 ④ 가을의 절경 속에서
- 🍁 ⑤ 가을 색채에 동화되다
- 🚢 ⑥ 바다같은 강을 따라서
- 🐾 ⑦ 야생동물과 교감하는 여정
- 🍴 ⑧ 안전한 휴식

미식, 4일 코스

② 퀘벡 시티 근교 미식 기행

퀘벡 시티 근교로 향하면 풍요로운 녹음이 짙은 전원 지대에 들어설 수 있다. 빼어난 경관 속에서 즐기는 미식 여정은 퀘벡 시티 여행의 색다른 발견이 되어줄 것이다.



비노블 아일 드 바쿠스에서 와인 한 잔.  
©GouvQc Jean-François Frenette



퀘벡 주에서 수확한 딸기.  
©GouvQc Mathieu Dupuis

DAY 1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퀘벡 시티 Québec cité → 오를레앙 섬 Île d'Orléans 35km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퀘벡 시티  
퀘벡 시티 근교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를 찾아 오를레앙 섬으로 향한다. 비노블 들라일드 바쿠스 Vignoble Isle de Bacchus는 1535년 자크 카르티에 Jacques Cartier가 이곳에 상륙해 야생 포도가 많이 자라는 곳에 붙인 이름이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 와이너리를 둘러보고 지하 와인 저장고에서 퀘벡 와인 선구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세인트로렌스 강이 내다보이는 파티오에서 현지 치즈와 사퀴트리 보드를 곁들인 와인 한잔의 여유를 즐겨본다. 시간을 내 근방의 비노블 스테-페트로닐 Vignoble Ste-Pétronille에 방문하면 모모랑시 포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보일 드 라마리에 Voile de la Mariée 와인 한잔과 맛있는 나폴리 피자를 함께 즐길 수 있다.

**More Info.**  
 📍 비노블 아일 드 바쿠스 isledebacchus.com  
 📍 비노블 스테-페트로닐 vs-p.ca  
**Local Flavor.**  
 🍷 오를레앙 섬에는 와인 외에도 특색 있는 특산품이 다양하다. 카시스 몬나엔 필레 Cassis Monna & filles에 방문하면 블랙 커런트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cassismonna.com/en  
 🍷 컨피제리 티기두 Confiturerie Tigidou에서 잼, 시럽, 베리 칵테일 등 퀘벡 로컬 특산품을 살 수 있다. tigidou.ca  
 🍷 뒤 카피텐 Du Capitaine에서는 블랙 커런트로 만든 품질 좋은 식초를 판매한다. ducapitaine.com



비노블 아일 드 바쿠스의 풍경.  
© GouvQc Jean-François Bergeron / Enviro Foto



세인트로렌스 강.  
©GouvQc Jean-François Bergeron / Enviro Foto

DAY 2 강의 전망  
퀘벡 시티 Québec cité → 코트드보프레 Côte-de-Beaupré 38km

퀘벡 시티에서 코트드보프레로 이동해 콥트 루시 Comte de Roussy 농장에 방문한다. 이곳은 퀘벡에서 보기 드문 배를 포함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기르고 있다. 농장 가판대는 형형색색의 농작물과 함께 유쾌한 분위기가 풍긴다. 세인트로렌스 강을 바라보며 직접 만든 파이 한 조각과 따뜻한 음료를 즐겨본다. 수확철에는 밭에 나가 과일과 채소를 직접 따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More Info.**  
 📍 콥트 루시 lecomtederoussy.com  
**Local Flavor.**  
 🍷 레 캐나다즈 Les Canardises에서 군침 도는 무스, 릴레트, 푸아그라, 카슬레 등 다양한 오리 요리를 맛볼 수 있다. lescanardises.com  
**Stay.**  
 🍷 생티데캡 Saint-Tite-des-Cap의 퀘벡-와 농장 Québec-Oies farm에서 하룻밤 머무른다. 혁신적인 농법으로 들판에서 기르는 거위는 테린, 파테, 무스, 릴레트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lafermequebecoies.com

DAY 3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퀘벡 시티 Québec cité → 뇌빌르 Neuville 34km

뇌빌르의 도멘 데 트와 몰랭 Domaine des 3 Moulins에서 만드는 맛 좋은 와인은 지역의 흥미로운 역사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을 붙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와이너리에는 제재소, 제분 공장, 방직 공장이 들어섰다. 오늘날 와이너리는 화이트 와인, 로제, 브랜디로 강화한 와인을 포함한 두 가지 레드 와인을 생산한다. 네 가지 와인 모두 여러 와인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가을에 이곳을 방문하면 지역 최고의 와이너리 중 한 곳의 포도 수확을 도울 수 있다. 치즈와 환상적인 페어링을 이루는 와인 젤리를 비롯해 와인을 꼭 구입해보자.

More Info.  
도멘 데 트와 몰랭 domainedes3moulins.com

**Side Trip.**  
 🍷 우수한 유기농 원유 치즈를 생산하는 포로마주리 데 그론딘 Fromagerie des Grondines은 가이드 투어를 운영한다. fromageriedesgrondines.com  
 🍷 라 디네트 뒤 캡 La Dinette du Cap은 매력적인 정원을 갖춘 카페다.  
 🍷 바로 곁에 있는 줄리 바송 쇼콜라 Julie Vachon Chocolats도 빼놓을 수 없는 초콜릿 및 아이스크림 맛집. julievachonchocolats.com/chocolaterie

DAY 4 클래식 프랑스 베이커리  
퀘벡 시티 Québec cité → 자크-카르티에 Jacques-Cartier 44km

퀘벡 시티 근교 미식 기행의 다음 목적지는 자크-카르티에 지역의 스톤햄-에-튀크부리 Stoneham-et-Tewkesbury다. 이곳의 파스칼 르 불랑제 Pascal Le Boulanger에서는 빵과 페이스트리 외에도 케이크, 샌드위치, 키슈 등 폭넓은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인다. 인근의 마이크로브라세리 라 수셰 Microbrasserie La Souche 파티오에서 수제 맥주를 마시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거의 모든 요리에 맥주를 사용하는 창의적인 메뉴 또한 맛볼 수 있다. 퀘벡 시티로 돌아온 뒤에는 하단 리스트를 참고해 나만의 미식 기행을 추가로 완성해보자.

**More Info.**  
 🍷 파스칼 르 불랑제 pascalleboulanger.com  
 🍷 마이크로브라세리 라 수셰 lasouche.ca  
**Side Trip.**  
 🍷 퀘벡 시티 미식 여행 2박 일정 quebec-cite.com/en/what-to-do-quebec-city/itinerary-2-days-foodie  
 🍷 퀘벡 시티 로컬 맛집 리스트 quebec-cite.com/en/plan-your-trip-quebec-city/guide-eat-drink-local



몬트리올. ©Laurène Tinel - Tourisme Montréal

## 미식, 5일 코스

### ③ 몬트리올과 근교 미식 기행

‘라벨 빌La Belle Ville(아름다운 도시)’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가을은 몬트리올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절이다. 형형색색의 단풍과 그림 같은 공원, 예술 공연으로 물드는 몬트리올과 근교의 미식 여행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훈제 고기로 유명한 몬트리올의 슈워츠 델리. ©Destination Canada

#### DAY 1-2 폭넓은 미식 선택지 몬트리올Montréal

✂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장부터 파인 다이닝까지, 몬트리올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 장탈롱 마켓Jean-Talon Market과 앳워터 마켓Atwater Marke 등의 시장을 방문해 제철 과일과 채소, 육류, 치즈 그리고 다양한 파이의 풍미에 빠져든다. 퀘벡 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인 푸틴Poutine도 빼놓을 수 없다. 현지인들은 저마다 단골 맛집을 자랑하는데, 그중 클래식 푸틴뿐 아니라 다양한 토핑 조합이 가능한 라방키즈La Banquise를 추천한다. 24시간 운영하므로 언제나 푸틴을 즐길 수 있다. 몬트리올식 베이글은 뉴욕식 베이글에 비해 크기는 작고 얇지만 식감은 더욱 쫄득하다. 꿀물에 삶은 후 나무 화덕에서 굽기 때문에 단맛도 느껴진다. 참깨나 양귀비씨를 뿌리는 것도 특징. 여러 군데서 몬트리올식 베이글을 맛보고 어느 곳이 최고인지 직접 판단해보길 권한다. 또한 몬트리올은 훈제 고기로도 유명하다. 슈워츠 델리Schwartz's Deli는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 한달음에 달려가는 성지 같은 곳이다. 긴 대기 줄을 피하고 싶다면 공장 테이크아웃 카운터로 향할 것. 주문이 고인되는 여행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지인의 조언을 전한다. “고기는 반드시 미디엄 린Medium Lean으로 주문하고, 빵과 피클을 추가해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는 임파스토Impasto 등은 예술적인 요리를 창조해낸다. 색다른 저녁 식사를 계획한다면 10월 초까지 운행하는 세인트로렌스강 디너 크루즈를 예약하는 것이 좋다. 배를 채운 후에는 몽로열 공원을 거닐며 아름다운 도시 전망에 취해본다. 밤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빛과 음악 등이 어우러진 매핑 쇼, 아우라 익스피리언스AURA Experience를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 More Info.

- ① 몬트리올 미식 여행 2박 일정 [mtl.org/en/experience/spend-autumn-long-weekend-montreal](http://mtl.org/en/experience/spend-autumn-long-weekend-montreal)
- ② 몬트리올 최고의 푸틴 [mtl.org/en/experience/best-poutines-montreal](http://mtl.org/en/experience/best-poutines-montreal)
- ③ 몬트리올식 베이글 [mtl.org/en/experience/the-famous-montreal-bagel](http://mtl.org/en/experience/the-famous-montreal-bagel)
- ④ 몬트리올 훈제 고기 [mtl.org/en/experience/guide-to-montreal-smoked-meat](http://mtl.org/en/experience/guide-to-montreal-smoked-meat)
- ⑤ 채식 레스토랑 [mtl.org/en/experience/vegetarian-vegan-restaurants](http://mtl.org/en/experience/vegetarian-vegan-restaurants)

#### Event.

🍷가을마다 미식 축제 'MTLàTABLE'이 열린다. 몬트리올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코스 메뉴를 선보여 다채로운 미식 문화와 특별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mtlatable.com](http://mtlatable.com)

#### Stay.

🏨 리츠 칼튼 몬트리올Ritz-Carlton Montréal 내에 있는 메종 볼루Maison Boulud는 한 번 방문한 후에 또다시 찾게되는 맛집이다. 호텔에 머물면 레스토랑에 편히 드나들 수 있다.

#### Side Trip.

🚗 이스턴 타운십 와이너리 여행 5박 일정 [bonjourquebec.com/en-ca/where-to-go/routes-and-itineraries/wine-route](http://bonjourquebec.com/en-ca/where-to-go/routes-and-itineraries/wine-route)

#### DAY 3 와인에 관한 모든 것

몬트리올Montréal → 로르피유

#### L'Orpailleur 88km

몬트리올 근교로 떠나 느긋하게 미식 여행을 즐겨보자. 첫 번째 행선지는 로르피유의 비노블 드 로르피유 Vignoble de l'Orpailleur 와이너리다. 포도 품종과 재배는 물론 와인 제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와인 시음과 함께 비스트로의 맛있는 메뉴도 즐길 수 있다. 근처에 자리한 유니언 리브레Union Libre에서는 파이어 사이더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파이어 사이더Fire Cider는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게 증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황금빛 호박색을 띠는 파이어 사이더는 속까지 따뜻해지는 맛이 특징. 함께 방문하기 좋은 비노블 드 라보즈Vignoble de la Bauge는 포도밭을 가로지르는 승마, 들뜬에서 즐기는 마차 투어 등 독창적인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와이너리다.

#### More Info.

- 🍷 비노블 드 로르피유 [orpailleur.ca](http://orpailleur.ca)
- 🍷 유니언 리브레 [unionlibre.com/fr](http://unionlibre.com/fr)
- 🍷 비노블 드 라보즈 [labauge.com](http://labauge.com)

#### DAY 4 서튼의 별미

몬트리올Montréal → 서튼Sutton

#### 110km

서튼은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몬트리올 근교 여행지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서튼 타운에 둘러져 지역의 명물 중 하나인 라운드 톱 베이글Round Top Bagels의 맛있는 베이글을 맛보고, 부티크와 아트 갤러리를 둘러본다. 저녁 식사를 즐기기 전에는 마이크로 브루어리에 둘러느긋하게 지역 맥주를 즐겨도 좋다. 비노블 도멘 브레제Vignoble Domaine Bresee는 와이너리이자 목초로 키운 소고기도 판매한다. 연못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지역 특산 와인을 시음하기에 완벽한 장소다.

#### More Info.

- 🍷 비노블 도멘 브레제 [vignobledomainebresee.com](http://vignobledomainebresee.com)

#### DAY 5 북경 오리과 아이스와인

몬트리올Montréal → 브롬 호수Canards du Lac-Brome 107km

카나르 뒤 락 브롬은 1912년 이래 북경 오리를 기르며 다양한 특점 제품을 판매해온 농장이다. 주말에는

시음 이벤트가 열리며 오리 사육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인근에 자리한 레옹 쿠르빌 Léon Courville 와이너리의 아이스와인은 수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얻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 그들의 생산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몬트리올로 돌아온 이후에는 아래 레스토랑 리스트를 참고해 미식 기행을 이어갈 수 있다.

#### More Info.

- ① 몬트리올 레스토랑 리스트 [mtl.org/en/experience/top-montreal-restaurants-gourmet-traveller](http://mtl.org/en/experience/top-montreal-restaurants-gourmet-traveller)



샤토 생타스테스Château Ste-Agnès의 포도밭. ©GouvQc Drowster



비노블 드 로르피유. ©GouvQc Dominique Lafond



비노블 리비에르쉬 뎀Vignoble Rivière du Chêne의 포도. ©GouvQc Xavier Girard

## 하이킹/자연 속 산책, 7일 코스

### ④ 가을의 절경 속에서

세인트로렌스강부터 몽트랑블랑 산 그리고 그 사이를 수놓는 폭포, 호수 등 퀘벡에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매력적이고 감각을 일깨우는 대자연이 펼쳐져 있다. 특히 단풍이 오색찬란하게 물드는 가을은 이 놀라운 대자연을 두 발로 걸기에 가장 이상적인 계절이다.

DAY 1

#### DAY 1 구시가 탐방

몬트리올 Montréal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

이번 여정의 출발지는 몬트리올. 이곳의 구시가지는 1642년 도시가 생겨난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자갈이 깔린 길과 마차가 지나가는 풍경은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거리 곳곳에 자리한 로컬 부티크와 트렌디한 카페에 방문하거나 올드 포트 부둣가의 모던한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몬트리올 중심에 위치한 몽로열 Mont-Royal 공원은 여유롭게 산책하며 단풍을 즐기기에 좋고, 전망대에 올라 몬트리올 시내를 내려다보고, 성 요셉 성당에도 들러보길 추천한다.

#### DAY 2-3 매력적인 하이킹 루트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Parc national du Mont-Tremblant

몬트리올에서 몽트랑블랑 국립공원으로 떠나 본격적인 하이킹 여행을 시작한다. 국립공원 곳곳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걸을 수 있는 11개의 트레일이 마련돼 있다. 르 그랑-브뤼레 트레일 Le Grand-Brûlé trail은

DAY 2-3

5.6km의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다. 정상에서 곤돌라를 타고 하산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 등반하는 동안 몽트랑블랑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숨 막히는 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도멘 생베르나르 Domaine Saint-Bernard로 향하면 차분한 분위기에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안내판을 따라 오는티오 Onontio와 생베르나르 Saint-Bernard 산 구석구석을 탐험할 수 있다. 리비에르 뒤 디아블 Rivière du Diable를 감상하고 헤르만-데샤이 Herman-Deshaies에서 피크닉을 즐겨도 좋다.

#### More Info.

▲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sepaq.com/pq/mot](http://sepaq.com/pq/mot)

📍 도멘 생베르나르 [domainesaintbernard.org](http://domainesaintbernard.org)

#### Stay.

🏠 트랑블랑 Tremblant은 생태 하이킹 트레일을 갖춘 복합 휴양 리조트다. 이곳에서 하룻밤 머물며 장거리 여행의 여독을 풀어보자. [tremblant.ca](http://tremblant.ca)

DAY 4

#### DAY 4 원초적 자연의 힘

샬르브와 Charlevoix

샬르브와 지역으로 떠나 퀘벡의 또 다른 자연을 탐험한다. 오토고르 드 라 리비에르 말베 국립공원 Parc national des Hautes-Gorges-de-la-Rivière-Malbaie은 자연이 빛을 원초적인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높은 고원을 깎아 만든 빙하 계곡부터 잔잔한 물살이 흐르는 강, 암벽을 타고 세차게 흐르는 폭포 등 인상적인 경관을 무수히 마주치게 된다.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아크로폴 데 드라브뢰르 Acropole-des-Draveurs 트레일과 멋진 전망대가 놓인 리베랭 Riverain 트레일, 강을 따라 걷는 데 라피즈 Des Rapides 트레일 등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아크로폴 데 드라브뢰르 트레일은 6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10월 추수감사절 주말 사이에 개방한다. 단, 각 트레일의 상황에 따라 개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 More Info.

▲ 오토고르 드 라 리비에르 말베 국립공원

[sepaq.com/pq/hgo](http://sepaq.com/pq/hgo)

▲ 샬르브와의 국립공원 [tourisme-charlevoix.com/en/themes/nature-interpretation/national-parks](http://tourisme-charlevoix.com/en/themes/nature-interpretation/national-parks)

DAY 5

#### DAY 5 북단의 외딴대지

그랑자르맹 국립공원

Parc national des Grands-Jardins

그랑자르맹 국립공원은 독특하고 매력적인 생태계를 자랑한다. 흔히 '퀘벡의 북단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퀘벡 남부에서는 만나기 힘든 식생이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위도 52도 북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끼 군락이 펼쳐진다. 수많은 산과 화강암 지대로 이뤄진 국립공원에는 120개 이상의 수역과 북극 타이가를 포함한 세 가지 유형의 숲이 자리한다. 하이킹 코스를 걷다 보면 짧은 날개를 가진 캐나다뉘조 같은 희귀 야생동물도 만날 수 있다.

#### More Info.

▲ 그랑자르맹 국립공원 [sepaq.com/pq/grj](http://sepaq.com/pq/grj)

DAY 6-7

#### DAY 6-7 충천연색 가을을 찾아서

퀘벡 시티 Québec cité

퀘벡 시티 근교에도 빼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즐비하다. 먼저 자동차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자크 카르티에 국립공원 Parc national de la Jacques-Cartier으로 향하자. 100km가 넘는 트레일 중 퀘벡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 계곡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 트레일 코스를 추천한다.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이곳에선 청정 지역에만 산다는 비버를 만날 수도 있다. 몽생탕 Mont-Sainte-Anne 등반 또한 가을 하이킹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해발 625m인 산 정상까지는 쉬운 레벨의 트레일부터 전문가를 위한 트레일, 곤돌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를 수 있다. 특히 가을에 곤돌라에 탑승하면 빨갛고 노랗게 물든 충천연색 숲의 군락을 만끽할 수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세인트로렌스 강과 오를레앙 섬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이 펼쳐진다.

#### More Info.

▲ 자크 카르티에 국립공원 [sepaq.com/pq/grj](http://sepaq.com/pq/grj)

▲ 몽생탕 [mont-sainte-anne.com](http://mont-sainte-anne.com)



가을 단풍, 10일 코스

# ⑤ 가을 색채에 동화되다

붉은 단풍으로 물든 퀘벡 주의 몬트리올, 몽트랑블랑, 퀘벡 시티, 이스턴 타운십을 여행하며 가을 색조에 깊이 빠져든다. 이 지역의 단풍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절정을 이룬다.



레리크 트레일 Les Lacs Trail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풍광.  
©GouvQc Olivier Langevin

**DAY 1-2** 대도시의 단풍

**몬트리올 Montréal**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  
몽로열 Mount Royal은 몬트리올 사람들이 사랑하는 산으로, 산책로와 전망대 등에서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비버 호수 Beaver Lake는 아침에 가장 아름다운데, 잔잔한 수면이 주변 나무를 거울처럼 반사한다. 정상의 몽로열 살레 Mount Royal Chalet에서는 올드 몬트리올과 올드 포트 등 도시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라 폰텐 공원 Parc La Fontaine뿐 아니라 장 드라포 공원 Parc Jean-Drapeau, 메종뇌브 공원 Parc Maisonneuve, 앙그리농 공원 Parc Angrignon도 가을이면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이 근사한 풍경을 만든다. 자크 카르티에 다리 Jacques-Cartier Bridge는 세인트로렌스 강 St. Lawrence River을 가로질러 몬트리올 중심부와 사우스 쇼어 South Shore를 연결하며, 생텔렌 섬 Île Sainte-Hélène과 노트르담 섬 Île Notre-Dame 위를 지난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므로 다리를 건너며 기념사진을 꼭 촬영해야 한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그랑 루드 몬트리올 Grande Roue de Montréal 관람차를 타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일도 놓칠 수 없다.

**More Info.**  
📍 몽트랑블랑 여행 정보 mont-tremblant.ca  
🏠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sepaq.com/pq/mot  
🌐 트랑블랑 리조트 Tremblant.ca  
**Side Trip.**  
초코모티브 ChocoMotive는 현지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수제 초콜릿을 만든다. 유기농 및 공정무역 초콜릿도 선보이며,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다. chocomotive.ca  
**Stay.**  
🌐 모리시 Mauricie에 있는 에코 리조트  
다시 자연 속으로 떠날 차례다. 생폴린 Saint-Paulin의 르 발루송 에코 빌리지오르 Le Baluchon Éco-villégiature는 차별화된 에코 리조트의 정석과 같은 곳이다. 현지 환경과 문화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례 없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최상의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갖춘 스파부터 웅장한 북부의 자연을 따라가는 마차 투어, 숲과 강을 따라 35km의 트레일을 걷는 하이킹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baluchon.com

**DAY 3-4** 산의 단풍

**몽트랑블랑 Mont-Tremblant**

선주민은 몽트랑블랑을 ‘떨리는 산’이라는 의미의 ‘마니통가 수타나 Manitonga Soutana’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누군가 자연을 어지럽혔을 때 산을 흔드는 그레이트 마니투 Great Manitou의 영혼이 이곳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Parc national du Mont-Tremblant에는 다양한 난이도의 트레일이 있어 짧은 산책부터 긴 하이킹까지 모두 가능하다. 도중에 흰꼬리사슴과 붉은여우, 수달 등의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다. 트리톱 워크 로렌티즈 Treetop Walk Laurentides는 렌티드 숲에 위치한 생태관광지로 40m 높이의 메인 타워에 올라 주변 단풍 숲의 놀라운 색깔과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파노라마 곤돌라를 타고 로렌시안 산맥 Laurentian Mountains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탁 트인 가을 풍광을 감상해도 좋다. 해가 진 후에는 벨란 천문학 파빌리온 Velan Astronomy Pavilion으로 향한다. 퀘벡에서 두 번째로 큰 천체망원경을 갖추어 환상적인 은하수를 관측할 수 있다.



퀘벡 주의 단풍. ©GouvQc Olivier Langevin

**More Info.**  
📍 몽트랑블랑 여행 정보 mont-tremblant.ca  
🏠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sepaq.com/pq/mot  
🌐 트랑블랑 리조트 Tremblant.ca  
**Side Trip.**  
초코모티브 ChocoMotive는 현지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수제 초콜릿을 만든다. 유기농 및 공정무역 초콜릿도 선보이며,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다. chocomotive.ca  
**Stay.**  
🌐 모리시 Mauricie에 있는 에코 리조트  
다시 자연 속으로 떠날 차례다. 생폴린 Saint-Paulin의 르 발루송 에코 빌리지오르 Le Baluchon Éco-villégiature는 차별화된 에코 리조트의 정석과 같은 곳이다. 현지 환경과 문화 역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례 없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최상의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갖춘 스파부터 웅장한 북부의 자연을 따라가는 마차 투어, 숲과 강을 따라 35km의 트레일을 걷는 하이킹 등 다채로운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baluchon.com

**DAY 5-6** 역사적인 도시의 단풍

**퀘벡 시티 Québec cité**

퀘벡 시티는 주요 명소를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퀘벡은 어퍼 타운과 로어 타운으로 나뉘는데, 각각 하루씩 시간을 할애해 둘러보면 된다. 상세 일정은 퀘벡 주 추천여행코스 ‘O 퀘벡 시티를 걷다’(65P)를 참고하자.  
**More Info.**  
🌐 올드 퀘벡의 고풍스러움을 품은 스트롬 노르딕 스파 Strøm Nordic Spa는 완연한 가을 속에서 차분한 휴식을 선사한다. stromspa.com

**DAY 7-8** 낭만적인 단풍

**이스턴 타운십 Eastern Tow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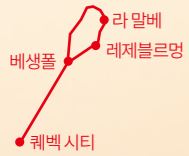
아울스 헤드 Owl's Head는 멤프레마고 호수 Lake Memphrémagog과 주변 산의 전망이 보이는 곳이다. 트레일을 따라 산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가을의 색조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하이킹 대신 산 정상까지 체어리프트를 타고 편하게 오를 수도 있다.

단풍에 둘러싸인 멤프레마고 호수에서 그랑 크뤼 Grand Cru 유람선을 타면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호수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노스 해틀리 North Hatley에 들러 카페나 레스토랑을 탐방해도 좋다. 마운트 서튼 Mount Sutton에서는 가을의 5주간 주말마다 페스티벌 도톤느 Festival d'Automne가 개최된다. 축제 기간에 퀘벡 주에서 생산된 와인과 사이더, 메이플 시럽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곳은 그저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도, 하이킹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추천한다.

**More Info.**  
📍 몽오포드 국립공원 Parc National du Mont-Orford에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있다. 특히 몽쇼브 Mont Chauve 트레일을 추천한다. 왕복 약 10km의 중급 코스로 초반부는 완만하지만 후반부는 가파르 오르막이 이어진다.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 퀘벡 지방 도로 243번을 따라 ‘서튼 Sutton → 놀튼 Knowlton → 오포드 Orford → 매그그 Magog’ 코스로 운전하면 이스턴 타운십의 산악 지형을 따라가며 멋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볼통 패스 Bolton Pass 풍경이 장관이다.  
📍 이스턴 타운십은 퀘벡 주에서 와인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다. 루트 데 뱅 Route des Vins은 애팔래치아 산맥 Appalachian Mountains 기슭을 따라 20개 이상의 와이너리를 연결하는 와인 여행 코스다. 약 140km 길이로 아름다운 포도밭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며 단풍도 감상할 수 있다.

**DAY 9-10** 다시 몬트리올 여행  
**몬트리올 Montréal**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온다. 몬트리올에 머물며 여행을 이어가거나 근교에서 가을 단풍을 좀 더 즐겨도 좋다.  
**More Info.**  
📍 몬트리올 가을 여행 3일 코스 mtl.org/en/experience/autumn-3-days  
📍 몬트리올 근교 가을 단풍 여행 mtl.org/en/experience/where-see-fall-colours-around-montreal



추천 드라이브 코스, 7일 코스

## ⑥ 바다 같은 강을 따라서

캐나다 동부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세인트로렌스 강.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대서양과 연결된다.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205km에 달하는 로드 트립을 떠나보자. 역사 애호가, 미식가, 스킨을 쫓는 모험가 모두 만족할 만한 여정이다.

레미에서 본 퀘벡 시티. ©GouvQc Jean-François Frenette

### DAY 1-2 역사와 자연을 만끽하다

**퀘벡 시티 Québec City**  
 퀘벡 시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세인트로렌스 강이 넓어져 바다와 같은 느낌이 든다. 시간을 400년 넘게 되돌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 퀘벡으로 들어가 특유의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만끽한다.  
**More Info.**  
 ☞ 퀘벡 시티 여행의 상세 일정은 '① 퀘벡 시티를 걷다'(65P)를 참고하자.

### DAY 3 절묘한 로컬 여행

**몽모랑시 폭포 공원 Parc de la Chute-Montmorency → 오를레앙 섬 Île d'Orléans**  
 몽모랑시 폭포는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케이블카, 집라인, 현수교에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절벽 및 바위에 고정된 난간, 밧줄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산악등반을 경험할 수 있는 비아페라타를 시도하면 절벽을 따라 좀 더 아찔한 경험을 누리게 된다. 다리를 건너 오를레앙 섬으로 향한다. 컨피제리 티기두 Confiturerie Tigidou에서 잼, 시럽, 베리 각테일 등 퀘벡의 현지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 잼 바에서 소박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며 현지의 맛을 오롯이 경험해본다. 카시스 모나 앤 필레 Cassis Monna & Filles에서 와인, 블랙커런트, 유제품 바를 맛보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경험이다. 완벽한 단맛을 지닌 깊은 색의 블랙커런트 술은 치즈, 다크 초콜릿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More Info.**  
 ☞ 몽모랑시 폭포 sepaq.com/destinations/parc-chute-montmorency  
 ☞ 컨피제리 티기두 tigidou.ca  
 ☞ 카시스 모나 앤 필레 cassismonna.com/fr

### DAY 4 마을에서의 휴식

**샬르브와 Charlevoix**  
 샬르브와의 베생폴 Baie-Saint-Paul로 가는 날이다. 가는 길에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변하는 세인트로렌스 강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마을에 도착하면 아름다운 아트 갤러리와 함께 경쾌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스파 노르딕 르 제르망 Spa Nordique Le Germain에서 온전한 휴식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본다. 온천욕, 사우나, 마사지 및 보디 트리트먼트가 여행자의 휴식을 돕는다. 팜투테이블을 실천하는 레스토랑의 메뉴도 즐거움을 더한다.  
**More Info.**  
 ☞ 스파 노르딕 르 제르망 germainhotels.com

### DAY 5 자전거 라이딩

**쿠드르 섬 Île aux Coudres**  
 레제블르맹에서 페리를 타고 쿠드르 섬으로 가서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본다. 23km로 이어진 길 위에서 신선한 공기, 자연, 역사를 두루 만끽할 수 있다. 벨로쿠드르 Vélo-Coudres에서는 4/6인용 자전거와 사륜 자전거 등을 대여해 준다. 오토바이 또한 대여 가능하다. 쿠드르 섬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 맛집이 무궁무진하다. 현지 장인과 생산자를 만나고 섬의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More Info.**  
 ☞ 벨로쿠드르 velocoudres.com  
 ☞ 쿠드르 섬 로컬 플레이스 tourismisleauxcoudres.com/en/to-do-and-see

### DAY 6 저택에서의 하룻밤

**레제블르맹 Les Éboulements → 라 말베 La Malbaie**  
 페리를 타고 레제블르맹으로 돌아와 라 말베를 향해 세인트로렌스 루트를 따라 이동한다. 78km에 달하는 이 루트에는 굵이마다 역사적인 저택, 풍차, 미술관, 교회, 유적지, 상점이 있다. 라 말베에 도착하면 세인트로렌스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자리한 웅장한 페어몬트 르 마누아 리슐리외 Fairmont Le Manoir Richelieu에서 특별한 하룻밤이 기다린다. 대서양이 가까워지며 엄청나게 넓어지는 강 하구를 바라보며 멋지게 골프를 즐길 수도 있다.  
**More Info.**  
 ☞ 세인트로렌스 루트 여행 bonjourquebec.com/en-ca/where-to-go/routes-and-itineraries/st-lawrence-route  
 ☞ 페어몬트 르 마누아 리슐리외 fairmont.fr/richeleu-charlevoix

### DAY 7 미식 트레일

**라 말베 La Malbaie → 프띠-리비에르-생프랑수아 Petite-Rivière-Saint-François**  
 라 말베에서 프띠-리비에르-생프랑수아로 이어지는 샬르브와의 플레이버 트레일에서 즐기는 미식 모험은 미각과 식욕을 만족시켜준다. 사이더, 수제 맥주, 치즈, 고급 초콜릿, 유기농 육류, 잘 키운 오리고기 등 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이 모두 이곳의 명성에 기여하고 있다.  
**More Info.**  
 ☞ 샬르브와의 미식 트레일 tourisme-charlevoix.com/fr/thematiques/agrotourisme

## 야생동물 만나기, 6일 코스

# ⑦ 야생동물과 교감하는 여정

퀘벡의 사파리를 탐험하고 바다에서는 다양한 고래를 만난다.

### DAY 1 퀘벡의 사파리

**몽벨로 Montebello**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  
 오메가 공원 Parc Oméga에서는 약 12km의 탐방 코스를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곰, 꽃사슴, 바이슨, 엘크 등의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꼭 해봐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늑대와 함께 잠들기 Sleep With The Wolves'다. 늑대 관찰 구역 내 통유리로 이루어진 살레에 머물면서 늑대 무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가까이 다가오는 늑대의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어드레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몬트리올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 거리.  
**Stay.**  
 ☞ 페어몬트 르 샤토 몽벨로 Fairmont Le Château Montebello는 통나무로 건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이다. 객실과 레스토랑 모두 고급스러운 분위기이며 스파를 포함해 골프와 승마, 테니스 등 40가지 이상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fairmont.com/montebello

### DAY 2-3 도시의 야생동물

**몬트리올 Montréal**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몽로열 공원 Parc du Mont-Royal에서는 다람쥐와 너구리를 꽤 자주 만난다. 다양한 새가 서식하고 있어 탐조를 하기도 좋다. 공원 내 올름스테드 트레일 Olmsted Trail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왕복 8km의 코스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으며, 특히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다.  
**More Info.**  
 ☞ 그랑 루드 몬트리올 Grande Roue de Montréal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관람차로 저녁에 탑승하면 자크 카르티에 다리의 조명 쇼를 볼 수 있는데 몬트리올의 멋진 야경에 깜짝 놀랄 것이다. lagranderouedemontreal.com  
 ☞ 몬트리올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은 퀘벡 주 추천여행코스의 '⑩ 몬트리올과 근교 미식 기행'(68P)을 참고하자.



해양 포유류 정보 센터. ©GouvQc Benoit Cecile

### DAY 4-5 평화로운 공원

**퀘벡 시티 Québec City**  
 국립 사적지인 아브라함 평원 Plains of Abraham은 퀘벡 시티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이다. 1759년 프랑스와 영국이 북미 패권을 두고 평원 전투를 벌인 곳이지만, 현재는 다양한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며 평화로운 분위기다. AML이 운영하는 유람선에 탑승하면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몽모랑시 폭포 Montmorency Falls와 오를레앙 섬 Île d'Orléans 앞까지 항해한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퀘벡을 중심으로 주요 명소를 걸어서 탐방할 수 있다.  
**More Info.**  
 ☞ 퀘벡 시티 여행의 상세 일정은 '① 퀘벡 시티를 걷다'(65P)를 참고하자.

### DAY 6 고래 조우

**타두삭 Tadoussac**  
 5월부터 10월까지 퀘벡 시티에서 출발하는 고래 관찰 일일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투어는 보통 오전 9시에 퀘벡 시티 국회의사당 앞에서 버스를 타고 샬르브와로 이동한 후, 조디악 보트(공기를 주입하는 고무보트)나 크루즈에 탑승해 사그네-생로랑 해양 공원 Saguenay-St. Lawrence Marine Park으로 향한다. 퀘벡 주 동부 해안에 있는 사그네-생로랑 해양 공원은 강의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으로 풍부한 플랑크톤 덕분에 고래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연중 볼 수 있는 흰고래(벨루가)는 가을철에는 더 많이 무리 지어 다닌다. 호기심이 강한 밍크고래는 종종 보트 가까이 접근한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흑등고래가 점프를 하거나 꼬리를 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카약을 타고 좀 더 가까이서 고래와 교감을 나눌 수 있다. 배를 타지 않고 해안에서 육안으로 고래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타두삭의 라 푸앵트 드 릴레 La pointe de l'Islet가 대표적인 명소이며 조용한 날에는 고래가 숨 쉬는 소리도 들린다고 한다. 고래를 만난 이후에는 해양 포유류 정보 센터 Marine Mammals Interpretation Centre에서 음향 체험 등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더욱 깊이 탐험해본다.  
**More Info.**  
 ☞ 퀘벡 시티에서 출발하는 고래 관찰 당일 투어 croisieresaml.com  
 ☞ 타두삭에서 출발해 세인트로렌스 강의 북쪽을 따라 이어지는 고래 여행 루트 bonjourquebec.com/en-ca/where-to-go/routes-and-itineraries/whale-route



사그네-생로랑 해양공원에서 만난 흑등고래. ©GouvQc Catherine Dubé

## 웰니스 체험, 6일 코스

### ⑧ 안온한 휴식

수많은 호수와 강이 자리한 퀘벡 주는 물을 기반으로 한 스파가 발달했다. 퀘벡의 특산품인 메이플 시럽을 활용한 마사지까지 즐길 수 있다고. 심신을 치유하는 편안한 여정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DAY 1 플로팅 스파 몬트리올 올드 포트 Montréal Old Port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  
몬트리올의 올드 포트에서는 독특한 웰니스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옛 페리를 개조한 보타보타Bota Bota 스파는 세인트로렌스강둑에 자리한다. 다양한 온도의 풀에서 북유럽식 스파를 경험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테라스에 앉아 시내의 인상적인 전망을 감상해도 좋다.

##### More Info.

📍보타보타 botabota.ca  
📍몬트리올 스파 리스트 [bonjourquebec.com/en/to-see-and-do/activities-and-excursions/spas-and-relaxation](http://bonjourquebec.com/en/to-see-and-do/activities-and-excursions/spas-and-relaxation)

##### Side Trip.

플라주 장-도레Plage Jean-Doré는 몬트리올 도심과 가까운 모래 해변이다. 아쿠아질라Aquazilla에서 보트를 빌리거나 워터 슬라이드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parcjeandrapeau.com](http://parcjeandrapeau.com)

#### DAY 2 마켓 탐방 몬트리올의 리틀 이태리 Montréal Little Italy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여행에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한 법. 몬트리올 현지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재료와 미식을 찾는 여정을 포함시킨 이이다. 그런 점에서 리틀 이태리에 자리한 장탈롱마켓Jean-Talon Market은 퀘벡의 유기농 식재료를 탐색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시장 내 마르세데 사브리르Marché des Saveurs도 놓치지 말고 둘러본다.

##### More Info.

📍장탈롱마켓 [marchespublics-mtl.com/marches/jean-talon](http://marchespublics-mtl.com/marches/jean-talon)  
📍리틀 이태리에서 쿠킹 클래스에도 참여해보자. 메차-루나Mezza-Luna는 피자과 파스타 등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 클래스를 운영한다. [ecolemezzaluna.ca/en/course](http://ecolemezzaluna.ca/en/course)

📍올드 몬트리올로 돌아온 뒤에는 에클루시에 시장Le Marché des Éclusiers에서 쇼핑을 하고 노천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겨본다. [marchedeseclusiers.com](http://marchedeseclusiers.com)

##### Side Tr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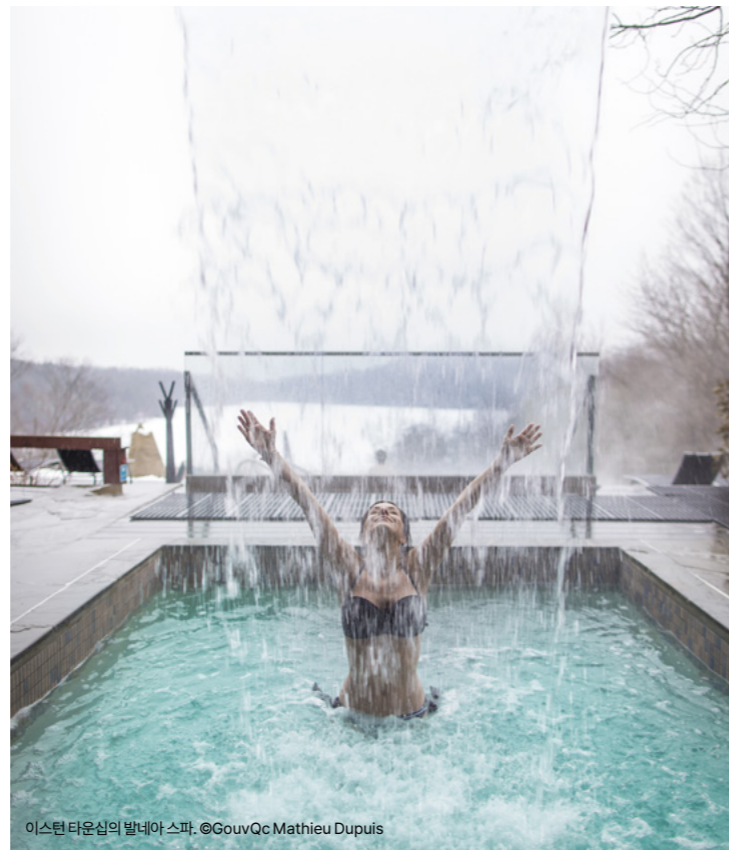
📍가티노 공원Gatineau Park 노르딕 스파네이처Nordik Spa-Nature는 10개의 노천탕과 9개의 사우나를 갖춘 북미 최대 규모의 스파다. 해수 플로팅 풀에서 진행되는 칼라Källa 트리트먼트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러시아 전통 방식의 반야Banya 트리트먼트로 피로를 풀 수 있다. 이후 가티노 공원 중심부로 이동해 웨이크필드 밀 호텔 앤 스파Wakefield Mill Hotel & Spa에 머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이곳은 1838년에 지어진 제분 공장 건물에 들어선 복합 리조트로 스파와 레스토랑 모두 웰니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 DAY 3 대자연 속 웰니스 이스턴 타운십Eastern Townships

이스턴 타운십은 퀘벡의 주요 와인 산지다. 애플래치아 산맥 기슭의 와인 루트는 아름다운 포도밭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다. 주변 공원과 산에는 다양한 하이킹 코스와 스키 트레일이 놓여 있으며, 국제 밤하늘 보호구역으로 향하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자연보호구역에 자리한 발네아 스파Balnea Spa는 세계 곳곳에서 영감을 받은 휴식 공간과 해변, 맛있는 요리, 자연, 요가 프로그램 등을 갖춰 웰니스 경험을 한층 끌어올린다.



이스턴 타운십의 숲속 캐빈. ©GouvQc Olivier Langevin



이스턴 타운십의 발네아 스파. ©GouvQc Mathieu Dupuis



샬르브와의 가을 풍경. ©GouvQc Yves Marcoux

##### More Info.

📍발네아 스파 balnea.ca

##### Stay.

📍산기슭에 자리한 호텔 샤토-브로몽Hôtel Château-Bromont은 친근한 분위기, 골프 코스, 스파, 미식 레스토랑을 갖춰 최적의 웰니스 숙소로 손색없다. [chateaubromont.com](http://chateaubromont.com)

##### Side Trip.

📍이스턴 타운십 웰니스 여행 2일 일정 [bonjourquebec.com/en/where-to-go/routes-and-itineraries/relaxation-and-delights-in-the-eastern-townships](http://bonjourquebec.com/en/where-to-go/routes-and-itineraries/relaxation-and-delights-in-the-eastern-townships)

#### DAY 4 옛 수녀원에서 보내는 평온한 시간 올드 퀘벡Old Québec

올드 퀘벡에는 문화와 웰니스가 만나는 공간이 숨어 있다. 모나스테르 데 오귀스틴Monastère des Augustines은 옛 수녀원을 웰니스 리조트로 개조한 곳이다. 과거 수녀들의 역사를 보존하는 이곳에선 휴양과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명상 산책, 요가, 워크숍,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북유럽식 스파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올드 퀘벡 부근에 자리한 스트롬 스파 노르딕 Strom Spa Nordique는 온천욕, 마사지 테라피, 뷰티 트리트먼트,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 More Info.

📍모나스테르 데 오귀스틴 [monastere.ca](http://monastere.ca)  
📍스트롬 스파 노르딕 [stromspa.com/vieux-quebec/en](http://stromspa.com/vieux-quebec/en)  
📍퀘벡 시티의 로컬 레스토랑 리스트 [quebec-cite.com/en/plan-your-trip-quebec-city/guide-eat-drink-local](http://quebec-cite.com/en/plan-your-trip-quebec-city/guide-eat-drink-local)

#### DAY 5 풍요로운 마을 샬르브와Charlevoix

세인트로렌스강을 건너 언덕과 계곡 사이에 자리한 샬르브와는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맛있는 현지 특산품과 예술적 영감이 흐르는 마을이 곳곳에 자리한다. 베생폴Baie-Saint-Paul은 오랫동안 예술가와 장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마을이다. 생장 밥티스트 거리Rue Saint Jean Baptiste의 다채로운 상점과 아트 갤러리를 느긋하게 돌아보며 샬르브와의 매력이 빠져든다. 스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다. 스파 노르딕 르 제르망Spa Nordique Le Germain에서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온천욕과 사우나, 마사지, 보디 트리트먼트를 즐기며 웰니스 여행을 이어간다.

##### More Info.

📍샬르브와 추천 스파 리스트 [tourisme-charlevoix.com/en/blog/5-relaxing-spas-charlevoix](http://tourisme-charlevoix.com/en/blog/5-relaxing-spas-charlevoix)  
📍프티 리비에르 생 프랑수아Petite-Rivière-Saint-François에서 베생카트린Baie Sainte-Catherine까지 이어지는 푸드 트레일을 따라 미식 여행을 떠나본다. [tourisme-charlevoix.com/en/themes/agritourism](http://tourisme-charlevoix.com/en/themes/agritourism)

#### DAY 6 목가적인 섬 여행 쿠드르 섬Isle-aux-Coudres

쿠드르 섬은 평화로운 목가적인 섬으로, 속도를 늦추고 그 순간을 음미하기 좋은 여행지다. 무료 페리를 타고 신선한 바다 공기를 마시며 섬으로 향한다. 자전거는 이곳을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 23km에 이르는 트레일을 따라 페달을 밟다 보면 다채로운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쿠드르 제분소Isle-aux-Coudres Mills는 19세기의 물레방아와 풍차가 눈길을 끄는데 현재는 안내 센터로 사용되며 샬르브와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 More Info.

📍쿠드르 섬 추천 여행 코스 [tourisme-charlevoix.com/en/charlevoix/isle-aux-coudres](http://tourisme-charlevoix.com/en/charlevoix/isle-aux-coudres)  
📍쿠드르 주민의 환대는 페드노 사이더 과수원Cidrerie et Vergers Pedneault에서도 느낄 수 있다.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배, 체리, 자두를 꿀과 잼, 사이더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charlevoixenligne.com](http://charlevoixenligne.com)





## 오로라 감상, 5일 코스

# ② 오로라의 성지, 옐로나이프

캐나다 오로라 여행의 정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채로운 방식으로 오로라를 마주할 수 있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를 떠나면 된다. 오로라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가을부터 겨울까지다.

### DAY 1

#### 옐로나이프에 도착 후 식사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옐로나이프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옐로나이프

옐로나이프에 도착한 후 샤토 노바 옐로나이프에 체크인하고 코퍼하우스 이터리 앤 라운지

Copperhouse Eatery and Lounge에서 저녁 식사를 즐긴다. 도심 속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레스토랑 내부는 목재와 따뜻한 조명, 아늑하고 넉넉한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 More Info.

☞ 샤토 노바 옐로나이프 novahotels.ca/chateau-nova-yellowknife/

☞ 코퍼하우스 이터리 앤 라운지 copperhouse.ca

### DAY 2

#### 노스 스타 어드벤처스의 오로라 헌팅

둘째 날 아침에는 노스 스타 어드벤처스의 가이드 조 베일리 Joe Bailey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옐로나이프의 야생 지대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긴 다음 카메론 리버 폭포 Cameron River Falls까지 느긋하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가이드 투어는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을 회복하고,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에도 좋다. 가이드는 지역 문화를 비롯해 식생과 동물, 선주민이 이곳의 대지와 맺은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오후에는 옐로나이프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올드타운에 들러본다. 노스웨스트 준주 주의사당 Legislative Assembly of the Northwest Territories부터 오래된 멧을 간직한 잡화점인 웨버 앤 데보어 Weaver & Devore, 공정무역 모피 상점인, 저스트 퍼 Just Fur 등 곳곳에서 도시의 역사가 묻어난다. 20세기 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옐로나이프에 다시 찾아온 전성기는 뉴타운에서 발견할 수 있다. NWT 다이아몬드 센터 NWT Diamond Centre를 비롯하여 비주 부티크 Bijou Boutique, YK 센터 YK Centre와 프린스 오브 웨일즈 노던 헤리티지 센터 Prince of Wales Northern Heritage Centre에서 반전된 분위기를 만끽한다. 액티비티를 선호하는 여행자라면 노스웨스트 준주의 땅과 연결된 강에서 낚시, 카누, 카약 등을 즐겨도 좋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노스 스타 어드벤처스의 조를 다시 만난다. 그가 차로 이동하며 오로라 관측 포인트로 안내해줄 것이다. 오로라 헌팅 투어 루트는 매일 오로라 활동과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조는 오로라 헌팅 투어를 “대자연과 야생동물 그리고 오직 오로라뿐”이라 요약한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가 매일 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며, 최고의 프라이빗 오로라 관측 투어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More Info.

☞ 노스 스타 어드벤처스 northstaradventures.ca

☞ 트레이더스 그릴 explorerhotel.ca/traders-grill

### DAY 3

#### 버킷리스트 투어스의 오로라 캐빈

늦은 밤까지 오로라 헌팅 투어를 다녀온 다음 날에는 느긋하게 옐로나이프를 돌아본다. 그중 프린스 오브 웨일즈 노던 헤리티지 센터 Prince of Wales Northern Heritage Centre는 필수 코스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예술과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이 박물관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탐험하도록 안내한다. 이어 버치우드 커피 Birchwood Coffee에 들러 커피와 함께 샌드위치나 홈메이드 시나몬 번, 머핀을 맛본다. 옐로나이프 시내에서는 다운 투어스 갤러리 Down to Earth Gallery, 갤러리 오버더 미드나이트 선 Gallery of the Midnight Sun, NWT 다이아몬드 센터 NWT Diamond Centre, 오로라 엠포리엄 Aurora Emporium 등 여러 예술 공간을 돌아봐도 좋다.

저녁 식사는 NWT 브루잉 컴퍼니 NWT Brewing Company가 운영하는 우드야드 Woodyard를 추천한다. 셋째 날의 오로라 관측은 버킷리스트 투어 Bucket List Tour의 트레이시 Tracy와 함께한다. 그녀가 직접 모은 빈티지 소품으로 가득 찬 포근한 오두막에서 아늑하게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트레이시가 이곳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먹는 배넉과 피시 차우더 수프 등을 손수 만들어 준다.

#### More Info.

☞ 프린스 오브 웨일즈 노던 헤리티지 센터 pwnhc.ca

☞ 버치우드 커피 facebook.com/BirchwoodYK

☞ NWT 브루잉 컴퍼니 nwtbrewingco.com

☞ 버킷리스트 투어 bucketlisttour.com

### DAY 4

#### 선주민이 운영하는 오로라 빌리지

호텔에서 충분히 숙면을 취한 뒤 올드타운으로 출발한다. 선독 트레이딩 포스트에서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풍경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올드타운 여행을 시작해도 좋다. 올드타운 글라스웍스 Old Town Glassworks의 매튜 Matthew가 진행하는 특별한 워크숍에도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 북부의 야생동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버려진 유리를 정교한 작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특별한 기념품을 완성한다.

옐로나이프의 마지막 밤은 오로라 빌리지에서 오로라를 감상하는 것. 옐로나이프 인근 잉그렘 트레일 Ingraham Trail에 위치한 이곳은 지구상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선주민 전통 방식으로 치은 티피 안에서 따뜻하게 대기하다가 경이로운 오로라를 만끽하고 옐로나이프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 More Info.

☞ 선독 트레이딩 포스트 sundogtradingpost.ca

☞ 올드타운 글라스웍스 oldtownglassworks.com

☞ 오로라 빌리지 auroravillage.com

### DAY 5

#### 추억을 간직한 채

세 번에 걸친 옐로나이프 오로라 투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일생일대의 오로라를 조우한 기억과 함께 옐로나이프와 아쉬운 작별을 나눈다.

#### 🐾이색 숙소

옐로나이프에서 수상비행기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옐로 독 롯지 Yellow Dog Lodge는 던컨 호수 Duncan Lake와 그레이엄 호수 Graham Lake 사이에 자리한다. 추가로 다섯 개의 호수를 선택해 가이드와 함께 당일 투어를 즐길 수 있으며 최고의 낚시 경험을 선사한다. yellowdoglodge.ca

#### 📌 오로라 관측 TIP

- ✓ 오로라 예보 앱인 'My Aurora Forecast' 또는 'Aurora Forecast'를 미리 설치해둔다.
- ✓ 오로라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투어는 대개 오후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난다.
- ✓ 가을 오로라는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진다. 0-15°C 전후의 기온으로 가벼운 경량 패딩 정도를 준비하면 좋다.
- ✓ 오로라를 촬영하고자 한다면 삼각대와 여분의 배터리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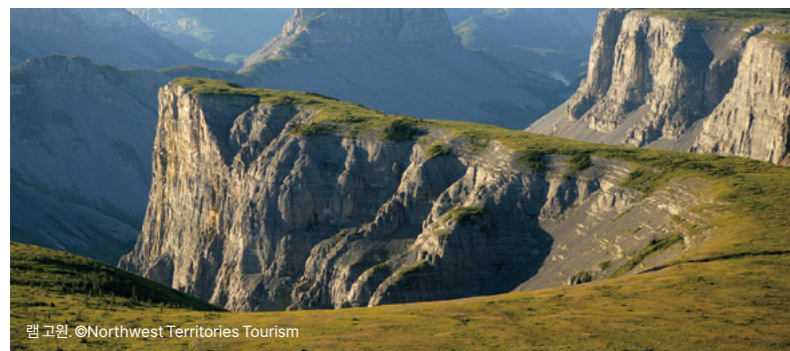


나하니 국립공원 ©DarrenRobertsPhotography

## 하이킹/자연 속 산책, 8일 이상 코스

# ③ 나하니 국립공원 탐험하기

노스웨스트 준주의 나하니 국립공원 보호구역  
**Nahanni National Park Reserve**은 트레킹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최적의 파라다이스다. 나하니의  
대자연이 응축된 주요 트레일 코스를 소개한다.



램 고원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DAY 1**

**엘로나이프 도착**  
밴쿠버 또는 캘거리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엘로나이프에 도착할 수 있다. 엘로나이프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요 시간은 약  
10분이며, 거리가 짧아 요금 부담도 크지 않은 편.

**More Info.**  
☎ 익스플로러 호텔 explorerhotel.ca  
☎ 사토 노바 엘로나이프  
novahotels.ca/chateau-nova-yellowknife/  
☎ 자바로마 고메 커피 앤 티 javaroma.ca  
☎ 배런 그라운드 커피 barrngroundcoffee.com

**DAY 2-3**

**엘로나이프 탐색**  
시차 적응 등을 위해 엘로나이프에서 2박 정도 머무를  
것을 권한다. 엘로나이프 시내에서 야외 벽화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둘러본다. 나하니 국립공원으로  
떠나기 전에 엘로나이프와 인근에서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Hiking.**  
☞ 프레임 호수 트레일 Frame Lake Trail은  
엘로나이프 중심부의 호수를 따라 7km 이어진 루프  
코스다.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인 이곳의  
동쪽 방면에는 주의회 의사당, 프린스 오브 웨일즈  
노던 헤리티지 센터 등의 건축물이 모여 있다. 산책로  
서쪽은 일부 암석 지대이고, 검은 가문비나무 늪지대를  
가로지르며 여우 등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 엘로나이프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카메론  
폭포 트레일 Cameron Falls Trail은 상록수 숲과  
기복이 심한 암벽 지대를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길이다. 출발 후 20분쯤 지나면 카메론 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한다. 트레일은 상류로 이어지며,  
폭포 아래서 낚시와 수영 등도 즐길 수 있다.



나하니 국립공원에서 카누 타기. ©WILLY WATERTON

**DAY 4-6**

**나하니 국립공원 탐험**  
나하니 국립공원은 캐나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연  
보호구역 중 하나다. 거대한 폭포, 깊은 협곡, 청정  
강물이 조화를 이루는 모험 여행자들의 천국.  
경비행기나 수상비행기로만 접근 가능하다.

**포트 심슨 Fort Simpson**  
리어드 강 Liard River과 맥켄지 강 Mackenzie  
River이 합류하는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포트 심슨은  
나하니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관문이자 선주민 문화를  
간직한 마을이다. 오랜 세월 선주민들이 모인 이곳에  
1803년 유럽 상인들이 포크 요새 Fort of the Fork를  
세웠고 이후 교역소가 건립되면서 1969년 캐나다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나하니 국립공원을 찾는 여행자들은 엘로나이프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운전해 포트  
심슨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투어가  
시작되는데, 경비행기를 타거나 강을 따라 래프팅 혹은  
카누를 즐기며 나하니 국립공원 깊숙이 떠날 수 있다.

**More Info.**  
✕ 엘로나이프-포트 심슨 항공편  
canadiannorth.com  
✕ 구스 플라잉 서비스의 나하니 국립공원 경비행기  
데이 투어는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운영한다.  
나하니 산맥에 자리한 리틀 닥터 호수 Little Doctor  
Lake를 거쳐 램 고원, 램 캐논 Ram Canyon 상공에서  
빙하 호수를 감상할 수 있다. 사우스 나하니 강 South  
Nahanni River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 버지니아 폭포  
Virginia Falls에 도착한 후 2시간 정도 가이드 하이킹  
투어를 떠난다. flygoose.ca  
**Tour. 추천 여행 상품**  
✕ 심슨 에어는 리틀 닥터 레이크에 속소를 보유하고  
있어 데칼코마니처럼 호수에 비치는 뷰를 감상하며  
대자연과 야생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투어를  
제공한다. simpsonair.ca

**포티지 트레일 Portage Trail**  
2km 길이의 포티지 트레일은 초심자도 쉽게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트레일은 나하니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하이라이트인 버지니아 폭포 상류에서  
시작된다. 트레일에서는 나하니 강이 격렬한 급류로  
치달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강을 두  
동강 내는 거대한 메이슨스 록 Mason's Rock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 30층 높이에서 엄청난 속도와  
낙차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버지니아  
폭포 전망대를 지나 폭포 아래 자갈밭에서 트레일은  
끝난다. 이곳에서 소풍을 즐기거나 카누를 타고 하류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선블러드 피크 Sunblood Peak**  
나하니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카누나 카약뿐 아니라  
고산 및 오지 트레일로도 유명하다. 버지니아 폭포 위에  
솟은 1,450m 높이의 선블러드 피크 정상까지 오르는  
트레일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탐방 구간으로  
꼽힌다. 버지니아 폭포 캠프그라운드에서 강을 건너  
바로 시작해 북동쪽으로 이어지며 울창한 가문비나무  
숲을 지나 정상까지 왕복 16km의 코스다.

**페어리 메도우 Fairy Meadows**  
산봉우리가 마치 대성당의 첨탑처럼 솟은 풍경  
한가운데 자리한 평원, 페어리 메도우. 이 녹색  
오아시스는 아찔한 등반 모험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암벽등반을 하지 않더라도 트레일을 따라 야생화  
사이를 거닐고 마멋 같은 야생동물을 관찰하며  
압도적인 봉우리들의 그늘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다.

**램 고원 Ram Plateau**  
나하니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장대한 램 고원은  
노스웨스트 준주가 자연이 지배하는 대지임을  
일깨워준다. 맥켄지 산맥으로 둘러싸인 백운석  
협곡으로 이뤄진 고원에는 돌산양과 멧고양 등  
다채로운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DAY 7-8**

**다시 엘로나이프**  
포트 심슨에서 다시 엘로나이프로 돌아간다. 나하니  
국립공원에서 체류하는 일정에 따라 여행 기간을  
조정해도 좋다.

**More Info.**  
☞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꼭 가봐야 할 최고의 트레일  
11선 [spectacularnwt.com/story/11-top-of-the-world-trails-in-the-northwest-territories](http://spectacularnwt.com/story/11-top-of-the-world-trails-in-the-northwest-territories)



경비행기 투어 ©Destination Canada



나하니 국립공원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덤스터 하이웨이를 달리다 마주한 풍경. ©Gerold Sigl

## 추천 드라이브 코스, 6일 코스

# ④ 북극권으로 향하는 로드 트립

북극권을 횡단하는 덤스터 하이웨이 Dempster Highway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다. 고산 툰드라 풍경과 야생동물 그리고 모험 가득한 자동차 여행으로 기억될 것이다.



**도슨 시티**

이글 플레인스

이누빅

**DAY 4 북극권으로**  
이글 플레인스 Eagle Plains → 이누빅 Inuvik  
☞ 365km  
고속도로는 달표면에 가까운 황량한 산악 지대를 지나 북극권을 가로질러 노스웨스트 준주까지 북쪽으로 계속 이어진다. 도중에 무료 페리를 이용해 리처드슨 산맥 Richardson Mountains에서 내려오는 필 강 Peel River과 매켄지 강 Mackenzie River을 건너고, 삼각주에 형성된 포트 맥퍼슨 Fort McPherson과 치게치크 Tsiigehtchic을 지나 이누빅에 도착한다.

**DAY 1-2 도슨 시티 구경하기**  
화이트호스 Whitehorse → 도슨 시티 Dawson City  
☞ 533km  
로드 트립을 위해서는 유콘 준주 화이트호스에서 차를 렌트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 국립 사적지로 지정된 도슨 시티는 거리를 따라 늘어선 빈티지한 건축물이 골드러시의 노스텔지어를 짙게 자극한다. 선주민 문화를 경험하거나 야생 지대로 향하는 모험을 위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도슨 시티로 모여든다. 덤스터 하이웨이 로드 트립의 관문인 이곳에서 영화로운 과거를 돌아본 다음 본격적인 모험에 나선다.  
**Side Trip.**  
골드필드 투어  
클론다이크 익스피리언스 Klondike Experience는 준설 4번 국립 사적지 Dredge No. 4 Historical Site의 금광 등을 탐험하는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사금 채취도 직접 해볼 수 있다. klondikeexperience.com/summer-tour/city-and-goldfields  
**도보 투어**  
도슨 시티의 수많은 역사 유적은 캐나다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관리하며 여러 도보 투어 또한 제공한다. 가이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를 돌아본다. dawsoncity.ca/listing/parks-canada-walking-tours

**DAY 3 야생 지대를 따라서**  
도슨 시티 Dawson City → 이글 플레인스 Eagle Plains  
☞ 409km  
도슨 시티에서 비포장 2차선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덤스터 코너 방면으로 본격적인 로드 트립을 시작한다. 덤스터 코너에서 노스 클론다이크 하이웨이 North Klondike Highway를 벗어나 톰스톤 준주 공원 Tombstone Territorial Park과 블랙스톤 업랜드즈 Blackstone Uplands를 지나 이글 플레인스까지 드라이브를 이어가자. 톰스톤 준주 공원은 험준한 산봉우리, 영구 동토층 지형, 다양한 야생동물로 이루어진 독특한 야생 지대다. 톰스톤 준주립공원은 아름다운 야생 트레일로도 유명하며, 가을에는 툰드라 지대의 식물들이 붉게 물들어 놀라운 풍경을 선사한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기에 좋은 곳으로는 노스 포크 패스 North Fork Pass와 투 무스레이크 Two Moose Lake가 있다. 수 세기 동안 이곳에서 사냥과 교역을 해오며 삶을 일군 선주민에 관한 안내 표지판도 자리한다. 또한 이 일대에는 유콘 준주의 조각 전통을 이어가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로 유명한 틀링킷 Tlingit 선주민이 살고 있다.  
**More Info.**  
툰스톤 해석 센터 Tombstone Interpretive Centre에서 지역의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yukon.ca/en/places/tombstone-interpretive-centre

**DAY 5-6 도슨 시티로 되돌아가기**  
이누빅 Inuvik → 도슨 시티 Dawson City  
☞ 774km  
이누빅에서 다시 도슨 시티로 돌아올 때는 이들의 일정이 필요하다. 이글 플레인스에 하루 머무를 것을 권한다.



붉게 물든 툰드라. ©Steve Freake

**Key Notes.**  
✓ 이누빅에서는 렌터카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화이트호스에 차를 반납하는 일정까지 고려해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주유소나 휴게소가 정해진 곳에만 있으므로 기름과 식량, 응급처치 키트 등 야생에 필요한 물품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통신도 자유롭지 않으므로 현지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루이스 폭포. ©George Fischer

## 추천 드라이브 코스, 5일 코스

# ⑤ 폭포를 쫓는 여정

노스웨스트 준주는 수많은 강과 호수를 따라 다채로운 폭포를 품고 있다. 폭포의 힘찬 물줄기는 북방의 장엄한 자연에 경이로움을 더한다. 드넓은 소금 평원과 국립공원의 목가적인 전원 풍경을 즐기며 폭포로 향하는 색다른 로드 트립을 떠나본다.



삼바 데 폭포 준주 공원

포트 프로비던스

엘로나이프

포트 스미스



도로에서 만난 들소. ©Hans Pfaff

**DAY 1 흐르는 강물 따라**  
엘로나이프 Yellowknife → 포트 프로비던스 Fort Providence  
☞ 315km ☞ Highway 3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엘로나이프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엘로나이프  
포트 프로비던스는 사우스 슬레이브 South Slave 지역의 목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휴양지다. 엘로나이프에서 매켄지 강 유역에 위치한 이 평화로운 마을까지 이어진 길 도중에는 들소 무리와 풍부한 선주민 문화유산 탐험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인구가 770명에 불과한 포트 프로비던스는 매켄지 강의 발원지인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와 인접한 강변에 자리한다. 1.6km 너비의 강물이 시야를 압도하고, 송어와 강꼬치고기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수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강 하류에서 패들링을 즐기는 것도 좋다.  
**More Info.**  
포트 프로비던스 여행 spectacularnw.com/story/what-to-do-in-fort-providence

**DAY 2 폭포 트레킹**  
포트 프로비던스 Fort Providence → 삼바 데 폭포 준주 공원 Samba Deh Falls Territorial Park  
☞ 176km(편도) ☞ Highway 1  
삼바 데 폭포 준주 공원으로 로드 트립을 이어간다. 장 마리 강 Jean Marie River의 아담한 전망대나 마을에 들러 휴식을 취해본다. 삼바 데 펄스 준주 공원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폭포 탐험에 나선다. 독특한 지형의 코랄 폭포 Coral Falls와 삼바 데 폭포 Samba Deh Falls는 필수 방문 코스. 폭포로 향하는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즐긴 다음 다시 포트 프로비던스로 돌아온다

**DAY 3 거대한 바이슨이 나타난다**  
포트 프로비던스 Fort Providence → 포트 스미스 Fort Smith  
☞ 438km ☞ Highway 1~5  
노스웨스트 준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포트 스미스로 향할 차례다. 알버타 주 경계와 맞닿은 이 구간에서는 거대한 들소, 풍부한 유산, 광활한 국립공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밤하늘 보호구역 등을 만날 수 있다. 5번 고속도로와 면한 우드 버펄로 국립공원 Wood Buffalo National Park에서는 자유롭게 노니는 5,000여 마리의 들소 무리와 마주쳐도 놀라지 말자. 이곳에는 소금 평원과 한대림, 카르스트 황무지, 세계 최대 담수 삼각주 등 다양한 지형이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포트 스미스에는 선주민과 유럽 이민자의 유산을 전시하는 노던 라이프 박물관 Northern Life Museum과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펠리컨 래피즈 골프 코스 Pelican Rapids Golf Course 같은 명소도 자리한다.  
**Side Trip.**  
우드 버펄로 국립공원을 즐기는 2박 일정 spectacularnw.com/story/itinerary-three-days-in-wood-buffalo-national-park

**DAY 4-5 광활한 대자연 조우**  
포트 스미스 Fort Smith  
☞ 739km ☞ Highway 3, 5  
포트 스미스 일대의 대자연은 구석구석 탐험해본다. 테바차 Thebacha와 우드 버펄로 밤하늘 보호구역 Wood Buffalo Dark Sky Preserve에서 조류를 관측할 수 있다. 엘로나이프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인근의 루이스 폭포 Louise Falls, 알렉산드라 폭포 Alexandra Falls, 레이디 에블린 폭포 Lady Evelyn Falls를 따라 하이킹에 나서도 좋다. 엘로나이프로 돌아오는 여정은 긴 이동 거리를 감안해 도중에 하룻밤 머무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유콘 준주 Yukon

## 기본 정보

대한민국 면적의 약 5배  
주도는 화이트호스

## 항공편

인천-밴쿠버 약 9시간 30분 소요  
인천-캘거리 약 10시간 30분 소요  
밴쿠버-화이트호스 약 2시간 30분 소요  
캘거리-화이트호스 약 2시간 50분 소요

## 여행 정보

유콘 준주 [travelyukon.com](http://travelyukon.com)

## 시차

한국보다 16시간 느리다.



## 추천 드라이브 코스, 5일 이상 코스

### ① 알래스카로 향하는 로드 트립

파나마 운하 이후 '가장 어려운 공사'라고 불렸던 알래스카 고속도로 Alaska Highway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도슨 크릭 Dawson Creek에서 시작해 유콘 준주를 거쳐 미국 알래스카의 델타 정션 Delta Junction까지 이어진다. 총 2,232km 길이로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꼽힌다. 알래스카 고속도로를 달리며 대자연과 유콘의 역사를 느껴본다.

**DAY 1-2 화이트호스 탐방**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화이트호스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화이트호스

화이트호스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현대적인 도시다. 대도시처럼 모든 편의 시설을 누리는 동시에 소도시 특유의 따뜻한 매력도 느낄 수 있다. 이를 정도 머물며 여러 명소를 방문하고 천천히 유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낸다.

**맥브라이드 유콘 역사 박물관**  
**MacBride Museum of Yukon History**  
유콘 준주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다. 유콘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든 역사적인 사건, '클론다이크 골드러시'의 중심지였던 화이트호스의 과거와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macbridemuseum.com](http://macbridemuseum.com)

**유콘 베링기아 정보 센터**  
**Yukon Beringia Interpretive Centre**  
빙하기의 자연사를 탐구하는 박물관이다. 매머드, 자이언트 비버 등 당시 유콘에 서식했던 동물들의 화석과 실물 크기의 복원 모형을 만날 수 있다.  
[beringia.com](http://beringia.com)

**유콘 교통 박물관**  
**Yukon Transportation Museum**  
힘준한 유콘 준주의 교통 역사를 정리한 곳이다. 선주민의 이동 수단부터 항공기에 대한 역사도 알 수 있다. 알래스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내용도 전시되어 알래스카 고속도로 로드 트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goytm.ca](http://goytm.ca)

**DAY 3 산과 호수의 향연**  
화이트호스 Whitehorse → 테슬린 Teslin  
₩177km(편도)

화이트호스 남쪽의 테슬린 호수와 니수틀린 만 Nisutlin Bay의 합류 지점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만남의 장소였던 테슬린으로 향한다. 테슬린 클링킷 문화유산 센터 Teslin Tlingit Heritage Cultural Centre와 조지 존스턴 박물관 George Johnston Museum에서는 클링킷 선주민의 삶을 알아갈 수 있다. 유콘 준주에 처음 도착한 자동차는 당시 도로가 없었기에 강을 통해 배로 운반해야만 했다는 사연도 흥미롭다. 화이트호스 도착 직전에 펼쳐지는 마일스 캐년 로드 Miles Canyon Road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긴다. 이 길을 지나면 그림처럼 아름다운 슈와트카 호수 Schwatka Lake와 수상비행기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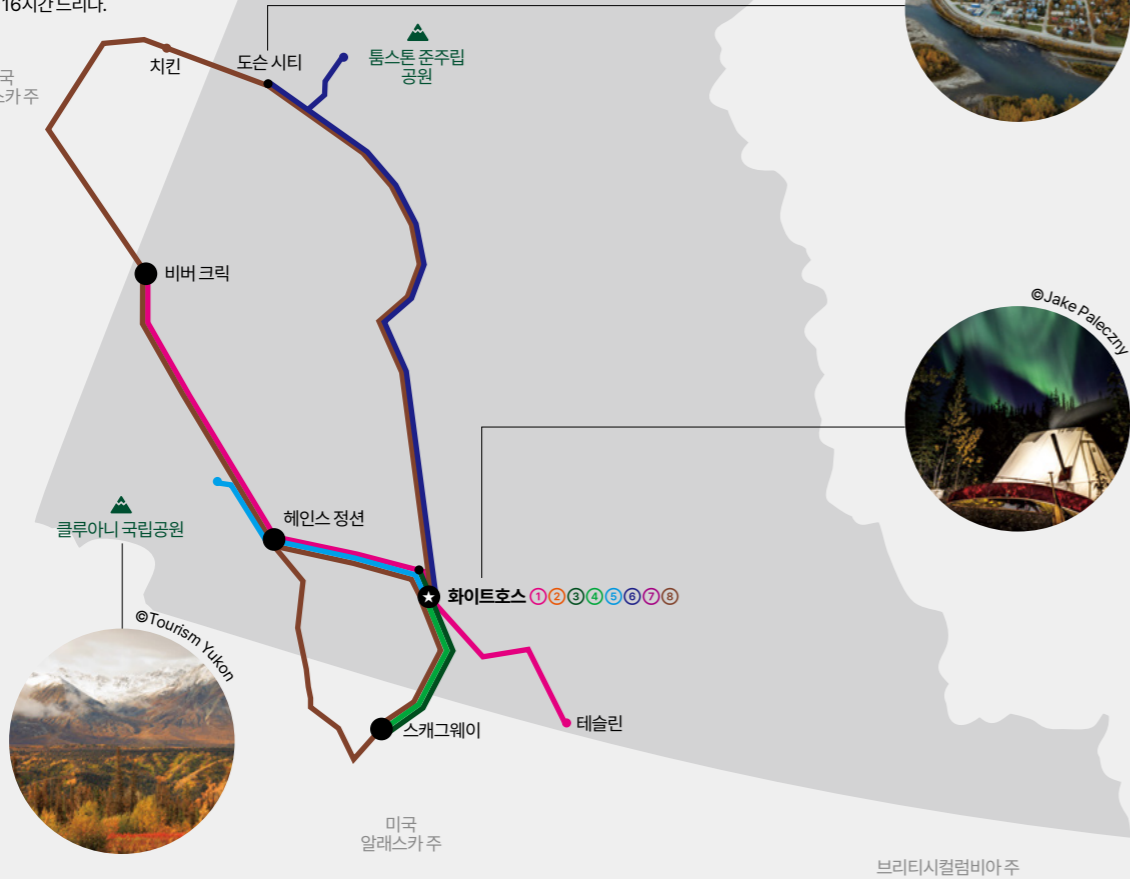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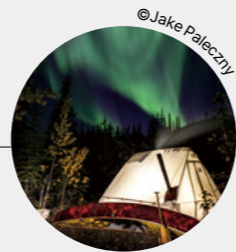
**DAY 4 숨이 멎을 듯한 클루아니 국립공원**  
화이트호스 Whitehorse →

헤인스 정션 Haines Junction ₩154km  
화이트호스에서 알래스카 고속도로를 따라 헤인스 정션(현지인들은 단순히 더 정션 The Junction이라고 부른다)으로 향한다. 도중에 눈앞에 장엄한 산맥이 펼쳐지는데, 백미러 속에서 이 풍경이 사라질 때까지 매료될 것이다. '숨이 멎을 듯한(breathtaking)'이라고 자주 묘사되는 클루아니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 Klauane National Park & Reserve이다. 이 광활한 야생 지역은 한국의 약 5분의 1 크기보다 가벼운 산책로부터 고난도 하이킹까지 다양한 트레일이 있다. 타츠헨시니-알섹강 Tatshenshini-Alsek River에서 래프팅을 계획해도 좋다. 낚시를 좋아한다면 아름다운 산맥을 배경으로 오직 당신과 물고기만 존재하는 평온한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클루아니는 북미에서 그리즐리 베어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며 돌양, 산양, 순록, 늑대 등 야생동물을 도로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 카메라 셔터 누를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DAY 5 하늘과 대지를 품으며**  
헤인스 정션 Haines Junction →

비버 크릭 Beaver Creek  
₩292km  
장엄한 아침을 맞이 위해 클루아니 국립공원 상공을 나는 경비행기 투어를 추천한다. 클루아니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성 빙원과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 20개 중 17개가 있는 보호구역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로건 산 Mount Logan이 있다.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산세와 빙원의 아름다움에 모든 이들이 넋을 잃고 감탄한다.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빌리지 베이커리 Village Bakery에서 점심 식사를 포함한 후 여정을 이어간다. 오늘은 클루아니 프론티어리지 Klauane Front Range의 웅장한 봉우리 아래를 따라 드라이브한다. 도중에 테찰 발방자 센터 The Ch'ál Dháł Visitor Centre에 들러 야생 산양의 일종인 돌양 Dall Sheep도 만나보자. 짧은 트레일을 따라 솔저스 서밋 Soldier's Summit에 올라보는 것도 좋다. 이곳은 알래스카 고속도로가 공식적으로 개통된 역사적인 장소다. 이후 다시 차를 타고 디스트릭션 베이 Destruction Bay로 향한다. 유콘에서 가장 큰 호수인 클루아니 호수를 따라가다가 알래스카 고속도로의 유콘 구간 끝자락인 비버 크릭에 도착한다. 이후 고속도로의 알래스카 구간을 따라 계속 여행하거나 클론다이크/클루아니 루프 Klondike/Kluane Loop를 따라 톱 오브 더 월드 하이웨이 Top of the World Highway를 넘어 도슨 시티를 거쳐 화이트호스로 돌아오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유콘 고속도로 여행 Tip.**  
'Yukon Sights and Sites' 앱을 설치하면 지역과 도로 또는 방문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추천여행코스

- ✎ ① 알래스카로 향하는 로드 트립
- 🚶 ⑥ 가을빛 툰드라 속으로
- ✎ ② 가을 오토 여행 준비한다면
- 🐾 ⑦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다면
- 🏞️ ③ 화이트호스의 가을 액티비티
- 🚗 ⑧ 황금빛 로드 트립
- 🚗 ④ 골드러시의 역사를 간직한 열차를 타고
- 🚶 ⑤ 북미 최대 빙원을 가로지르며



클링킷 선주민 조각기 제작 © YV/Cathie Archibout

## 오로라 감상, 4일 코스

# ② 가을 오로라 여행을 준비한다면

유콘 준주에서는 8월 중순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오로라가 출현한다. 특히 가을인 8월과 9월에는 낮엔 화려한 단풍을, 밤엔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최소 3박 이상 머무르면 오로라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

### 화이트호스로 이동하기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이 밴쿠버와 캘거리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에릭닐슨화이트호스 국제공항이 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시내의 대부분 호텔에서 공항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에서 택시는 물론 렌터카도 이용 가능하다.

### 오로라 투어 고르기

저녁에 호텔에서 픽업해 오로라 관측 장소로 이동하는 다양한 투어가 있다.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원하는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 선 노르만 -오로라 체이서

Sean Norman - Aurora Chaser

seannorman.com

🌐 아틱 레인지 어드벤처Arctic Range Adventure arcticrange.com

🌐 노던 테일스 트래블 서비스

Northern Tales Travel Services

northernales.ca

🌐 업 노스 어드벤처스Up North Adventures

upnorthadventures.com

🌐 유콘 와이드 어드벤처스

Yukon Wide Adventures

yukonwide.com

### 추천 여행 코스

####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DAY 1** 낮에는 화이트호스 인근 탐방, 저녁에는 오로라 투어

화이트호스 도심에서 약 30분 거리인 타키니 핫 스프링스 로드Takhini Hot Springs Road로 향한다.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Yukon Wildlife Preserve을 방문하고, 이클립스 핫 스프링스Eclipse Hot Springs에서 온천욕을 즐긴다. 빈 노스 카페Bean North Cafe에서 로스팅한 커피도 음미한다.

### More Info.

🐾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 yukonwildlife.ca

🌑 이클립스 노르딕 핫스프링스

eclipsenordichotsprings.ca

☕ 빈 노스 카페 beannorth.com

🌲 S.S. 클론다이크 국립사적지

parks.canada.ca/lhn-nhs/yt/ssklondike

**DAY 2** 낮에는 남부 호수 지역 탐험, 저녁에는 오로라 투어

남부 호수 지역은 유콘 강의 발원지이자 서로 연결된 여러 호수가 펼쳐지는 곳으로 사막 모래언덕부터 눈 덮인 산맥까지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탐험할 만한 마을로는 카크로스Carcross, 타기시Tagish, 테슬린Teslin, 아틀린Atlin 등이 있다.

**DAY 3** 낮에는 헤인스 정선 당일 여행, 저녁에는 오로라 투어

화이트호스에서 헤인스 정선까지 약 2시간 소요된다. 헤인스 정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클루아니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클루아니의 타츠엔시니-알섹강Tatshenshini-Alsek River에서 래프팅을 즐기거나 테찰 달 방문자 센터Thechàl Dhàl Visitor Centre에 들러 야생 산양의 일종인 돌 양Dall Sheep을 만나본다. 빌리지 베이커리Village Bakery는 헤인스 정선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다.

**DAY 4** 알래스카 스캐그웨이 당일 여행

알래스카의 스캐그웨이Skagway까지 2시간의 드라이브 동안 에메랄드 호수Emerald Lake, 터치 호수Tutshi Lake, 카크로스 사막Carcross Desert, 보브 섬Bove Island 등 다양한 풍경을 지난다. 스캐그웨이는 골드러시 시대의 모습을 잘 보존한 도시로 크루즈의 주요 정박지이기도 하다. \*일정을 추가해 유콘 준주 추천여행코스 8번(98p)의 클론다이크/클루아니 루프를 드라이브해도 좋다.

###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DAY 1** 낮에는 화이트호스 탐방, 저녁에는 오로라 투어

화이트호스에는 도보로 방문 가능한 여러 명소가 있다.

🌲 S.S. 클론다이크 국립사적지

parks.canada.ca/lhn-nhs/yt/ssklondike

🌲 유콘 교통 박물관 goytm.ca

🌲 유콘 베링기아 해설 센터 beringia.com

🌲 관린둔 문화 센터 kwanlindunculturalcentre.com

🌲 올드 로그 교회 박물관 oldlogchurchmuseum.ca

**DAY 2** 낮에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 저녁에는 오로라 투어

일일 투어를 통해 현지 가이드와 함께 낚시, 산악자전거, 승마, 카누와 카약 등을 즐기며 유콘의 가을을 만끽한다.

**DAY 3**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 일일 투어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White Pass & Yukon Route Railroad는 불과 32km 거리를 이동하지만 고도는 914m 이상 상승한다. 화이트호스-카크로스-스캐그웨이 구간에서 터널과 트레슬 다리 등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현지 여행사를 통해 일일 투어 예약이 가능하다.

**DAY 4** 느긋하게 화이트호스

화이트호스를 여유롭게 즐긴다. 현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갤러리를 둘러보고 여러 상점에 방문한다. 유콘 강을 따라 천천히 산책해도 좋다.

### 숙박처

노던 라이츠 리조트 앤 스파Northern Lights Resort & SPA 맞춤형 투어와 미식, 야간 오로라 감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가능한 한 일찍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오로라 글라스 살레에서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실내에서 편안하게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여름에는 승마와 카누 그리고 하이킹, 겨울에는 개썰매와 스노모빌 등의 투어가 가능하다. 스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northernlightsyukon.com

인온더레이크Inn on the Lake 마시 호수Marsh Lake 기슭에 자리한 아름다운 롯지로 25년 이상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가을과 겨울,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특히 겨울에 개썰매 체험과 오로라 감상을 결합한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북방 산림의 풍부한 베리부터 귀한 훈연어까지, 유콘의 맛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화이트호스에서 남쪽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 innonthelake.ca

아웃도어 액티비티 & 오로라 감상, 3일 이상 코스

③ 화이트호스의 가을 액티비티

가을이 되면 화이트호스 주변의 사시나무 숲이 선명한 황금빛으로 물들고 자연을 만끽하기에 완벽한 시기가 된다. 이 여정은 낮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밤에는 오로라를 감상하는 여행이다. 편안한 롯지나 캐빈에서 머물거나 오로라 헌팅을 떠나며 마법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DAY 1

화이트호스 다운타운에서

✂ 에어캐나다 인천-밴쿠버-화이트호스

커피

화이트호스의 메인 스트리트에 들어서면 느긋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도착한 첫날에는 천천히 흘러가는 화이트호스의 분위기와 함께 커피를 음미해본다. 화이트호스에는 다양한 카페가 많아 커피를 마시고 화이트호스 로컬들과 스몰토크를 나누며 낯선 여행지에서의 긴장감을 풀기 좋다.

음식

캐나다 북부 음식이 특유의 개성 넘치는 풍미가 있다. 셰프들은 유콘 준주의 식재료로 혁신적인 요리를 만들어서 선보인다. 또한 북부의 풍미를 담은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이 두 곳 있다. 이 지역 산물을 이용해 만든 생경한 맛의 맥주를 즐겨보자.

예술

화이트호스에는 선주민 문화를 비롯해 캐나다 북부의 문화를 담은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가 많다. 또한 연주자들이 라이브로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 도시 전체에 영감을 주는 예술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밤이 오면 호텔에서 오로라 투어 가이드와 함께 오로라 관측 장소로 이동한다. 그리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첫째 밤을 보낸다.

More Info.

☞ 올드 로그 교회 박물관에서 주교가 부츠를 먹은 사연을 알아본다. oldlogchurchmuseum.ca

DAY 2

화이트호스 근교에서

하이킹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즐겨본다. 캐나다 북부의 황금색 단풍이 물든 산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캐슬린 호수에 도착하면 숲과 만년설로 덮인 산뿐만 아니라 투명한 호수의 수면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모든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비행기 투어를 추천한다.

야생동물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 Yukon Wildlife Preserve에서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전문 가이드와 함께 유콘의 생태계를 알아가는 투어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 포토그래피 어드벤처 투어스 Photography Adventure Tours는 약 3시간 동안 보호구역을 돌아보며 야생동물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공개 구역을 탐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험은 물론, 멋진 사진까지 남길 수 있다.

온천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 인근에는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 Eclipse Nordic Hot Springs가 자리한다. 이곳에서 온천이나 스파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다. 온천욕을 하며 오로라를 감상할 수도 있다.

More Info.

☞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 근처의 빈 노스 커피 로스팅 컴퍼니 Bean North Coffee Roasting Co.는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다.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곳이기도 하다. 커피 한잔에 마음이 포근해진다.

두 번째 밤이 찾아오면 다시 오로라를 보러 간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과 함께 오로라를 만나볼 수 있다.

DAY 3

화이트호스 자연에서

카누

유콘 강을 따라서 카누를 탈 수 있다. 도심에서도 할 수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접근성이 좋다. 가볍게 노를 저으면서 강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야생동물과 마주치게 된다.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로는 독수리, 곰, 무스, 비버가 있다.

산악자전거

황금색으로 물든 아스펜 숲을 탐험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를 타고 좋다. 고산 초원부터 유콘 강까지 다양한 코스를 자전거를 타고 누릴 수 있다.

하이킹

화이트호스에는 700km가 넘는 트레일 코스가 있다. 이 중에서 추천할 만한 코스는 그레이 마운틴 코스와 마일스 캐년이다.

산책

유콘 강을 따라서 클론다이크까지 이어진 도심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화이트호스의 느긋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유콘 타임에 몸을 맡기고 여유로운 화이트호스의 분위기에 젖어든다.

마지막 밤이니 화이트호스에서 북부 문화가 담긴 음식을 즐기고 마지막 오로라 관측 투어를 떠나본다.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밤을 만들 수 있다.

숲이색 숙소

보레알 익스플로러 Boréale Explorers

연중 내내 유콘 준주의 황야를 모험할 수 있는 롯지다. 여름에는 산악자전거와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고, 9월부터 4월까지의 발코니나 전망대, 스파 등에서 밤하늘의 오로라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운 순간을 만끽한다. 화이트호스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5분 거리에 위치한다. be-yukon.com



화이트호스의 카인드 카페 Kind Café. ©Mark Kelly Photography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시간. ©Paddy Pallin / Nathan Hendry



라버지 호수 Lake Laberge에서 카누를 타며 오로라를 감상한다. ©hynesightadventures.ca



카크로스 나레스 강 Nares River에 있는 철도교의 가을 풍경.  
©Victor Aerden

## 기차 여행, 1일 코스

### ④ 골드러시의 역사를 간직한 열차를 타고

1896년 유콘 준주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황금의 꿈을 좇아 몰려들었다. 주로 미국 알래스카 주의 스캐그웨이를 통해 유콘으로 이동했지만, 험난한 산악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이에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관광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 여정은 열차를 타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횡단하며 당시 개척자들이 지나간 깊은 협곡, 푸른 빙하, 폭포와 호수 등을 감상하는 일일 투어로 유콘에서의 일정 중 하루를 추가해 즐길 수 있다.

#### **COURSE** 유콘 화이트호스 출발, 알래스카 스캐그웨이 도착

**화이트호스 Whitehorse**  
화이트호스는 '클론다이크 골드러시'의 중심지였다. 맥브라이드 유콘 역사 박물관 MacBride Museum of Yukon History 등지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Tour. 추천 여행 상품**  
아르틱 레인지 어드벤처 Arctic Range Adventure에서 화이트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의 일일 투어를 제공한다. 오전 8시에 화이트호스에서 출발해 기차를 타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카크로스 마을을 방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을 걷는다. 미국 알래스카 주의 스캐그웨이에 이르는 여정 끝에는 황금처럼 소중한 추억이 남는다. 소요 시간은 약 10시간이며 웹사이트에서 투어 예약이 가능하다. arcticrange.com

**화이트 패스 & 유콘 루트 철도**  
**White Pass & Yukon Route Railway**  
빈티지 열차에 탄 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다. 화이트 패스 기차는 고도가 880m에 달하는 화이트 패스 서밋을 따라 오른다. 이 코스는 가파른 오르막으로 빈티지한 협곡 열차와 만나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패스 서밋을 지난 뒤에도 산과 강을 따라서 기차는 계속 달려간다. 창밖 풍경에는 협곡, 빙하, 폭포, 터널, 역사 유적지가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데드 호스 협곡 Dead Hores Gulch, 인스피레이션 포인트 Inspiration Point, 브라이덜 베일 Bridal Veil 폭포가 인상적이다.

**카크로스 마을**  
화이트패스 & 유콘 루트 철도의 철로는 남과 북 양쪽으로 철로를 놓았다. 북쪽으로 철로를 계속 건설하는 한편,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로는 카크로스에서 기존에 부설된 철로와 만났다. 1900년 7월 29일 카크로스에서 상징적인 골드 스파이크로 철도를 고정하며 완공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으로 알려진 카크로스 사막을 걸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스캐그웨이 Skagway**  
이웃 기차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스캐그웨이에 도착한다. 스캐그웨이는 밴쿠버에서 출발해 클론다이크 골드필드로 향했던 개척자들이 모인 역사적 도시로 골드러시 시대의 관문 역할을 했다. 다운타운은 역사적인 건물과 유적으로 가득하고 항구에는 크루즈가 드나든다.

**More Info.**  
**6개월만 움직이는 협곡 열차**  
화이트 패스 & 유콘 루트 철도는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1년 중 6개월만 운행한다.  
**기차편의 시설**  
빈티지한 분위기가 감도는 열차지만 편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 무료 생수를 제공하며 모든 열차 칸마다 화장실이 있다. 열차 안에는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가 이 여정과 유콘, 기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리프트가 구비되어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나 이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예약 시 요청하면 리프트를 준비한다.  
\*기차 탑승 시 여권을 소지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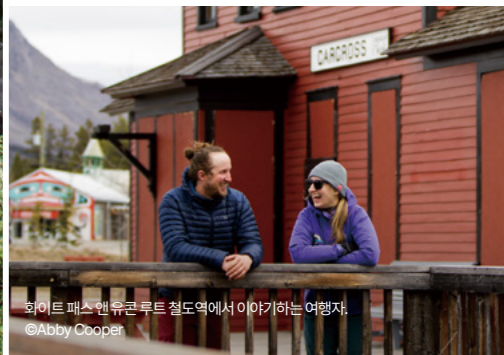


화이트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 ©White Pass & Yukon Route Railway

**HISTORY** **황금의 꿈을 좇았던 철도**  
이 철도는 모험과 개척 정신을 담고 있다. 1897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시작된 뒤 사람들은 험난한 트레일 코스를 통해 도슨 시티로 향했다. 그리고 1년 뒤 1898년 시작된 철도 공사는 1900년 마무리되며 골드러시의 꿈을 상징하는 철도가 개통됐다.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1896년 조지 카맥 George Carmack과 2명의 선주민 동료 스쿠쿰 짐 Skookum Jim과 도슨 찰리 Dawson Charlie가 클론다이크의 보난자 크릭 Bonanza Creek에서 금 조각을 발견했다. 이 소식은 곧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금을 캐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북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금광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기 때문에 편리한 이동 수단이 필요했다. 1897년 런던의 투자자 토마스 탠크레드 경 Sir. Thomas Tancrede과 철도 기술자 마이클 J. 헨니 Michael J. Heney가 힘을 합쳐 철도 공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3만5,000명에 달하는 철도 노동자가 모여 24시간 교대로 밤낮없이 공사를 한 결과 1900년 7월 개통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철로는 산업용 철도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지만 골드러시가 사그라들며 1982년 문을 닫은 뒤, 1988년 스캐그웨이와 화이트 패스 서밋 사이의 협곡 철도 여행을 위해 재개통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유콘 준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바다와 유콘을 연결하는 여행 코스가 되었다.

**More Info.**  
**일정 확인**  
해당 기차는 이른 아침과 정오 즈음에 주로 출발한다. 예외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일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매 사이트를 확인할 것. wpyr.com  
**국제 역사 토목공학의 랜드마크**  
1994년 화이트 패스 & 유콘 루트 철도는 자유의 여신상, 파나마 운하에 이어 국제 역사 토목공학의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역에서 이야기하는 여행자.  
©Abby Cooper



## 하이킹/자연 속 산책, 7일 코스

# ⑤ 북미 최대 빙원을 가로지르며

클루아니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Kluane National Park & Reserve(이하 클루아니 국립공원)은 하이커들의 꿈의 여행지다. 알파인부터 서브알파인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트레일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산인 로건 산, 황금색 단풍으로 물든 사시나무 숲, 다양한 자연환경을 지닌 고산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색으로 물든 가을 풍경이 마치 추상화처럼 펼쳐진다. 또한 극지가 아닌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빙원도 있다. 경기도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인 클루아니 국립공원은 모험 그 자체로 가득하다.

### 모든 레벨의 하이커를 위한 여행지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다양한 트레일 코스는 초급자부터 중급자별 난이도로 고를 수 있게 정비되어 있다. 초보 하이커는 짧은 구간의 트레킹을 하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숙련된 하이커라면 백 컨트리 트레킹을 하며 국립공원의 자연 깊숙한 곳까지 통과할 수 있다. 긴 루트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More Info. 공원의 깊은 곳에서 시작하기

수상비행기를 타고 국립공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멀리 하이킹을 시도할 수 있다.

### DAY 1 화이트호스 도착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밴쿠버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해 화이트호스까지 간다. 첫날에는 화이트호스에 머물며 렌터카를 빌리고 트레킹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시차 적응도 하며 자연으로 탐험을 떠날 채비를 마친다.

### DAY 2-6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

화이트호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헤인스 정션은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관문이다. 방문자 센터가 있어서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 트레킹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부와 방문자 센터 직원들은 트레킹 코스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현재 국립공원 내의 최신 정보나 이상 상황 등을 안내해준다.

### 트레킹 여행의 거점

트레킹을 하며 장기 캠핑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헤인스 정션을 거점으로 삼는다. 트레킹을 마치고 돌아와 정비를 하고 다음 트레일 코스에 도전할 수 있다. 헤인스 정션에는 호텔, 숙박한 캐빈, 공원 내 RV 차량을 활용한 차박 캠핑, 텐트 캠핑까지 다양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

### Side Trip.

첫 번째 하이킹은 세인트 엘리야스St. Elias 호수 트레일을 추천한다. 짧은 코스의 하이킹으로 에메랄드빛 산속 호수를 마주하고, 운이 좋으면 언덕을 오르는 산양도 볼 수 있다. 트레킹 여행의 완벽한 시작이 되어준다.

### TRAIL 1 오리올 트레일Auriol Trail

#### 🌀 4~6시간 ▲ 난이도 중

야생동물을 좋아한다면 오리올 트레일을 선택해본다. 산양, 손목, 무스, 회색곰, 검은곰을 비롯해 작은 포유류,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중간에 나타나는 초원에서는 무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일 코스는 순환하는 코스로 이루어져 트레일 헤드로 되돌아온다. 트레킹을 시작하면 가문비나무를 지나아스펜 숲으로 들어간다. 그 뒤 작은 계곡과 개울을 따라가면 숲이 끝나고 너른 초원이 열린다. 계곡을 벗어나면 점차 서브 알파인 지대로 올라가는 코스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 일대의 산이 이루는 능선을 감상할 수 있다. 내려오는 길에는 루비 레인지Ruby Range 마운틴을 조망하는 전망대도 있다.

### TRAIL 2 킹스쓰론 트레일King's Throne Trail

#### 🌀 8시간+ ▲ 난이도 상

정상의 높이는 2,000m로 힘든 오르막길이 이어지는 트레일 코스다. 거리가 길어 하루종일 하이킹을 해야 한다. 힘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코스다. 시작점은 캐슬린Kathleen 호수다. 호수의 남쪽을 따라서 오래된 광산 도로를 걷기 시작한다. 산기슭에 이르러 아스펜 숲을 지나면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왕좌King's Throne'에 도착하게 된다. 좌측에 펼쳐진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은 난이도가 높다. 자연 그대로 보존된 험난한 코스. 가파른 바위로 이루어져 트레킹 경험이 많고 체력이 좋은 하이커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고난이도 코스를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극적인 경치와 성취감이 보상처럼 따라온다. 체력 소모가 크고 긴 시간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이므로 출발하기 전 든든히 식사해야 한다.

### TRAIL 3 쉽크릭 트레일Sheep Creek Trail

#### 🌀 3~6시간 ▲ 난이도 중

이름처럼 산양을 만날 수 있는 트레일 코스다. 테찰달 Thechal Dhâl 방문자센터에서 체크인을 한 뒤 트레일 헤드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차를 타고 계곡을 내려가는 방법, 주차 구역까지 하이킹을 하는 방법이 있다. 트레일 코스는 쉽크릭 위를 따라 꾸준히 이어지는 오르막길로 이루어진다. 걷다 보면 오래된 광산 도로와 합류하는데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슬림스 리버 계곡이 나온다. 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후 점차 고도가 높아지는데,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빙하 중 하나인 카스카울쉬Kaskawulsh 빙하의 끝을 볼 수 있다.

이 트레일 코스는 포티에잇 펍 크릭Forty-eight Pup Creek이 내려다보이는 협곡의 가장자리에서 끝나는데, 숙련된 탐험가라면 테찰 달 능선 루트를 따라 테찰 달 마운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클루아니 호수, 아웃포스트 마운틴, 레드 캐슬릿지, 루비 산맥, 쉽-불리언Sheep-Bullion 고원까지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 Side Trip.

#### ✂ 경비행기 투어

헤인스 정션에 머물면 경비행기 투어는 필수다. 트레킹으로 자연의 깊은 곳을 살펴봤다면 하늘에서는 클루아니 국립공원의 만년설과 빙하, 단풍 협곡, 강, 호수로 이어지는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경기도의 두 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예약은 헤인스 정션 공항의 실버 시티Silver City 또는 버워시 랜딩Burwash Landing에서 가능하다.

### ☁ 온천

화이트호스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이클립스 노르딕 핫스프링스Eclipse Nordic Hot Springs에서 유콘에 서식하는 식물을 활용한 샤워로 시작해 온욕, 냉욕, 휴식의 과정을 반복하는 노르딕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 온수로 가열한 난방 타일의 릴랙스 룸은 대화 금지 구역으로 깊은 휴식을 취하기 좋다. 메디테이션 솔라리움Meditation Solarium에서는 유콘의 음악가가 창작한 아름다운 음악과 자연의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일광욕을 즐길 수 있다. 무료 요가 및 명상 수업도 진행한다. eclipsenordichotsprings.ca

### DAY 7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화이트호스로 돌아와 쌓인 피로를 마저 풀어낸다. 화이트호스 에릭 닐슨 국제공항에서 다시 밴쿠버로 이동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다. 에어노스, 웨스트젯, 에어캐나다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편이 있어 편리하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전, 밴쿠버에서 짧은 하이킹을 하며 여독을 풀어주자.



클루아니 빙원. ©Destination Canada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의 하이킹. ©Tobin Seagel



테찰 달에서 만난 들양. ©Peter Mather

## 하이킹/자연 속 산책, 9일 코스

# ⑥ 가을빛 툰드라 속으로

오지 캠핑, 트레일과 하이킹을 사랑한다면 툰스톤 준주립 공원이 제격이다. '북쪽의 파타고니아'로 알려진 이 공원은 다양한 난이도의 트레일 코스, 오지 캠핑장, 고산 호수 등 캐나다 북방의 자연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툰드라 초목이 진홍색, 금색, 빨간색으로 물드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최적의 여행 타이밍.

### DAY 1 화이트호스 도착

인천Incheon → 밴쿠버Vancouver → 화이트호스Whitehorse

한국에서 출발해 도슨 시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넉넉히 1박 2일을 잡는 것이 좋다. 우선 밴쿠버에 도착한 뒤 화이트호스까지 캐나다 국내선으로 환승한다. 그리고 화이트호스에서 도슨 시티까지 클론다이크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해서 도착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운전하는 경우 약 6시간 소요된다. 안전을 위해 화이트호스에서 1박을 하고 이동하는 일정을 추천한다.

#### More Info. 화이트호스에서 도슨 시티까지 항공편

✕ 에어노스Air North 운항 스케줄 기준 1일에 2회 비행편이 있다.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며 오전 10시 10분, 낮 12시 편이다. 요일마다 스케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할 것.

🗣 6월부터 9월까지의 화이트호스와 도슨 시티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DAY 2 황금빛 여행

화이트호스Whitehorse →

#### 도슨 시티Dawson City

도슨 시티는 골드러시의 유산을 간직하 만큼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골드패닝 투어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혼자 해보고 싶다면 셀프 가이드 투어 앱인 '드레지 No.4'와 '캐나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 채취 장비는 도슨 시티 하드웨어 스토어나 트레일링 포스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골드바텀 마인 투어에서 금광 체험이 가능하다.

#### More Info.

플레이서Placer 금광에 가는 투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oldbottom.com

### DAY 3 본격하이킹 시작

그리즐리호수 트레일Grizzly Lake Trail

멤스터 하이웨이를 따라 차로 약 98km거리에 위치한 툰스톤 준주립 공원으로 향한다. 이 공원의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즐리 호수 트레일이다. 표지판 안내가 잘되어 있어서 코스를 따라가기 쉽다. 시작점부터 그리즐리 호수까지 약 11km 거리로 큰 바위 골짜기, 고산 초원, 산의 능선을 가로지를 수 있다. 오지로 들어가는 트레일 코스인 만큼 800m 고도 상승, 미끄러운 바위길, 바위 능선 구간 등을 지나는 삼구 루트이다. 하이킹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 More Info.

오지 캠핑장은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데 예약은 유콘 정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유콘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yukon.ca

### DAY 4 두 번째 하이킹

모노리쓰산Monolith Mountain →

디바이드 호수Divide Lake

디바이드 호수 캠핑장으로 가는 길은 초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초반 1km에 걸쳐 고도 상승이 300m에 이른다. 후반부의 내리막길은 쉬운 편으로 총 3~4시간 걸리는 코스다. 바위 더미 표시인 케언을 따라 작은 개울로 이어지는 트레일 코스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름답다.

### DAY 5 산과 호수의 절경

탈루스 호수Talus Lake

디바이드 호수에서 1~2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탈루스 호수는 툰스톤 산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다. 완만한 툰스톤 고개를 걸으며 클라уди 산맥의 능선을 감상할 수 있다. 탈루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고산 호수의 풍경과 툰스톤 산의 경치에 사로잡힌다. 탈루스 호수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디바이드 호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

### DAY 6 가벼운하이킹

트윈 호수Twin Lakes

완만한 바위 능선을 따라 트윈 호수와 모노리쓰 뷰포인트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작은 호수를 지나 그리즐리 패스까지 올라가면 전망대에 도착한다. 화강암 봉우리와 고산 호수, 숲으로 이루어진 장관이 펼쳐진다. 짧은 하이킹을 마치면 그리즐리 호수로 돌아가야 할 시간.

### DAY 7 다시 도시로

툰스톤 준주립 공원Tombstone

Territorial Park → 도슨 시티Dawson City

그리즐리 호수 트레일을 따라 다시 입구로 온다. 그리고 도슨 시티로 돌아와 편안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도슨 시티에 남아 있는 골드러시 시대의 건축물을 둘러보고 강강댄스를 추는 댄스들의 공연을 즐겨도 좋다.

### DAY 8-9 한국행

도슨 시티Dawson City →

화이트호스Whitehorse

도슨 시티에서 출발해 하루만에 인천까지 도착할 수는 없다. 화이트호스나 밴쿠버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무스. ©Destination Canada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스라소니. ©Destination Canada/@explorecanada

## 야생동물 만나기, 1일 코스

# ⑦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다면

유콘 준주는 북부 특유의 넓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녔으며, 한편으로는 거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여행하는 동안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 특히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Yukon Wildlife Preserve에서는 12종 이상의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마주할 기회가 있다.

#### 유콘 준주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들

들소, 무스, 엘크, 손목, 그리즐리 베어, 산파랑지빠귀, 고슴도치, 붉은여우, 코카니 연어 등.

#### 야생동물을 만나기 위한 준비

##### 야생동물을 존중할 것

아무도 불청객을 반기지 않는다. 야생동물 역시 마찬가지다. 야생동물을 보려고 서식지나 보호구역에 무작정 들어간다면 위험할 수 있다. 야생동물을 존중하기 위한 에티켓을 기억하자. 첫째, 멀리서 관찰한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둘째, 야생의 규칙을 따르자. 반려동물과 동반했다면 리드줄을 반드시 채우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 전문가를 따를 것

야생동물은 당연히 사람을 피한다. 도시나 도로로 나오는 야생동물의 수는 적다. 야생동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곰이 나오는 서식지를 어떻게 안전히 지나오면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지 알려준다. 야생동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 서식지를 알아둘 것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해야 한다. 북방 삼림 지대,

남쪽의 경사지, 고산 지대, 천연 수원 등 유콘 준주의 다양한 자연환경은 여러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이다. 유콘 준주에서도 트립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따라서 많은 야생동물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 우연에 기대고 싶지 않다면 야생동물 관찰 투어에 참가해본다.

#### 야생동물을 만나다

앞선 세 가지 준비를 한 번에 마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야생동물 관찰 투어에 참가하는 것이다. 유콘 준주의 매력적인 도시 화이트호스에서 불과 25분 거리에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다. 화이트호스는 여행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잘 마련되어 보다 더 편안하게 야생동물 관찰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

##### Yukon Wildlife Preserve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는 북극여우, 북극땅다람쥐, 링크스엘크, 무스, 산양, 노새사슴, 사향소, 붉은여우, 톨슨 양, 우드들소, 우드랜드 카리부가 살아가고 있다. 야생동물 해설사가 보호구역 내에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 유콘 준주 생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일일 해설 투어, 스페셜 VIP 투어 등 다양한 투어 상품을 골라서 참가해본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야생동물 관찰 투어를 신청하면 된다. 광활한 보호구역을 구석구석 더 빠르게 살펴보고

싶다면 사전에 투어도 가능하다. 직접 자신의 자연거를 가져오거나 팻바이크를 타고 둘러볼 수 있다. 겨울에는 킥슬레드Kicksled를 타기도 한다. 한편, 보호구역 내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돌보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다시 야생의 환경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전문가들이 상주한다.

#### 야생동물과의 공생

비영리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구역은 자연과 야생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유콘 준주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야생동물을 돌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투어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야생동물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 야생동물과의 조우

야생동물 보호구역에는 현재 12종 이상의 유콘의 토종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그렇지만 야생동물이기에 투어를 하는 동안 쉽게 마주치기는 어렵다. 아쉬워하지 말고 광활한 유콘 준주의 자연을 감상하며 그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하자.

#### More Info.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투어 예약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yukonwildlife.ca



## 가을 단풍, 4~7일 코스

# ⑧ 황금빛 로드 트립

유콘 준주의 가을을 만끽하는 방법 중 하나는 로드트립이다. 클루아니 루프와 골든 서클 루트 두 코스는 황금색으로 물든 풍경부터 캐나다 북부의 자연, 다양한 문화적 명소를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이 있는 로드 트립 코스이다.

### COURSE 1 클루아니 루프

화이트호스에서 출발해 도슨 시티를 지나 미국 알래스카를 경유한 뒤 비버 크릭, 헤인스 정션을 지나 화이트호스로 돌아오며 큰 원을 그리는 드라이브 코스이다.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안전하고 운전하기 편하다. 고원 지대로 들어서면 일부 자갈길에 유의해야 한다.

### DAY 1 화이트호스 여행

화이트호스에는 골드러시 시기의 유람선 S.S 클론다이크가 남아있고 다양한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다. 대부분의 관광 명소를 도보로 다닐 수 있어 화이트호스 다운타운에서는 느긋하게 산책하듯 여행하기 좋다.

### DAY 2 선주민 문화 경험하기

**화이트호스 Whitehorse → 도슨 시티 Dawson City**  
**✈ 535km**  
 화이트호스를 출발해 중간에 위치한 카맥스 Carmacks에 들러 선주민 문화가 남아 있는 타게 초 후텐 안내 센터 Tagé Cho Hudän Interpretive Centre를 둘러본다. 선주민 문화를 배우고 즐긴 뒤 경치 좋은 산책로를 따라서 운전하며 굳은 몸을 풀어줄 수도 있다. 카맥스를 지난 뒤에는 유콘 강의 급류인 파이프 핑거 래피즈에서 잠시 쉬다 가도 좋다.

### DAY 3 도슨 시티 탐방

도슨 시티는 공식적으로 국립 사적지로 지정된 도시다. 특히 골드러시 시절의 건물 양식의 일부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어서 도슨 시티가 지닌 특유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성대했던 골드러시 시절 광부들의 꿈과 희망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하루의 마무리는 다이아몬드 투스 거티스에 들러 쿡강댄스 쇼를 관람하면 어떨까.

#### More Info. 도슨 시티에서의 일일 투어

- 골드러시 체험: 디스커버리 클레임에서 금광을 탐험하는 투어 중간에 사금 채취를 직접 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 건축 워킹 투어: 커미셔너 관저, 팰리스 그랜드

극장까지 도슨 시티의 역사적 건축물을 가이드와 돌아보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 문학적 낭만: 로버트 서비스 캐빈에서는 시를 낭독하고 시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시를 들으면서 하는 이색 가이드 하이킹도 있다.

**Side Tour. 톨스톤 준주립 공원**  
 화강암 봉우리가 모비를 닮아서 이름 붙여진 톨스톤 준주립 공원 Tombstone Territorial Park에 둘러본다. 템스터 코너 출구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쉽게 다녀올 수 있다. 깎아지른 봉우리, 영구 동토층, 다양한 야생동물들로 가득하다. 특히 단풍이 물드는 8월 말 9월 초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DAY 4-6 환상적인 드라이브

**도슨 시티 Dawson City → 비버 크릭 Beaver Creek → 헤인스 정션 Haines Junction**  
**✈ 1,241km**  
 무료 페리를 타고 유콘 강을 건너면 톨 오브 더 월드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이 길은 테일러 고속도로를 통해 알래스카로 이어지다가 다시금 유콘 준주로 돌아와 알래스카 고속도로를 따라 달린다. 곧이어 캐나다 최서단인 비버 크릭에 도착할 수 있다.

**클루아니 국립공원 Klulne National Park**  
 이동하는 중간에 클루아니 국립공원에 들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클루아니 국립공원 안 캐슬린 호수 보호구역에서 수면에 비친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한다. 이곳은 캠핑과 피크닉이 허용된 곳이다.

**헤인스 정션 Haines Junction**  
 클루아니 국립공원에서 헤인스 정션까지 차로 20분 거리이다. 헤인스 정션은 그림엽서 같은 마을로 공원 내 하이킹 투어의 거점 역할을 한다. 아웃도어에 관심이 있다면 헤인스 정션에 머물며 클루아니 국립공원을 하이킹하는 것을 추천한다.

### DAY 7 다시 화이트호스로

**✈ 158km**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유콘 준주의 가을 풍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안전하게 화이트호스로 돌아온다.



유콘에 있는 고속도로의 가을 풍광. ©Destination Canada

### COURSE 2 골든서클루트

유콘 준주의 여러 드라이브 루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코스이다. 산악 드라이브 코스로 캐나다 북부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차창 안으로 가득히 들어온다.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따라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 DAY 1 남부 호수 지역 여행

유콘 강의 발원지를 이루는 여러 호수뿐 아니라 사막 모래언덕부터 눈 덮인 산맥까지 다양한 풍경이 공존하는 곳이다. 마시 호수 Marsh Lake 등을 방문하면 좋다.

### DAY 2 국경을 넘나드는 길

**화이트호스 Whitehorse → 스캐그웨이 Skagway**  
**✈ 176km**  
**카크로스 사막 Carcross Desert**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사막은 아니고 빙하 호수의 잔해로 이루어진 지대이다.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사막은 골든 서클 루트의 큰 즐거움이다.

**카크로스 Carcross**  
 본래 카리부 크로싱 Caribou Crossing이라고 불렸던 오래된 마을이다. 이 명칭은 카리부 떼가 1년에 두 번 지나치던 것에서 유래했다. 카크로스, 태기쉬 Tagish 선주민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산악자전거 트레일 코스,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스캐그웨이 Skagway**  
 미국 알래스카의 스캐그웨이는 골드러시 시대에 클론다이크 금광의 관문이었다. 탐험가들은 칠쿠트 Chilkoot 트레일을 따라서 베넷 레이크까지 하이킹을 한 뒤 도슨 시티까지 유콘 강을 따라서 탐험을 떠났다. 골드러시 시대의 역사적 건축물을 찾아다니는 도보 투어도 가능하다.

**More Info. 페리 타기**  
 스캐그웨이에서 헤인스까지는 페리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차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DAY 3 캐나다로 복귀**  
**알래스카 헤인스 Alaska Haines → 헤인스 정션 Haines Junction**  
**✈ 241km**  
 헤인스 로드를 따라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다. 고산 지대를 따라 이어지는 고속도로인 헤인스 패스는 갑탄사가 절로 나오는 드라이브 코스로 헤인스 정션까지 드라이브하기 좋다.

**밀리언 달러 폭포 Million Dollar Falls**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다. 캠핑장도 마련되어 캠퍼라면 차를 멈추고 머물러 가는 일정을 추가해보자.

**DAY 4 화이트호스로 돌아가기**  
**✈ 158km**  
 골든 서클 루트와 클루아니 루프를 결합하여 더 긴 일정의 로드 트립도 가능하다.

# 아틀란틱 캐나다

## Atlantic Canada

### ① 기본 정보

아틀란틱 캐나다는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아래 4개 주를 일컫는다.

노바스코샤 주 Nova Scotia, 뉴브런스윅 주 New Brunswick,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Newfoundland and Labrador,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Prince Edward Island

노바스코샤의 주도는 할리팩스  
 뉴브런스윅의 주도는 프레더릭턴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의 주도는 세인트존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주도는 샬럿타운

### ✕ 항공편

몬트리올-할리팩스 약 2시간 소요  
 토론토-프레더릭턴 약 1시간 45분 소요  
 토론토-세인트존스 약 3시간 소요  
 몬트리올-샬럿타운 약 1시간 30분 소요

### 📍 여행 정보

노바스코샤 주 [novascotia.com](http://novascotia.com)  
 뉴브런스윅 주 [tourismnewbrunswick.ca](http://tourismnewbrunswick.ca)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newfoundlandlabrador.com](http://newfoundlandlabrador.com)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tourismpei.com](http://tourismpei.com)

### 🚗 시차

노바스코샤 주와 뉴브런스윅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는 한국보다 13시간 느리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는 한국보다 12시간 30분 느리다. (서머타임 적용 시 각 12시간, 11시간 30분)

### 추천여행코스

- ① 미식가를 위한 섬
- ② 노바스코샤 필수 코스
- ③ 노바스코샤 3대 미식 트레일: 맥주, 차우더, 랍스터
- ④ 비아레일 오션 구간

- ⑤ 태고의 자연을 마주하다
- ⑥ 단풍과 바다가 어우러진 케벳 트레일
- ⑦ 해안 절벽에서 짜릿한 라운딩
- ⑧ 바다에서 카약 타기
- ⑨ 자전거를 타고 섬을 누비다



## 미식, 5일 코스

### ① 미식가를 위한 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이하 PEI) 전역에서 미식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자. 섬이 크지 않아 샬럿타운에 머무르며 지상 최고의 랍스터를 비롯한 해산물부터 다채로운 종류의 디저트까지 미각의 경험을 끌어올릴 루트를 즐긴다.

#### DAY 1 PEI 미식 투어의 출발 샬럿타운 Charlottetown

✕ 인천-몬트리올-샬럿타운  
 아침 식사나 브런치를 즐기고 싶다면 레온하드 카페 Leonhard's Café 혹은 3개의 지점을 갖춘 리시버 커피 Receiver Coffee를 추천한다. 클래다 오이스터 하우스 Claddagh Oyster House와 올드 더블린 펍 Olde Dublin Pub에서는 수상 경력이 화려한 차우더를 맛볼 수 있다. 빼어난 서비스와 해산물을 자랑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워터 프린스 코너 슝 Water Prince Corner Shop과 PEI산 소고기와 굴을 선보이는 심스 코너 스테이크하우스 앤 오이스터 바 Sims Corner Steakhouse & Oyster Bar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 DAY 2 PEI 동부 해안의 맛 조지타운 Georgetown 52km

동부 해안  
 조지타운으로 이동해 마룬 피그아트 갤러리 앤 스위트 숍 Maroon Pig Art Gallery & Sweet Shop을 방문한다. 매일 새롭게 선보이는 오리지널 수제 디저트와 시그니처 공정무역 커피인 조지타운 피셔맨스 블렌드 Georgetown Fishermen's Blend를 추천한다. 동부 해안에서는 21 브레이크워터 인 수리스 21 Breakwater in Souris의 포르투갈식 피시앤칩스를 맛본다. 양념에 재운 대구를 화이트 와인, 버터, 라임과 함께 팬에 튀기고, 올리브오일과 홈메이드 타르타르 소스로 조리한 감자튀김을 함께 제공한다. 늦은 오후에는 미리어드 뷰 증류소 Myriad View Distillery에서 합법적인 밀주를 시음하고 증류소 투어를 즐겨본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몬태규 Montague로

이동해 강이 내다보이는 원도 온 더 워터 레스토랑 Windows on the Water Restaurant에서 전통 랍스터와 해산물 차우더, 홈메이드 디저트를 맛보며 최고의 환대를 누릴 수 있다. 크래프터스 옛 보그사이드 Crafters at Bogside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해산물 대신 훈제 구이와 맥주를 즐기기에 좋다.

#### DAY 3 월드 클래스 랍스터 브래클리 비치 Brackley Beach

520km  
 그린 게이블스 쇼어  
 브래클리 비치에 위치한 뉘스 카페 앤 스튜디오 갤러리 The Dunes Café & Studio Gallery를 방문해 미식 투어를 시작한다. 갤러리와 정원을 둘러본 후 뉘스 도자기에 내주는 랍스터 시금치 키슈 같은 가벼운 정식을 즐길 수 있다. 더 밀 인 뉴 글래스고 The Mill in New Glasgow는 이국적인 풍미와 현재의 열정을 가득 담은 메뉴를 선보인다. 노스 러스티코 North Rustico의 블루머셀 카페 Blue Mussel Café는 해산물의 메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랍스터 만찬을 원한다면 노스 러스티코의 피셔맨스 워프 Fisherman's Wharf 나 뉴 글래스고 랍스터 서프스 New Glasgow Lobster Suppers를 추천한다.

#### DAY 4 수제 맥주와 핸드파이 보든-칼튼 Borden-Carleton

54km  
 레드 샌즈 쇼어  
 보든-칼튼의 론 오크 브루잉 컴퍼니 Lone Oak Brewing Co에서 수제 맥주와 정식을 즐긴다. 지역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이름을 붙인 여러 맥주를 선보인다.

인근 올버니 Albany에 있는 더 핸드파이 컴퍼니 The Handpie Company에 들러 따뜻한 핸드파이를 맛보는 것도 놓칠 수 없다. 현지 재료를 사용해 놀라운 풍미로 가득한 핸드파이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빅토리아 Victoria의 랜드마크 오이스터 하우스 Landmark Oyster House는 아름다운 빅토리아 플레이하우스 Victoria Playhouse를 마주보고 있으며 캐주얼한 식사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 DAY 5 PEI 최고의 버거를 만나 아브람 빌리지 Abram Village

85km  
 북부 해안  
 아브람 빌리지의 라 트라페 레스토랑 앤 바 La Trappe Restaurant & Bar는 센터 엑스포 축제 Centre Expo Festival에 참여한다. 가정적인 환대, 맛있고 전통적인 아카디아(17세기 프랑스 이민자들이 정착한 지금의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 요리, PEI 랍스터, 홍합, 해산물 차우더 등 섬의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타인 밸리 Tyne Valley의 백옥 버거 Backwoods Burger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버거 메뉴를 선보인다. 최근에는 현지의 버거를 평가하는 이벤트인 PEI 버거 러브 PEI Burger Love에서 가장 사랑받는 버거로 수상을 하기도 했다.

Stay.  
 1 더 홀먼 그랜드 호텔 theholmgrand.com  
 2 델타 호텔 프린스 에드워드 marriott.com/en-us/hotels/yygdp-delta-hotels-prince-edward  
 3 더 아트 호텔 theartshotel.ca



신선한 PEI의 굴. ©Tourism PEI/Stephen Harris



PEI에서 랍스터를 즐기는 사람들. ©Tourism PEI/Stephen Harris

추천 드라이브 코스, 9일 이상 코스

## ② 노바스코샤 필수 코스

매력적인 항구 도시 할리팩스Halifax에서 해안 드라이브에 나선다. 경이로운 자연을 품은 케이프 브레튼 섬Cape Breton Island을 아우르는 노바스코샤 로드 트립은 모험의 감각을 한층 일깨워줄 것이다.



노바스코샤주의 캐벗 트레일을 지나는 차. ©Tourism Nova Scotia / Adam Hill



**휴식처**  
센씨 노르딕 스파Sensea Nordic Spa는 노바스코샤 주 체스터 숲속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자리한다. 노르딕 스파를 기반으로 사우나, 허밍(튀르키예식 목욕탕), 야외 온수 및 냉수 욕조, 마사지 및 트리트먼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연 속에서의 완전한 몰입을 위한 숙박 역시 선택 가능하다. sensea.ca

루넨버그 항구를 항해하는 블루노스 2호. ©Communications Nova Scotia / Len Wagg



로렌스타운 해변은 서핑을 즐기기에 좋다. ©Tourism Nova Scotia / Halifax Metro



사우스 쇼어의 페기스 코브. ©Tourism Nova Scotia / Acorn Art&Photography

### DAY 1 할리팩스 도착 후 다운타운 둘러보기

인천국제공항 → 할리팩스국제공항

✕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or 몬트리올-할리팩스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할리팩스

✕ 대한항공 인천-토론토-할리팩스

할리팩스국제공항 → 할리팩스 다운타운

🚗 MetroX 버스 320번, 소요 시간 약 55분

🚗 택시나 렌터카 이용 시 약 35분 소요

### DAY 2 노바스코샤의 관문 도시 할리팩스Halifax

할리팩스의 워터프론트는 노바스코샤 여행의 출발지로 제격이다. 이곳에서 도시를 둘러보는 투어에 참여하거나 자전거나 세그웨이를 빌려서 탐험해보자. 보트 투어를 예약하면 수상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구경할 수 있다. 스프링 가든 로드Spring Garden Road를 따라 쇼핑과 미식을 즐기거나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빅토리아 시대 정원으로 꾸며진 할리팩스 퍼블릭 가든Halifax Public Gardens을 거닐어도 좋다.

**More Info.**

🏛 캐나다 이민 박물관Canadian Museum of Immigration at Pier 21은 인터랙티브 전시를 통해 캐나다 이민자들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 할리팩스 시타델 국립 사적지Halifax Citadel National Historic Site에서는 별 모양의 옛 군사 요새를 탐험할 수 있다.

🍽 할리팩스 부둣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맛 좋은 현지 음식을 음미해본다. 할리팩스의 공식 음식인 도네어 케밥은 반드시 맛볼 것! 저녁에는 아길 스트리트Argyle Street의 여러 펍에서 라이브 음악과 크래프트 맥주를 즐겨도 좋다.

### DAY 3 할리팩스 근교 여행 할리팩스Halifax → 페기스 코브 등대Peggy's Cove Lighthouse 43km

사우스 쇼어South Shore로 출발해 상징적인 페기스 코브 등대에 방문한다. 페기스 코브의 활기찬 어촌 마을을 거닐며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선물 및 장인 상점을 방문하고 현지 해산물을 맛보고 세계에서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히는 등대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 마혼 베이Mahone Bay 87.5km

사우스 쇼어를 따라 계속 달리다가 마혼 베이에 들른다. 유서 깊은 해안가를 따라 노바스코샤에서 가장 포도제닉한 풍경 중 하나인 마혼 베이의 세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 시간을 보내기 좋은 아트 갤러리와 카페, 레스토랑도 준비하다.



#### 루넨버그Lunenburg 11km

아름다운 해안가, 좁은 골목, 매혹적인 건축물이 가득한 루넨버그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항구 마을이다. 울드타운에는 노바스코샤의 유명한 경주용 번식인 블루노스 2호Bluenose II가 있다. 워킹 투어를 통해 아이언웍스 증류소Ironworks Distillery, 대서양 수산 박물관Fisheries Museum of the Atlantic, 로리 스윌 갤러리Laurie Swim Gallery를 방문하고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본다.

### DAY 4-7 노바스코샤의 대자연 할리팩스Halifax → 캐벗 트레일Cabot Trail 409km

할리팩스를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한다. 케이프 브레튼 섬을 향해

해안을 따라 실리드 트레일Ceilidh Trail을 따라가거나 브라스도레이크 시닉 드라이브Bras d'Or Lakes Scenic Drive를 따라 자동차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캐벗 트레일을 따라가면 그림 같은 마을 체티캠프Cheticamp를 지나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Cape Breton Highlands National Park으로 진입하게 된다. 국립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일 중 하나인 스카이라인 트레일Skyline Trail을 따라 하이킹을 떠나본다. 트레일은 산 정상까지 이어지며 캐벗 트레일과 바다가 만나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다.

**More Info.**

🏔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에는 26개의 하이킹 코스를 비롯해 캠핑, GPS를 통한 보물찾기놀이, 골프, 자전거, 야생동물 관찰, 해변, 전망대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추고 있다. 체티캠프와 잉고니시Ingonish에 위치한 방문자 센터에서 공원 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novascotia.com/listing/cape-breton-highlands-national-park

🌊 가을은 노바스코샤에서 고래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체티캠프, 플레전트 베이Pleasant Bay, 베이 세인트 로렌스Bay St. Lawrence, 잉고니시 비치Ingonish Beach에서 출발하는 고래 관찰 투어를 떠나보자.

**Stay.**

🏠 켈틱 롯지앳 더 하이랜드즈Keltic Lodge at the Highlands kelticlodge.ca

### DAY 8 호숫가에서의 휴식 캐벗 트레일Cabot Trail → 잉고니시Ingonish 50km

잉고니시에서는 아담한 카페나 베이커리에 들러 갓 구운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즐기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 브로드 코브 비치Broad Cove Beach, 노스 베이 비치North Bay Beach, 잉고니시 비치Ingonish Beach 등 대서양에 면한 해변을 방문해도 좋다.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중 하나인 하이랜드 링크스Highlands Links에서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멋진 전망 또한 감상할 수 있다.

#### 잉고니시Ingonish → 베덱Baddeck

잉고니시를 출발해 베덱으로 이동한 뒤에는 최초의 전화기 복제품과 HD-4 수중익선 실물 모형 등 희귀 발명품과 유물을 소장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국립 유적지Alexander Graham Bell National Historic Site를 방문한다. 브라스도 호수에서 세일링 투어를 하거나 나안자Nyanza에서 캐나다 대서양 최초의 유기농 수제 맥주 양조장인 빅스프루스 브루잉Big Spruce Brewing을 방문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Stay.**

🏠 베덱에는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자리한다. 브라스도 호수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캠핑장도 선택 가능하다. novascotia.com/explore-by-region/cape-breton-island/baddeck

### DAY 9 동부 해안을 따라서 베덱Baddeck → 할리팩스Halifax 352km

할리팩스로 돌아가는 길에는 동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을 둘러본다. 테일러 헤드 국립공원Taylor Head Provincial Park에서 해변을 따라 하이킹을 즐긴 다음 노바스코샤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마르티니크 비치 국립공원Martinique Beach Provincial Park를 방문하거나 로렌스타운 비치 국립공원Lawrencetown Beach Provincial Park에서 서핑 강습을 받아본다.

**More Info.**

🌐 이스트 코스트 서프 스킨에서 서핑 강습 받기 novascotia.com/listing/east-coast-surf-school



힐 톱 홉스 브루하우스 Hill Top Hops Brewery. ©Tourism Nova Scotia / Lumi Studios

## 미식, 3일 이상 코스

# ③ 노바스코샤 3대 미식 트레일: 맥주, 차우더, 랍스터

노바스코샤는 미식의 성찬이 펼쳐지는 주다. 수제 맥주부터 차우더, 랍스터까지 세 가지 트레일 리스트를 참고해 할리팩스와 노바스코샤 일대를 넘나드는 잊지 못할 미식 여정을 완성해본다. 항공편은 103p Day1 참고.

### TRAIL 1 다채로운 수제 맥주 노바스코샤 굿치어 트레일

**Good Cheer Trail**  
노바스코샤의 굿치어 트레일은 와이너리와 양조장, 증류소, 사이더 농장 등이 가입된 독특한 연합체다. 1606년 포트 로열 Port Roya에서 로드레 뒤 봉 탕 L'Odre du Bon Temps 모임이 열린 노바스코샤의 유구한 미식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 지역의 수제 맥주 브루어리를 주축으로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 사이더 양조장 등 술과 미식을 아우르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최상급 수제 맥주는 물론 타이달 베이 Tidal Bay의 최신 빈티지 와인을 음미하고 캐스크에서 바로 꺼낸 위스키를 맛보자. 테이스팅 투어에 참가하면 각 브루어리의 특색과 맥주 제조 과정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리스트에서는 할리팩스의 주요 맥주 브루어리와 펍을 안내한다.

**할리팩스 Halifax**  
**복싱 록 브루잉 컴퍼니**  
**Boxing Rock Brewing Company**  
복싱 록 브루잉 컴퍼니는 2013년부터 사우스 쇼어에서 수제 맥주를 양조한다. 최근 셸번 Shelburne에 오픈한 탱룸을 방문해 수상 경력이 화려한 IPA와 펄일 에일, 배럴 숙성 시리즈 혹은 계절마다 내는 한정판 맥주를 시음할 수 있다. boxingrock.ca

**볼워크 사이더 하우스 Bulwark Cider House**  
이곳은 할리팩스에서 수제 사이더를 시음하기에 이상적이다. 캐나다에서 사과 착즙, 발효, 병입을 직접 하는 몇 안 되는 사이더 양조장 중 하나로 스코티시 골드 사과를 착즙하고 느끼게 발효한 천연 사이더를 선보인다. bulwarkciderhouse.ca

**체인 야드 어반 사이더리 Chain Yard Urban Cidery**  
체인 야드 어반 사이더리는 할리팩스 최초의 도심형 사이더 양조장으로, 애플폴리스 벨리 사과를 사용해 독특하고도 전통적인 사이더를 만든다. 탱룸에서 12종의 사이더를 맛볼 수 있으며, 노바스코샤 음식을 선보이는 언체인드 키친 Unchained Kitchen을 함께 운영한다. chainyardcider.com

**컴패스 디스틸러스 Compass Distillers**  
할리팩스 유일의 곡물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크래프트 증류소다. 노바스코샤 곡물과 설탕, 당밀 같은 원재료를 제분하고 으개는 초기 과정부터 발효, 증류, 병입까지 진, 럼 등 증류주의 완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compassdistillers.ca

**개리슨 브루잉 컴퍼니 Garrison Brewing Co.**  
개리슨 브루잉 컴퍼니는 1997년 이래 할리팩스 항구에서 크래프트 맥주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깔끔하고 청량한 에일 맥주부터 망고 드래곤프루트 사워 같은 모험적인 스페셜티 맥주까지, 개리슨의 맥주는 한 차원 다른 풍미를 선사한다. garrisonbrewing.com

**가한 노바 센터 Gahan Nova Centre**  
가한 노바 센터에서는 20년 동안의 숙련된 양조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사이더를 포함해 15종의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라거, 스타우트, IPA, 배럴 숙성 맥주 등을 샘플러로 즐길 수 있으며, 바 직원이 맥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halifax.gahan.ca

**More Info.**  
☞ 굿치어 트레일 브루어리 리스트 goodcheertrail.com/trails/stops/#beer

**Side Trip.**  
☞ 아이언웍스 디스틸러리 Ironworks Distillery는 노바스코샤 남부 해안의 루넨버그 구항구에 위치한 소규모 증류소다. 전통 방식의 섬세한 레시피에 따라 진, 보드카, 럼 등 다양한 종류의 증류주를 생산한다. 증류소 전반을 돌아보고 시음할 수 있는 테이스팅 투어도 진행한다. ironworksdistillery.com

### TRAIL 2 차우더의 맛 노바스코샤 차우더 트레일 Nova Scotia Chowder trail

해산물에 가득한 차우더 수프 한 그릇보다 노바스코샤의 미식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청정한 바다에서 잡은 최상급 해산물과 비옥한 계곡에서 자란 농산물을 만든 노바스코샤의 차우더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노바스코샤 지역의 근원과 문화가 모두 담겨 있다. 실제로 노바스코샤에서 차우더는 할머니의 부엌 혹은 동네 식당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울 푸드와 다를 없다. 노바스코샤 차우더 트레일은 노바스코샤 남서부의 아머스 Yarmouth에서 동북부의 시드니 Sydney까지 주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개성 강한 차우더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자신의 동선에 맞는 레스토랑을 선택해 노스텔지어 짙은 차우더의 신세계를 경험해보자.

**할리팩스 Halifax**  
**케이بل 워프 Cable Wharf**  
케이بل 워프는 항구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광에 둘러싸여 있다. 항구의 27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파티오에서 대서양의 신선한 해산물을 듬뿍 넣은 씨푸드 차우더의 깊은 풍미를 느껴볼 것. rcr.ca/restaurants/cable-wharf-kitchen-patio

**워터프런트 웨어하우스 Waterfront Warehouse**  
워터프런트 웨어하우스에서 전형적인 동부 해안의 맛을 경험해본다. 싱싱한 굴 셀렉션과 랍스터, 계가 가득한 수조가 방문객의 선택을 기다린다. 벽난로를 갖춘 파티오에서 와인 혹은 현지 크래프트 맥주와 함께 차우더와 다채로운 메뉴를 즐길 수 있다. rcr.ca/restaurants/waterfront-warehouse

**씨포트 소셜 Seaport Social**  
씨포트 소셜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씨포트 디스트릭트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신선한 제철 현지 요리부터 씨푸드 차우더, 코코넛 가리비 등 풍성한 해산물 메뉴를 스몰 플레이트 혹은 정식으로 제공한다. seaportsocialhalifax.com

**남부 해안 South Shore**  
**수웨스터 기프트 숍 앤 레스토랑 Sou'Wester Gift Shop & Restaurant**  
페기스 코브의 유명한 등대가 내다보이는 수웨스터 기프트 숍 앤 레스토랑은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특별한 해산물 차우더와 피시앤칩스, 해덕, 랍스터 요리를 선보이며, 디지털로 홈메이드 진저 브레드 혹은 사과 크리스프 선택이 가능하다. shoppeggyscove.com

**올드 피시 팩토리 레스토랑 앤 바 Old Fish Factory Restaurant & Bar**  
루넨버그의 근사한 부둣가 전망을 자랑하는 올드 피시 팩토리 레스토랑 앤 바는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수상 경력이 화려한 지역 크래프트 맥주를 비롯해 현지 와인과 증류주를 곁들이며 진정한 노바스코샤식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

**More Info.**  
① 노바스코샤 차우더 트레일 리스트 novascotiachowdertrail.com  
**Side Trip.**  
① 트루로 Truro에 자리한 비스트로 22 Bistro 22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풍성한 크림과 감자베이스에 해물과 베이컨을 얹은 차우더를 선보인다. bistro22.ca



루더스 씨푸드 레스토랑 앤 브루 펍 Rudder's Seafood Restaurant & Brew Pub의 차우더. ©Tourism Nova Scotia / Dean Casavechia

### TRAIL 3 랍스터의 성지 노바스코샤 랍스터 트레일 Nova Scotia Lobster Trail

바다에서 식탁까지 노바스코샤 랍스터 트레일은 미식가의 마음을 언제나 설레게 한다. 노바스코샤를 상징하는 최상급 랍스터와 재능 있는 셰프가 현지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해낸 요리는 이곳으로 떠나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트레일 리스트의 레스토랑을 참고해 진정한 랍스터 미식 여행을 계획해본다. 랍스터 트레일에서는 전통 랍스터 디너는 물론 랍스터 크래커, 랍스터 롤 등 다채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노바스코샤의 랍스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랍스터 어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랍스터가 노바스코샤 어업의 중추를 이룬 덕분에 지역 주민들은 대서양에서 난 이 보석 같은 식재료를 즐기는 방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할리팩스 Halifax**  
**랏 식스 바 앤 그릴 Lot Six Bar & Grill**  
랏 식스 바 앤 그릴에서 경험하는 요리와 술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다양한 식자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테이블에 선보인다. 미국적인 요리 모두 노바스코샤 고유의 풍미와 테루아를 바탕으로 선보이는 점도 이색적이다. lotsix.ca

**더 프레스 갱 The Press Gang**  
1759년에 지어진 더 프레스 갱은 할리팩스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에 자리한다.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고급스러운 해산물과 육류, 가금류 요리를 선보이며, 특히 오이스터 바에서는 매일 세 종류 이상의 양식장 굴을 내놓는다. 와인, 싱글몰트 위스키, 클래식 칵테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thepressgang.ca

**파이브 피셔맨 Five Fishermen**  
파이브 피셔맨은 캐나다 대서양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꼽힌다. 유서 깊은 역사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품격 있는 음식, 엄선한 와인 리스트, 칵테일을 제공하기 때문. 프라이빗 다이닝 룸 혹은 바 테이بل에서 프리미엄 랍스터와 함께 와인을 페어링해 즐겨본다. fivefishermen.com

**남부 해안 South Shore**  
**그랜드 뱅커 바 앤 그릴 Grand Banker Bar & Grill**  
루넨버그 항구에 위치한 그랜드 뱅커 바 앤 그릴에서 신선한 현지 메뉴와 와인, 크래프트 맥주를 즐기는 일은 노바스코샤다운 저녁을 보내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가리비, 랍스터, 홍합, 해덕 등 클래식 메뉴는 노바스코샤 바다가 선사하는 풍요로운 해산물의 진가를 알려준다. grandbanker.com

**더 사우스 쇼어 피시 섹 The South Shore Fish Shack**  
루넨버그 항구 전망을 자랑하는 더 사우스 쇼어 피시 섹은 현지에서 조달하고 고전적으로 조리한 해산물 메뉴를 선보인다. 나란히 자리한 하프 셀 오이스터 바에서는 노바스코샤 해산물을 현지 크래프트 맥주 혹은 칵테일과 함께 맛볼 수 있다. southshorefishshack.com

**솔트 셰이커 델리 Salt Shaker Deli**  
솔트 셰이커 델리는 노바스코샤 사우스 쇼어를 여행할 때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수상 경력이 화려한 마틴 루이즈 살바도르 Martin Ruiz Salvador 셰프가 지역의 해산물과 농산물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훈제 해산물 차우더, 크러스트 피자, 랍스터 롤이 인기 메뉴. saltshakerdeli.com  
**More Info.**  
① 노바스코샤 랍스터 트레일 리스트 novascotialobstertrail.com



루더스 씨푸드 레스토랑 앤 브루 펍의 랍스터. ©Tourism Nova Scotia / Hugh Whitaker

**DAY 1** **할리팩스 도착 후**  
**다운타운 둘러보기**

인천국제공항 → 할리팩스국제공항  
✕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or 몬트리올-할리팩스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할리팩스  
✕ 대한항공 인천-토론토-할리팩스  
할리팩스국제공항 → 할리팩스 다운타운  
🚌 MetroX 버스 320번, 소요시간 약 55분  
🚖 택시나 렌터카 이용 시 약 35분 소요

**DAY 2** **노바스코샤의 핵심**  
**할리팩스Halifax → 루넨버그Luneberg**  
**→ 페기스 코브Peggy's Cove**

노바스코샤의 주도인 할리팩스는 문화적 활기와 더불어 다채로운 미식, 워터프런트 산책을 두루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항구로 가서 4km 길이의 해안가 산책로를 거닐어본다. 27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팩스 씨포트Halifax Seaport 파머스 마켓을 방문하거나 양조장의 파티오에 앉아 독특한 풍미의 크래프트 맥주를 즐겨도 좋다. 할리팩스 시타델 유적지에서 잠시 군인이 되어보고, 21번 부두에 있는 캐나다 이민 박물관과 대서양 해양 박물관에 방문해 도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할리팩스 근교로 떠나 그림 같은 페기스 코브와 마흔 베이 그리고 루넨버그의 다채로운 가옥을 둘러본다. 케지무직 국립공원Kejimujik National Park은 미크로 암각화 등 선주민의 역사를 품고 있다.

**DAY 3**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로의 향해**  
**할리팩스Halifax → 샬럿타운**

**Charlottetown** 🚗 324km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이하 PEI)로 떠나는 날이다. 할리팩스에서 카리부Caribou까지 자동차로 약 2시간 걸리며, 우드 아일랜드즈Wood Islands까지 페리로 약 1시간 15분 이동해야 한다. 페리는 5~11월까지 운행하니 방문 시 참고할 것. 우드 아일랜드즈에서 샬럿타운까지 자동차로 약 45분 소요된다.

**More Info.**  
📍 PEI 페리 스케줄 확인하기  
ferries.ca/ns-pei-ferry/offers

**DAY 4-5** **빨간머리언을 찾아서**  
**샬럿타운Charlottetown →**

**캐번디시Cavendish**  
PEI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빨간머리언일 것이다. 이를 완벽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그린 게이블스Green Gables로 가야 한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팬들을 위한 곳으로, 모든 소설의 시초가 된 이야기 배경에 영감을 불어넣은 집이다. 1800년대 후반의 모습으로 복원한 빅토리아풍 방을 거닐어보고 빨간머리언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허깅, 포도원, 나무 그늘에서 농장 생활을 경험하고 책 속에 묘사된 산책로를 걸어봐도 좋다.  
**More Info.**  
📍 그린 게이블스 추천 여행 tourismpei.com/trip-ideas/itineraries/featured-itineraries/anne-of-green-gables-itinerary

**기차 여행, 9일 코스**  
**④ 비아레일 오션 구간**

비아레일이 제안하는 캐나다 대서양 횡단 여행을 떠나본다. 노바스코샤에서 출발해 PEI와 뉴브런즈윅을 거쳐 퀘벡으로 향하는 이 대장정은 캐나다 대서양 지역의 매력을 아우른다.



**숲이색 숙소**  
오션스톤 씨사이드 리조트Oceanstone Seaside Resort는 노바스코샤 주 인디언 하버Indian Harbour에 자리해 대서양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이드로 노르딕 스파Hydrothermal Nordic Spa에서는 노르딕 전통의 수치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명상 공간도 마련되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현지 셰프가 준비한 계절별 스파 음식은 건강한 풍미를 더한다. 유명한 등대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페기스 코브가 차로 몇 분 거리에 위치한다. oceanstoneresort.com

루넨버그의 노을. ©Tourism Nova Scotia / Acorn Art&Photography

**DAY 6** **바다가 수놓은 작품**  
**샬럿타운Charlottetown → 호프웰 록스**

**주립공원Hopewell Rocks Provincial Park → 몽튼Moncton** 🚗 210km 🕒 2시간 30분  
바다가 호프웰 록스 주립공원의 화분 모양 바위를 조각하는 데 수천 년의 시간을 쏟았지만, 이 놀라운 경관은 만조와 간조 사이의 6시간 동안 누릴 수 있다. 간조 때 지형 곳곳을 탐험하고 나무로 덮인 독특한 사암 지형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자연에 감탄해보자. 만조 때는 카약을 타고 한때 우뚝 솟아 있던 해안 절벽 꼭대기를 둘러볼 수 있다. 안내 센터의 멀티미디어 전시관, 카페, 기념품 상점도 둘러볼 것을 추천하며, 방문하기 전 조수간만의 차를 확인하자. 이어서 몽튼, 디에프Dieppe, 리버뷰Riverview를 아우르는 그레이트 몽튼 지역을 둘러보며 영국과 프랑스 아카디아 문화가 어우러진 특유의 분위기를 엿본다.

**More Info.**  
📍 호프웰 록스 주립공원  
tourismnewbrunswick.ca/hopewell-rocks



호프웰 록스 ©Daniel Hanson



그린 게이블스 ©Tourism PEI / John Sylvester



비아레일 오션 구간의 기차내부 ©VIA Rail

**DAY 7-8** **프랑스인 정착지로**  
**🚗 뿔프와 Sainte-Foy → 퀘벡 시티Québec cité**

오전에는 셰디악Shediac으로 향한다. 랍스터의 수도로 불리는 이곳에서 즐기는 점심 식사는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다. 이후 몽튼에서 오후에 비아레일 기차를 타면 흔들리는 차창 너머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보며 식사도 즐기고 달콤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른 아침 뿔프와에 도착한다. 비아레일은 뿔프와와 퀘벡 시티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퀘벡의 주도에서 유럽의 정취를 느낄 차례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올드 퀘벡 역사 지구를 산책하며 박물관과 역사 유산을 둘러보고 자갈길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상점과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본다. 뒤프앵 테라스Terrasse Dufferin에서 세인트로렌스 강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고, 웅장한 샤토 프롱트낙Château Frontenac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여전히 군사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타델에 방문할 때에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이곳에 영국군 요새가 들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어본다. 생장 밥티스트 Saint-Jean-Baptiste와 리모일루Limoilou에는 다채로운 레스토랑, 브루어리, 디저트숍이 자리한다.

**DAY 9** **도시와 자연**  
**🚗 퀘벡 시티Québec cité → 몬트리올**

**Montreal**  
퀘벡 시티에서 몬트리올까지는 수시로 운행하는 비아레일 기차로 이동할 수 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하면 라운지 이용을 비롯 식사 서비스와 주류 이용이 가능하다. 몬트리올은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랑스어권 도시 중 하나다. 마일엔드Mile-End의 트렌디한 카페와 상점에 방문하고, 플라토 몽로열Plateau Mont-Royal과 프띠 파트리 Petite Patrie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인증샷을 남기거나 장 탈롱마켓Jean Talon Market에서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퀘티에 데 스펙타클스Quartier des Spectacles에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올드 포트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몬트리올은 녹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 라신느 운하Lachine Canal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거나 라퐁텐 공원Lafontaine Park에서의 피크닉도 즐겁다. 몬트리올 도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일드부세르빌 국립공원Parc national des îles-de-Boucherville은 녹지 공간과 자연 및 카누 코스를 갖추고 있다. 당일치기 여행으로 몽트랑블랑Mont-Tremblant 하이킹, 이스턴 타운십Eastern Township의 전원 마을, 라나우디에르 Lanaudière의 호수와 숲 지역도 추천한다.

**More Info.**  
📍 몬트리올 추천 여행  
viarail.ca/en/places/visit-montreal



그로스몬 국립공원 ©Barrett MacKay Photo



## 추천 드라이브 코스, 6일 이상 코스

### ⑤ 태고의 자연을 마주하다

북미 동쪽 끝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에서는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로스몬 국립공원의 때 묻지 않은 야생부터 해안 지대와 빙산, 그리고 바다에서 튀어오르는 고래까지, 자연의 경이를 선사하는 일생일대의 로드 트립을 떠나보자.

DAY 1

####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의 관문

**디어레이크Deer Lake**  
뉴펀들랜드의 디어레이크까지 시즌에 따라 캐나다의 주요 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할리팩스, 캘거리, 에드먼튼 등에서 국내선이 연결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웨스트젯 등을 통해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 도착해 디어레이크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으로 환승하면 된다. 지역 날씨 상황에 따라 비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DAY 2

#### 지구의 속살로 떠나다

**디어레이크Deer Lake → 그로스몬 국립공원Gros Morne National Park**  
☎ 31.5km  
디어레이크에서 그로스몬 국립공원으로 진입하면 사방으로 맨살이 드러나듯 훑갈색 돌무더기, 흙더미들이 등장한다. 대지가 서서히 솟아오르며 몸집을 드러내는 곳은 트라우트강Trout River과 우디 포인트Woody Point 마을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그릇 모양의 테이블랜드Tablelands다. 5억 년 전, 판 활동에 의해 합쳐지던 고대의 두 대륙에 밀려 올라와 생성된 초대륙 판게아가 이후 약 1만여 년 동안 지속된 빙하기와 얼음덩어리에 의해 침식되면서 지구의 내면, 맨틀이 그대로 드러난 지형. 어떤 생명도 자라지 못할 것 같은 황량한 붉은 흙과 돌의 계곡 사이로 하이킹 투어를 떠나본다. 그로스몬 국립공원 디스커버리 센터에서는 지역 선주민의 공예품과 그로스몬 일대의 식생을 활용해 만든 약초와 음식 문화에 대한 증거들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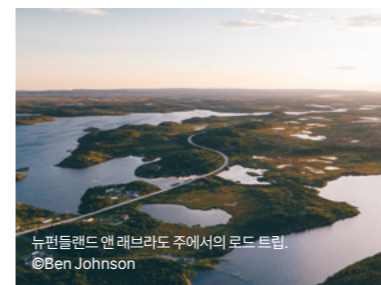
#### Stay.

☞ 그로스몬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그로스몬 인Gros Morne Inn은 재활용 자재 사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수력발전용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등 지속 가능한 철학을 고수하는 곳이다. 호텔 레스토랑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해산물만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오션와이즈Ocean Wise의 인증을 받았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훌륭한 식사가 그로스몬의 거친 자연을 탐험한 이후의 휴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 [grosormeinn.com](http://grosormeinn.com)

DAY 3

#### 볼모지에서 자라는 태고의 자연

**그로스몬 국립공원Gros Morne National Park → 포트오쇼Port au Choix → 랑소메도우L'Anse aux Meadows**  
☎ 341km  
뉴펀들랜드 섬 왼쪽으로 세인트로렌스 만을 긴 해안도로를 따라 165km를 달리면 벨해협과 래브라도를 향해 길게 뻗은 그레이트노던반도 중간 부근에 위치한 포트오쇼에 닿는다. 캐나다 국립 역사 유적지인 이곳은 1969년 고고학자들이 해양 고대인Marine Archaic의 매장 흔적을 발견한 곳이다. 선주민은 이 일대에서 혹독한 북극 겨울을 나기 위해 물개와 바다표범을 사냥했다고 전해진다. 포트오쇼 북쪽으로 229km를 달리면 랑소메도우에 도착한다. 1960년대에 1000년 전 바이킹들이 북미 대륙에 처음 도착한 흔적이 발굴되었고,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이곳에서는 바이킹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에서의 로드 트립. ©Ben Johnson

DAY 4-5

#### 벨해협을 건너 고래와 조우하다

**세인트바브Saint Barbe 항구 → 블랑사블롱Blanc-Sablon 항구 → 레드베이Red Bay → 랑사모르L'Anse-Amour → 블랑사블롱Blanc-Sablon 항구 → 세인트바브항구Saint Barbe → 카우헤드Cow Head**  
☎ 321km  
뉴펀들랜드의 세인트바브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래브라도의 블랑사블롱 항구로 향한다. 차로 1시간 가량을 더 달려 레드 베이 바스크 고래잡이 기지Red Bay Basque Whaling Station에 도착한다. 1540년대에 바스크인들은 이곳에서 고래잡이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육지와 수중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1580년대 포경이 가장 성행하던 시기에는 래브라도의 레드 베이에서만 1000명 이상의 남성이 일했다고 한다. 랑사모르에서는 포인트아무르Point Amour 등대까지 이어지는 트레일을 따라 가벼운 하이킹에 나서자. 운이 좋은 날에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고래 무리를 만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포인트아무르 등대 또한 인상적인 볼거리다.

#### More Info.

①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여행할 것을 추천한다. 주요 여행 시기이며,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아름다운 툰드라 식생과 고대의 지형을 감상하며 하이킹 트레일을 즐길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북극해와 남쪽으로 여행하는 고래와 물개, 바다표범, 퍼핀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해안 일대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DAY 6

#### 시간이 조각한 대자연

**카우헤드Cow Head → 웨스턴브룩폰드Western Brook Pond → 그린포인트Green Point**  
☎ 35.8km  
웨스턴브룩폰드 피오르는 그로스몬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지형이다. 2만5000년에서 1만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천천히 움직이며 조각한 피오르 지형을 보트 투어로 돌아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로스몬 국립공원에 위치한 웨스턴브룩폰드는 깊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애플래치아 산맥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롱레인지 산맥과 이어져 있다. 수심 165m, 길이 16km의 이 호수에는 대서양 연어, 브룩 송어, 북극 곤드매기 등이 서식한다. 보트 투어를 마친 이후에는 웨스턴브룩폰드에서 차로 15분 거리는 그린포인트로 향하자. 약 5억 년 전 고대바다에서 형성된 독특한 해안 절벽을 만날 수 있다.



퍼핀. ©Jackie Zheng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1** 할리팩스 도착

인천국제공항 → 할리팩스 국제공항

✈ 에어캐나다 인천-토론토 or 몬트리올-할리팩스

✈ 웨스트젯 인천-캘거리-할리팩스

✈ 대한항공 인천-토론토-할리팩스

할리팩스국제공항 → 할리팩스 다운타운

🚗 MetroX 버스 320번, 소요 시간 약 55분

🚗 택시나 렌터카 이용 시 약 35분 소요

**DAY 2** 노바스코샤의 주도 탐방

할리팩스Halifax

오전에는 할리팩스 워터프런트 일대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렌터카를 빌리거나 현지 투어를 이용해 루넬버그와 페기스 코브 등 근교 여행을 떠난다.

**More Info.**

🚗 노바스코샤주 교통편 안내 novascotia.com/explore-nova-scotia/getting-around/public-transit-and-shuttle-service-in-nova-scotia

🌐 하이킹 전문 여행사 부트프린츠Bootprints는 케이프 브레튼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6일간의 여정 동안 매일 캐벗 트레일의 아름다운 구간을 걷는다.

**Event.**

🍂 10일간의 가을 하이킹 축제 하이크더 하이랜드즈 페스티벌Hike the Highlands Festival에 참가하면 가이드 하이킹, 액티비티 등을 경험하기 좋다.

bootprintshikingtours.ca/tourcbhoverview.php

**DAY 3** 하이킹 여행의 시작

할리팩스Halifax → 케이프 브레튼 아일랜드Cape

Breton Ireland 🚗 369km

할리팩스에서 케이프 브레튼 아일랜드의 체티캠프 Cheticamp까지 자동차로 약 4시간 30분 걸린다.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Cape Breton

Highlands National Park 초입에 자리한

실버 라이닝 인 Silver Lining Inn에 체크인한 뒤

점심 식사를 하고 폭포가 포함된 가벼운 트레일을 하이킹한다.

**Hiking.**

👣 폭포 하이킹 6.5km / 2시간

**Stay.**

🏠 실버 라이닝 인 silverlininginn.ca

**DAY 4** 숨막히는 해안 절경

체티캠프Chéticamp

약 350m 높이의 산 정상에 오르면 바다와 계곡,

체티캠프 마을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전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무스, 대머리독수리

등이 서식하는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의

스카이라인Skyline 트레일 구간을 하이킹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트레일은 프렌치 마운틴French

Mountain 정상에서 구불구불한 캐벗 트레일이

내다보이는 전망대까지 이어진다. 고래가 자주

목격되는 세인트로렌스 만의 절경 또한 아름답다.

**Hiking.**

👣 뷰포인트 하이킹 8.4km / 3~4시간

👣 스카이라인 트레일 6.5km / 2시간

**Stay.**

🏠 실버 라이닝 인 silverlininginn.ca

**DAY 5** 고원이 바라보이는 트레일

체티캠프Chéticamp → 잉고니시Ingonish

🚗 115km

캐벗 트레일을 따라 잉고니시로 이동해본다. 짧은 폭포

산책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바다를 향해 솟아오른

고원이 펼쳐지는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잉고니시로 향하는 길에는 바다와 고원, 아스피

단층이 보이는 캐벗 트레일의 절경을 오롯이 누릴 수

있다. 빼어난 전망을 갖춘 잉고니시의 켈틱 롯지Keltic

Lodge에서 하룻밤 머물며 대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에

취해본다.

**Hiking.**

👣 폭포 산책로 1.7km / 30분

👣 오션뷰 하이킹 8km / 3시간 30분

**Stay.**

🏠 켈틱 롯지 kelticlodge.ca

**DAY 6** 험준한 해안 지대 탐험

잉고니시Ingonish → 베덱Baddek

🚗 92km

캐벗 트레일을 따라 베덱으로 이동하는 날. 짧고 가파른

구간을 오르면 잉고니시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파도가 험준한 해안 지대에 부딪히는

곳을 탐험한 뒤에는 잉고니시 비치로 간다. 캐벗

트레일의 헤드랜드 워크Headland Walk 구간을

따라 경치 좋은 길을 지나면 베덱에 도착한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브라스도 호수 부근에

자리한 텔레그래프 하우스 앤 호텔Telegraph House

&amp; Hotel에서 하룻밤 묵어본다. 19세기 목조 가옥에

들어선 이 숙소는 아늑한 객실과 정원, 레스토랑을 갖춰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딱 좋다.

**Hiking.**

👣 오르막 구간 2.3km / 1시간

👣 헤드랜드 워크 3.8km / 1시간 30분

**Stay.**

🏠 텔레그래프 하우스 앤 호텔 telegraphhouse.travel

**DAY 7** 호숫가와 선주민의 삶

베덱Baddek → 브라스도 호수Bras d'Or Lakes

오전 하이킹을 통해 광활한 브라스도 호수가 보이는

산 정상에 올라본다. 오후에는 에스카스니 퍼스트

네이션Eskasoni First Nation이 이끄는 도보 투어에

참여해 지역의 미크마크Mi'kmaq 문화를 알아볼 수

있다. 브라스도 호수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선주민의

관습과 역사에 대해 들려준다. 연기를 피워 스머지

의식에 참여하거나 빵을 만들고 전통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Hiking.**

👣 레이크뷰 하이킹 2km / 1시간 30분

👣 에스카스니 퍼스트 네이션 2.4km / 2시간 30분

**DAY 8** 하이킹의 마무리

베덱Baddek → 할리팩스Halifax 🚗 350km

노스 브랜치 강North Branch River을 따라 15m

높이의 폭포까지 이어지는 짧은 하이킹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베덱에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국립 사적지

Alexander Graham Bell National Historic

Site도 자리한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연구 활동을

했던 곳으로 그의 다양한 발명품을 전시하며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는 베덱에서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띄우기도 했다.

**Hiking.**

👣 폭포 하이킹 4km / 2시간

## 하이킹/자연 속 산책, 8일 코스

# ⑥ 단풍과 바다가 어우러진 캐벗 트레일

캐나다 동쪽 끝자락에는 매혹적인 하이킹 코스가 자리한다. 노바스코샤 주의 케이프 브레튼 섬Cape Breton Island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캐벗 트레일. 가벼운 산책로부터 험준한 언덕 구간까지 26개의 트레일이 놓인 이 길은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한층 아름답게 채색된다.

**숲이색 숙소**

날루 리트리트Nalu Retreat는 노바스코샤주 포터스 호수 Porters Lake에 위치한 웰니스 특화 글램핑 호텔이다.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s은 약 5m 높이의 천장과 파노라마 창문을 갖춘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부티크 호텔의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주방과 욕실뿐 아니라 벽난로, 전용 데크, 바비큐 그릴, 계절에 따라 이용 가능한 야외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르딕 스파뿐 아니라 숙련된 테라피스트들이 다양한 마사지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균형과 휴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할리팩스에서 약 40분 거리. nalurettreat.com

아웃도어 액티비티, 7일 코스

# ⑦ 해안 절벽에서 짜릿한 라운딩

노바스코샤는 해변부터 내륙, 산악에 이르기까지 골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러 골프 코스가 자리한다. 특히 캐나다 부동의 1위 골프 코스로 꼽히는 캐벗 케이프 브레튼으로 떠나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것은 물론, 대서양의 빼어난 자연을 만끽한다.

**DAY 1** 할리팩스 여행

노바스코샤의 주도 할리팩스에서 하루를 보낸다. 워터프론트에 자리한 할리팩스 메리어트 하버프런트 호텔 Halifax Marriott Harbourfront Hotel에 체크인한 뒤 도시 곳곳을 둘러본다. 밸런싱 록 커피하우스 Balancing Rock Coffeehouse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거나 스톤스 스로우 파티오 Stone's Throw Patio에서 항구 전경을 즐겨도 좋다. 하버스톤 Harbourstone에서 노바스코샤 최고의 해산물 요리를 맛보는 경험도 특별하다.

**Stay.**

☞ 할리팩스 메리어트 하버프런트 호텔 [marriott.com/en-us/hotels/yhzm-halifax-marriott-harbourfront-hotel](http://marriott.com/en-us/hotels/yhzm-halifax-marriott-harbourfront-hotel)

**Local Flavor.**

① 아틀란틱 캐나다의 추천여행코스 3번 (104P)에서 할리팩스의 맛집을 찾을 수 있다.

**More Info.**

② 노바스코샤 골프 패키지 6박 일정 [bestgolftrips.ca/nova-scotia-golf-packages](http://bestgolftrips.ca/nova-scotia-golf-packages)

**DAY 2-4** 캐나다 최고의 골프장

할리팩스 Halifax → 캐벗 케이프 브레튼 Cabot Cape Breton  
☞ 344.4km

캐나다 최고의 골프 코스로 떠날 차레다. 대서양과 인버네스 Inverness 마을 사이에 자리한 캐벗 케이프 브레튼은 노바스코샤의 그림 같은 1.6km 길이의 해변을 아우른다. 이 리조트는 <골프 매거진> 선정 2024-25 세계 100대 골프 리조트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2개의 골프 코스를 비롯해 46개의 스킬 넘치는 골프 홀, 수상 경력이 화려한 객실, 훌륭한 요리를 내는 레스토랑 등 구석구석 세심하게 설계된 일생일대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각기 다른 스타일의 코스로 구성된 캐벗 링크스 Cabot Links와 캐벗 클리프스 Cabot Cliffs에서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Stay.**

☞ 캐벗 케이프 브레튼 리조트 [cabotcapebreton.com](http://cabotcapebret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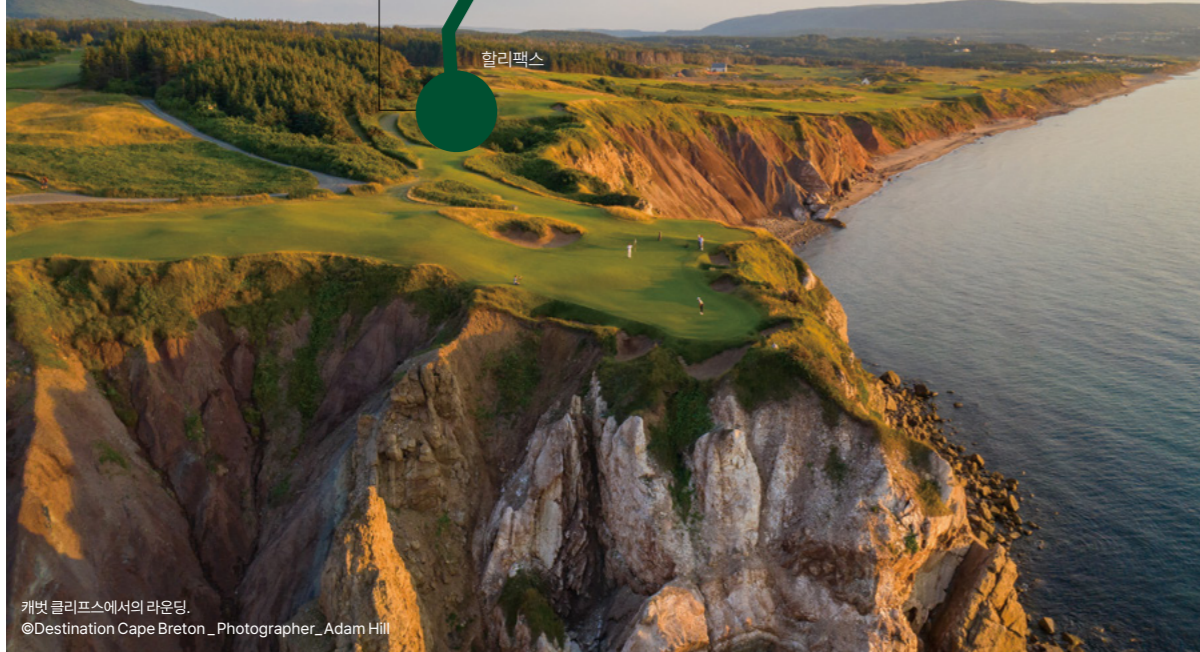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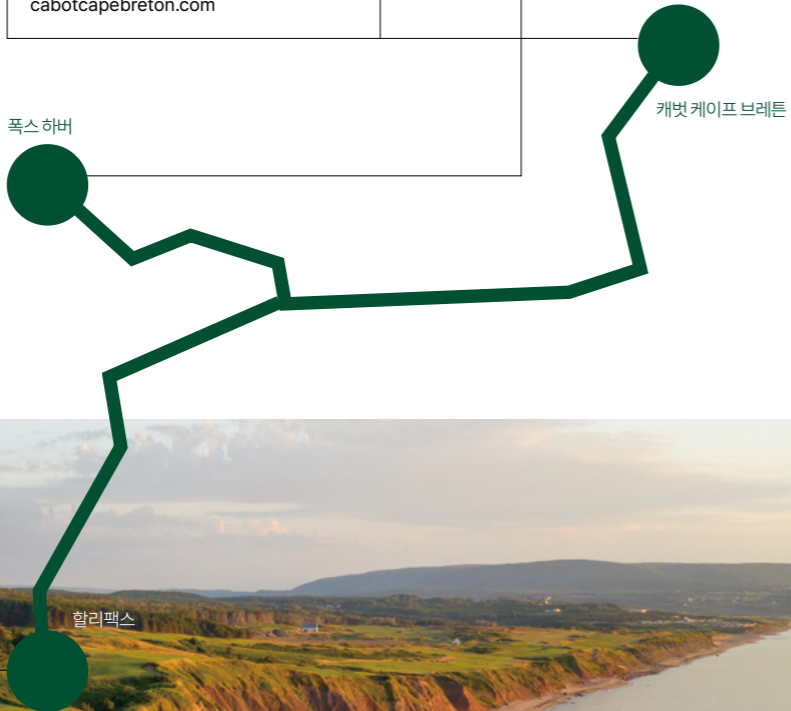
**DAY 5-7** 정교한 플레이

캐벗 케이프 브레튼 Cabot Cape Breton → 폭스 하버 Fox Harb'r ☞ 285.5km

캐벗 케이프 브레튼에서 잊지 못할 골프 라운딩을 즐겼는가. 감동의 여운은 노바스코샤의 드라마틱한 노섬벌랜드 해안 Northumberland Coast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폭스 하버 리조트 Fox Harb'r Resort는 시대를 초월한 럭셔리를 선사하는 곳이다. 전설적 기업가 론 조이스 Ron Joyce가 설립한 이곳에는 세계적 수준의 골프 코스는 물론, 고급스러운 다이닝, 럭셔리 스파 등을 갖춰 노바스코샤 골프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해준다. 캐벗과 또 다른 자연 풍광을 만끽하며 폭스 하버와 노섬벌랜드 링크스 2개의 링크에서 골프 라운딩을 즐겨본다.

**Stay.**

☞ 폭스 하버 리조트 [foxharbr.com](http://foxharbr.com)



캐벗 클리프스에서의 라운딩.  
©Destination Cape Breton\_Photographer\_Adam Hill

아웃도어 액티비티, 2일 코스

# ⑧ 바다에서 카약 타기

노바스코샤 주의 해양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바다에서 카약을 타자. 붉은 모래사장에서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노를 저으며 드라마틱한 해안 절경과 조우할 수 있다. 참고로 뉴브런즈윅 주의 동트 일정과 연계하기 좋다.

**DAY 1**

할리팩스에서 출발

할리팩스 Halifax → 스파이스 코브 Spicer's Cove ☞ 247km

케이프 치넥토 공원 Cape Chignecto Park의 인상적인 해안 절경을 따라 바다 카약 모험을 떠난다. 스파이스 코브에서 출발해 실 코브 Seal Cove에 도착할 때까지 2~3시간 동안 근사한 바위 지형을 탐험할 수 있다. 실 코브 부근 해변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는 텐트를 설치한다. 오후에는 절벽을 따라 그린 포인트 Green Point까지 펀디 국립공원 Fundy National Park의 절경이 펼쳐지는 왕복 1시간 코스의 하이킹을 떠날 수 있다. 물론 가이드와 함께 카약을 타고 웅장한 해안선을 좀 더 탐험해도 좋다. 저녁 식사를 위해 서쪽 방면의 해변에 도착하면 드라마틱한 일몰이 기다릴 것이다.

**DAY 2**

두 번째 날에는 느긋하게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즐긴 뒤 캠프 사이트를 정리한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다시 노를 저으며 출발 장소인 스파이스 코브로 돌아온다. 카약을 하는 도중에는 운이 좋으면 바다표범을 만날 수도 있다.

**More Info.**

☞ 노바쇼어스 어드벤처스 Novashores Adventures는 카약과 캠핑을 즐기는 1박 2일 일정의 바다 카약 투어를 제공한다. [novashores.com](http://novashores.com)

**식사**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강한 메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식재료는 직접 텃밭에서 재배하거나 현지 어부들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재료로 요리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캠핑 장비**

침낭을 제외한 모든 장비를 제공한다. 침낭 또한 C\$20의 추가 요금을 내고 빌리면 된다. 개인 장비를 보관하는 중형 드라이백 2개와 인원에 맞는 텐트가 포함되어 있다.

**주의 사항**

펀디 만의 만조와 간조는 최대 15m까지 차이가 나서 세계 최대의 조수 간만의 차를 경험할 수 있다. 밀물 때 물로 덮여 있던 해변은 썰물 때 드러나 광활한 자갈밭으로 변한다. 이런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라 카약을 띄우고 착륙하는 시점이 달라지며 캠핑장까지의 거리 또한 변할 수 있다. 조류에 따라 장비를 운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케이프 치넥토 공원에서 카약을 즐긴다.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Scott Munn



카약 타다 만난 바다표범.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Patrick Rojo

아웃도어 액티비티, 5일 코스

# 자전거를 타고 섬을 누비다

한적한 농지를 지나는 조용한 시골 라이딩부터 도전적인 지형까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이하 PEI)는 다채로운 자전거 트레일이 마련돼 있다. 두 바퀴에 몸을 싣고 PEI의 매력적인 마을과 자연을 탐험해본다.

**ROUTE 1** 캐벗루프 Cabot Loop **62km**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살럿타운 캐벗 루프는 캐번디시 Cavendish의 마을과 바다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다. 트레일은 캐벗 비치 주립공원 Cabot Beach Provincial Park에서 시작해 켄싱턴 Kensington과 프렌치리버 French River로 이어진다. 라이딩의 초반 3분의 1 구간은 평탄하고 쉬운 지형이다. 켄싱턴과 프렌치리버 사이는 좀 더 길고 어려운 언덕 구간을 몇몇 만나게 되지만 매혹적인 경관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라이딩은 말피크 항구 Malpeque Harbor에서 마무리하자.

**More Info.**  
tourismpei.com/trip-ideas/itineraries/  
road-cycling-itineraries/cabot-loop-62-km

**ROUTE 2** 살럿타운 Charlottetown → 마운트  
스튜어트 Mount Stewart 루프

**68km**  
살럿타운 시내의 빅토리아 로우 Victoria Row에서 시작해 마운트 스텐워트의 작은 마을을 순환하는 당일 라이딩 코스다. 트레일은 아름다운 강과 농장이 자리한 한적한 포장도로를 따라 이어지며 대체로 경사가 완만해 초보자도 부담 없이 라이딩에 나설 수 있다. 중간에 나오는 일부 언덕 구간에서 자신의 운동 능력을 시험해보자.

**More Info.**  
tourismpei.com/trip-ideas/itineraries/  
road-cycling-itineraries/charlottetown-mt-stewart-loop-68-km



PEI에서 자전거를 즐긴다. ©Tourism PEI / John Sylvester

**ROUTE 3** 로드 셀커크 루트  
Lord Selkirk Route **51km**

로드 셀커크 루트는 서던 킹스 카운티 Southern Kings County의 농장과 등대를 지나 시골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다. 라이딩 도중 모직물 공장과 공예품 갤러리, 해안 레스토랑에서 잠시 쉬어 가도 좋다. 이 루트에는 PEI에서 가장 도전적인 언덕이 포함되어 있다. 32km에 이르는 추가 순환 구간까지 포함하면 총 길이가 82km에 이르게 하루 안에 완주하려면 숙련된 라이딩 경험이 필요하다.

**More Info.**  
tourismpei.com/trip-ideas/itineraries/road-cycling-itineraries/lord-selkirk-route-51-km

**ROUTE 4** 세인트 피터스 St. Peters 루프 &  
그리니치 Greenwich **58km**

두 가지 코스로 나뉜 이 루트는 세인트 피터스에서 시작해 하루 안에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하룻밤 머물며 느긋하게 라이딩을 즐겨도 좋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항구와 해변, PEI 국립공원 PEI National Park의 일부 구간을 지나게 된다. 세인트 피터스 루프의 지형은 라이딩 막바지의 몇몇 언덕을 제외하고 대체로 평탄하다. 그리니치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한 구간이 일부 있지만 초보자에게도 어렵지 않은 코스다.

**More Info.**  
tourismpei.com/trip-ideas/itineraries/  
road-cycling-itineraries/st-peters-loop-greenwich-58-km

**ROUTE 5** 틴밸리 Tyne Valley 루트 **42km**

틴 밸리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린 파크 Green Park에서 출발하는 루트다. 라이딩 도중에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살았던 목사관에 들려 글 박물관을 둘러보고 마이크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레녹스 아일랜드 Lennox Island 또한 방문해보자. 일부 경사가 있는 언덕을 통과해야 하지만 대체로 완만한 구간이 이어진다.

**More Info.**  
tourismpei.com/trip-ideas/itineraries/road-cycling-itineraries/tyne-valley-route-42-km

① 자전거 투어시 헬멧 착용은 필수



자전거를 타며 PEI의 단풍 만끽하기. ©Tourism PEI / Stephen DesRoches

# 알버타 여행도 통역되나요?

알버타 주에서 촬영한 국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가 OTT 채널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아래 소개하는 촬영지로 여행을 떠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보자.



캘거리의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 ©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의 가솔린 앨리(Gasoline Alley). ©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에서 운행 중인 증기기관차. ©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

## 캘거리의 과거

알버타 주의 최대 도시인 캘거리에 얽혀 있는 역사.

### 재현된 캐나다 서부 시대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 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는 18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캐나다 서부의 역사를 재현한 곳이다. 각기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1864년경을 배경으로 하는 허드슨 베이 컴퍼니 모피 교역 요새 Hudson's Bay Company Fur Trading Fort, 1880년대의 모습을 담은 철도 건설 이전의 정착촌 Pre-Railway Settlement Village, 1910년경을 재현한 철도 개척 도시 Railway Prairie Town,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모습을 담은 헤리티지 플라자 Heritage Plaza. 레트로 무드가 물씬 풍겨 사진을 촬영하기 좋으며 증기기관 열차를 타고 빌리지를 둘러볼 수 있다. 연중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린다. heritagepark.ca

###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거리

1880년대와 1930년대 사이에 조성된 캘거리의 스티븐 애비뉴 Stephen Avenue에는 역사적 건축물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 이곳은 캘거리의 중심이자 유일한 보행자 전용 거리로 9개의 주요 쇼핑센터, 부티크, 갤러리, 공연장, 레스토랑, 카페, 바, 호텔 등이 자리한다. 캘거리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내기 좋다.

### 아름다운 저택과 정원

로히드 하우스 Lougheed House는 1891년에 제임스 알렉산더 로히드 상원의원과 아내 이사벨라 하디스티 로히드를 위해 지어졌다. 저택은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며,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으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산책 장소이다. 캐나다의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lougheedhouse.com

## 캘거리 로컬처럼

공원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처럼 지내본다.

### 공원의 전망대

로터리 공원 남쪽 끝에 있는 마운트 플레전트 뷰포인트 Mt. Pleasant View Point는 캘거리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센터 스트리트 브릿지 Centre Street Bridge, 보우 강 Bow River,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 Prince's Island Park 그리고 저 멀리 로키 산맥까지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다. 공원의 산책로와 주변에 펼쳐진 잔디밭 덕분에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좋다. [calgary.ca/parks/rotary-park](http://calgary.ca/parks/rotary-park)

### 세 공원을 한꺼번에

베이커 공원 Baker Park 과 보몬트 공원 Bowmont Park, 데일 호지스 공원 Dale Hodges Park 은 하나의 루프 트레일로 연결되어 있다. 약 13km 길이의 이 트레일은 캘거리를 흐르는 보우 강을 따라 이어지며 포장된 길뿐 아니라 절벽을 따라 탐험할 수 있는 거친 길도 나타난다. 완주하는 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트레일 남쪽 끝에 있는 데일 호지스 공원은 채석장을 아름다운 습지대로 조성한 곳으로 폭우 시 빗물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 More Info.

캘거리의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크레센트 하이츠 지역 여행하기

[visitcalgary.com/things-to-do/stories-from-calgary/crescent-heights-guide](http://visitcalgary.com/things-to-do/stories-from-calgary/crescent-heights-guide)

### Local Flavor

#### 아침 식사는 여기, 갤럭시 다이너 Galaxy Diner

1996년 처음으로 에그 앤 베이컨을 선보인 이후 지역의 대표 맛집이 된 갤럭시 다이너. 입구 밖까지 늘어선 줄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오픈 키친에서 요리사들이 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사용해 조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전설적인 브렉퍼스트 부리토와 코디 스크램블 Cody Scramble (메타 치즈와 올리브, 토마토 등을 넣은 스크램블드 에그) 그리고 사워도 빵에 구운 바나나와 코코넛으로 만든 갤럭시 프렌치 토스트 등이 모두 맛있고, 메뉴에 곁들여 나오는 해시브라운과 토스트는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 활기찬 시장, 크로스로드 마켓 Crossroads Market

캘거리 파머스 마켓은 현지 농산물과 육류뿐 아니라 독특한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특히 지역 특산품인 소고기와 들소고기로 만든 수제 소시지 등은 놓칠 수 없는 별미. 다양한 공연 등도 열려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크로스로드 마켓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실내 시장으로 여름에는 야외에도 장이 열린다. 골동품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도 무려 150명 이상. 푸드홀에서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한다. [crossroadsmarket.ca](http://crossroadsmarket.ca)



크레센트 하이츠. ©Dave Lieske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 ©Travel Alberta / Chris Amat



밴프 타운에서 보이는 캐스캐이드 산 Cascade Mountain. ©Banff & Lake Louise Tourism / Paul Zizka

## 로키 산맥 산악 마을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자리한 마을에서 모험을 준비한다.

### 밴프 타운 Banff Town

밴프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밴프 타운은 해발 1,383m에 위치한다. 사방이 우뚝 솟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거리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작은 마을이라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도 좋은 편. 1883년 캐나다의 태평양 철도 건설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이후 1885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에 지정되면서 밴프 타운은 여행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야생동물 관찰과 하이킹, 스키 및 스노보드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되어준다. 숲속에 자리한 밴프 스프링스 호텔 Banff Springs Hotel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인 서프라이즈 코너 Surprise Corner는 사진 촬영 명소로 특히 유명하다. [banfflakelouise.com](http://banfflakelouise.com)

### 캔모어 Canmore & 카나나스키스 Kananaskis

과거 석탄 채굴 마을이었던 캔모어는 매력적인 산악 마을로 거듭났다. 밴프 국립공원 동쪽 경계에 위치해 별도의 국립공원 입장료 없이도 캐나다 로키 산맥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캔모어를 둘러싸고 있는 카나나스키스 컨트리 Kananaskis Country는 여러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자연보호 구역이다. 캔모어와 카나나스키스 컨트리에서는 하이킹과 캠핑, 카약, 낚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밴프 국립공원보다 덜 붐비므로 자연을 여유롭게 즐기기 좋다. [explorecanmore.ca](http://explorecanmore.ca)



카나나스키스 컨트리에서의 하이킹. ©Travel Alberta / AV Wakefield



홀스슈캐년. ©Travel Alberta/George Simhoni

## 공룡이 나타났다

알버타 남부의 배드랜즈Badlands에는 건조한 기후와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이 펼쳐진다. 게다가 지금도 공룡 화석이 발견되곤 한다. 배드랜즈를 만끽할 수 있는 세 장소를 소개한다. 캘거리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 홀스슈캐년Horseshoe Canyon

홀스슈캐년은 캐나다 배드랜즈 지역을 대표하는 지형 중 하나이다. 이름 그대로 말발굽처럼 U자 모양으로 굽어 있는 협곡의 독특한 풍경이 인상적. 암석층은 공룡이 호령하던 약 70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이 있으며 협곡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드럼헬러에서 서쪽으로 17km 떨어진 9번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다.

### 로열 티렐 박물관Royal Tyrrell Museum

드럼헬러에 자리한 로열 티렐 박물관은 공룡과 고생물학을 주제로 한다. 1884년 이 지역에서 7000만 년 된 공룡 머리뼈를 발견한 지질학자 조셉 티렐Joseph Tyrrell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6만 점 이상의 화석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실제 공룡 화석이다. 연구자들이 화석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다. tyrrellmuseum.com

### 공룡 주립공원Dinosaur Provincial Park

남동부의 공룡 주립공원은 세계적인 공룡 화석 발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약 75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 공룡이 번성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화석이 발견된다. 공룡 화석이 묻힌 장소를 탐험하고 직접 발굴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실제 화석이 발견된 곳을 따라가는 파슬 헌터스 트레일Fossil Hunters' Trail 등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공원 내에 캠핑장이 있어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감상하기 좋다.



로열 티렐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화석. ©Travel Alberta / Mike Seehagel



공룡 주립공원. ©Travel Alberta / Scott Bakken

## 놓칠 수 없는 캘거리

캘거리에서 꼭 봐야 할 명소가 여기 있다.

### 카우보이 문화의 정수

캘거리 스탬페드는 매년 7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데오 축제다. 카우보이가 참가하는 다양한 경기와 마차 경주, 각종 공연과 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서부 개척 시대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캘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인다. 그러나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캘거리 스탬페드의 샘 센터Calgary Stampede's Sam Centre가 이러한 문화를 생생하게 전한다. 인터랙티브 전시와 270도 영상 체험, 다채로운 예술 작품 등을 통해 '지상 최대의 쇼'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samcentre.calgarystampede.com

### 음악의 전당

캐나다의 국립음악센터Home of the National Music Center인 스튜디오 벨Studio Bell은 캐나다 음악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5개 층에 걸쳐 캐나다 음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운드 부스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캐나다 음악 명예의 전당에서 레전드 뮤지션을 찾아보거나 공연장에서 창의적인 현지 음악가들의 무대를 즐겨보자. studiobell.ca

### 도시의 전망대

캘거리 타워는 캘거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91m 높이의 전망대에서 도심과 보우 강, 로키 산맥 등의 풍경이 360도로 펼쳐진다. 일부 구간은 유리로 이루어져 발아래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스릴도 느낄 수 있다. 꼭대기에 위치한 스카이 360 레스토랑 앤 라운지는 천천히 회전하므로 식사를 하면서 캘거리의 전경을 두루 바라보게 된다. calgarytower.com



스티븐 애비뉴. ©Travel Alberta / Chris Amat



캘거리 타워의 스카이 360 레스토랑. ©Travel Alberta



알버타 부트 컴퍼니Alberta Boot Company에서의 쇼핑. ©Travel Alberta / Roam Creative

### 캘거리에서 반드시 쇼핑해야 할 이유

알버타 주는 주제가 없어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주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한 셈이다. 캘거리의 CF 치누크 센터CF Chinook Centre는 캐나다 서부 최대의 쇼핑몰로 백화점뿐 아니라 다양한 매장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영화관과 볼링장, 여러 레스토랑 등도 자리한다. 캘거리 북쪽 외곽에 위치한 크로스아이언 밀스CrossIron Mills에는 200여 개의 매장이 입점해 선택지가 폭넓다.

## 미드 속 그곳, 캘거리

종말 이후 미국을 횡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HBO 드라마 시리즈 <The Last of Us>의 시즌1은 모두 알버타 주에서 촬영되었다. 그중 캘거리가 출연한 장소를 안내한다.

### 4번가 플라이오버 4th Avenue Flyover

도심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가도로인 4번가 플라이오버는 황폐한 배경으로 변신해 2화에서 조엘, 테스, 엘리가 주청사로 향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물론 실제로 이곳은 폐허가 아닌 근사한 도시 풍경을 자랑한다. 근처에는 트렌디한 지역인 브릿지랜드 Bridgeland가 자리한다. 톰 캠벨스 힐 자연공원 Tom Campbell's Hill Natural Park으로 산책을 가면 보우 강과 캘거리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 캘거리 법원 센터 Calgary Courts Centre

캐나다에서 가장 큰 법원인 캘거리 법원 센터는 5화에서 저항군의 폭력적인 봉기가 벌어지는 장소로 등장했다. 극 중에서는 미국 우체국 건물로 설정되었지만, 실제로 이곳은 캘거리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도보 거리 내에 훌륭한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자리한다. 몇 블록만 걸으면 실내 식물원인 데보니언 가든 Devonian Gardens에 닿는다. 도심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 와일더 인스티튜트/캘거리 동물원 Wilder Institute/Calgary Zoo

기린은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모티브다. 9화에서는 기린과 마주한 엘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고,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되새긴다. 이 장면에서는 캘거리 동물원의 기린이 등장했다. 와일더 인스티튜트/캘거리 동물원에는 처칠에서 구조된 북극곰을 포함하여 119종, 약 1,0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동물원이라고 한다.



브리짓 바에서의 즐거운 식사. ©Travel Alberta / Cakewalk



캘거리 퀸스턴 Kensington 지역. ©Tourism Calgary

## 마스터 셰프의 캘거리

공인 마스터 셰프(Certified Master Chef, CMC)는 캐나다 최고 수준의 요리 전문가 자격증이다. 이 과정은 극도로 까다로워 2023년 기준, 단 5명의 CMC가 존재한다. 알버타 주에 사는 공인 마스터 셰프 마이클 알레마이어 Michael Allemeier가 캘거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을 공유한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통해 캘거리의 다문화성을 느낄 수 있다.

### 정통 딤섬, 골든 샌즈 Golden Sands

캘거리 북동쪽 손클리프 Thorncliffe 지역에 위치한 골든 샌즈는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데다 차이나타운 외부에 있지만 제대로 된 딤섬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알레마이어가 자주 주문하는 메뉴는 싱가포르 누들이다. 이 요리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이기도 하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골든 샌즈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피크 타임에는 긴 대기 줄을 피하기 위해 예약하는 것이 좋다.

### 일본식 카레, 퍼스트 애비뉴 코너 스토어 First Avenue Corner Store

퍼스트 애비뉴 코너 스토어는 인기 라멘집 시키 멘야

Shiki Menya에 붙어 있는 숨은 맛집이다. 이곳은 눈에 띄지 않는 뒷골목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마치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느낌을 준다. 일본식 카레는 걸쭉하고 향신료가 풍부한 스투 형태로 주로 고기와 감자, 당근 등을 넣어 만든다. 일본에 카레의 맛이 전해진 것은 1800년대 영국과 인도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일본식 카레는 전혀 다른 음식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이다.

### 셰프의 창의적 다이닝, 브리짓 바 Bridgette Bar

따뜻한 환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브리짓 바의 오픈 키친에서 셰프들이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곳은 최소한의 조리료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을 지향한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메뉴는 함께 나누어 먹기 좋은 요리로 구성되어 한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든다.

### + 흥미 가득한 동네

캘거리의 브릿지랜드-리버사이드 Bridgeland-Riverside 지역은 미식 선택지가 다양하다. 빌리지 Village 또는 메이드 바이 마커스 Made by Marcus의 수제 아이스크림, 릴 엠파이어 Lil' Empire의 입맛을 사로잡는 버거, 브릿지랜드 마켓 Bridgeland Market 같은 현지 식료품점 등등.

#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 캐나다 로키

올 여름, 캘거리 직항으로 편하게 떠나요



**WESTJET**  
Where your story takes off.

주요 여행사를 통해 지금 예약하세요.  
항공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